

제 2 장

세부 조사 결과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제2절 노동

제3절 경제활동

제4절 주거 및 이동

제5절 문화 및 여가

제6절 건강 및 삶의 질

제7절 가치관

제8절 사회통합

제9절 청년정책

제10절 표본 특성별 차이분석

제1절 주요결과 요약

1.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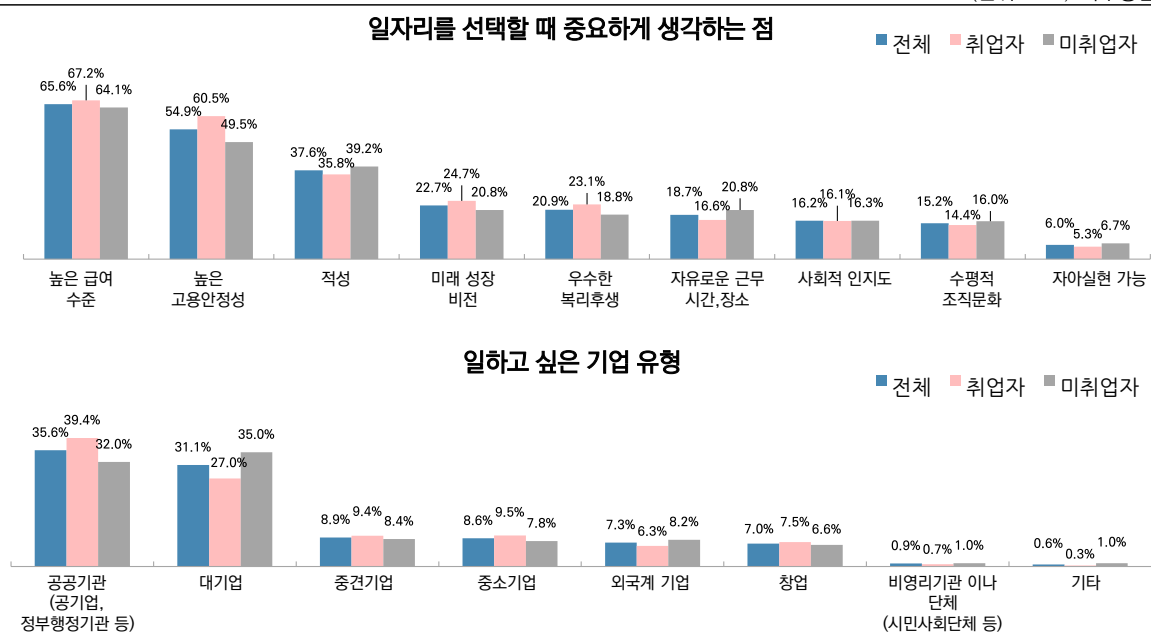
1) 일자리 특성

(1)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

- ▶ 일자리 선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급여', '고용안정성', '적성' 순
- ▶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은 '공공기관'

-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고용안정성에 대한 선호비율이 높았음(취업자 60.5%, 미취업자 49.5%)
- 선호하는 기업유형으로 취업자는 '공공기관(1순위)'의 선호가 높았고, 미취업자는 '대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았음

(단위 :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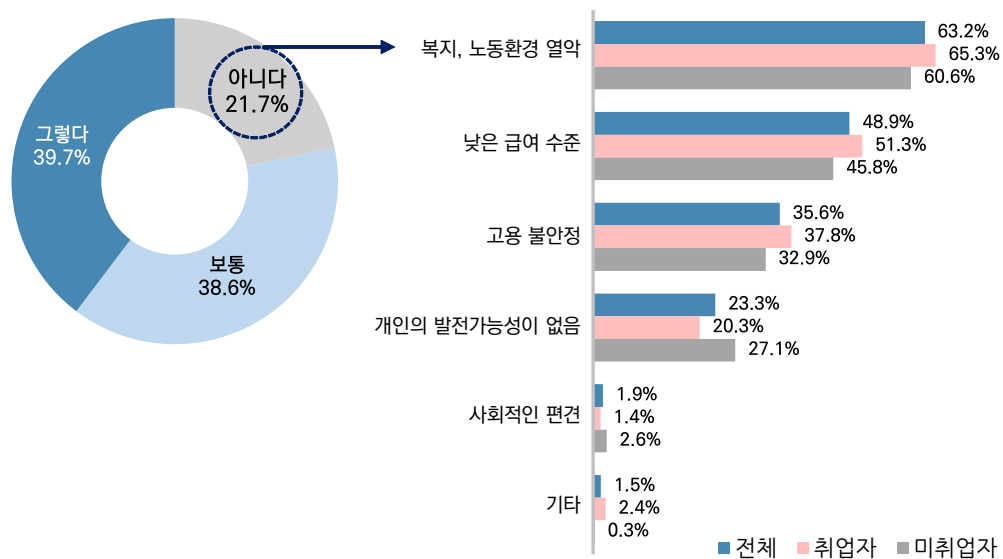
〈그림 2-1-1〉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_취업여부별

(2) 중소기업 취업 의사 및 취업 원하지 않는 이유

- 중소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취업한다는 응답은 39.7%
-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복지, 노동환경 열악', 낮은 급여 수준 순

-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중소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하겠다는 의사가 더 많았음(미취업자 42.1%, 취업자 37.3%)
-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복지, 노동환경 열악', '낮은 급여 수준', '고용불안정' 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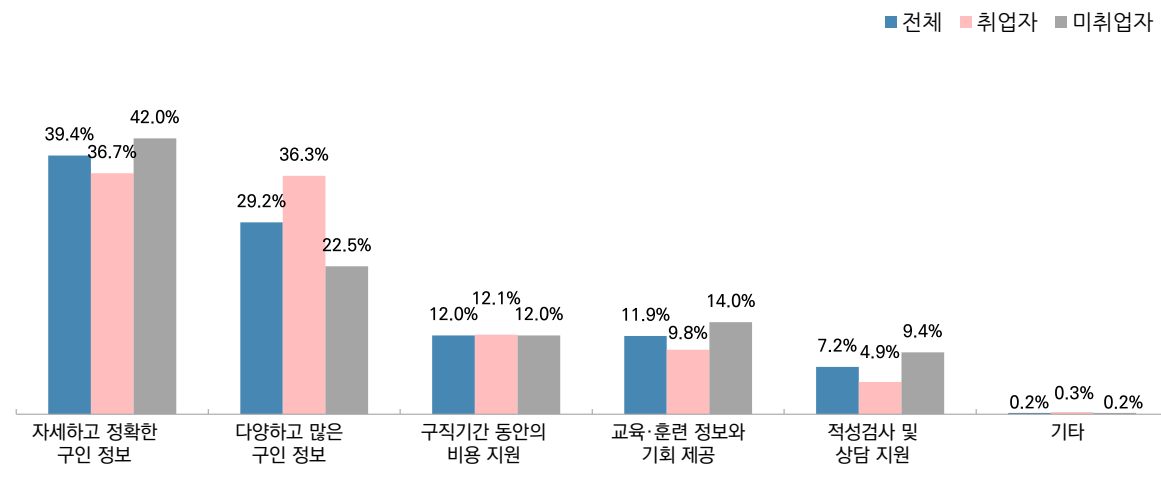
〈그림 2-1-2〉 중소기업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_취업여부별

(3) 구직 시 필요한 지원

➤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정보’, ‘다양하고 많은 구인정보’,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 순

- 미취업자는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취업자의 경우에는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에 대한 수요 역시 높은 편
- 미취업자의 경우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의 수요가 비교적 높은 편

(단위 : %)



〈그림 2-1-3〉 구직 시 필요한 지원_취업여부별

(4)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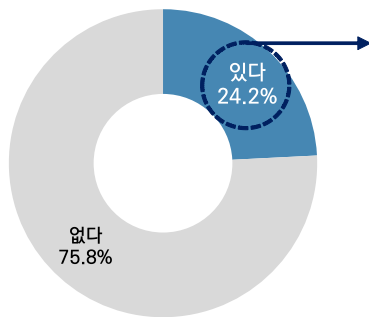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년은 24.2%

➤ 일자리를 그만둔 주요 이유는 '학업', '근무조건·환경 나쁨', '계약기간 만료'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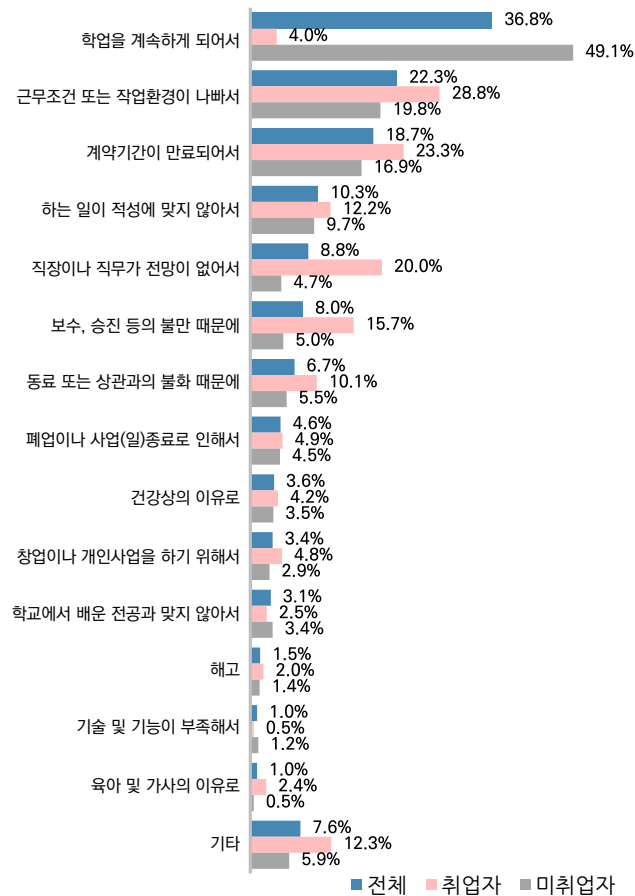
- 취업자가 일자리를 그만둔 주요 원인은 '근무조건·환경 나쁨', '계약기간 만료', '미래 전망 없음', '보수·승진 등의 불만'이 주요 원인
- 미취업자는 주로 '학업' 이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단위 : %)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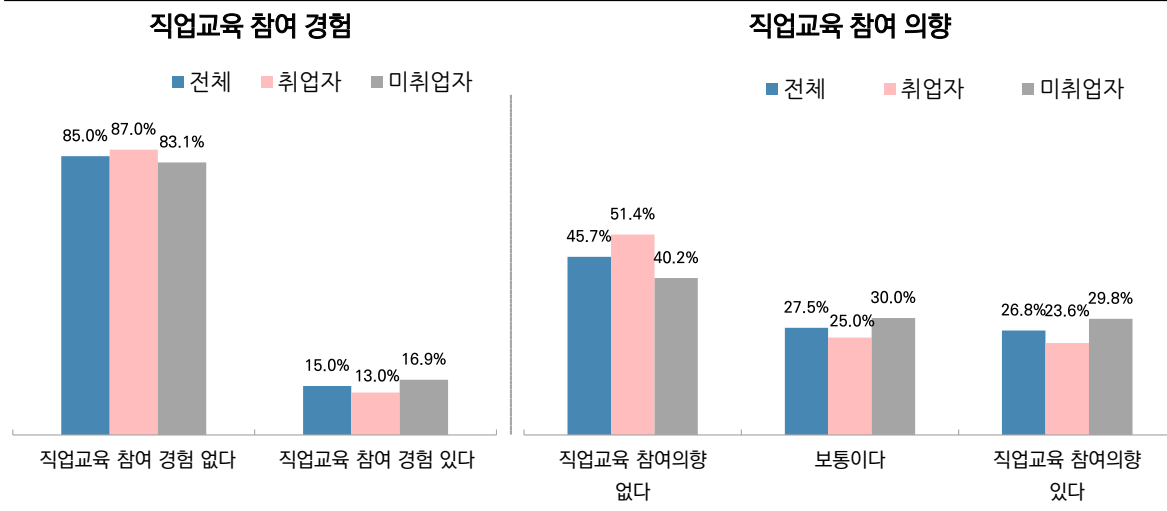
〈그림 2-1-4〉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_취업여부별

(5) 직업 교육

- 지난 1년간 직업교육 참여 경험의 경우 응답자의 85.0%는 참여하지 않음
- 응답자의 45.7%는 향후 6개월 이내 직업교육 참여 의향 없음

-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지난 1년간 직업교육 참여 경험이 많았음(취업자 13.0%, 미취업자 16.9%)
- '6개월 내 직업교육 참여 의향'은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높은 편(미취업자 29.8%, 취업자 23.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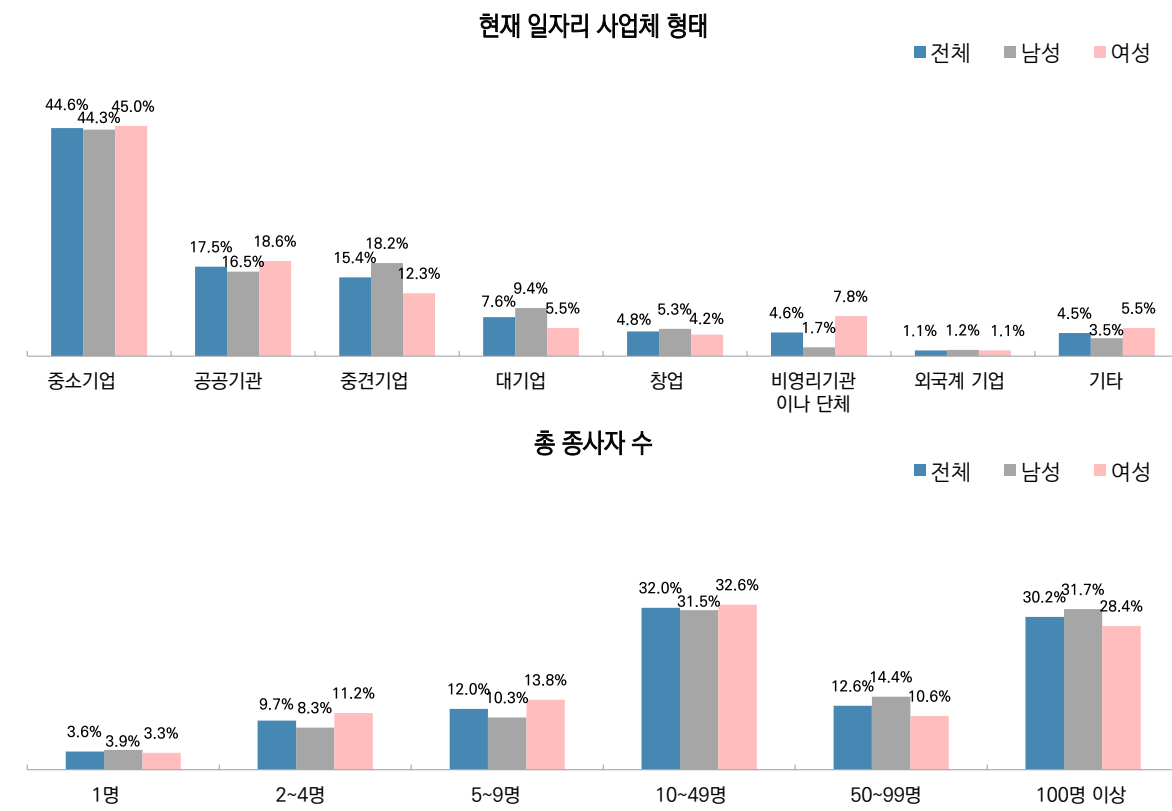
〈그림 2-1-5〉 직업교육_취업여부별

(6) 기업 특성

- ▶ 응답자의 44.6%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는 '중소기업'
- ▶ 응답자의 25.3%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는 10인 미만 사업장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여성이 남성에 비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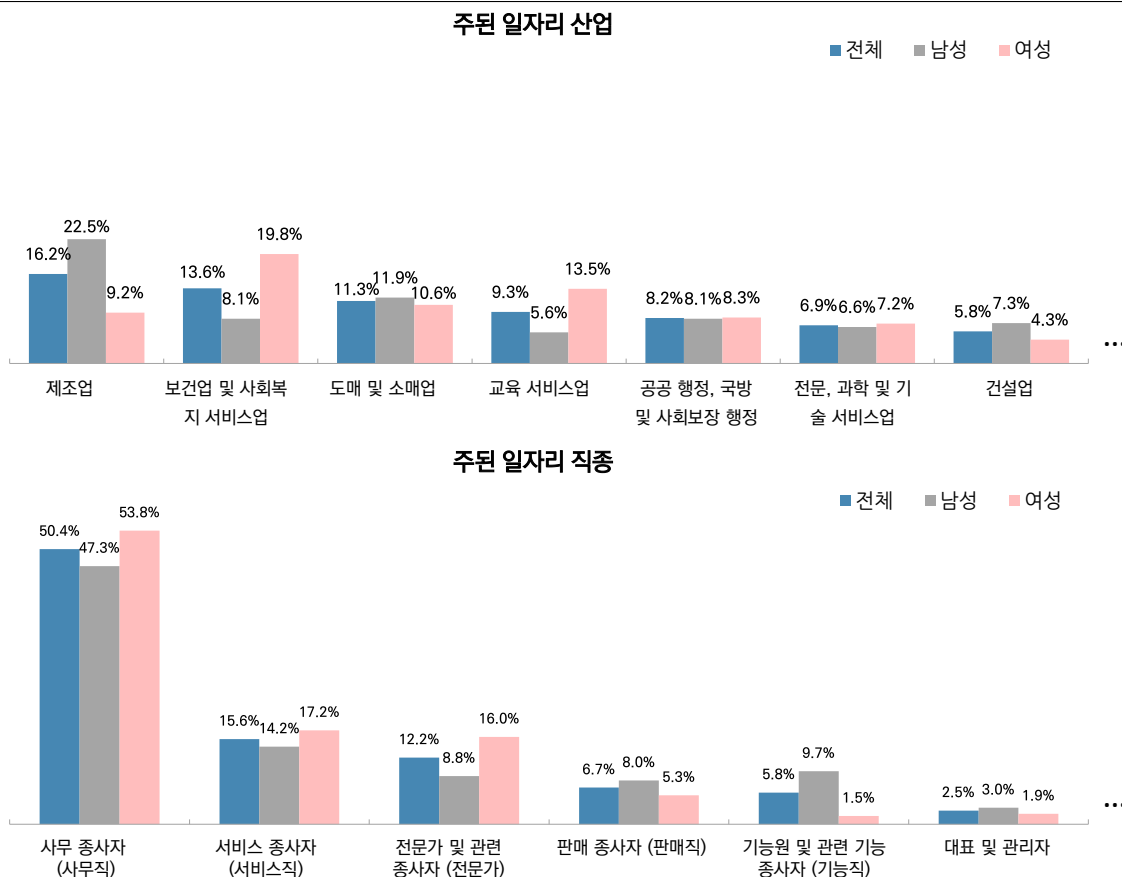
〈그림 2-1-6〉 기업특성_성별

(7) 개인 일자리 특성

- 주된 일자리 산업은 '제조업', '보건/사회서비스업', '도·소매업' 순
- 주된 일자리 직종은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순

- 남성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보건/사회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편
- 남성과 여성 모두 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편(남성 47.3%, 여성 53.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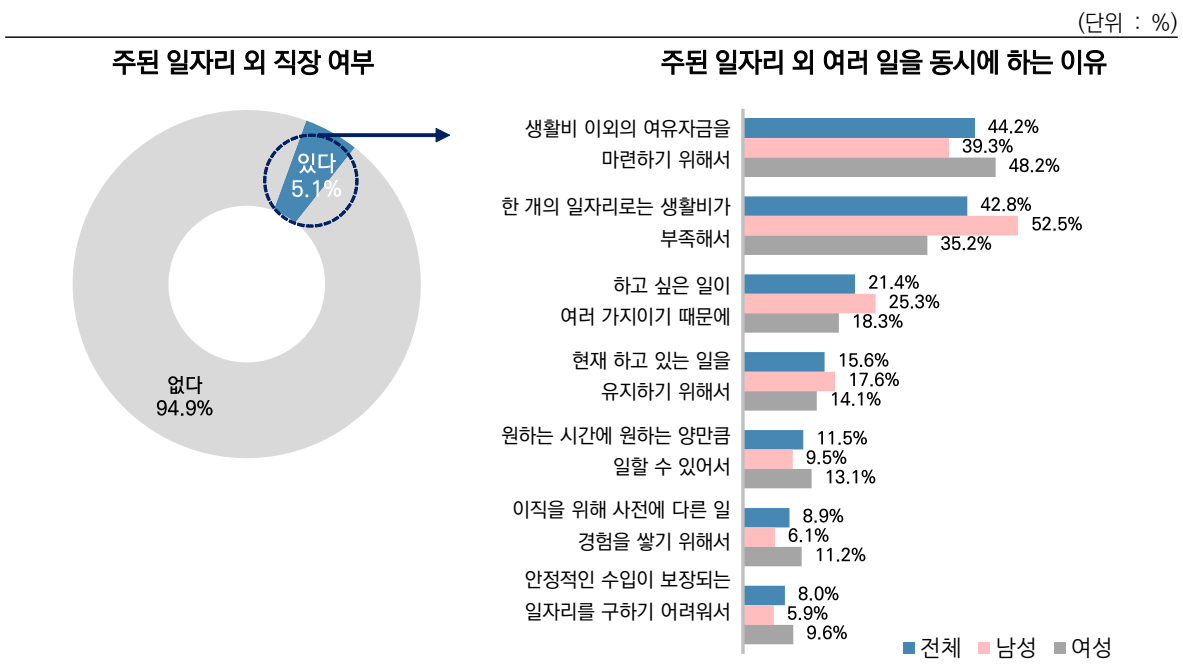
〈그림 2-1-7〉 개인 일자리 특성_성별

2) 직무 특성

(1) 겸업

- 주된 일자리 외에 겸업을 하는 청년은 응답자의 5.1%
- 겸업 참여 이유는 '여유자금 마련'과 '생활비 부족'

- 주된 일자리 외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남성은 '한 개의 일자리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여성은 '생활비 이외의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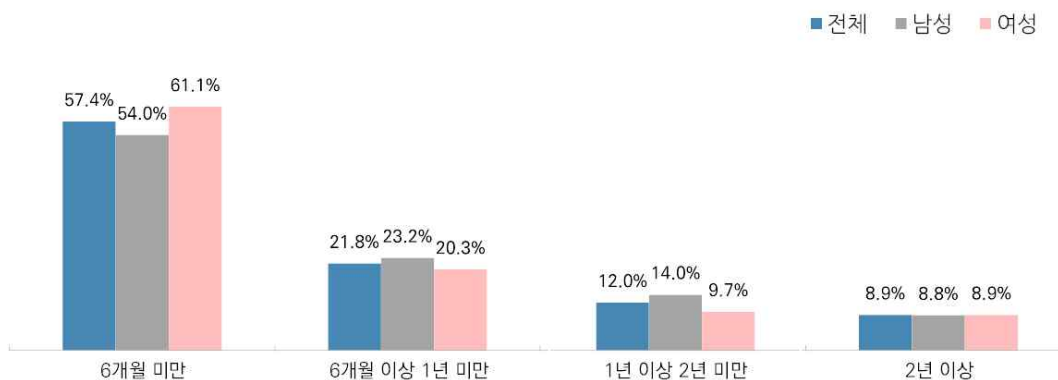
〈그림 2-1-8〉 겸업_성별

(2) 구직활동 기간

- 구직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응답자는 전체의 57.4%
- 구직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인 응답자는 20.9%

- 남성이 여성에 비해 구직활동 기간이 더 긴 편
- 구직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응답자는 여성 61.1%, 남성 54.0%

(단위 : %)



〈그림 2-1-9〉 구직활동 기간_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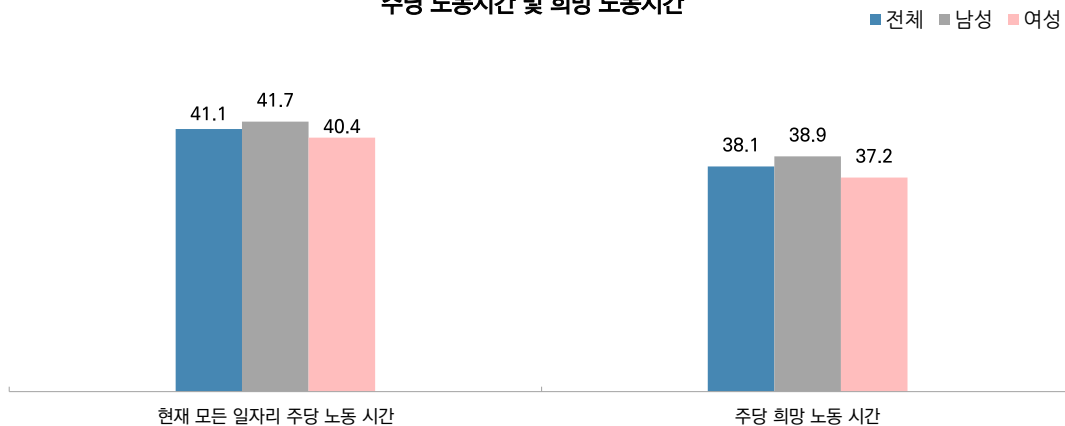
(3) 노동시간·소득

- 노동 시간은 1주 평균 41.1시간
- 희망 노동 시간은 1주 평균 38.1시간, 실제 노동시간과 2시간의 격차 발생
- 월평균 희망 소득은 305.6만 원,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약 3,67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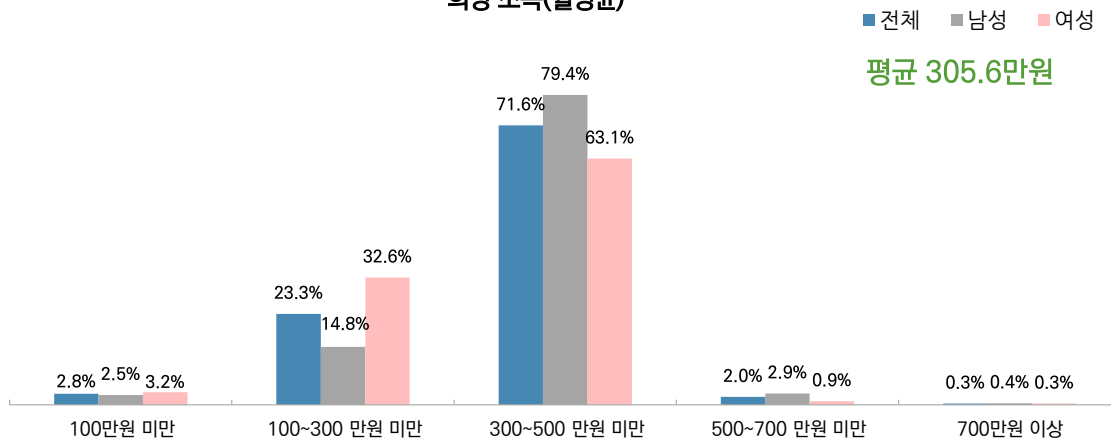
- 현재 일자리의 노동시간은 남성(41.7시간)이 여성(40.4시간) 보다 긴 편
- 응답자의 73.9%는 월평균 희망 소득이 300만 원 이상
- 남성이 여성에 비해 희망 소득 높은 편(남성 322.0만 원, 여성 287.5만 원)

(단위 : %, 시간, 만원)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노동시간



희망 소득(월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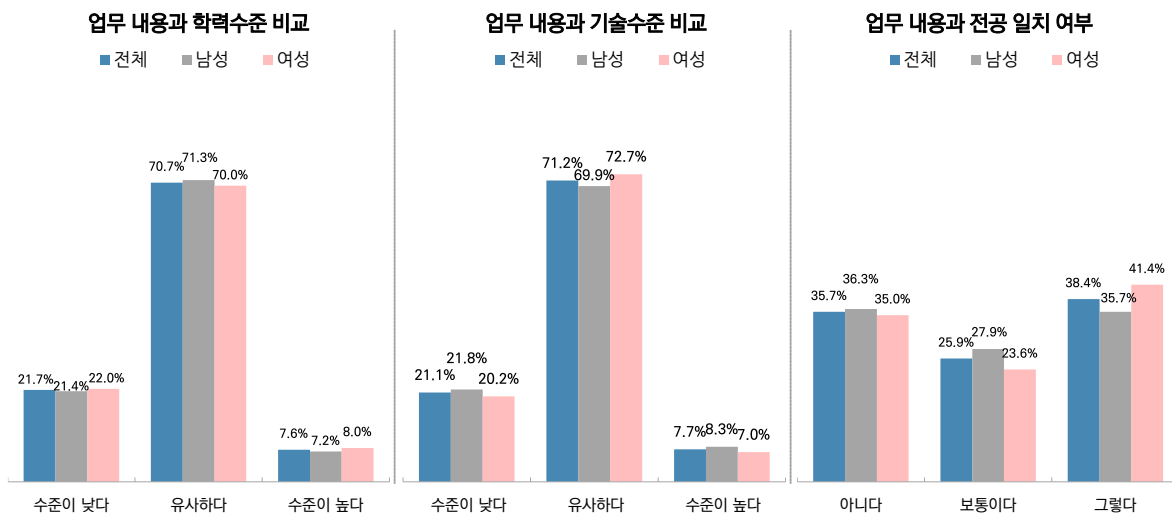
〈그림 2-1-10〉 노동시간 소득_성별

(4) 직무적합성

- 응답자의 21.7%는 학력 대비 현재 업무내용 수준이 낮다고 평가
- 응답자의 21.1%는 기술 수준 대비 업무내용 수준이 낮다고 평가
- 응답자의 35.7%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내용과 전공이 불일치한다고 응답

-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과 전공 일치 정도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여성 41.4%, 남성 35.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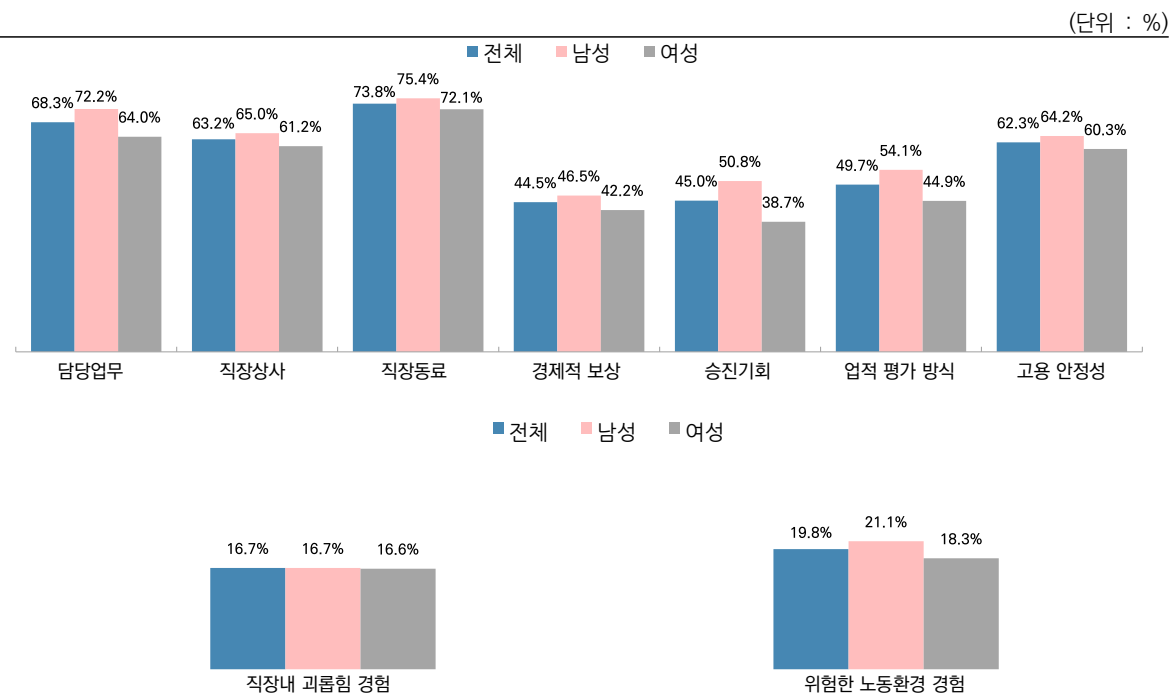


〈그림 2-1-11〉 직무적합성_성별

(5) 직무만족

- 현재 회사의 직장동료, 담당업무, 직장상사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높은 편

- 승진 기회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음(남성 50.8%, 여성 38.7%)
- 위험한 노동환경 경험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음(남성 21.1%, 여성 18.3%)



〈그림 2-1-12〉 직무만족_요약_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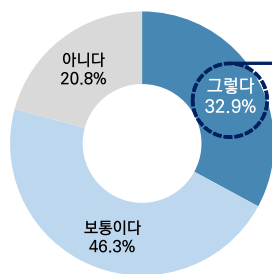
(6) 이직·창업 의사

- 응답자의 32.9%는 이직 또는 창업할 의향이 있음
- 이직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보수/복지', '개인발전/승진', '근무환경' 순
- 이직 또는 창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생계유지', '이직 또는 창업을 준비 중'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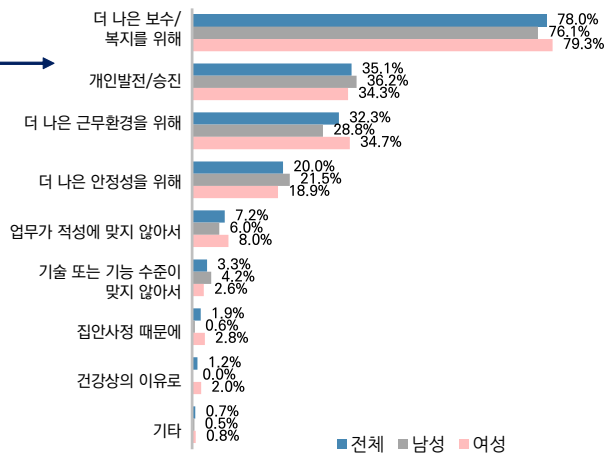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위해'이직 또는 창업을 희망, 여성들은 일하는 곳의 근무 환경이 중요한 이직 원인임을 시사(여성 34.7%, 남성 28.8%)
- 이직 또는 창업을 희망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당장 생계유지가 급해서'의 비율이 높았음(여성 32.1%, 남성 25.9%)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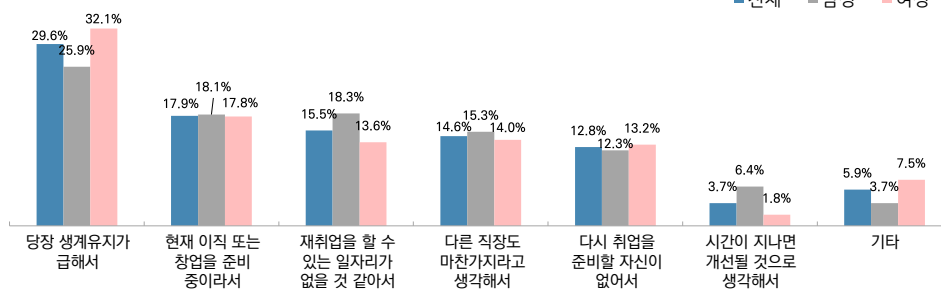
이직 또는 창업할 의향



이직 또는 창업하려는 이유



이직 또는 창업 의향이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



〈그림 2-1-13〉 이직·창업 의사_성별

3)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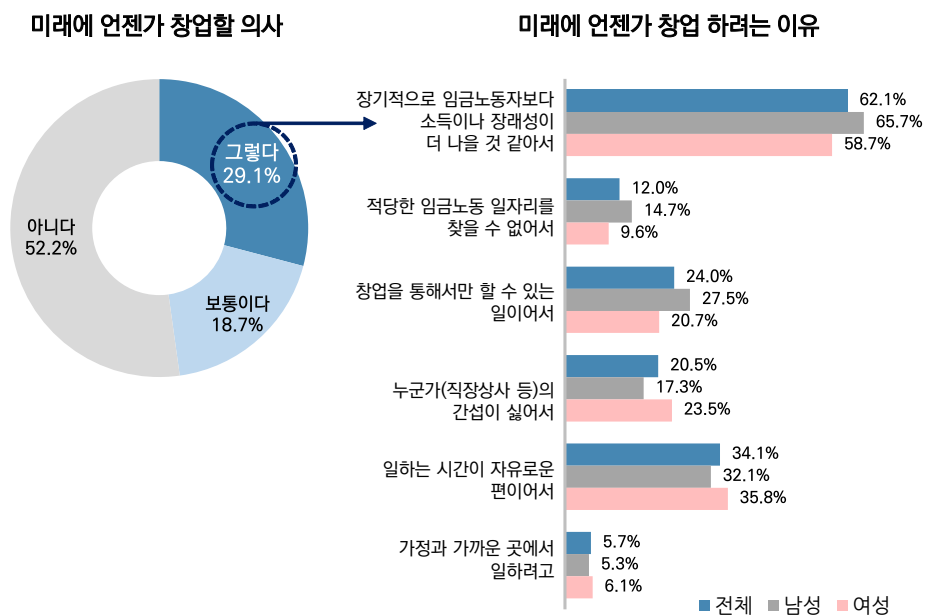
(1) 창업의향

① 취업자

- 취업자의 52.2%는 미래에 창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득이나 장래성',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워서', '창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 순
- 응답자의 12.0%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창업을 희망

- '장기적으로 임금노동자보다 소득이나 장래성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창업을 희망한다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편(남성 65.7%, 여성 58.7%)
- '적당한 임금노동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창업을 희망한다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편(남성 14.7%, 여성 9.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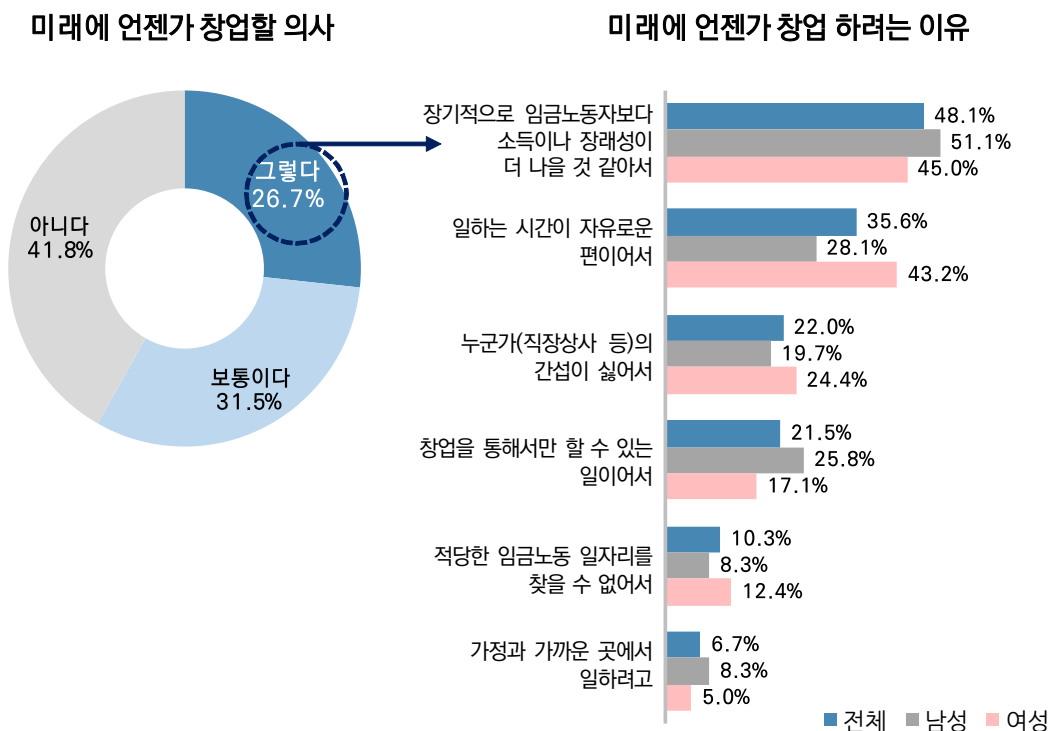
〈그림 2-1-14〉 창업인식-취업자_성별

② 미취업자

- 미취업자의 41.8%는 미래에 창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을 하려는 이유는 ‘소득이나 장래성’, ‘시간이 자유로운 편’, ‘누군가(직장상사 등)의 간섭이 싫어서’ 순
- 응답자의 10.3%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창업을 희망

- ‘장기적으로 임금노동자보다 소득이나 장래성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창업을 희망한다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편(남성 51.1%, 여성 45.0%)
- ‘적당한 임금노동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창업을 희망한다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편(여성 12.4%, 남성 8.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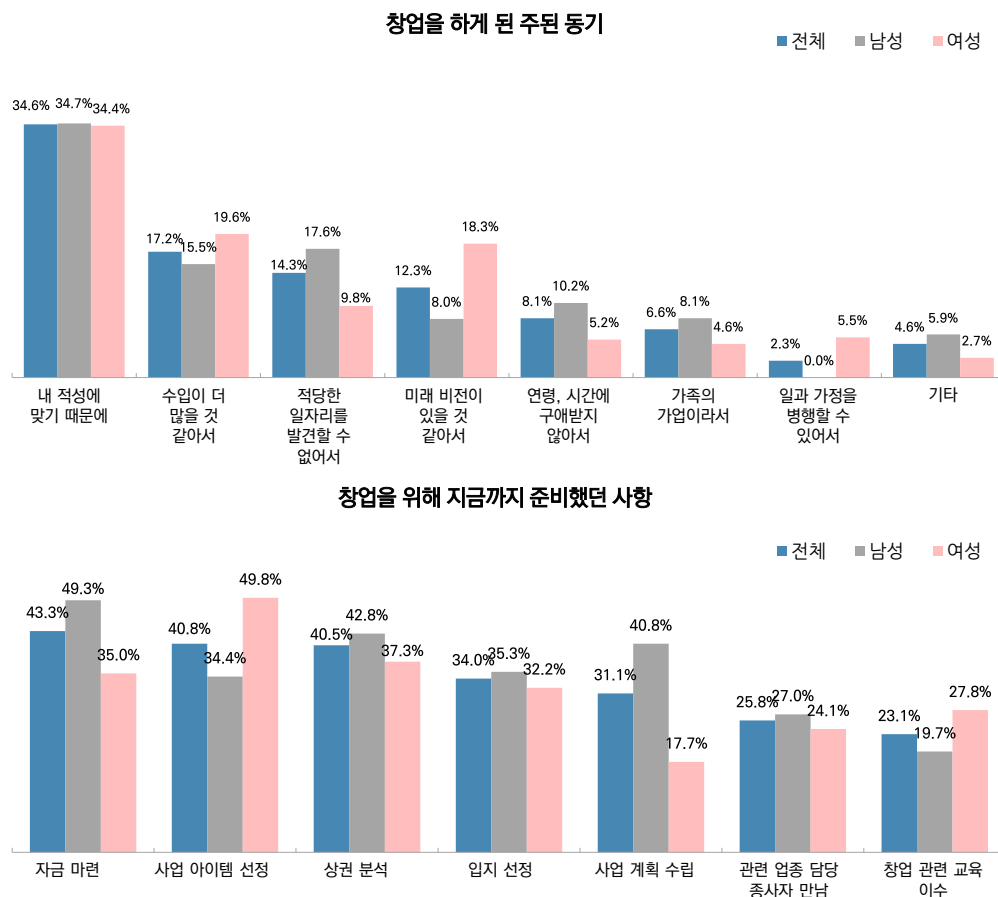
〈그림 2-1-15〉 창업인식-미취업자_성별

(2) 창업 및 운영

- ▶ 창업을 하게 된 주된 동기는 '적성', '수입', '적당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순
- ▶ 응답자 중 50.0%가 현재 사업체를 2년 이상 운영하고 있음

- 창업을 하게 된 주된 동기에 대하여 '적당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가 남성이 여성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음(남성 17.6%, 여성 9.8%)
- 창업을 위해 준비한 사항으로 '자금 마련'이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많았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남성 49.3%, 여성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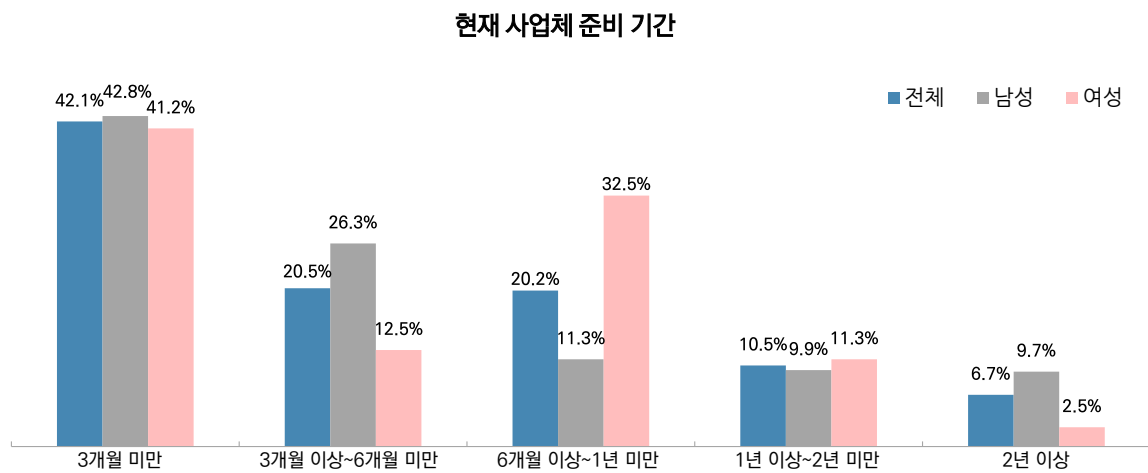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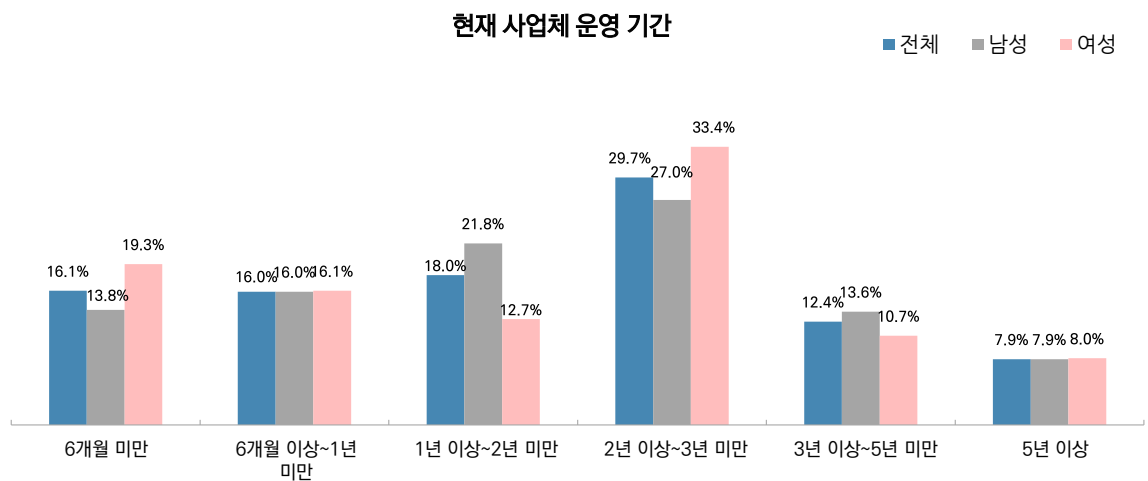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2-1-16〉 창업준비_성별

- 현재 사업체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음(여성 35.4%, 남성 29.8%)
- 현재 사업체 준비에 소요된 기간은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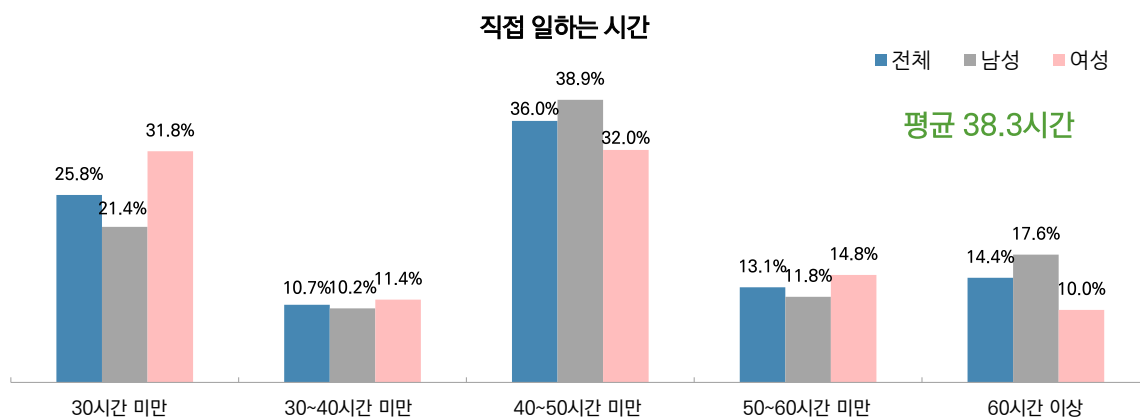
〈그림 2-1-17〉 창업준비_성별

(3) 사업체 운영 실태

- 주당 직접 일하는 시간은 평균 38.3시간
- 자영업자의 사업운영을 어렵게 하는 가장 주요 원인은 '경기침체 장기화', '경쟁심화', '높은 임대료' 순
- 한 달 평균 쉬는 날은 '한 달에 3~4일'이 가장 많았음

- 주당 일하는 시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음(남성 40.4시간, 여성 35.4시간)
- 주당 '30시간 미만'(하루 평균 4.3시간)으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음 (여성 31.8%, 남성 21.4%)
- 주당 '50시간 이상'(하루 평균 7.1시간)으로 일하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음(남성 29.4%, 여성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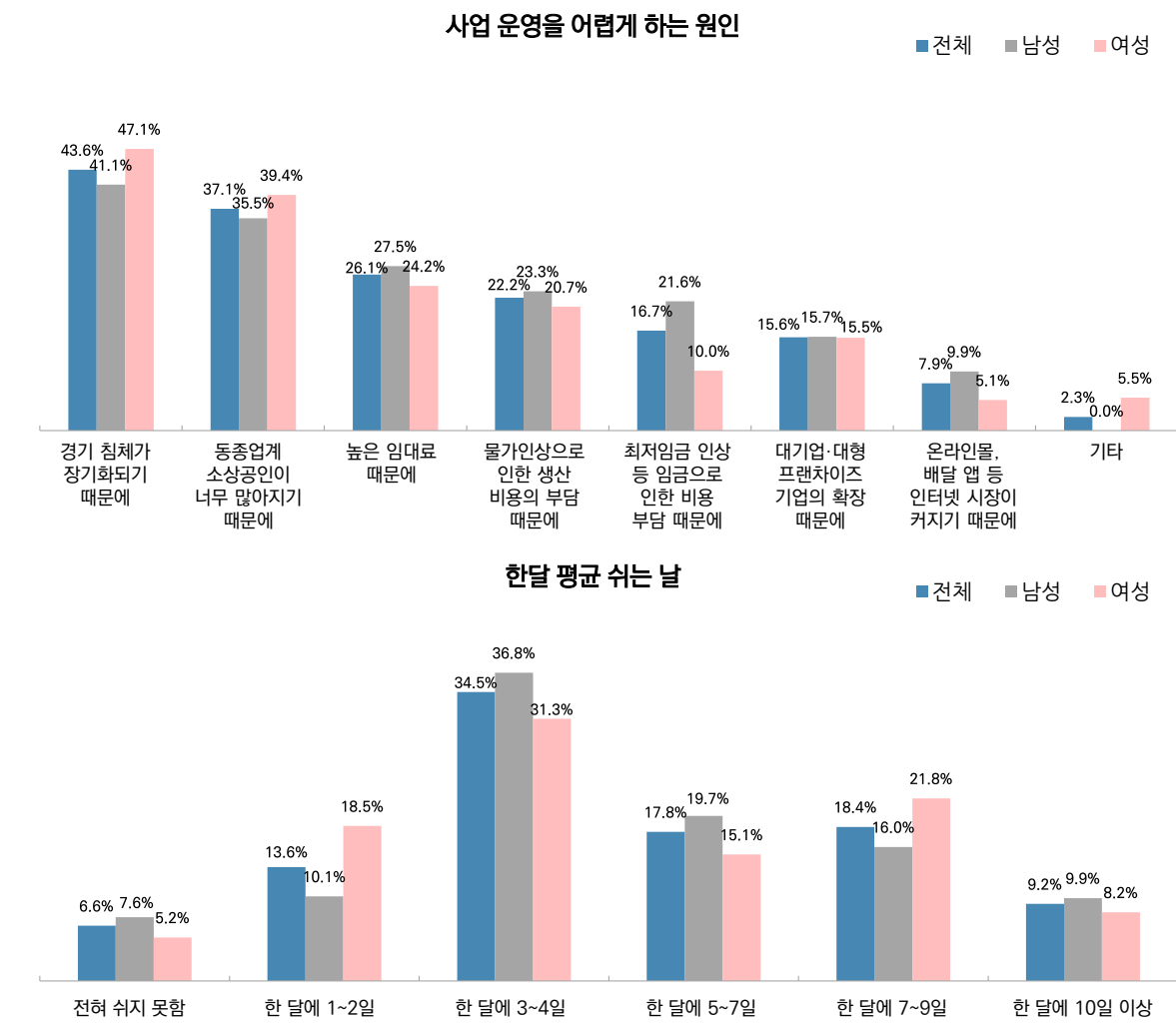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2-1-18〉 사업체 운영_성별

-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에 대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으로 인한 비용부담 때문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음(남성 21.6%, 여성 10.0%)
- 한 달 평균 쉬는 날에 대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한 달에 3~4일’ 응답 비율이 높았음(남성 36.8%, 여성 31.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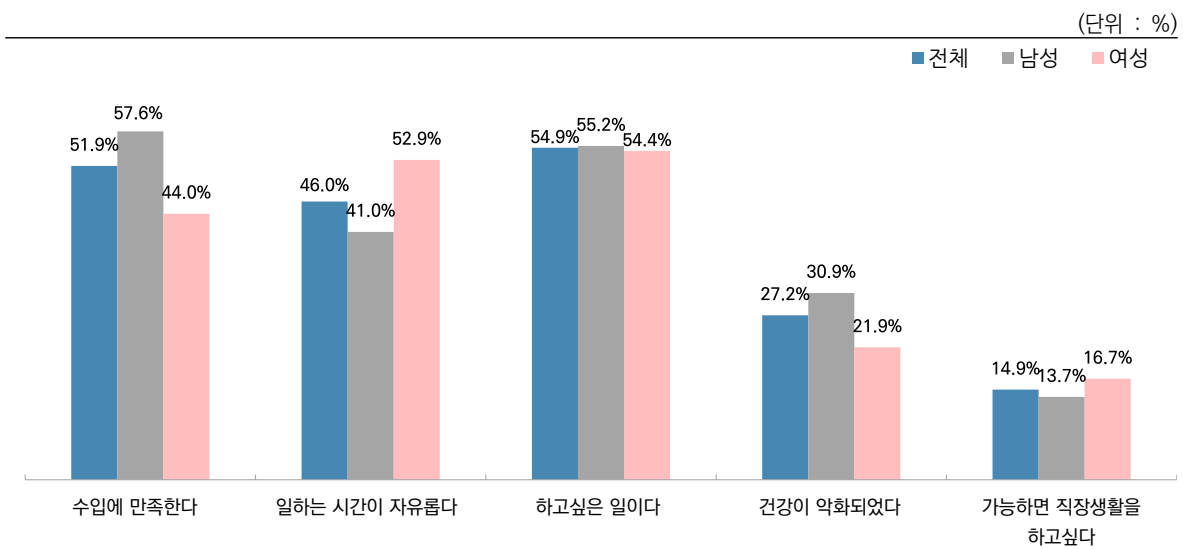


〈그림 2-1-19〉 사업체 운영_성별

(4) 창업 만족도

- 수입 만족도, 시간의 자유, 하고 싶은 일이었는지에 대해 ‘그렇다’ 응답 비율이 높았음
- 건강 악화, 직장생활이 하고 싶은지에 대해 ‘아니다’ 응답 비율이 높았음

- 개인 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에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남성 57.6%, 여성 44.0%)
-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지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여성 52.9%, 남성 41.0%)
- 건강이 악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여성 51.6%, 남성 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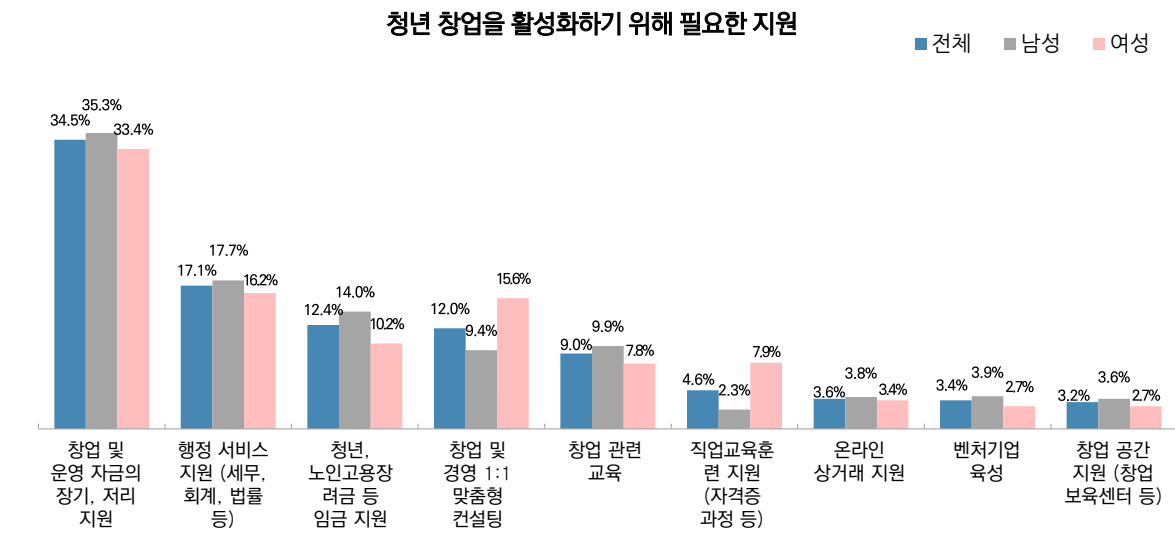
〈그림 2-1-20〉 창업 만족도_긍정응답 요약_성별

(5) 사업 운영 시 정부 지원

-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창업 및 운영 자금’
- 사업을 시작/운영하면서 지원받은 정책은 ‘경험 없음’, ‘창업교육’, ‘정책자금’ 순
- 창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지원 사업을 잘 몰라서’

-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노인고용장려금 등 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음(남성 14.0%, 여성 10.2%)
-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및 경영 1:1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음(여성 15.6%, 남성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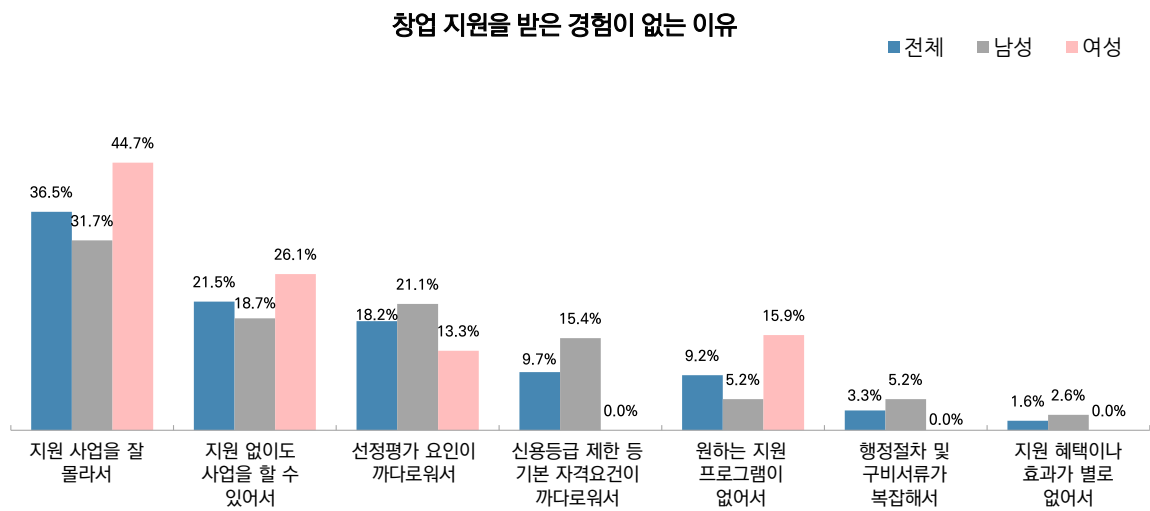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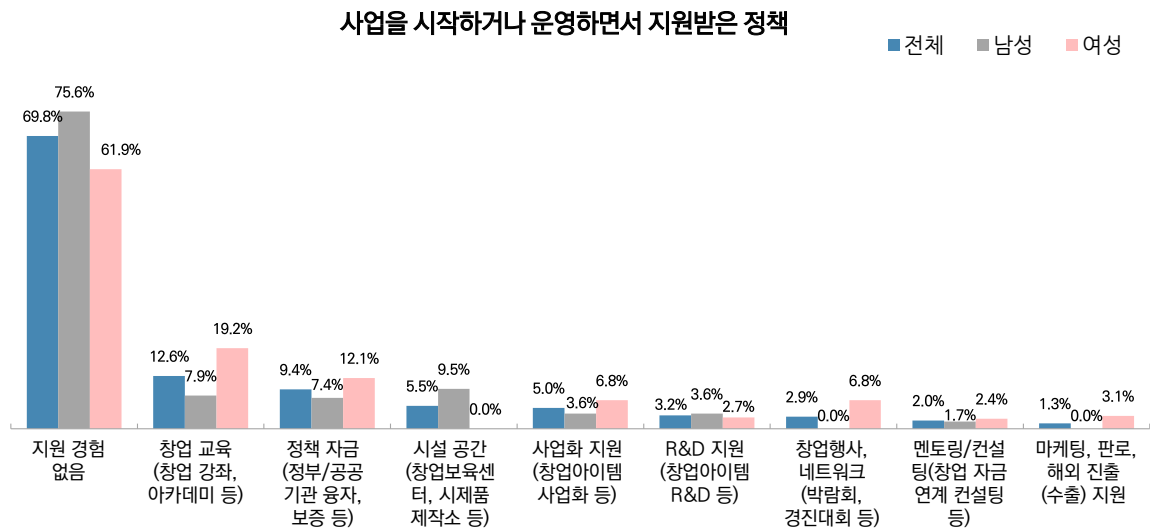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2-1-21〉 사업 운영 시 정부 지원_성별

-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면서 ‘창업 교육’ 지원 정책을 받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음(여성 19.2%, 남성 7.9%)
- ‘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서’ 창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음 (여성 15.9%, 남성 5.2%)
- ‘선정평가 요인이 까다로워서’ 창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음 (남성 21.1%, 여성 13.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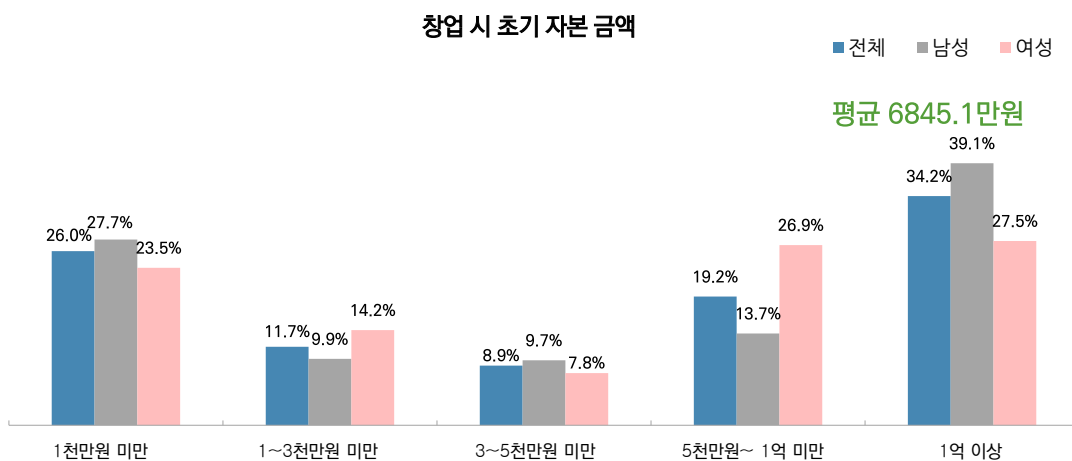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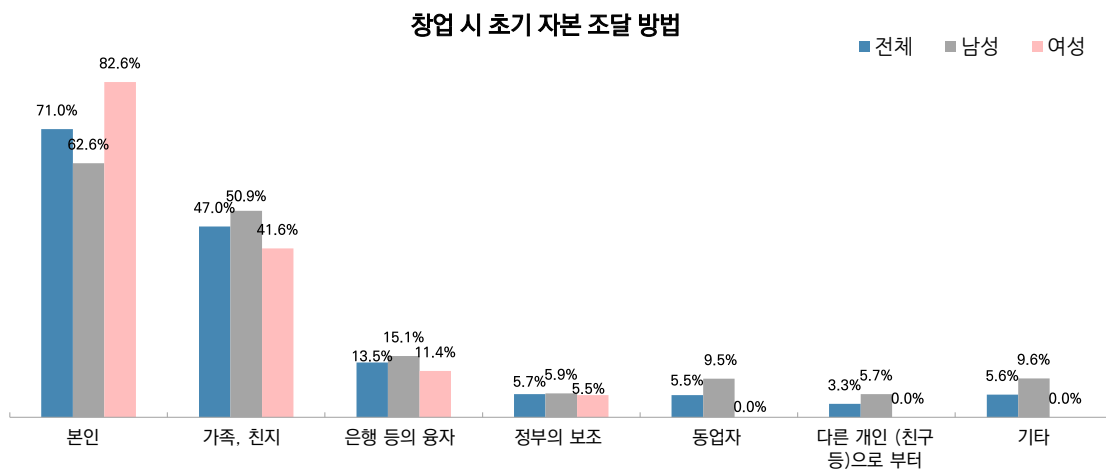
〈그림 2-1-22〉 사업 운영 시 정부 지원_성별

(6) 자본 조달

- ▶ 창업 시 초기 자본 조달 방법은 '본인', '가족, 친지', '은행 등의 용자', '정부의 보조' 순
- ▶ 창업 시 초기 자본 금액은 '1억 이상'이 가장 많았음

- 창업 시 초기 자본 조달 방법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서 '본인' 응답 비율이 높았음 (여성 82.6%, 남성 62.6%)
- 창업 시 초기 자본 금액 평균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음(남성 7,590.8만 원, 여성 5,811.7만 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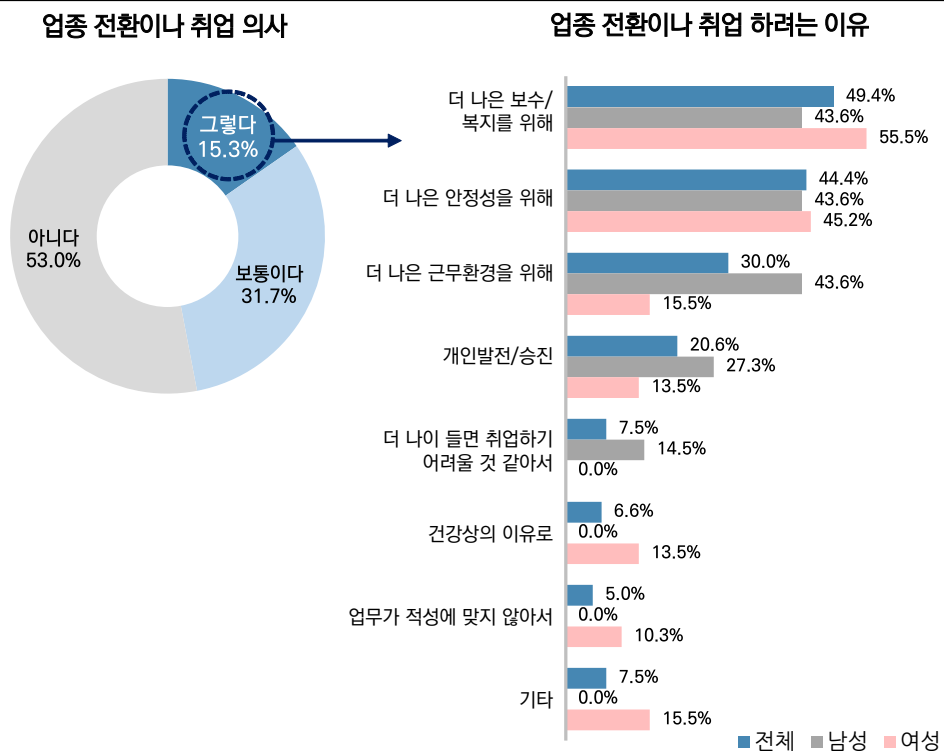
〈그림 2-1-23〉 자본 조달_성별

(7) 업종 전환 의사

- ▶ 응답자의 15.3%는 업종 전환이나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업종 전환이나 취업을 생각한 이유는 ‘보수/복지’, ‘안정성’, ‘근무환경’ 순

- 업종 전환이나 취업 의사에 대하여 남성은 여성에 비해 ‘아니다’ 응답 비율이 높았음(남성 55.4%, 여성 49.7%)
- 업종 전환이나 취업을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응답 비율이 높았음(남성 43.6%, 여성 15.5%)

(단위 : %)



〈그림 2-1-24〉 업종 전환 의사_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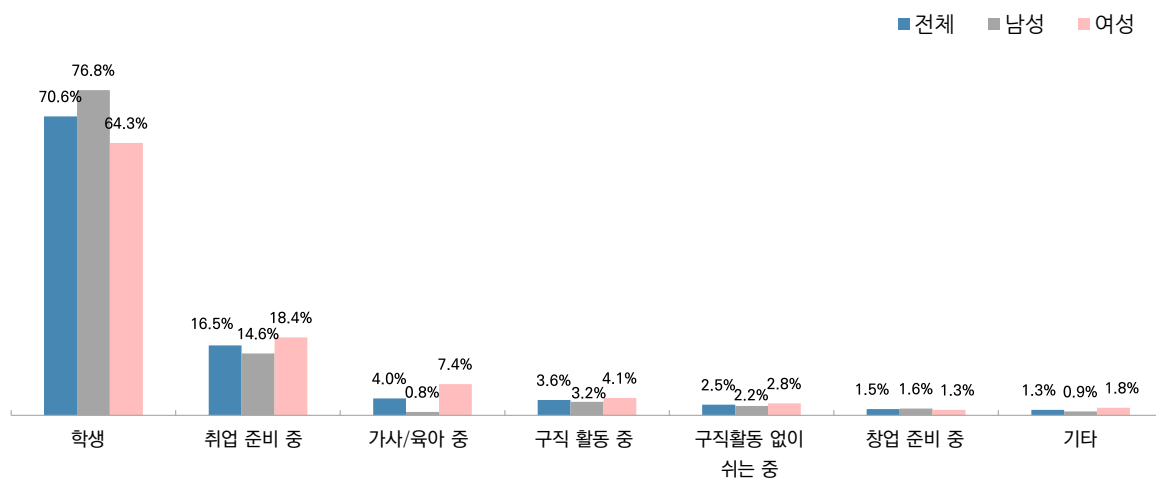
4) 미취업자 구직활동

(1) 경제활동 상태

▶ 응답자의 16.5%는 '취업 준비 중', 3.6%는 '구직 활동 중', 2.5%는 '구직활동 없이 쉬는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구직 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남성 3.2%, 여성 4.1%)
- 여성 응답자의 7.4%는 가사/육아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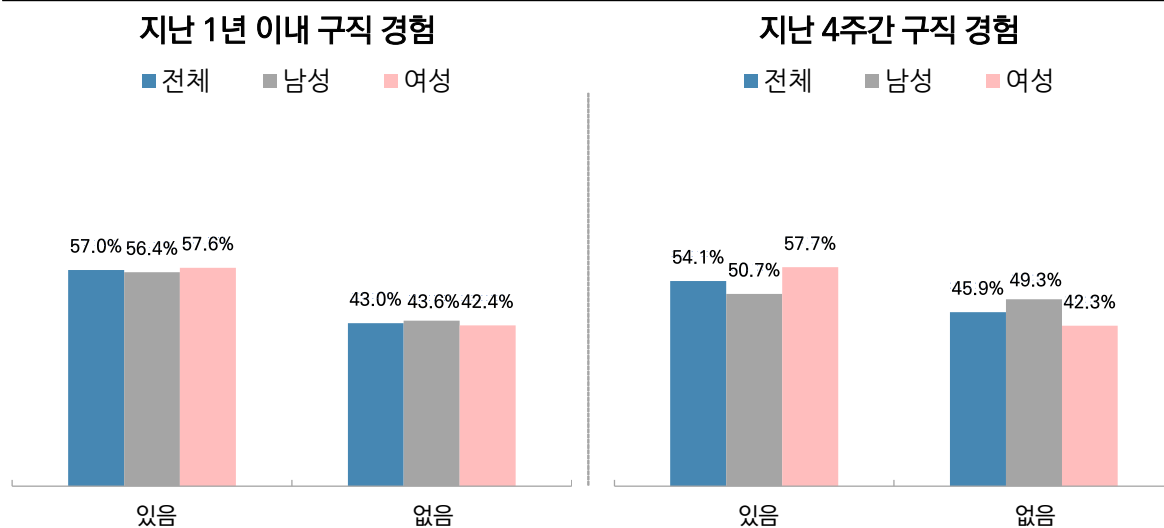
〈그림 2-1-25〉 경제활동 상태_성별

(2) 구직 경험

- 지난 1년/한 달 이내 구직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7.0%
- 지난 4주 이내 구직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4.1%

- 지난 1년 이내 구직경험에 대하여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있음’ 응답 비율이 높았음(여성 57.6%, 남성 56.4%)
- 지난 4주 이내 구직경험에 대하여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있음’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여성 57.7%, 남성 50.7%), 여성 응답자의 7.4%는 가사/육아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직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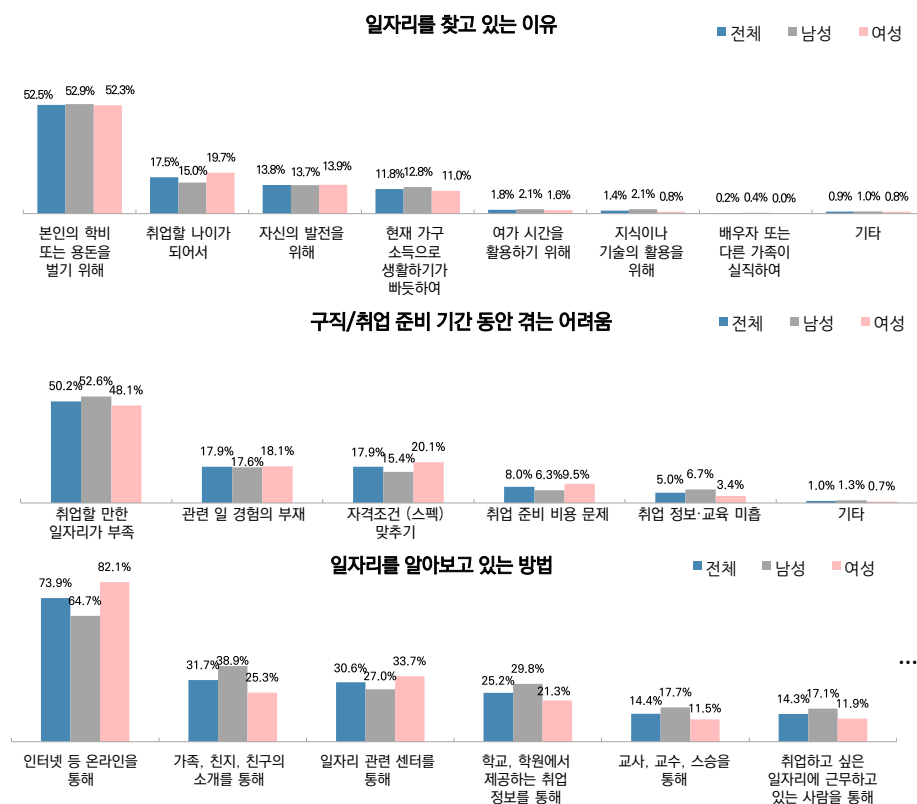
〈그림 2-1-26〉 구직 경험_성별

(3) 취업활동

-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유는 '학비/용돈', '취업할 나이', '자신의 발전' 순
- 구직/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
- 일자리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하여 '온라인', '소개', '일자리 관련 센터를 통해' 순

-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할 나이가 되어서' 응답 비율이 높았음(여성 19.7%, 남성 15.0%)
- 구직/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남성은 여성에 비해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 응답 비율이 높았음(남성 52.6%, 여성 48.1%)
-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응답 비율이 높았음(여성 82.1%, 남성 64.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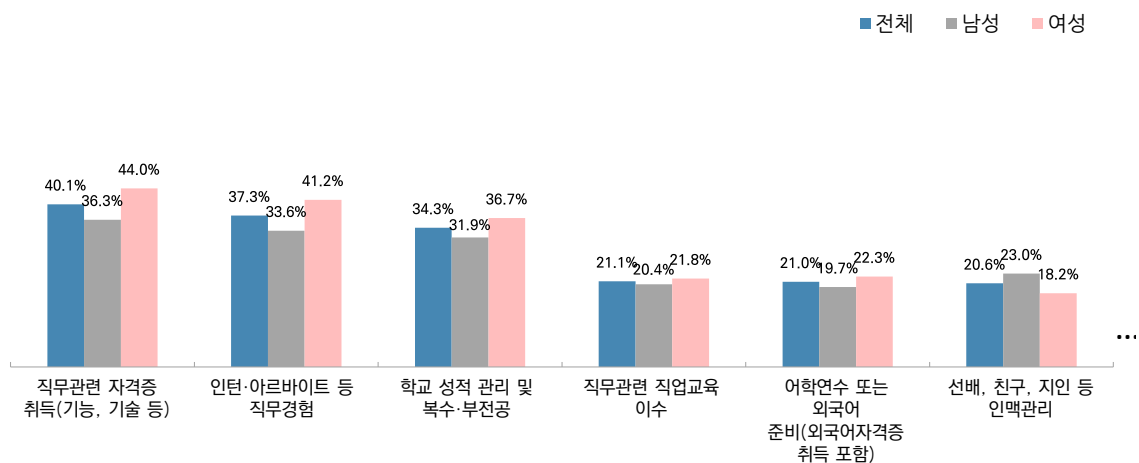
〈그림 2-1-27〉 구직 활동 성별

(4) 취업준비

▶ 취업을 위해 준비했거나 하고 있는 사항은 '자격증 취득', '직무 경험', '성적 관리 및 복수·부전공' 순

- 취업을 위해 준비했거나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응답 비율이 높았음(여성 44.0%, 남성 36.3%)
- 취업을 위해 준비했거나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선배, 친구, 지인 등 인맥관리' 응답 비율이 높았음(남성 23.0%, 여성 18.2%)

(단위 : %)



〈그림 2-1-28〉 취업준비_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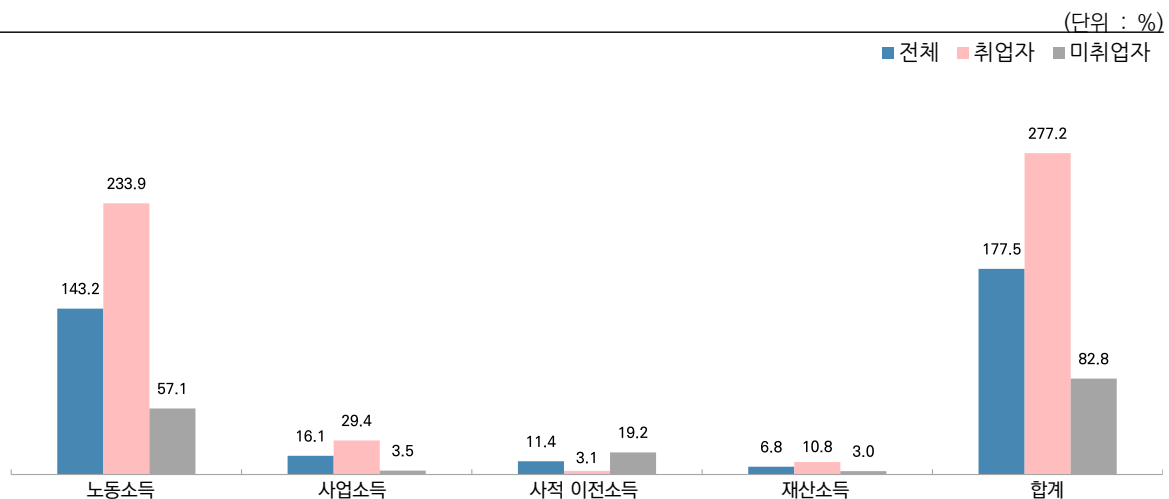
2. 경제활동

1) 수입과 지출

(1) 소득

▶ 월평균 소득은 '노동소득', '사업소득', '사적 이전소득' 순

- 학생이나 주부가 초단시간 노동이나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미취업자로 분류하였지만 노동소득이 발생
- 취업자의 경우 노동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월평균 277.2만 원으로 나타나 희망소득인 305.6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함



〈그림 2-1-29〉 월 평균 소득_취업여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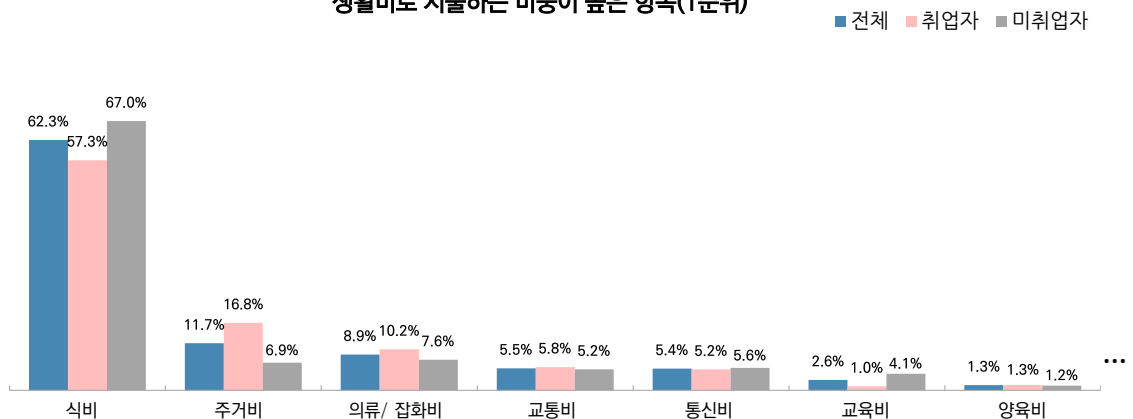
(2) 생활비

- 생활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높은 항목은 '식비', '주거비', '의료/잡화비' 순
- 월평균 지출에 대하여 '100~300만 원 미만' 응답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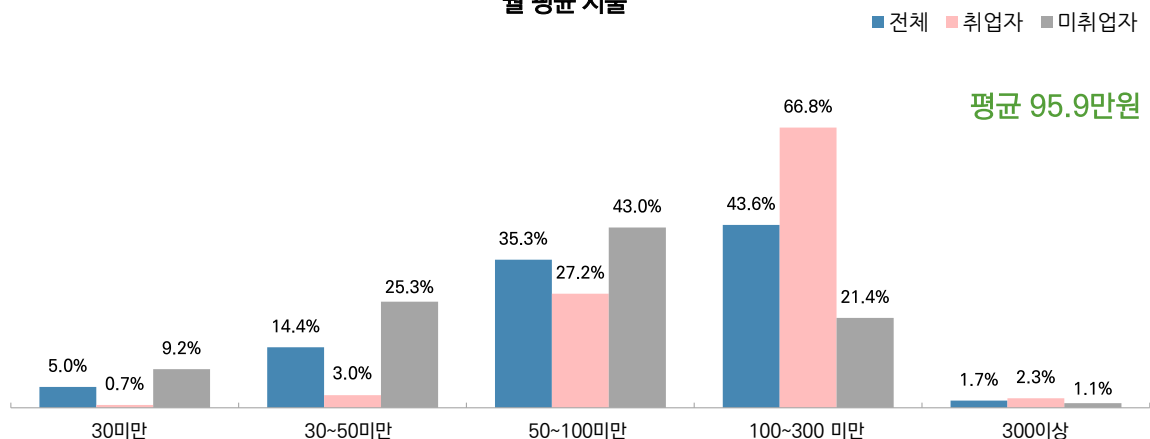
- 주거비로 지불하는 생활비는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높은 편(취업자 16.8%, 미취업자 6.9%)
- 생활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높은 항목에서 의료/잡화비의 경우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높았음(취업자 10.2%, 미취업자 7.6%)

(단위 : %)

생활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높은 항목(1순위)



월 평균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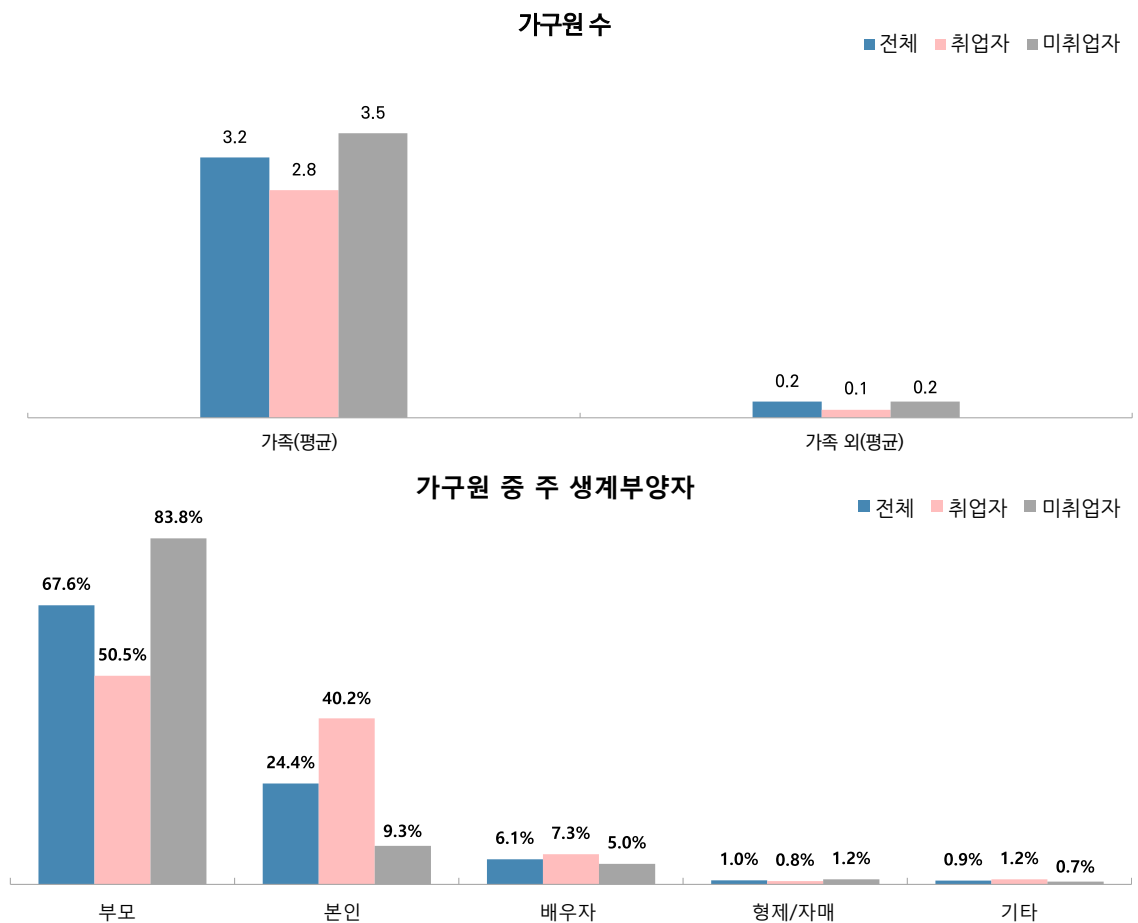
〈그림 2-1-30〉 생활비 취업여부별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는 가족 3.2명, 가족 외 0.2명
- 가구의 주 생계부양자가 '부모님'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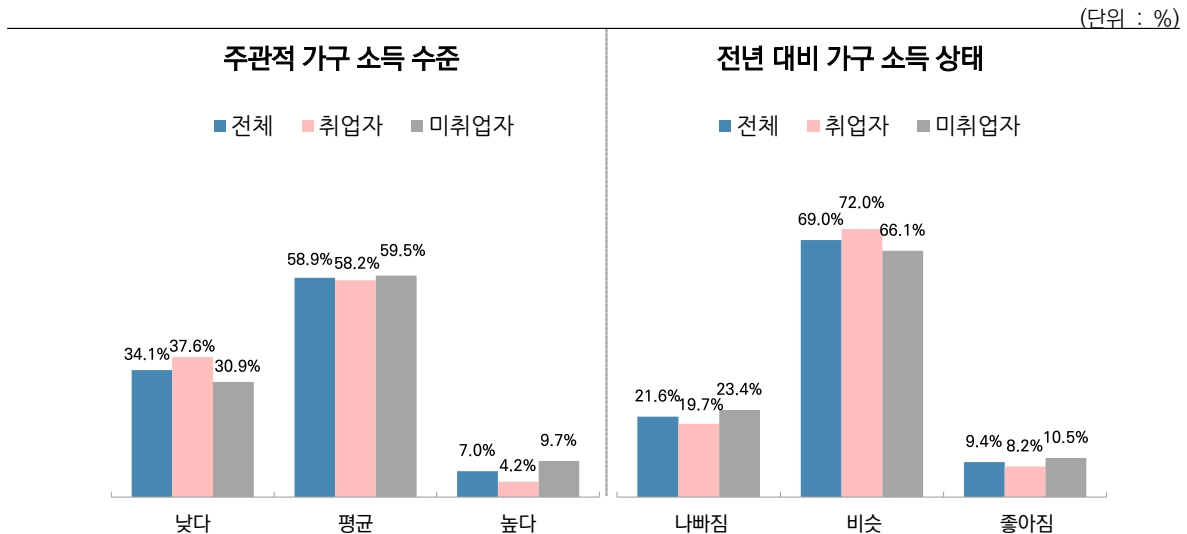
-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자보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 가구원 수가 많았음(미취업자 3.5명, 취업자 2.8명)
- 가구원 중 주 생계부양자가 '본인'인 비율은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높았음(취업자 40.2%, 미취업자 9.3%)

(단위 : 명, %)



〈그림 2-1-31〉 가구소득_취업여부별

- 응답자의 34.1%는 자신이 속한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
- 응답자의 21.6%는 전년대비 가구 소득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32〉 가구소득_취업여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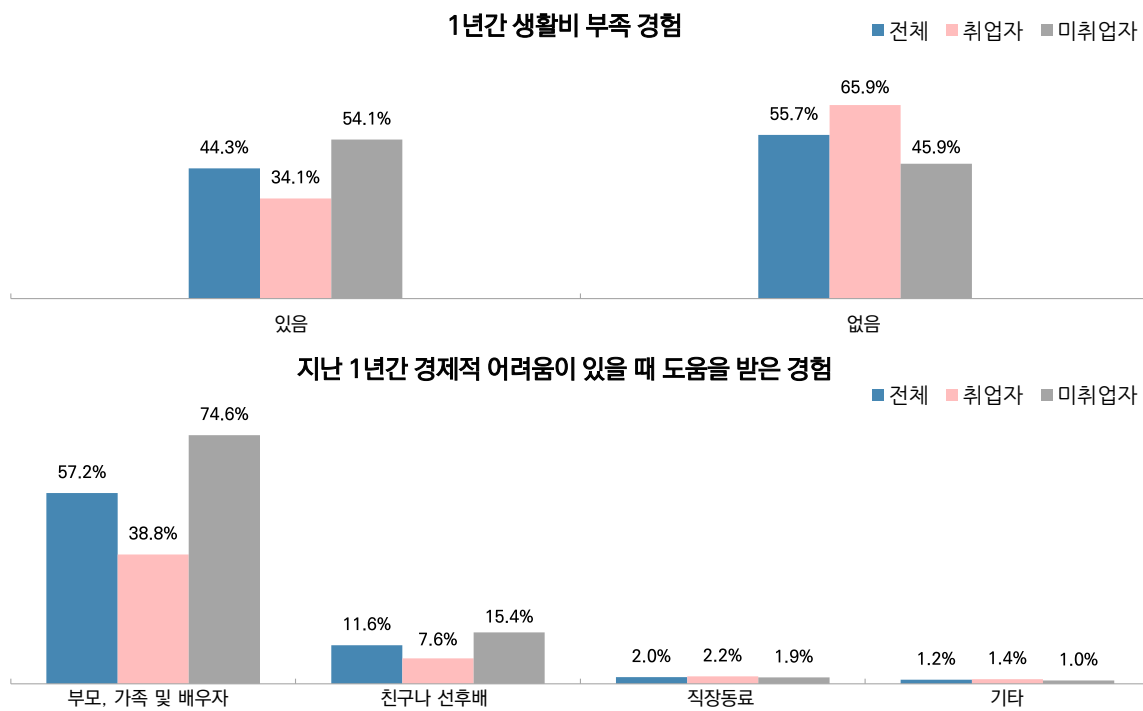
2) 부채

(1) 생활비 부족 경험

- 생활비 부족 시 해결 방식은 '부모님 지원', '비상금 사용', '적금(중도) 해지, 해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 순
-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부모, 가족 및 배우자'

- 생활비 부족 경험에 대해서 '있음'의 경우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높았음(미취업자 54.1%, 취업자 34.1%)
-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부모, 가족 및 배우자'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는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높음 (미취업자 74.6%, 취업자 38.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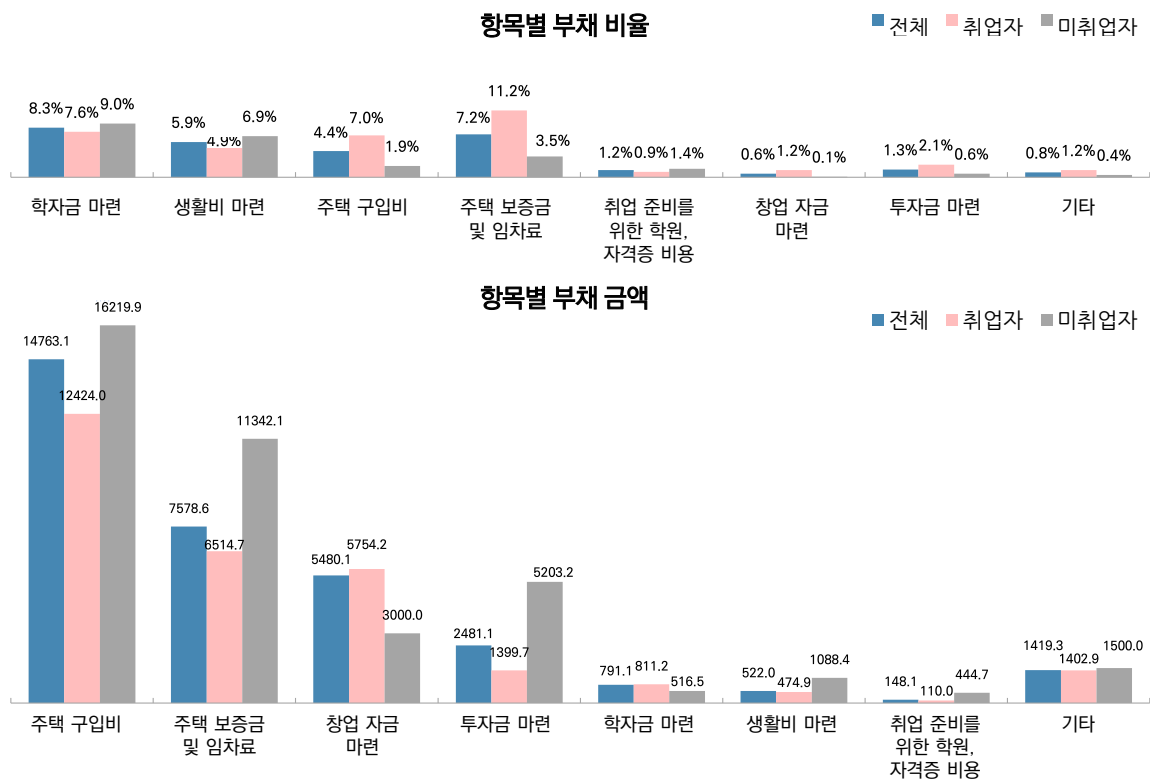
〈그림 2-1-33〉 생활비 부족 경험_취업여부별

(2) 부채·연체

- ▶ 항목별 부채 유무는 '학자금 마련', '주택 보증금 및 임차료', '생활비 마련' 순
- ▶ 항목별 부채 금액은 '주택 구입비'가 가장 많았음

- '학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 비율은 미취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미취업자 9.0%, 취업자 7.6%)
- 미취업자의 부채금액이 취업자보다 많은 편

(단위 :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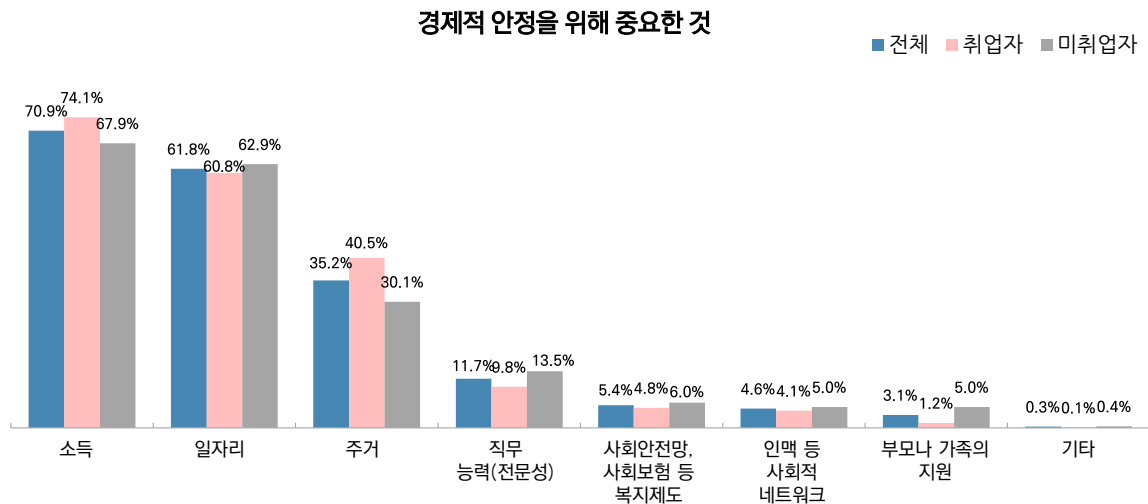
〈그림 2-1-34〉 부채·연체_취업여부별

(3)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

➤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은 ‘소득’, ‘일자리’, ‘주거’, ‘직무 능력’, ‘복지 제도’ 순

-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에 대하여 ‘일자리’의 경우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높았음(미취업자 62.9%, 취업자 60.8%)
-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에 대하여 ‘주거’의 경우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높았음(취업자 40.5%, 미취업자 30.1%)

(단위 : %)



〈그림 2-1-35〉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_취업여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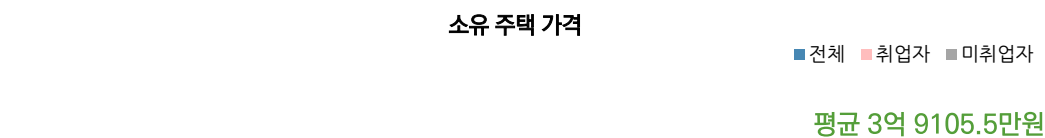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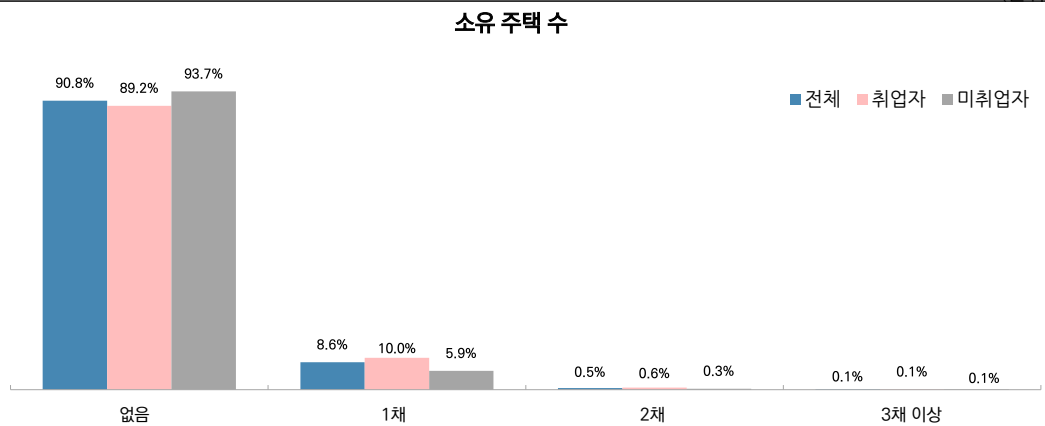
3) 자산

(1) 주택

- 소유한 주택은 '없음'이 90.8%로 가장 많았으며, 1채 이상 소유는 9.2%
-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평균 3억 9천여 만 원
- 소유한 주택 구입 시 대출 여부는 '있음'이 높았고, 평균 대출금액은 18,941.9만 원

- 취업자의 주택 소유 비율이 미취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본인이 소유한 주택 가격은 '3억~5억 미만', '1억~3억 미만', '5억~10억 미만' 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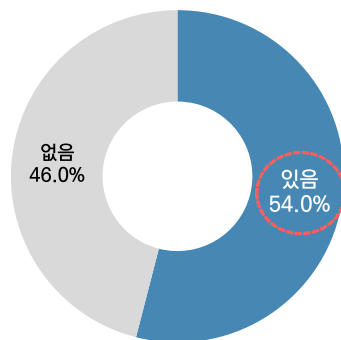


〈그림 2-1-36〉 주택_취업여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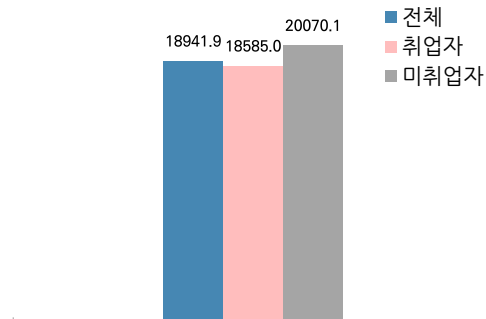
- 소유한 주택 구입 시 대출 여부에 대해 54.0%가 '있음'으로 응답함
- 소유한 주택 구입 시에 받은 대출금액의 경우에는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높았음
(미취업자 20,070.1만원, 취업자 18,585.0만원)

(단위 : %, 만원)

소유 주택 구입 시 대출 여부



소유 주택 구입 시 대출 금액



〈그림 2-1-37〉 주택_취업여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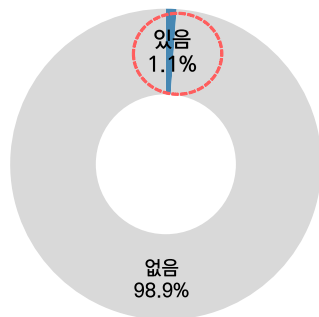
(2) 증여

- 부동산 및 현금 증여받은 경험은 대부분 '없음'
- 평균 증여받은 금액은 12,837.7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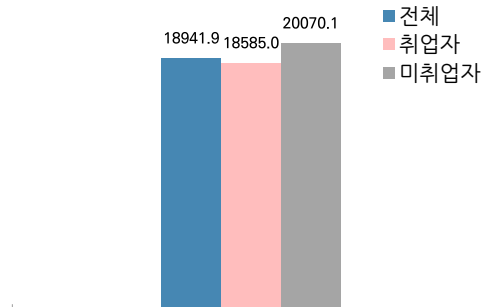
- 올해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받은 금액은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높았음 (취업자 14,558.8만원, 미취업자 11,030.7만원)

(단위 : %, 만원)

올해 부동산 및 현금 증여 받은 경험



올해 부동산 및 현금 증여 받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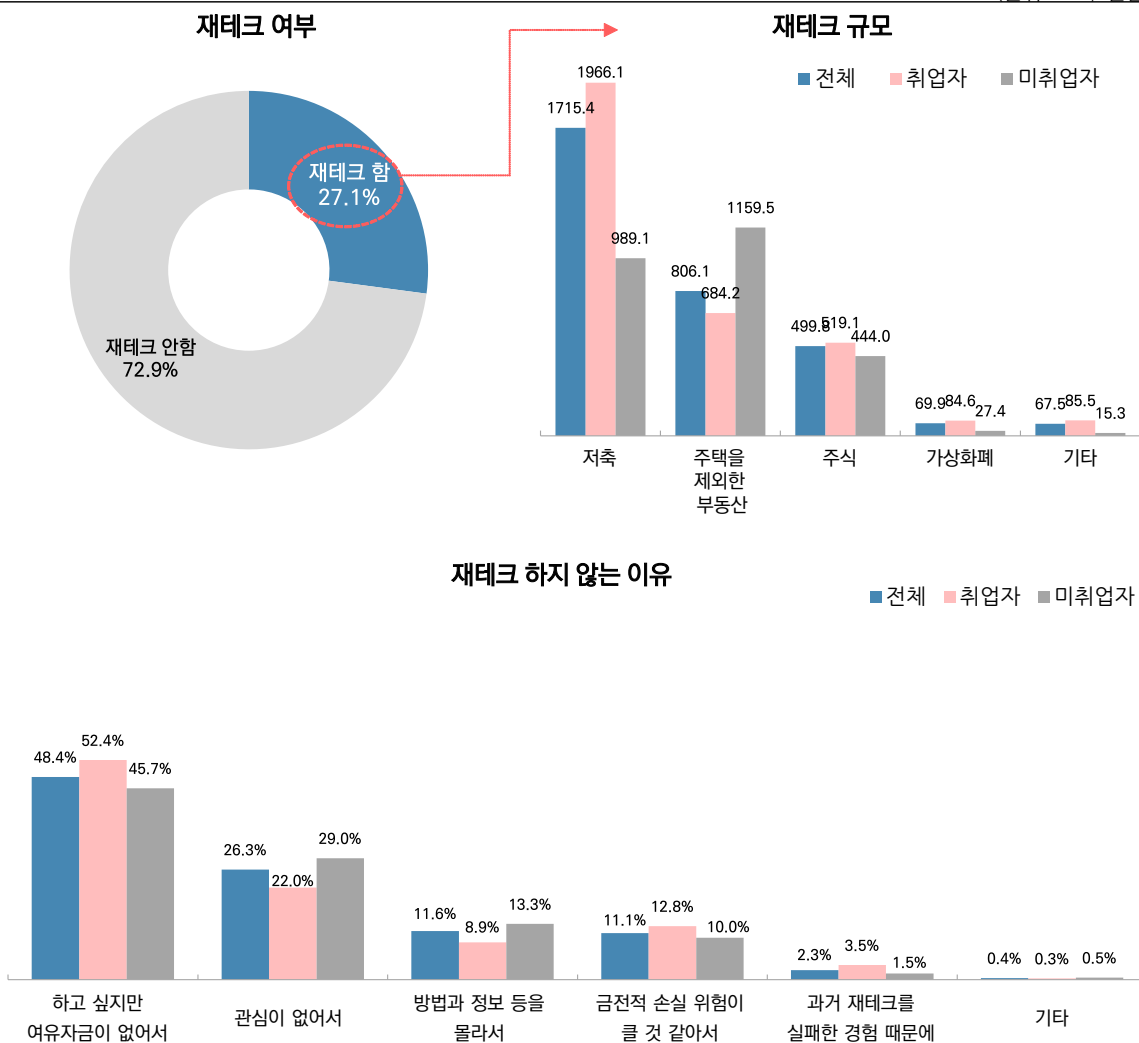
〈그림 2-1-38〉 증여_취업여부별

(3) 투자·재테크

▶ 재테크 여부는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며, 투자한 금액은 '저축',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순

- 재테크의 규모는 '저축'을 하는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컸음(취업자 1966.1만 원, 미취업자 989.1만 원)
- 재테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고 싶지만 여유 자금이 없어서'임

(단위 :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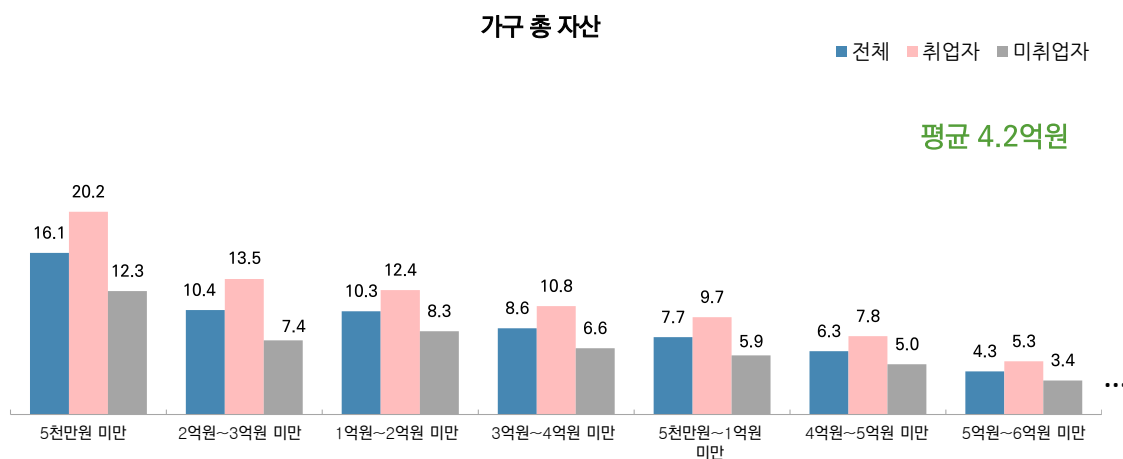
〈그림 2-1-39〉 투자·재테크_취업여부별

(4) 가구자산

➤ 가구 총 자산은 평균 4.2억 원

- 가구 총 자산은 '5천만 원 미만', '2억 원~3억 원 미만', '1억 원~2억 원 미만' 순
- 가구 총 자산에 대해 '2억 원~3억 원 미만'의 경우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높았음 (취업자 13.5%, 미취업자 7.4%)

(단위 : %, 억원)



〈그림 2-1-40〉 가구자산_취업여부별

3. 주거 및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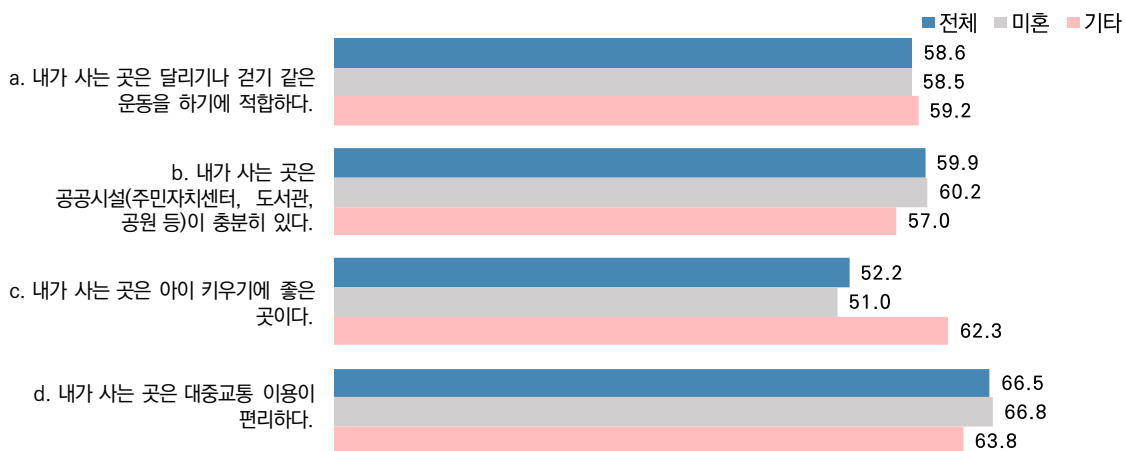
1) 주거

(1) 주거환경

☞ 응답자의 50.0% 이상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 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편

- 사는 곳이 '달리거나 걷기 같은 운동하기/육아'에 적합한지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은 기타(기혼+이혼+사별)가 미혼보다 높았음 (기타 59.2%, 미혼 58.5%)
(기타 62.3%, 미혼 51.0%)
- 사는 곳의 '공공시설 충분성'과 '대중교통 편리성'에 '그렇다'는 응답 비중은 미혼이 기타(기혼+이혼+사별)보다 높았음(미혼 60.2%, 기타 57.0%)(미혼 66.8%, 기타 63.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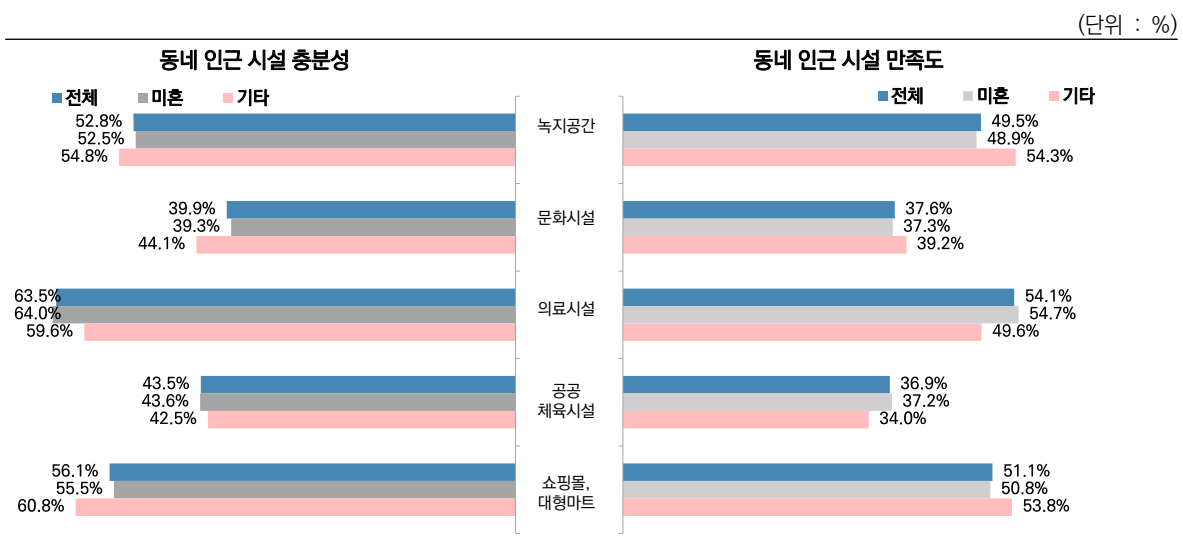


〈그림 2-1-41〉 현 주거지 주거환경_혼인상태별

(2) 편의시설

- ▶ 동네 인근시설 중 의료시설, 쇼핑시설, 녹지공간 순으로 충분성이 높은 편
- ▶ 동네 인근시설 중 의료시설, 쇼핑시설, 녹지공간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

- 미혼이 기타(기혼+이혼+사별)보다 동네 인근 시설 중 의료시설, 공공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식(미혼 64.0%, 기타 59.6%) (미혼 43.6%, 기타 42.5%)
- 미혼이 기타(기혼+이혼+사별)보다 동네 인근 시설 중 의료시설, 공공체육시설에 만족한다고 인식(미혼 54.7%, 기타 49.6%) (미혼 37.2%, 기타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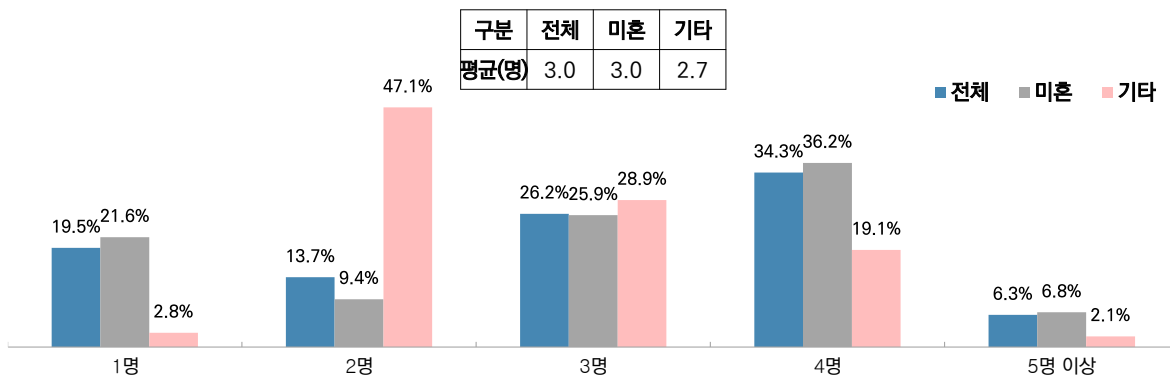
〈그림 2-1-42〉 현 주거지 주거환경_혼인상태별

(3) 동거인

- 동거하는 가구원 수는 평균 3.0명
- 1인 가구의 비중은 19.5%

-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수의 응답에서 '4명'의 경우 미혼이 기타(기혼+이혼+사별)보다 높았음 (미혼 36.2%, 기타 19.1%)
-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수의 응답에서 '2명'의 경우 기타(기혼+이혼+사별)가 미혼보다 높았음 (기타 47.1%, 미혼 9.4%)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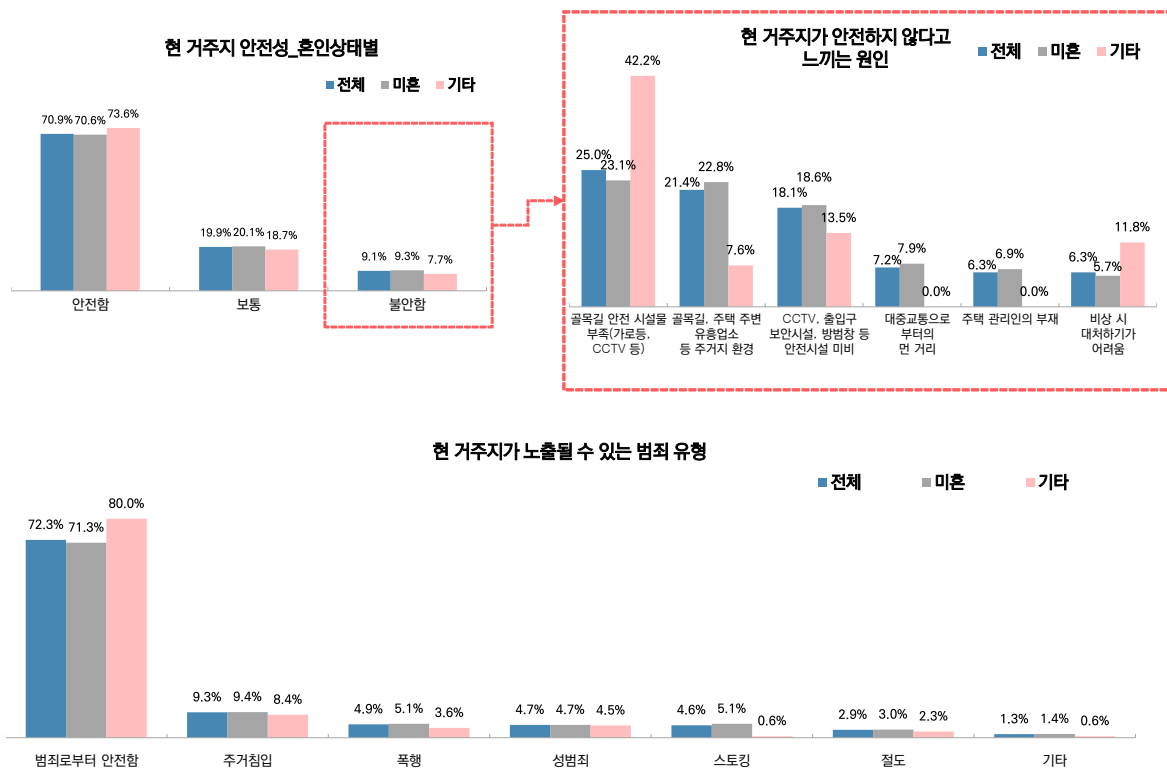
〈그림 2-1-43〉 함께 거주 중인 사람_혼인상태별

(4) 주거안전

- 응답자의 70.9%는 현 거주지가 '안전한 편이다'라고 응답
-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은 '안전시설 부족', '거주지 환경', '안전시설 미비' 순
- 노출될 수 있는 범죄 유형은 '주거침입', '폭행', '성범죄' 순

- 현 거주지의 안전성에 대해서 혼인상태별 모두 안전한 편이라고 응답함(기타(기혼+이혼+사별) 73.6%, 미혼 70.6%)
- 현 거주지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원인에 대해서 '안전시설의 부족'의 경우 기타가 미혼보다 높았음 (기타(기혼+이혼+사별) 42.2%, 미혼 23.1%)
- 현 거주지가 노출될 수 있는 범죄 유형에서 '폭행'의 경우 미혼이 기타보다 높았음 (미혼 5.1%, 기타(기혼+이혼+사별) 3.6%)

(단위 : %)



〈그림 2-1-44〉 주거안전_혼인상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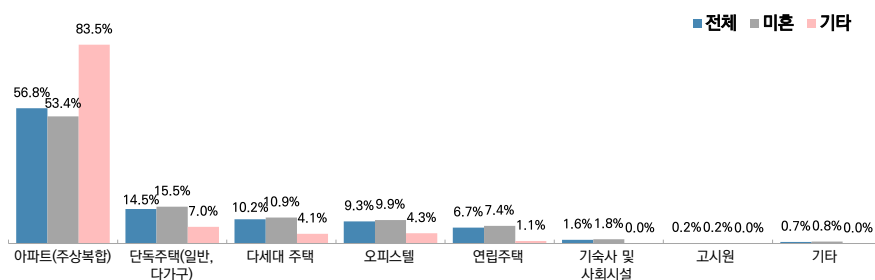
(5) 주거형태

-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요 주택유형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순
-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택 넓이는 ‘20평 이상 30평 미만’이 가장 많았음
- 응답자의 15.6%는 원룸형 주택에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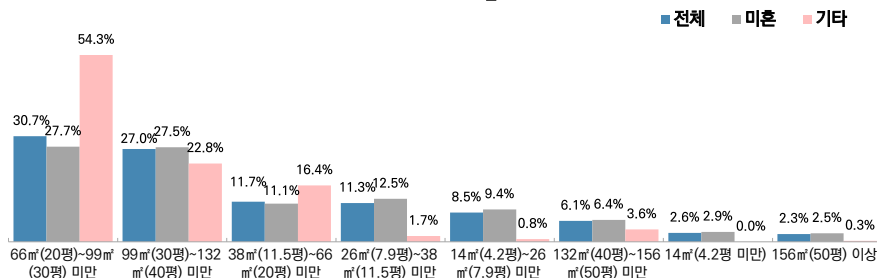
- ‘단독주택’의 경우 미혼이 기타(기혼+이혼+사별) 보다 높았음(미혼 15.5%, 기타 7.0%)
- ‘20평 이상 30평 미만’의 경우 기타(기혼+이혼+사별)가 미혼보다 높았음(기타 54.3%, 미혼 27.7%)
- 주택 구조에서 ‘원룸형’의 경우 미혼이 높았음(미혼 17.5%, 기타 1.1%)

(단위 : %)

현 거주지 주택 유형_혼인상태별



현 거주지 주택 넓이_혼인상태별



현 거주지 주택 구조_혼인상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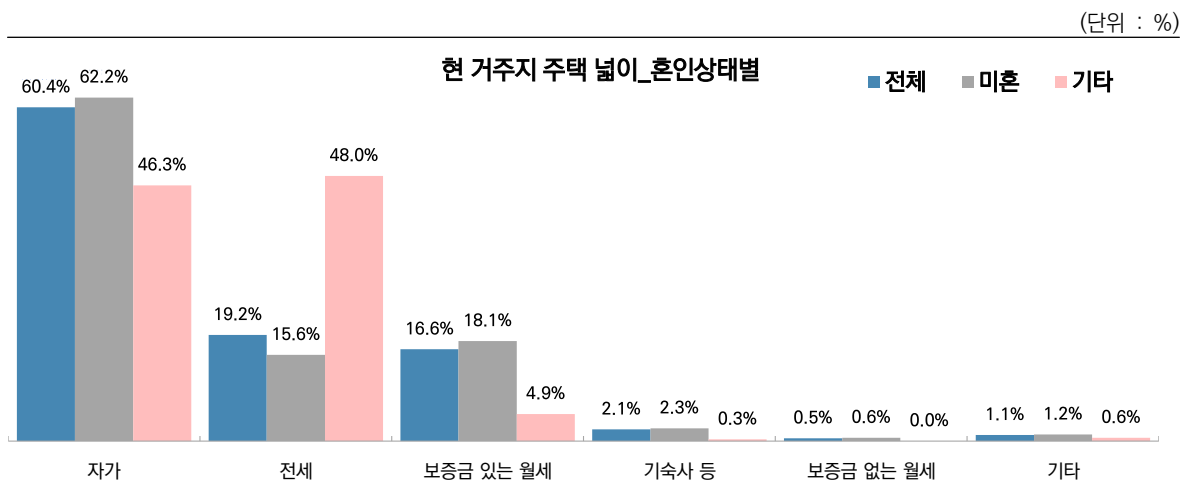
구분	전체	미혼	기타
원룸형	15.6	17.5	1.1
원룸형 아님	84.4	82.5	98.9

〈그림 2-1-45〉 주거 형태_혼인상태별

(6) 점유형태

- 현 거주지 점유 유형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순
- 현 거주지 주거비용은 '전/월세 보증금'이 가장 많았음

- 현 거주지의 점유 유형은 '자가'의 경우 미혼이 기타(기혼+이혼+사별) 보다 높았음(미혼 62.2%, 기타 46.3%)
- 현 거주지의 주거비용에 대하여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기타(기혼+이혼+사별)가 미혼보다 높았음(기타 16,075.2만원, 미혼 5,275.1만원)



현 거주지 주거 비용_혼인상태별(단위 : 만원)

구분	전체	미혼	기타
전/월세 보증금	7,344.3	5,275.1	16,075.2
월세	32.8	33.0	26.1
관리비	10.1	9.0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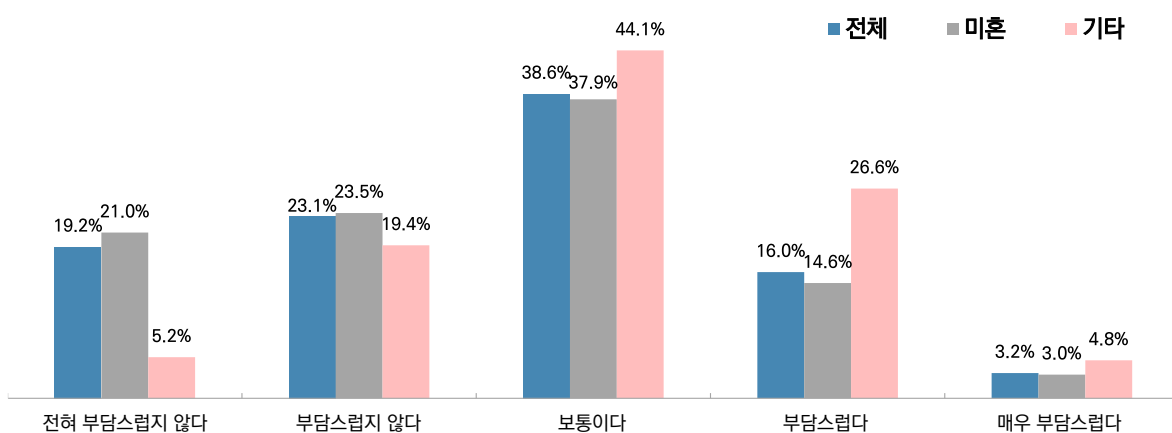
〈그림 2-1-46〉 점유 형태_혼인상태별

(7) 주거비 부담감

➤ 응답자의 19.2%는 현재 주거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

- 현 거주지 주거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의 경우 기타(기혼+이혼+사별)가 미혼보다 높게 나타남(기타 31.4%, 미혼 17.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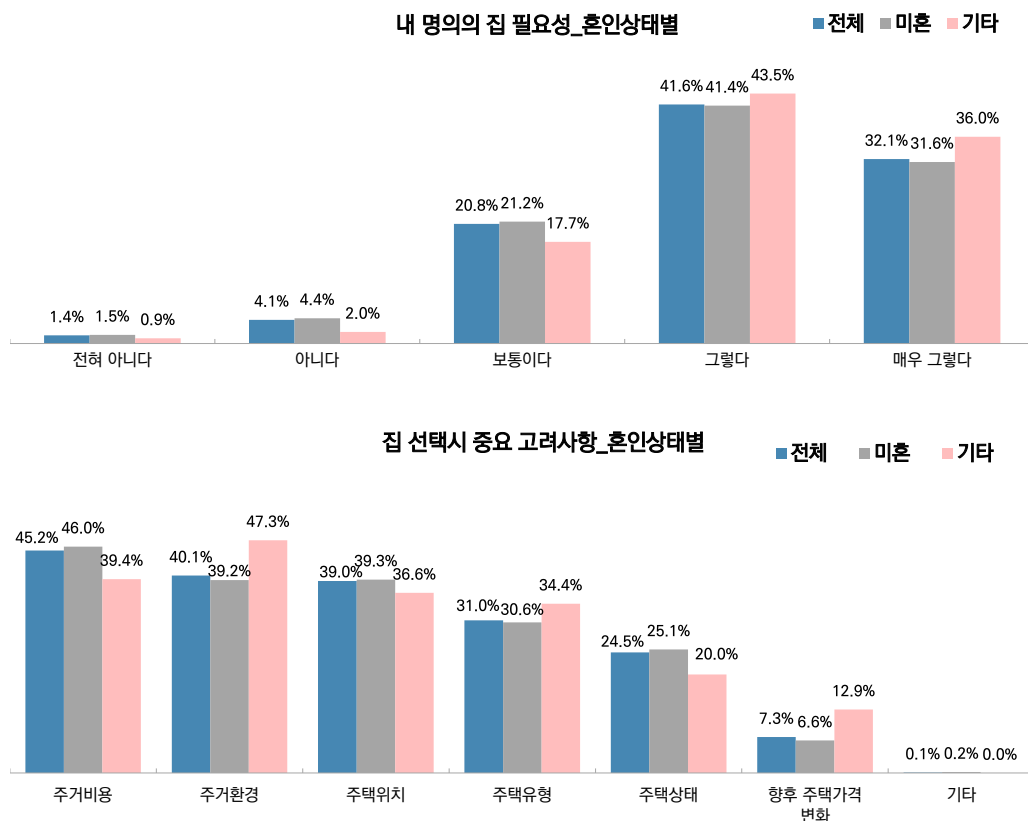
〈그림 2-1-47〉 주거비 부담감_혼인상태별

(8) 집에 대한 인식

- 자가 소유의 필요성은 '그렇다' 응답이 많았음
- 향후 집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거비용'

- 자가 소유 필요성에 대하여 '그렇다'의 경우 기타(기혼+미혼+사별)가 미혼보다 높았음(기타 79.5%, 미혼 73.0%)
- 향후 집을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주거비용', '주거환경', '주택위치' 순
- 향후 집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주택 가격 변화'의 경우 기타(기혼+미혼+사별)가 미혼보다 높음(기타 12.9%, 미혼 6.6%)

(단위 : %)



〈그림 2-1-48〉 주거인식_혼인상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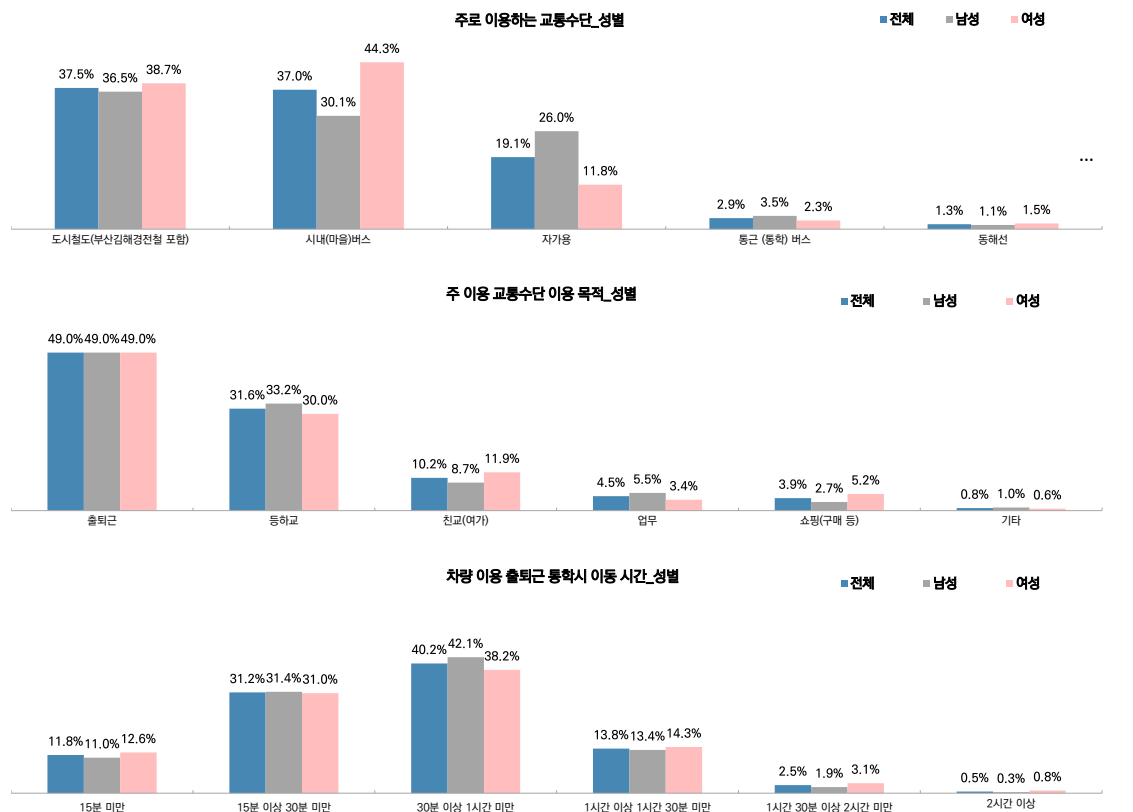
2) 교통

(1)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주 이용 교통수단은 '도시철도', '시내(마을) 버스', '자가용' 순
- 교통수단 이용 목적에 대하여 '출퇴근', '등하교', '친교' 순
- 차량을 이용 시 이동 시간은 '30분~1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음

-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경우 남성은 '도시철도', 여성은 '시내버스'가 높았음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친교(여가) 목적의 교통수단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여성 11.9%, 남성 8.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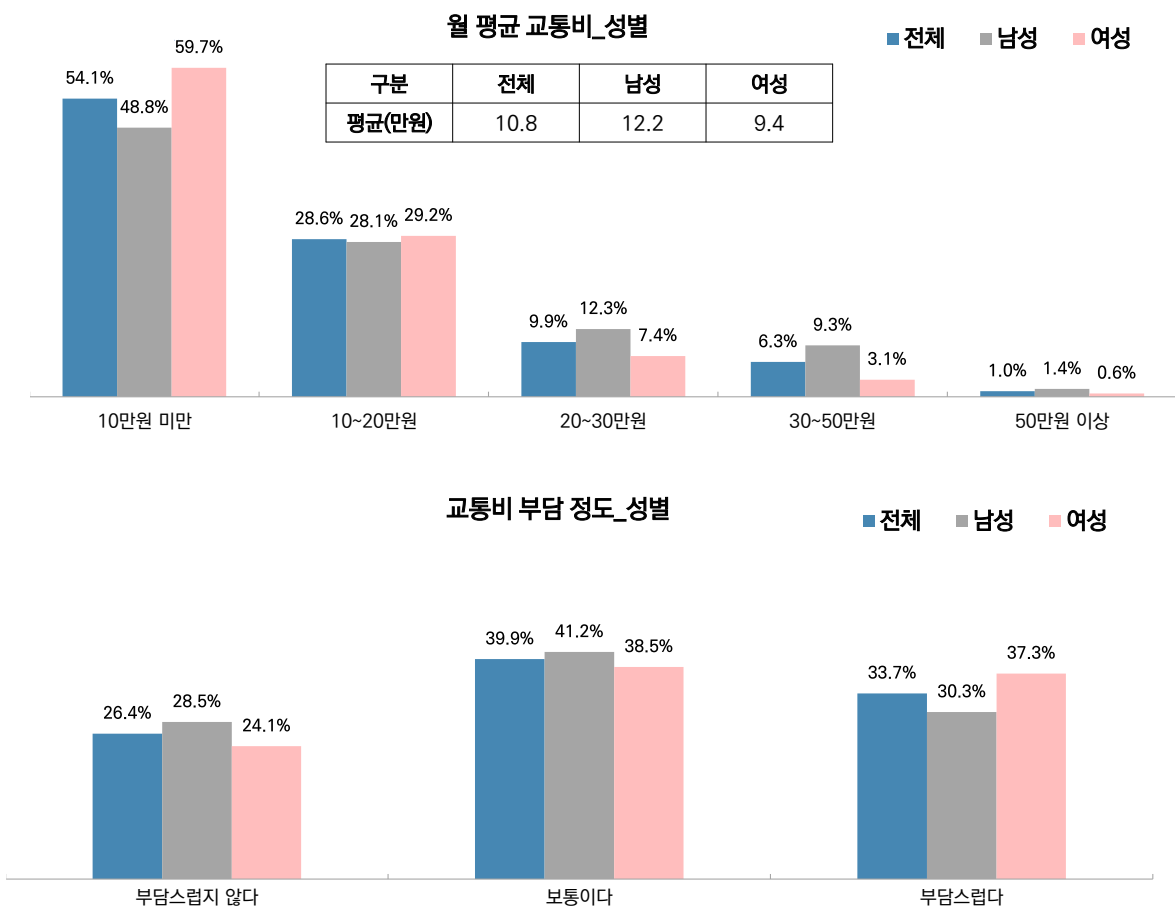
〈그림 2-1-49〉 주 이용 교통수단_성별

(2) 교통비

- 한 달 평균 교통비는 10.8만원
- 응답자의 33.7%는 교통비가 '부담스러운 편'이라고 응답
- 월평균 교통비는 '10만원 미만', '10~20만원', '20~30만원' 순

- 월평균 교통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음(남성 12.2만원, 여성 9.4만원)
- 교통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음(여성 37.3%, 남성 30.3%)

(단위 : %)



〈그림 2-1-50〉 교통비_성별

(3) 대중교통 이용

-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도시철도’, ‘시내버스’, ‘동해선’ 순
- 교통수단 이용 빈도는 ‘일주일에 6일 이상’, ‘일주일에 4~5일’, ‘일주일에 2~3일’ 순
- 응답자의 66.3%는 대중교통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

-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남성은 ‘도시철도’, 여성은 ‘시내(마을) 버스’가 가장 높았음
- 주로 이용 대중교통의 이용 빈도가 ‘한 달에 2~3일’이하인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음 (남성 22.2%, 여성 12.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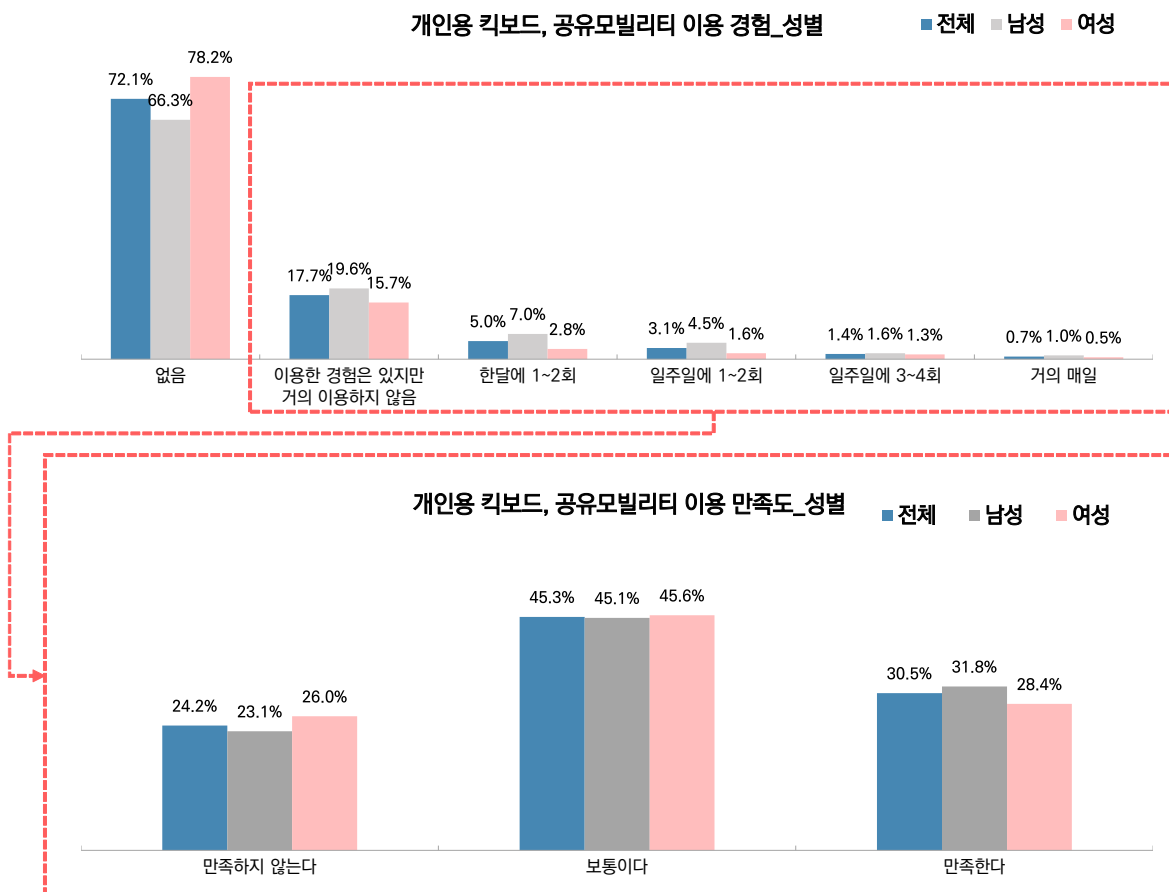
〈그림 2-1-51〉 대중교통_성별

(4) 공유모빌리티

- 응답자의 72.1%는 키펀드나 공유 모빌리티 이용 경험 '없음'
- 키펀드나 모빌리티 이용자의 30.5%는 '만족한다'고 응답

- 키펀드나 공유 모빌리티 이용 경험은 '없음'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음(여성 78.2%, 남성 66.3%)
- 키펀드나 모빌리티 이용 만족도는 '그렇다'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음(남성 31.8%, 여성 28.4%)

(단위 : %)



〈그림 2-1-52〉 공유모빌리티_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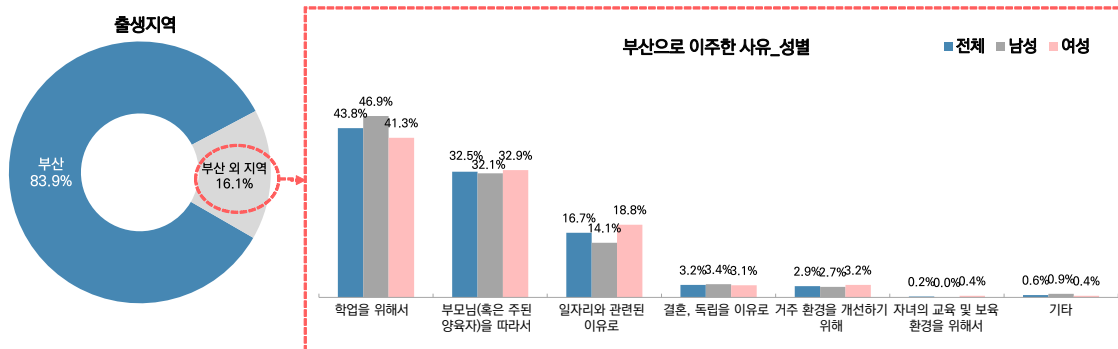
3) 정주의사

(1) 정주실태

- 응답자 중 16.1%는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나 이주한 청년
- 출신 지역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사유는 ‘학업’, ‘부모님을 따라서’, ‘일자리’ 순

- 타지역 출신 청년 중 ‘학업을 위해’ 부산으로 이주한 청년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음
(남성 46.9%, 여성 41.3%)
- 타지역 출신 청년 중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로 부산으로 이주한 청년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음(여성 18.8%, 남성 14.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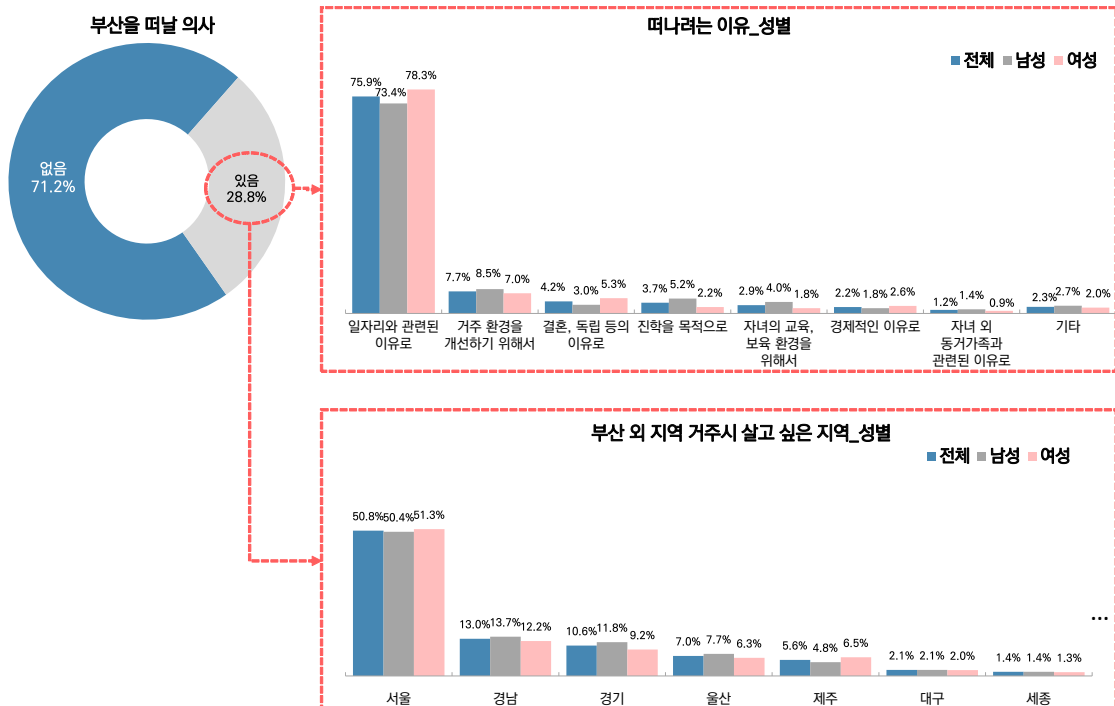
〈그림 2-1-53〉 정주실태_성별

(2) 부산을 떠날 의사

- 응답자의 71.2%는 부산을 떠날 의사가 없다고 응답
- 부산을 떠나려는 주된 이유는 '일자리'(75.9%)
- 부산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면 살고 싶은 지역은 '서울', '경남', '경기' 순

- 부산을 떠날 의사에 대하여 '없음'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음 (남성 72.6%, 여성 69.7%)
- 부산을 떠나려는 이유에 대하여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음(여성 78.3%, 남성 73.4%)
- 부산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면 살고 싶은 지역은 '서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여성 51.3%, 남성 50.4%)

(단위 : %)



〈그림 2-1-54〉 부산을 떠날 의사_성별

4. 문화 및 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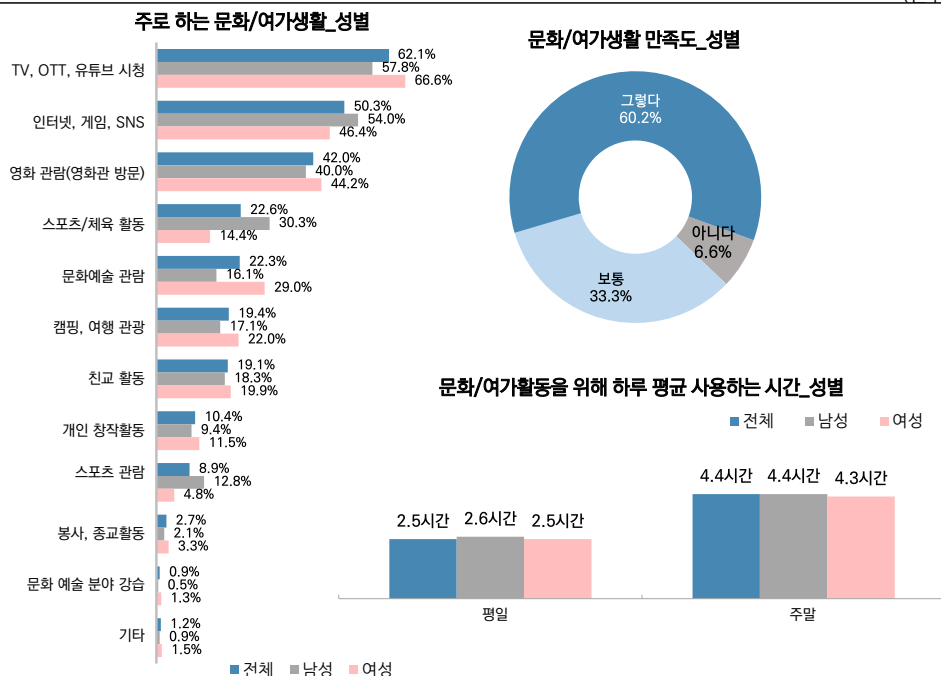
1) 문화 및 여가 활동 실태

(1) 주로 즐기는 문화/여가 생활

- ▶ 문화/여가생활은 'TV, 유튜브 시청', '인터넷, 게임, sns', '영화 관람' 순
- ▶ 응답자의 60.2%는 문화/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
- ▶ 문화/여가활동을 위해 하루 평균시간은 주말 평균 4.4시간, 평일 2.5시간

- 주로 하는 문화/여가생활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인터넷, 게임, SNS'비율이 높음 (남성 54.0%, 여성 46.4%)
- 주로 하는 문화/여가생활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문화예술 관람'비율이 높음 (여성 29.0%, 남성 16.1%)
- 문화/여가활동을 위해 하루 평균 사용하는 시간에서 남성과 여성의 응답 비율이 비슷함(평일 남성 2.6시간, 여성 2.5시간/ 주말 남성 4.4시간, 여성 4.3시간)

(단위 :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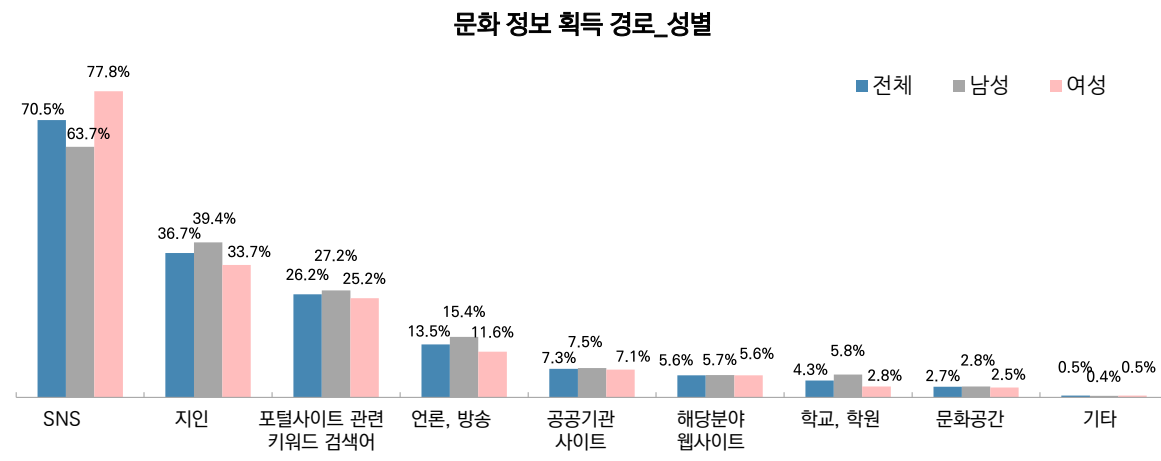
〈그림 2-1-55〉 주로 즐기는 문화/여가생활 성별

(2) 문화 정보를 얻는 경로

➤ 문화 정보 획득 경로는 ‘SNS’, ‘지인’, ‘포털사이트 관련 키워드 검색어’ 순

- 문화 정보 획득 경로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SNS’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여성 77.8%, 남성 63.7%)
- 문화 정보 획득 경로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지인’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남성 39.4%, 여성 33.7%)

(단위 : %)



〈그림 2-1-56〉 문화 정보 획득 경로_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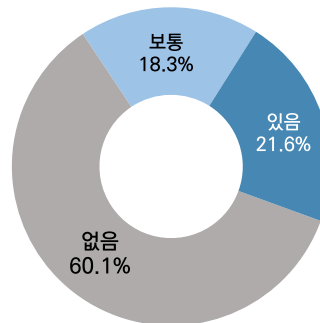
(3) 문화/여가 활동 제약 경험

- ▶ 응답자의 21.6%는 지난 1년간 문화/여가 활동 제약을 받은 경험이 있음
- ▶ 문화/여가활동에 제약을 받은 이유는 '코로나19', '비용 문제', '시간문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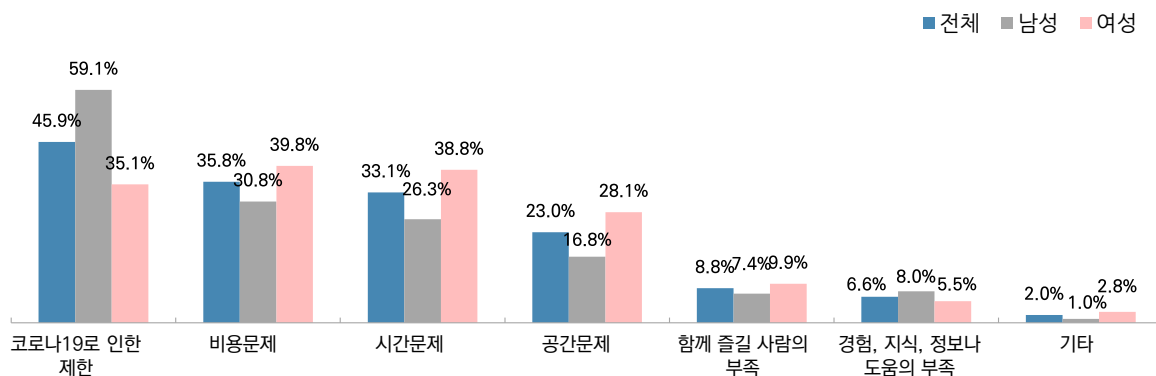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문화/여가활동에 제약을 받은 이유에 있어서는 남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남성 59.1% 여성 35.1%)
- 지난 1년간 문화/여가활동에 제약을 받은 이유에 있어서는 여성은 '비용 문제', '시간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공간 문제'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지난 1년간 문화/여가활동에 제약을 받은 경험_성별



지난 1년간 문화/여가활동에 제약을 받은 이유_성별



〈그림 2-1-57〉 문화/여가활동 제약 경험_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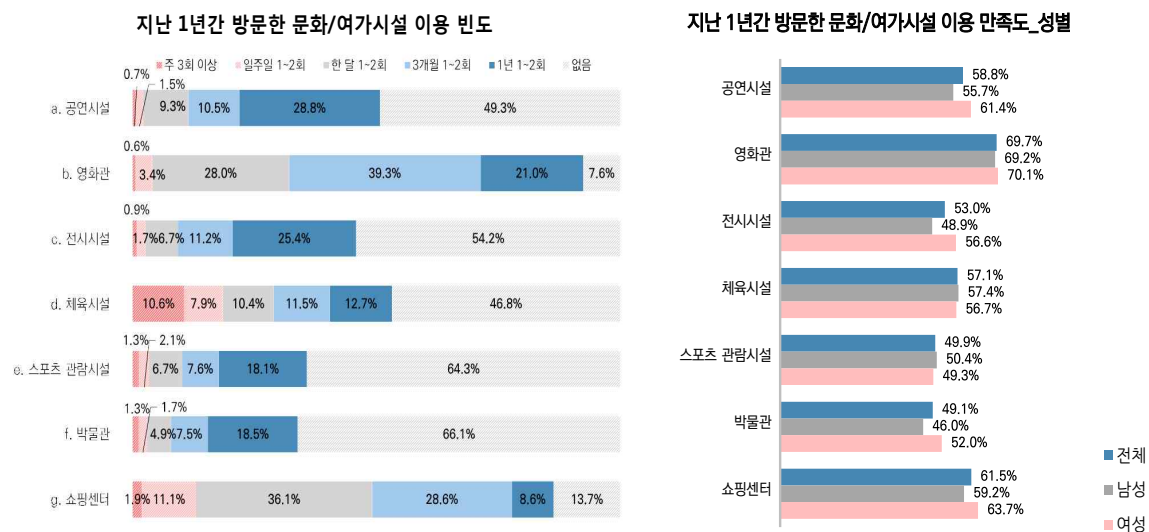
2) 문화/여가 공간

(1) 문화/여가 시설

- ▶ 문화/여가시설 이용 빈도 중 공연시설, 전시시설, 체육시설, 박물관은 ‘1년 1~2회’ 가장 많았고, 영화관은 ‘3개월 1~2회’, 스포츠 관람시설, 쇼핑센터는 ‘한 달 1~2회’가 가장 많았음
- ▶ 문화/여가 시설 만족도는 영화관(69.7%), 쇼핑센터(61.5%)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문화/여가 시설 중 ‘영화관’, ‘쇼핑센터’를 한 달에 1회 이상 방문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각 32.0%, 49.1%로 나타남
- 문화/여가 시설 만족도에서 ‘전시시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만족’ 응답이 높았음(여성 56.6%, 남성 48.9%)
- 문화/여가 시설 만족도에서 ‘박물관’은 여성과 남성 모두 ‘만족’ 응답이 낮은 편임(여성 52.0%, 남성 46.0%)

(단위 : %)



〈그림 2-1-58〉 문화/여가 시설_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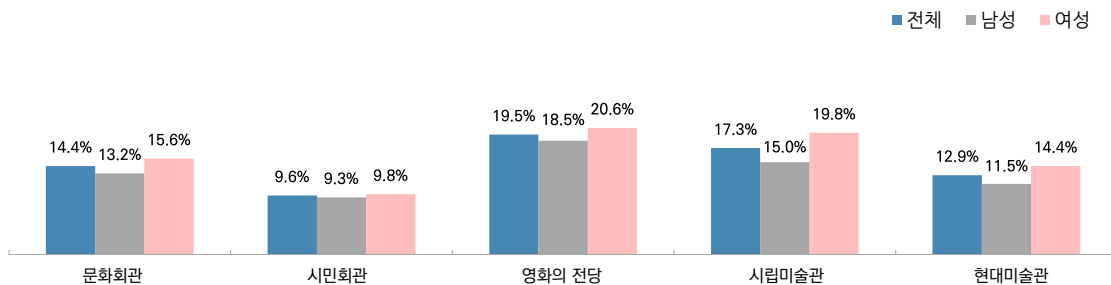
(2) 부산시 공공문화시설

- 부산시 공공문화시설 이용 경험은 '영화의 전당', '시립 미술관', '문화회관' 순
- 지난 1년간 방문한 부산시 공공문화시설의 '만족'은 50.0%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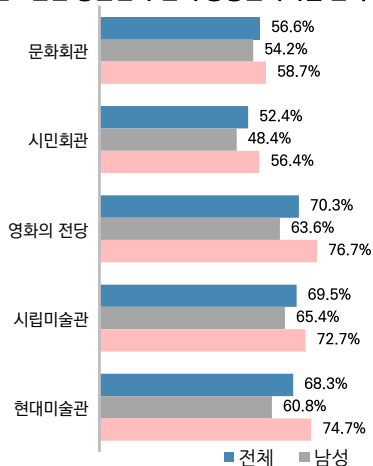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방문한 부산의 모든 공공문화시설 이용 경험 비율에서 여성이 높았음
- 지난 1년간 방문한 부산시 공공문화시설의 만족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영화의 전당'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남성 63.6% 여성 76.7%)
- 지난 1년간 방문한 부산시 공공문화시설의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현대미술관' 응답 비율이 여성과 남성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임(여성 60.9%, 남성 49.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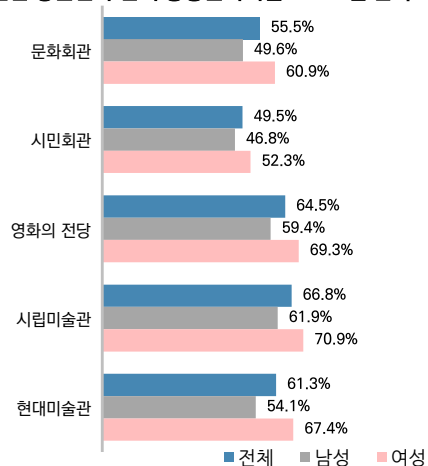
지난 1년간 방문한 부산시 공공문화시설 이용 경험_성별



지난 1년간 방문한 부산시 공공문화시설 만족도_성별



지난 1년간 방문한 부산시 공공문화시설 프로그램 만족도_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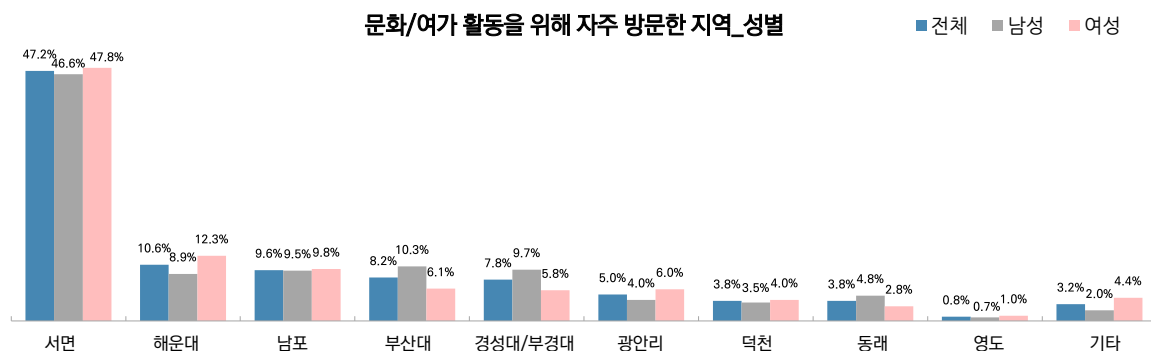
〈그림 2-1-59〉 부산시 공공문화시설 성별

(3)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자주 방문한 지역

➤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자주 방문한 지역은 ‘서면’, ‘해운대’, ‘남포’ 순

- 지난 1년간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자주 방문한 지역은 남성과 여성 모두 ‘서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남성 46.6%, 여성 47.8%)
- 지난 1년간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자주 방문한 지역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부산대’ 응답 비율이 높았음(남성 10.3%, 여성 6.1%)
- 지난 1년간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자주 방문한 지역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해운대’ 응답 비율이 높았음(여성 12.3%, 남성 8.9%)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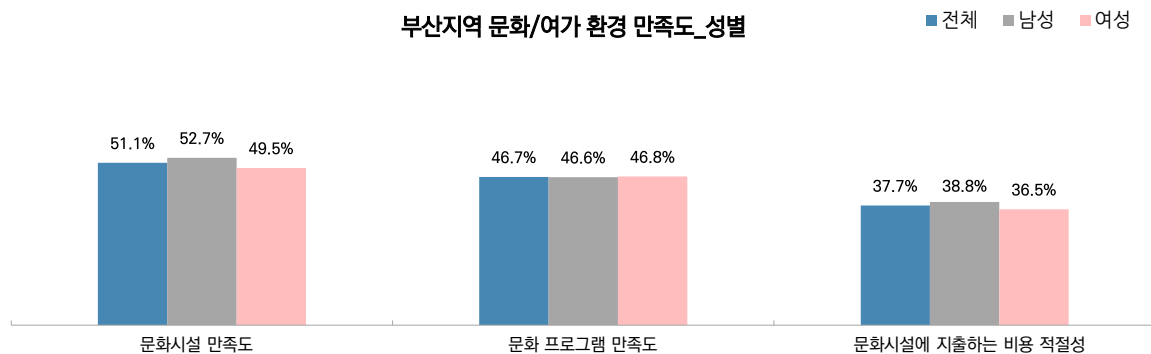
〈그림 2-1-60〉 문화/여가활동 위해 자주 방문한 지역_성별

(4) 문화/여가 환경

- 부산지역 문화/여가 환경 만족도는 시설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1.1%, 프로그램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46.7%
- 응답자의 37.7%는 문화시설에 지출하는 비용이 적절하다고 응답

- 부산지역 문화/여가 환경의 문화시설 만족도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그렇다’ 비율이 높게 나타남 (남성 52.7%, 여성 49.5%)
- 부산지역 문화/여가 환경의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그렇다’ 비율이 높게 나타남 (여성 46.8%, 남성 46.6%)
- 부산지역 문화/여가 환경의 문화시설에 지출하는 비용 적절성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그렇다’ 비율이 높게 나타남 (남성 38.8%, 여성 36.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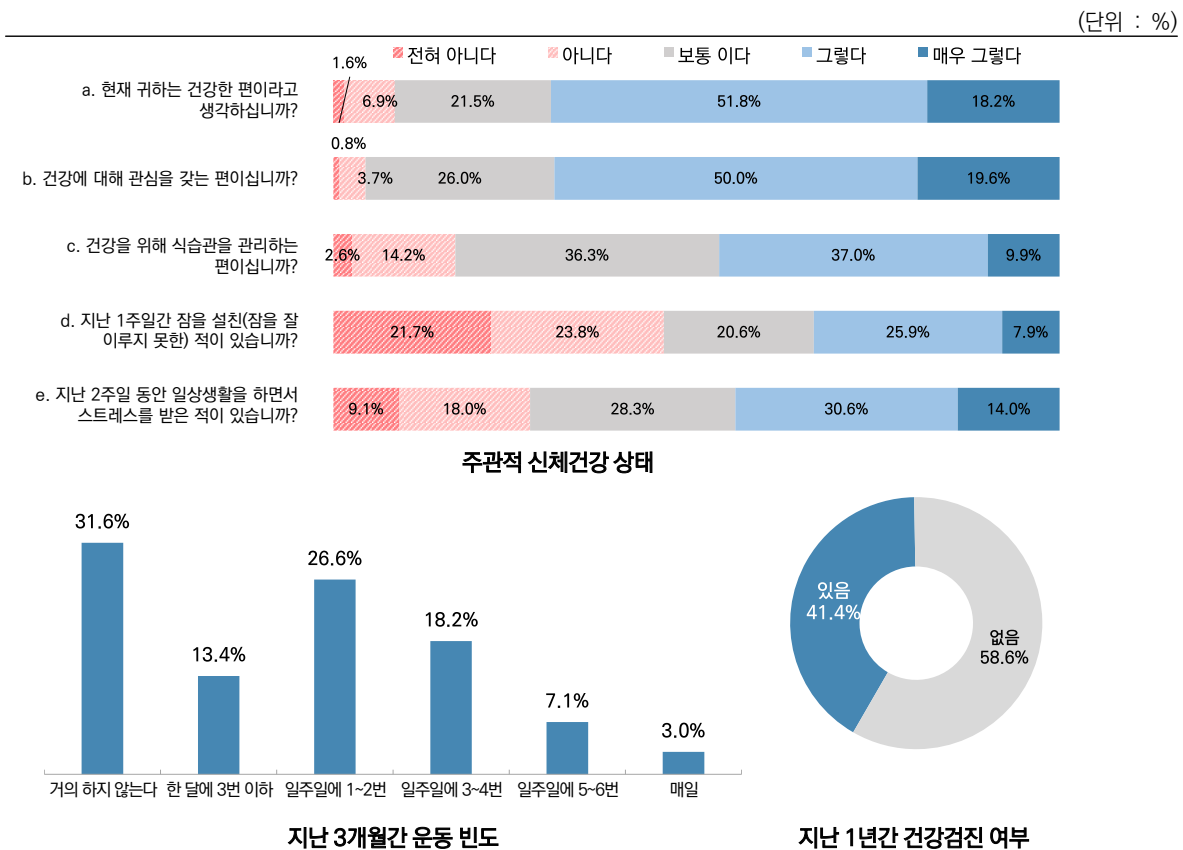
〈그림 2-1-61〉 문화/여가 환경_성별

5. 건강 및 삶의 질

1) 건강상태

(1) 건강관리

- 응답자의 70.0%는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
- 응답자의 69.6%는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는 편이라고 응답
- 응답자의 16.8%는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
- 응답자의 31.6%는 지난 3개월간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응답
- 응답자의 58.6%는 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



〈그림 2-1-62〉 신체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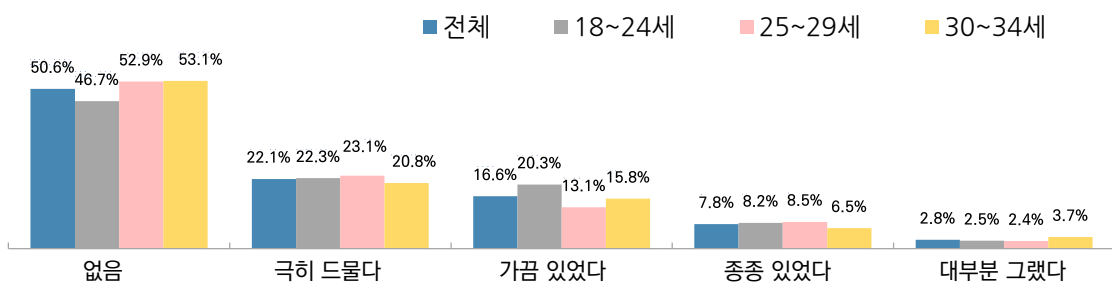
(2) 정신건강

- ▶ 지난 1주일간 우울감을 3일 이상(종종 있었다 + 대부분이 그랬다) 느낀 응답자는 10.6%, 화/분노를 3일 이상(종종 있었다 + 대부분이 그랬다) 느낀 응답자는 11.6%
- ▶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친구나 선후배', '가족'에게 도움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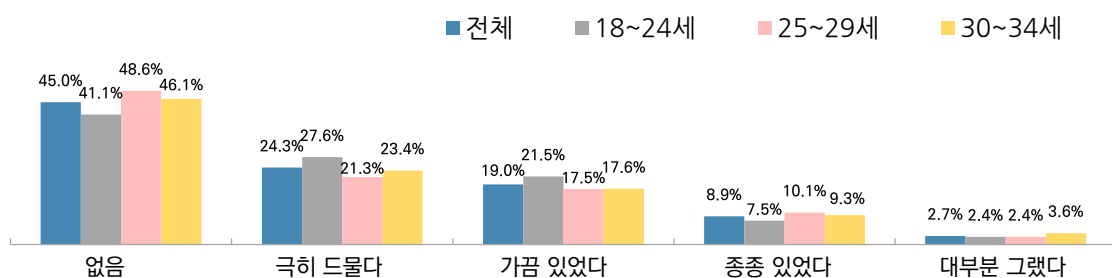
- 지난 1주일간 우울감을 3일 이상(종종 있었다, 대부분이 그랬다) 느낀 경우는 '25~29세', '18~24세', '30~34세' 순
- 지난 1주일간 화나 분노를 3일 이상(종종 있었다, 대부분이 그랬다) 느낀 경우는 '30~34세', '25~29세', '18~24세' 순

(단위 : %)

지난 1주일간 우울감 빈도_연령별



지난 1주일간 화, 분노 빈도_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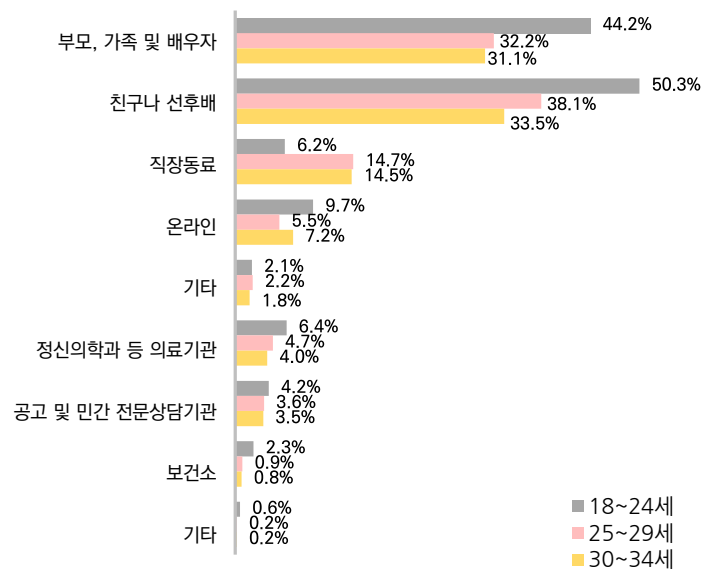


〈그림 2-1-63〉 정신건강_연령별

-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경험에서 ‘친구나 선후배’의 경우 ‘18~24세’, ‘25~29세’, ‘30~34세’ 순
-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에서 ‘정신학과 등 의료기관’의 경우 ‘18~24세’, ‘25~29세’, ‘30~34세’ 순

(단위 : %)

지난1년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_연령별



〈그림 2-1-64〉 정신건강_연령별

2)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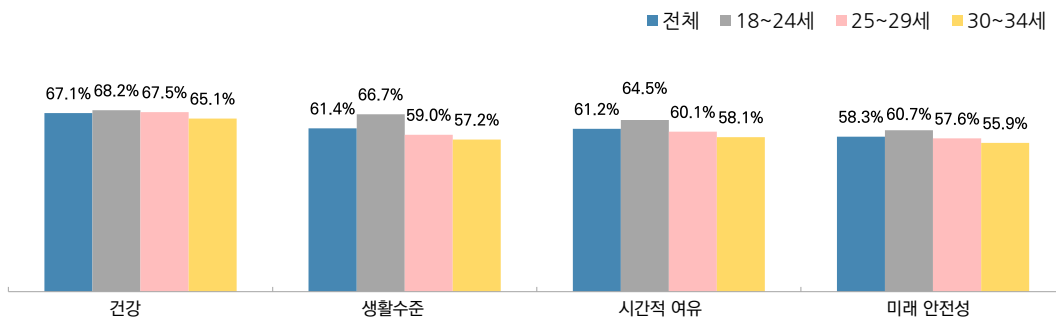
(1) 삶에 대한 만족도

- ▶ 삶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는 '건강', '생활수준', '시간적 여유' 순
- ▶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득 향상', '신체 정신적 건강'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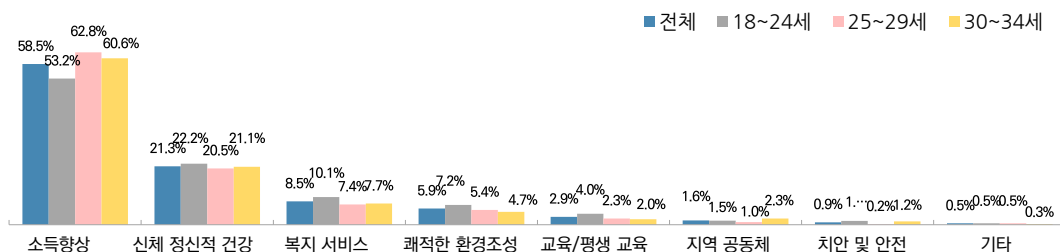
- '생활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8~24세', '25~29세', '30~34세' 순(18~24세 66.7%, 25~29세 59.0%, 30~34세 57.2%)
-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 중 '소득 향상'이라는 응답은 '25~29세', '30~34세', '18~24세' 순 (25~29세 62.8%, 30~34세 60.6%, 18~24세 58.5%)

(단위 : %)

삶에 대한 만족도_연령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_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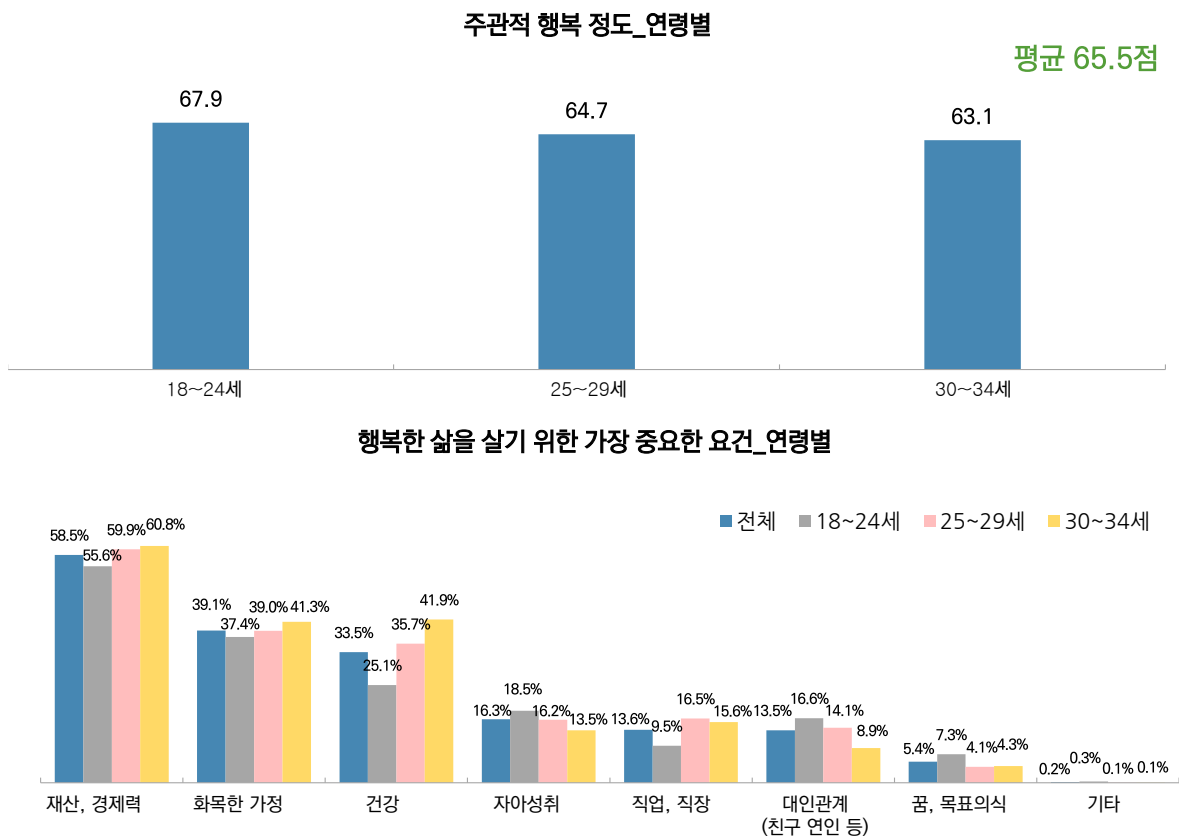
〈그림 2-1-65〉 삶의 질 연령별

(2) 주관적 행복

- ▶ 주관적 행복 정도는 평균 65.5점
- ▶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재산, 경제력', '화목한 가정', '건강' 순

- 연령별 주관적 행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편(18~24세 67.9점, 25~29세 64.7점, 30~34세 63.1점)
-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건강'의 비중이 높아짐

(단위 : %)



〈그림 2-1-66〉 행복 연령별

6.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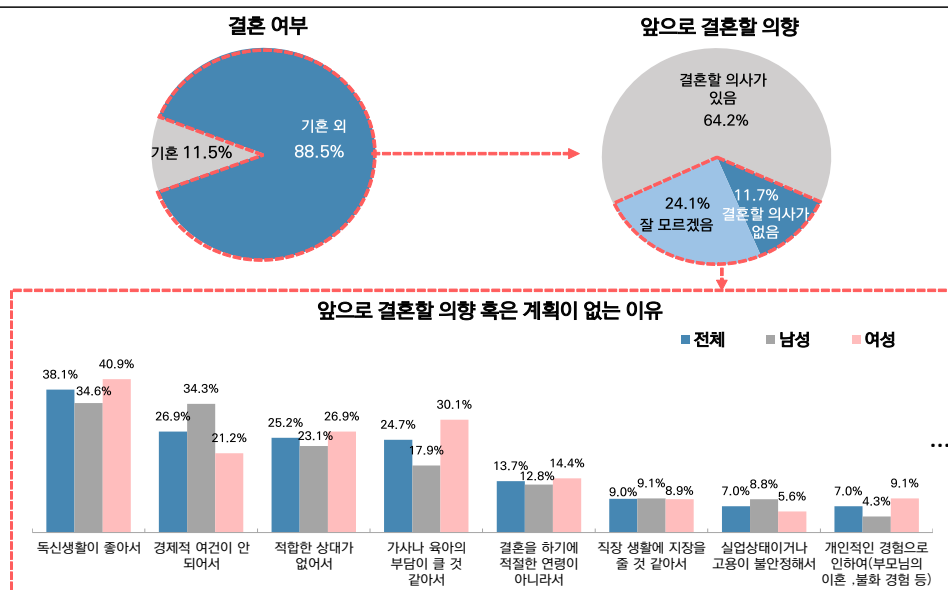
1) 가족관

(1) 결혼관

-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11.7%
- 결혼할 의향 혹은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독신생활이 좋아서',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서', '적합한 상대가 없어서' 순

- 앞으로 결혼할 의향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결혼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남성 70.2%, 여성 57.5%)
-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독신이 좋아서' 향후 결혼할 의향 혹은 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편 (여성 40.9%, 남성 34.6%)
-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향후 결혼할 의향 혹은 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남성 34.3%, 여성 21.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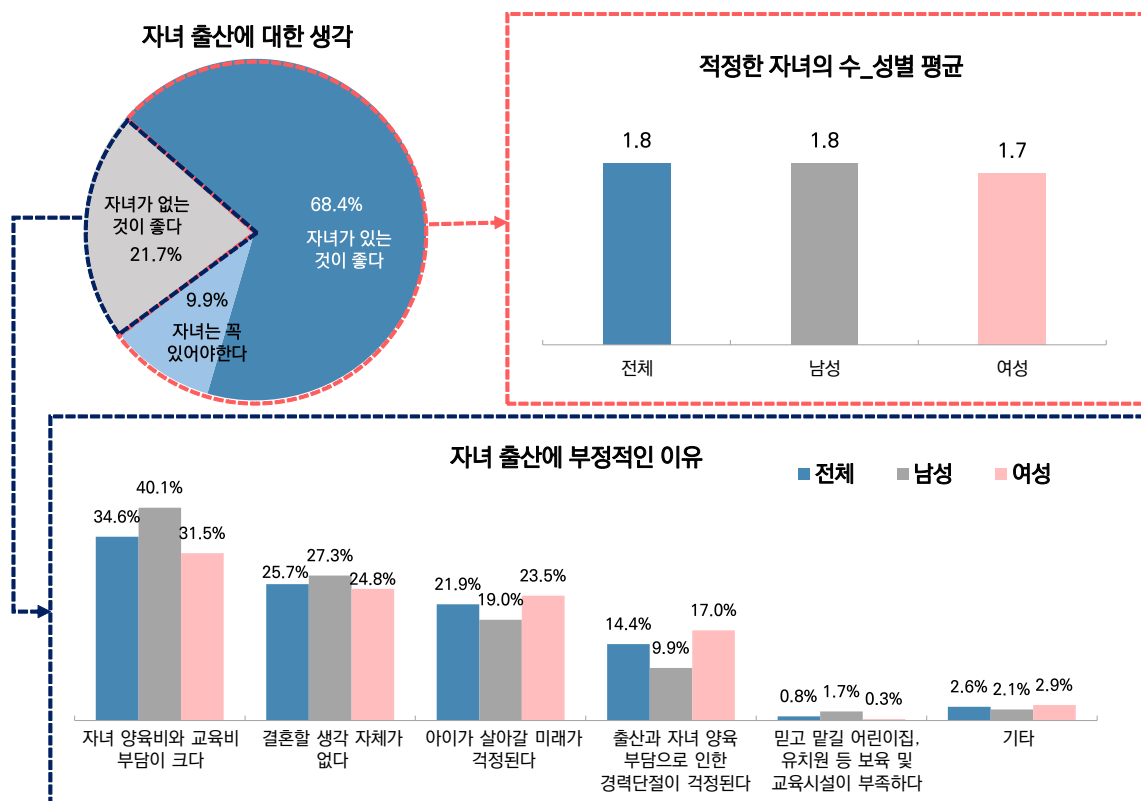
〈그림 2-1-67〉 결혼관_성별

(2) 자녀관

- 응답자의 21.7%는 자녀 출산에 대해 ‘자녀가 없는 것이 좋다’고 응답
- 적절한 자녀수는 평균 1.8명
-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 적절한 자녀의 수는 성별에 따른 큰 차이가 없음(남성 1.8명, 여성 1.7명)
-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이유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비율이 높음(남성 40.1%, 여성 31.5%)
-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이유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경력단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여성 17.0%, 남성 9.9%)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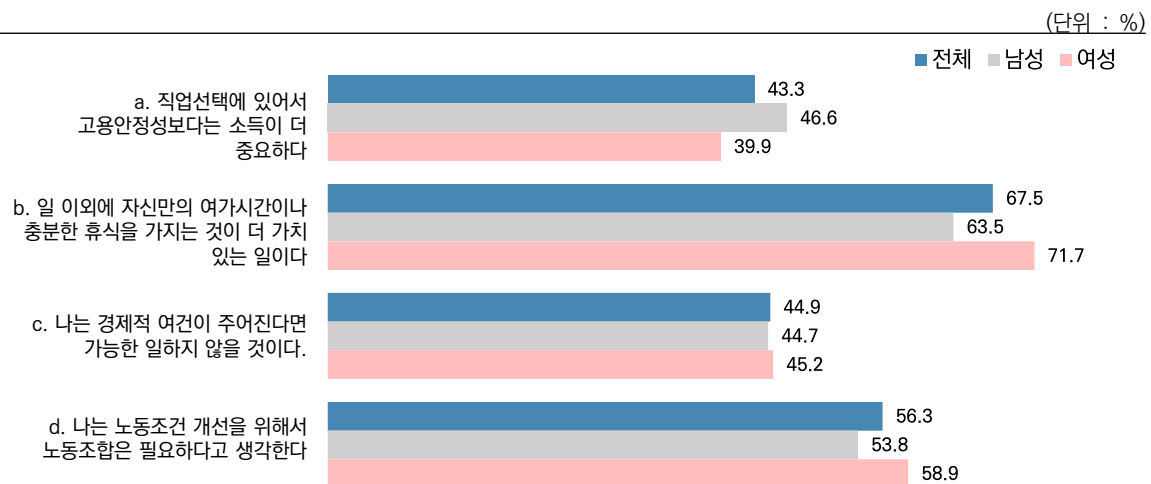
〈그림 2-1-68〉 자녀관_성별

2) 사회관

(1) 노동관

- 직업 선택 시 ‘고용안정보다 소득이 더 중요하다’, 43.3%
- ‘일 보다 여가시간, 휴식을 더 중요’, 67.5%
- ‘경제적 여건이 주어진다면 일하지 않겠다’, 44.9%
-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56.3%

- 직업선택에 있어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보다는 소득을 더 중요하게 인식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 이외에 자신만의 여가시간이나 충분한 휴식을 가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식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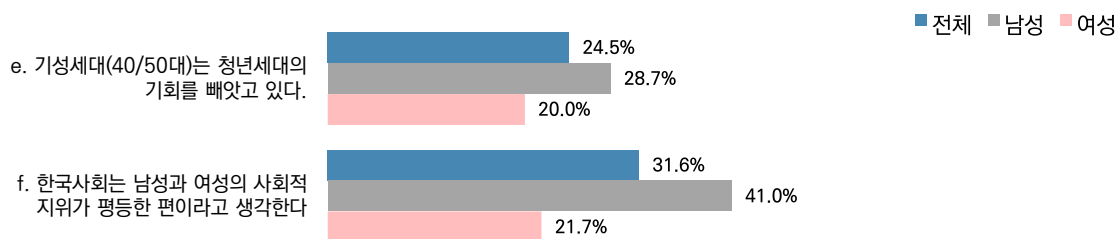
〈그림 2-1-69〉 노동관 긍정응답 요약_성별

(2) 타인 인식

- 응답자의 24.5%는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 고 인식
- 응답자의 31.6%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평등’ 하다고 인식

-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남성 28.7%, 여성 20.0%)
-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평등한 편’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남성 41.0% 여성 21.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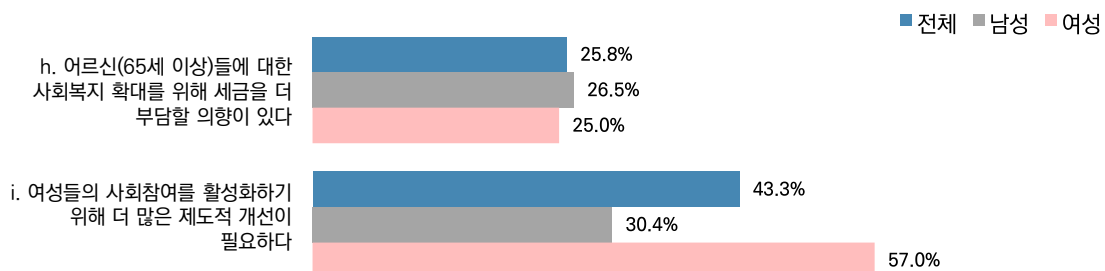
〈그림 2-1-70〉 타인인식 긍정응답 요약_성별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 응답자의 25.8%만이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 응답자의 43.3%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

-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그렇다’ 비율이 높음(남성 26.5%, 여성 25.0%)
-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그렇다’ 비율이 높음(남성 30.4%, 여성 57.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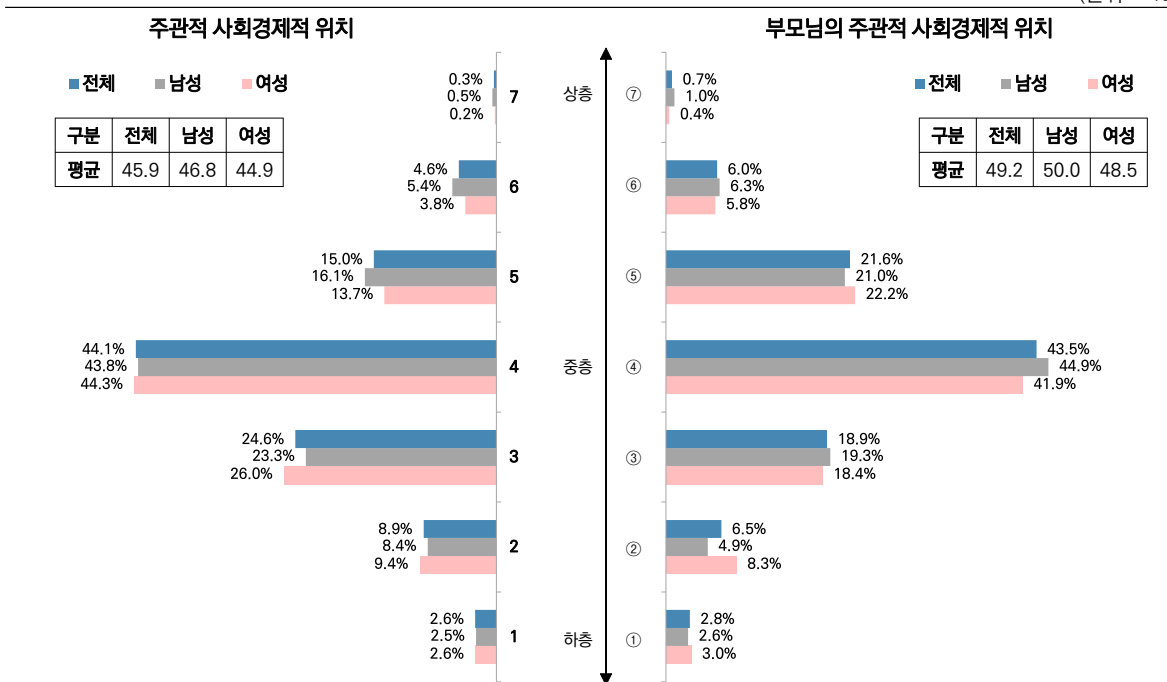
〈그림 2-1-71〉 사회적 약자 긍정응답 요약 성별

(4) 계층인식

▶ '본인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중층 미만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36.1%,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중층 미만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28.2%로 부모보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더 낮게 인식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본인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위치'를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중층 미만으로 응답한 남성 35.5%, 여성 38.0%)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부모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위치'를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중층 미만으로 응답한 남성 26.8%, 여성 29.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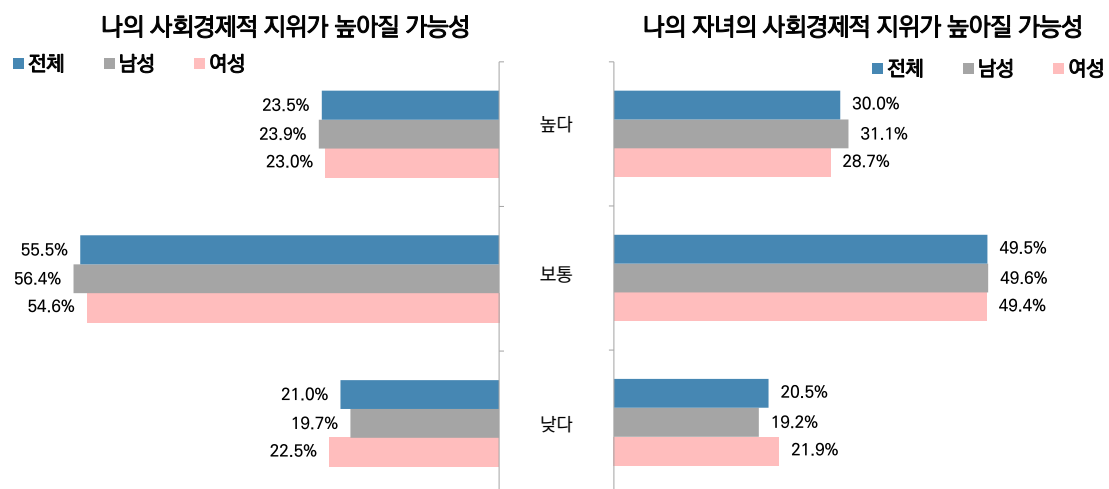
〈그림 2-1-72〉 계층인식 요약 성별

(5) 계층이동 가능성

▶ 응답자의 21.0%는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 응답자의 20.5%는 ‘나의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여성 22.5%, 남성 19.7%)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나의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남성 19.2% 여성 21.9%)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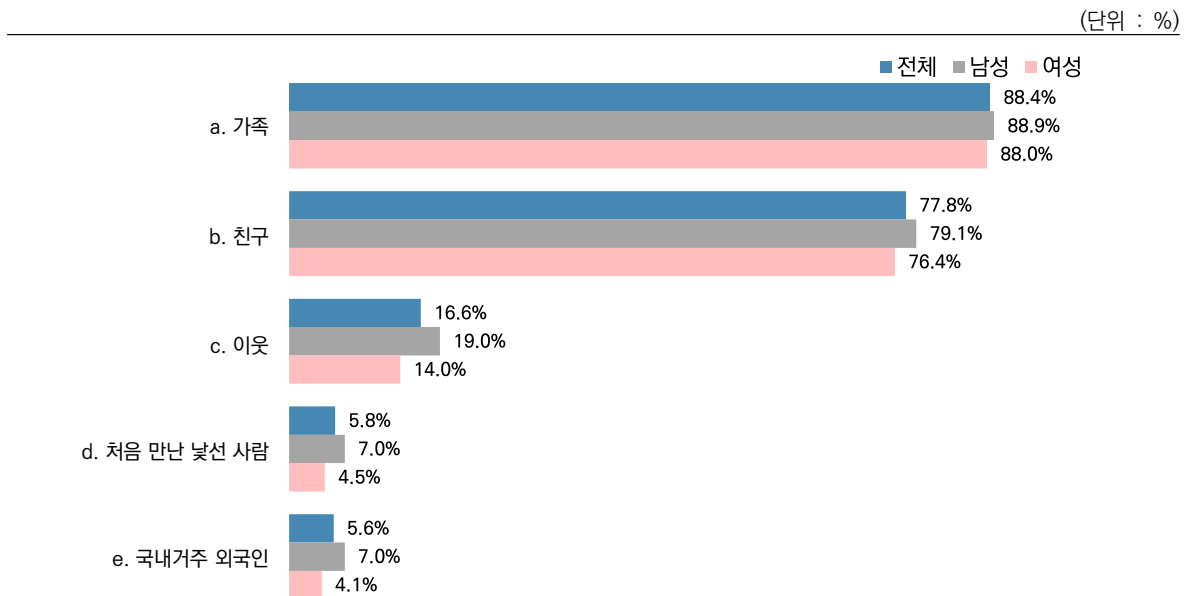


〈그림 2-1-73〉 계층이동 가능성 긍정응답 요약_성별

(6) 타인에 대한 신뢰

- '가족', '친구'와 같이 비교적 가까운 지인에 대한 신뢰는 비교적 높은 편
- '이웃', '처음만난 낯선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뢰는 비교적 낮은 편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은 편(여성 46.2%, 남성 35.4%)
- 이웃, 처음만난 낯선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남녀 모두 높은 편



〈그림 2-1-74〉 타인에 대한 신뢰 긍정응답 요약_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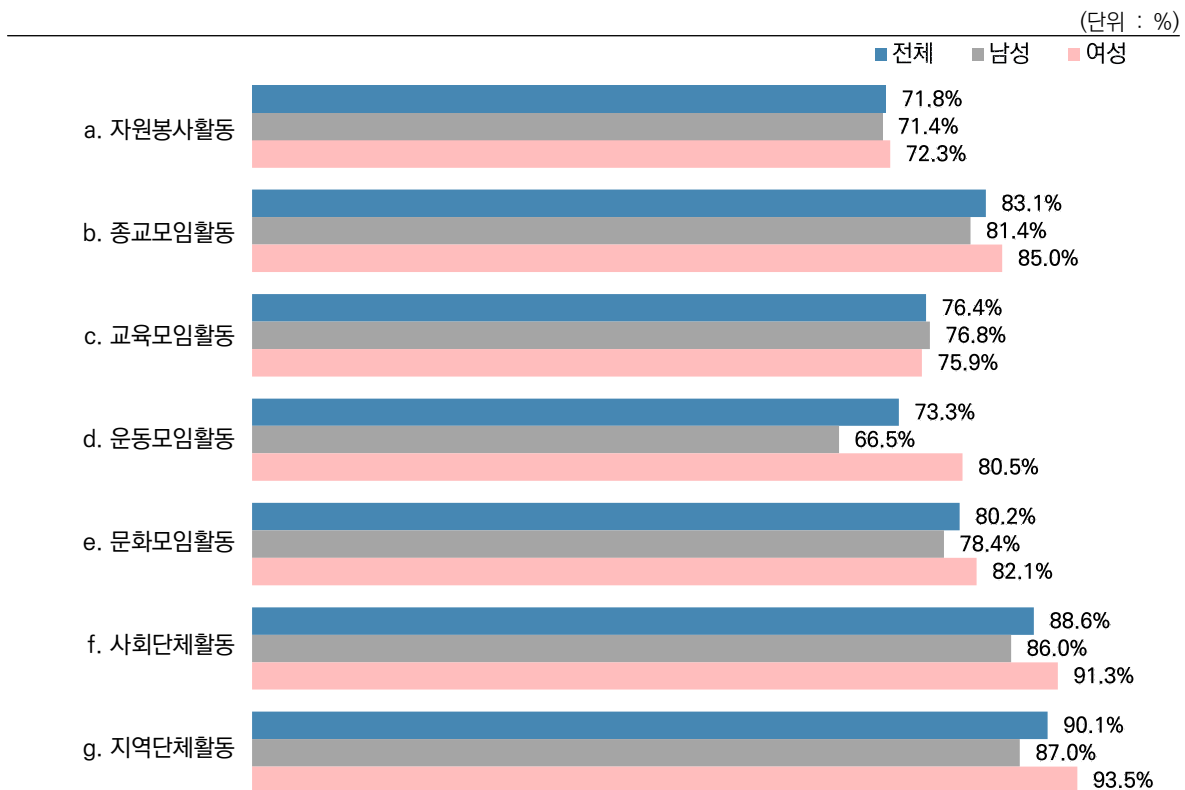
7. 사회통합

1) 사회참여 활동

(1) 모임/단체 참여 활동

➤ 모임이나 단체 참여 활동 참여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참여가 많은 활동은 '자원봉사활동', '운동 모임활동', '교육모임활동' 순

- 운동모임과 지역단체활동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는 참여율이 약간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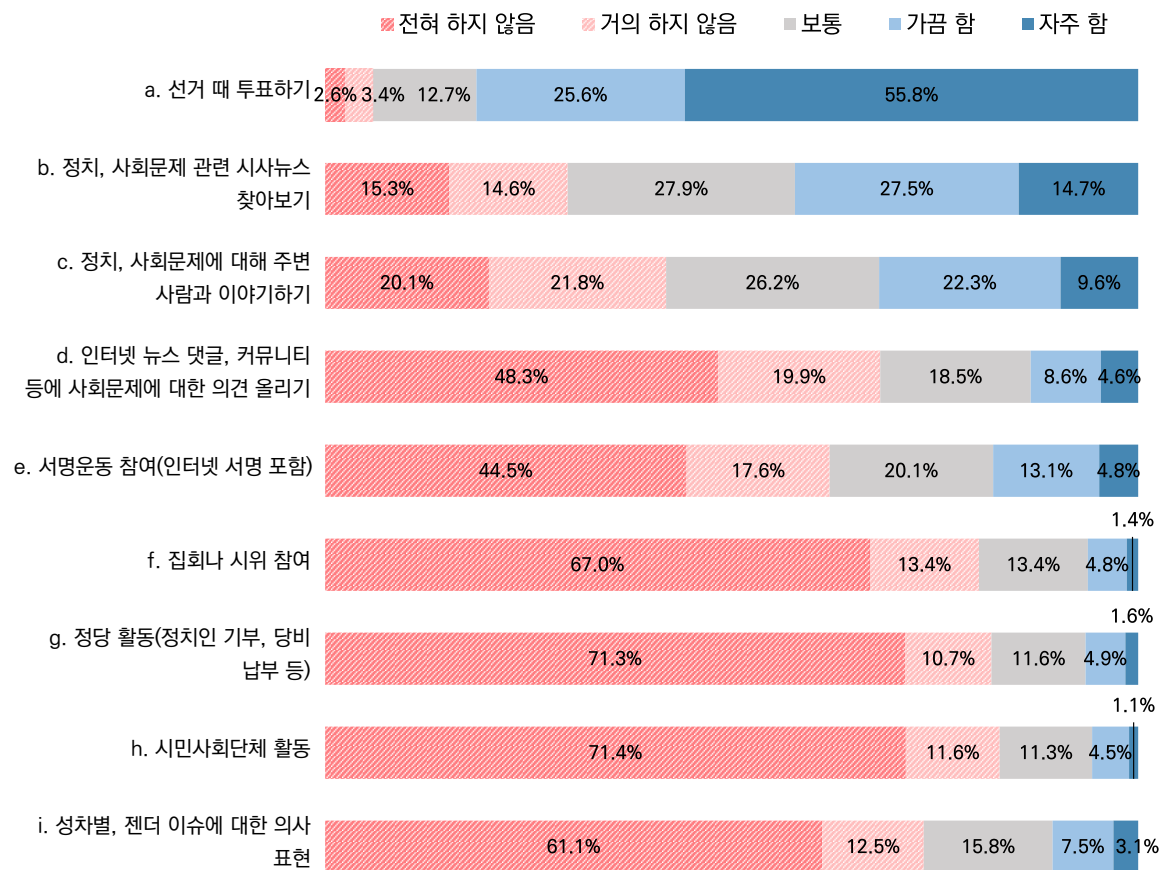


〈그림 2-1-75〉 사회참여활동 전혀 하지 않음 요약 성별

(2) 주요 사회참여 활동

▶ 사회참여를 위한 주요 활동은 '선거 때 투표하기', '정치, 사회문제 관련 시사뉴스 찾아보기', '정치, 사회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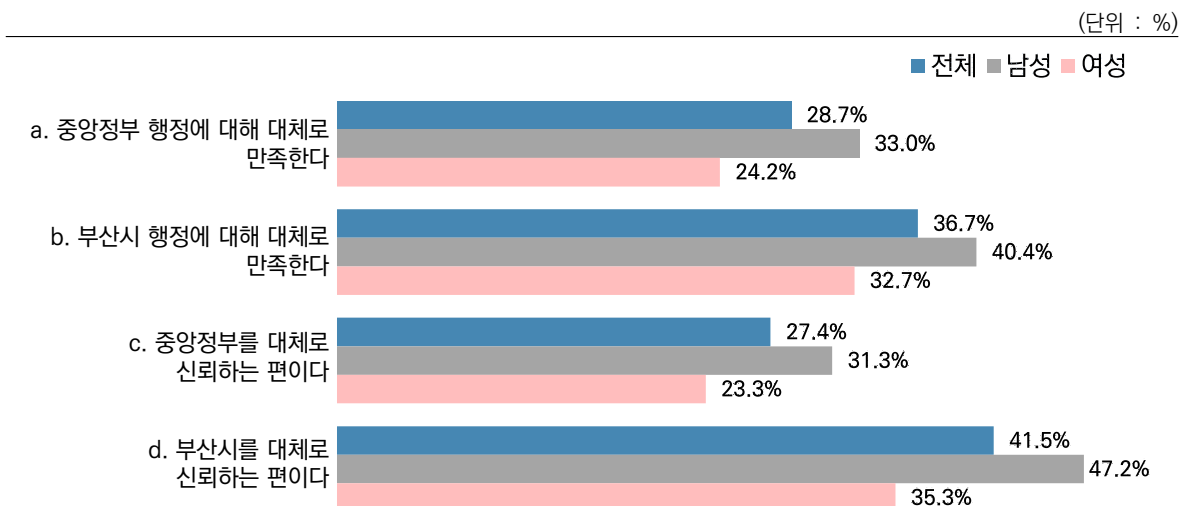
〈그림 2-1-76〉 사회참여 요약

2) 정부/지역 인식

(1) 정부에 대한 만족과 신뢰

- '중앙정부 행정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응답자는 28.7%인 반면, '부산시 행정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6.7%로 중앙정부와 비교할 때, 부산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중앙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7.4%인 반면, '부산시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41.5%로 중앙정부와 비교할 때, 부산시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남성은 여성에 비해 중앙정부 행정 만족도(남성 40.4%, 여성 32.7%)와 부산시 행정 만족도(남성 40.4%, 여성 32.7%) 모두 높은 편
- 남성은 여성에 비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남성 31.3%, 여성 23.3%)와 부산시에 대한 신뢰(남성 47.2%, 여성 35.3%) 모두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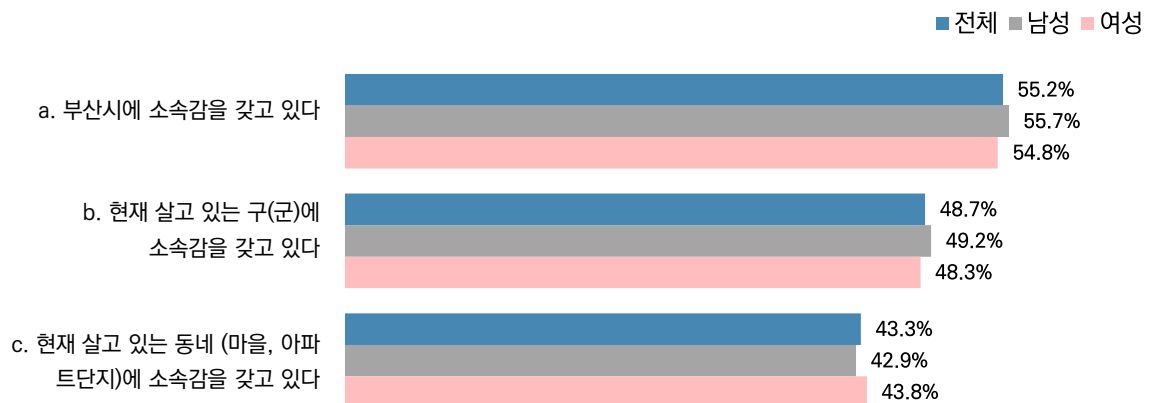
〈그림 2-1-77〉 정부에 대한 만족과 신뢰 긍정응답 요약 성별

(2) 지역에 대한 소속감

▶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부산시’, ‘구(군)’, ‘현재 살고 있는 동네’ 순으로 높음

- 부산시에 대한 소속감(남성 55.7%, 여성 54.8%), 구(군)에 대한 소속감(남성 49.2%, 여성 48.3%), 동네(마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소속감(남성 42.9%, 여성 43.8%) 순으로 높았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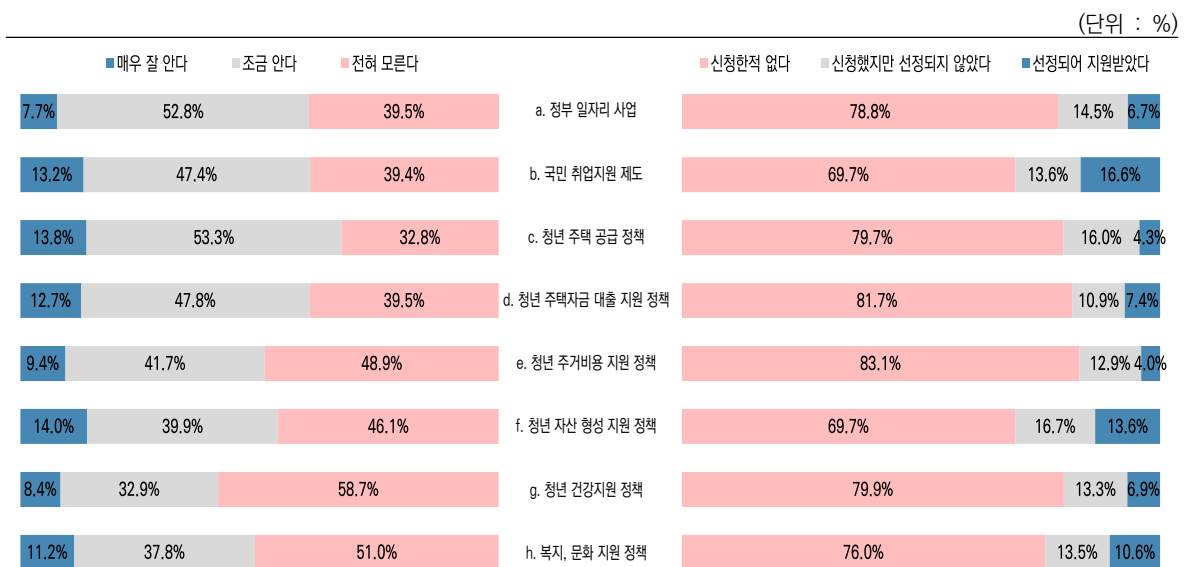
〈그림 2-1-78〉 지역에 대한 소속감 긍정응답 요약_성별

8. 청년정책

1) 정책 평가

(1) 중앙정부 청년정책

- 중앙정부 청년정책 중 인지도가 높은 정책(매우 잘 안다 + 조금 안다)은 ‘청년 주택 공급 정책’, ‘국민 취업지원 제도’, ‘정부 일자리 사업’, ‘청년 주택자금 대출지원’ 순
- 중앙정부 청년정책 참여 경험은 ‘국민 취업지원 제도’,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 ‘복지 문화 지원 정책’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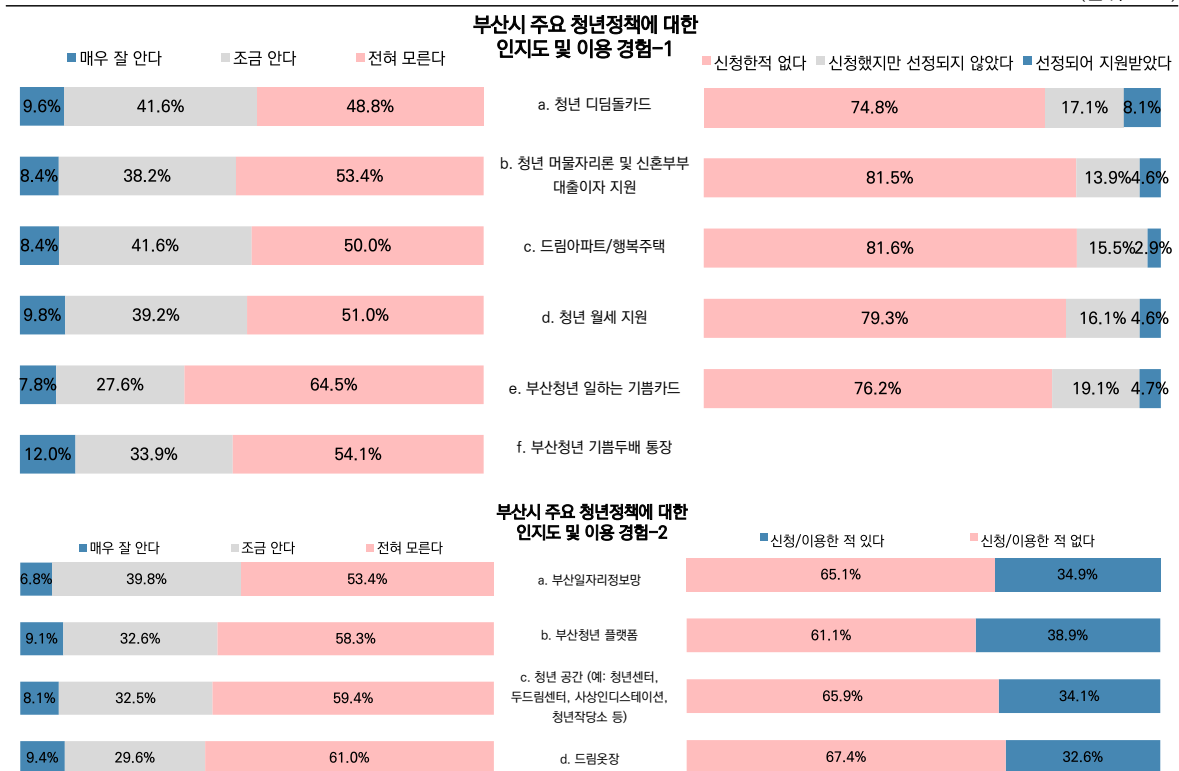


〈그림 2-1-79〉 중앙정부 청년정책 인지도 및 신청 여부 요약

(2) 부산시 청년정책

- ▶ 부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은 편
- ▶ 인지도가 가장 높은 ‘디딤돌 카드’의 경우에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8.8%
- ▶ 부산시 청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청년정책은 ‘청년 디딤돌 카드’(51.2%), ‘드림아파트/행복주택’(50.0%), 청년 월세 지원(49.0%) 순
- ▶ 정책 참여 경험은 ‘부산 청년 플랫폼’, ‘부산일자리정보망’, ‘청년 공간’ 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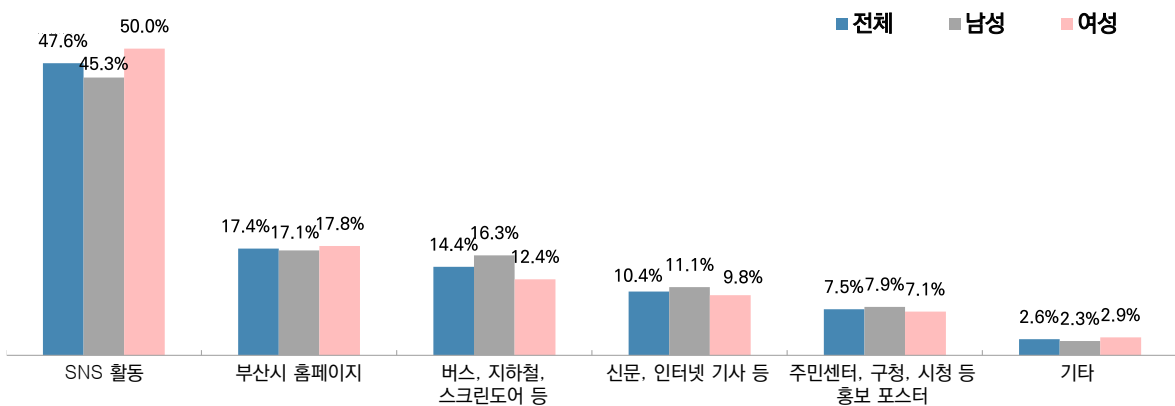
〈그림 2-1-80〉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인지도 및 신청 여부 요약

(3) 청년정책을 알게 된 경로

▶ 청년정책을 알게 된 경로는 'SNS활동(친구, 동료 등)', '부산시 홈페이지(청년정책 관련)', '버스,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순

- 여성은 남성과 비교할 때, 청년정책을 알게 된 경로로 'SNS 활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여성 50.0%, 남성 45.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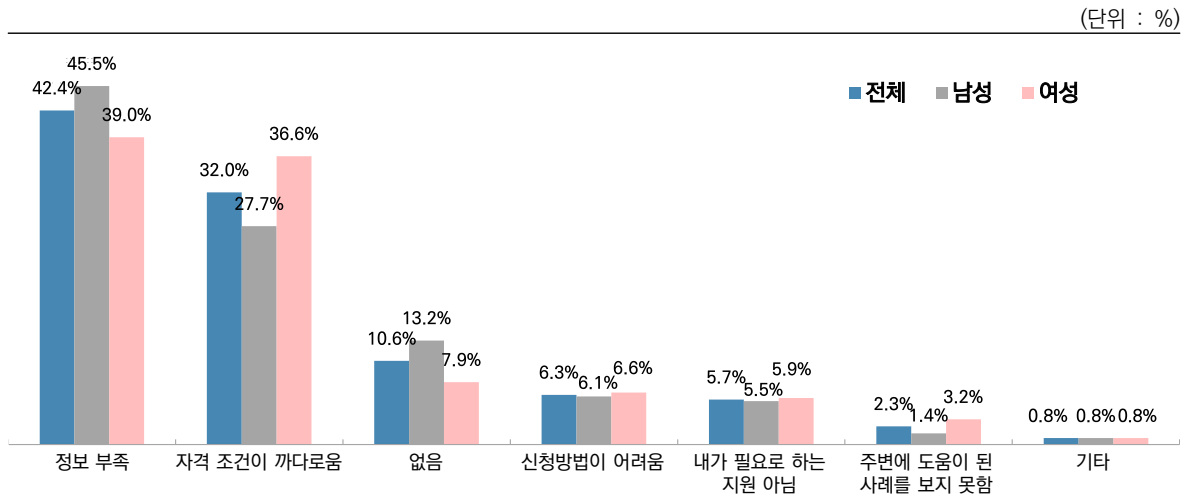
〈그림 2-1-81〉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인지 경로_성별

2) 부산시 청년 정책 수요

(1) 청년정책 지원 시 어려운 점

➤ 청년정책 지원 시 어려운 점은 ‘정보 부족’과 ‘자격 조건 까다로움’ 순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격요건이 까다로워(남성 27.7%, 여성 36.6%) 청년정책 지원 시 어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중이 큰 편
-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정보 부족’(남성 45.5%, 여성 39.0%)으로 인하여 청년정책 지원 시 어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중이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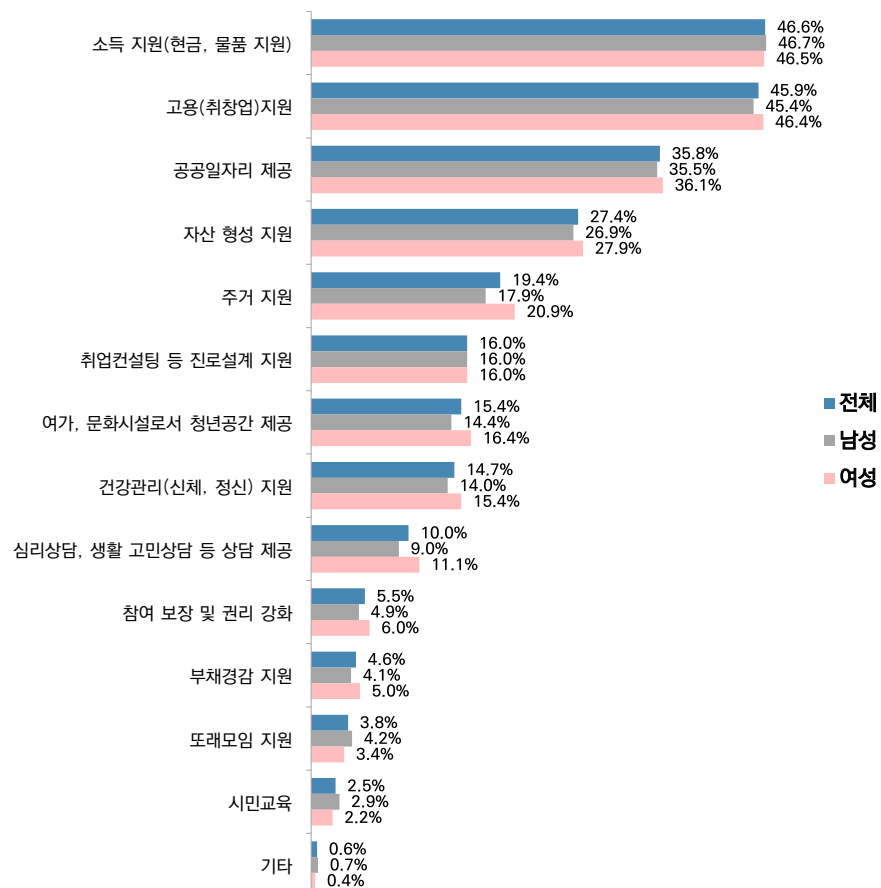
〈그림 2-1-82〉 청년정책 지원시 어려운 점 성별

(2)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가 필요한 사업

▶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될 필요가 높은 사업은 ‘소득 지원’, ‘고용 지원’, ‘공공 일자리 제공’ 순

-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 지원’(남성 46.7%, 여성 46.5%)과 ‘고용지원’(45.9%)에 관한 수요가 높았음
- 성별로 강화가 필요한 사업에 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주거지원’(남성 17.9%, 여성 20.9%), ‘청년공간’(남성 14.4%, 여성 16.4%) 관련 정책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단위 : %)



〈그림 2-1-83〉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분야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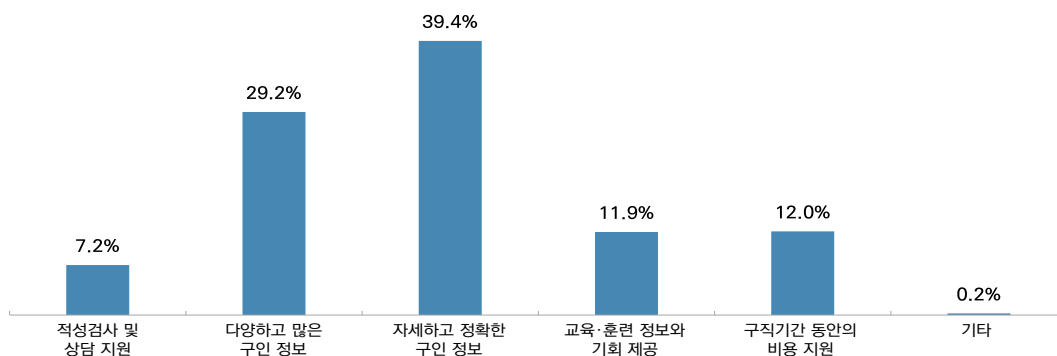
제2절 노동

1. 공통질문(취업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1)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39.4%는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29.2%,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지원’ 12.0%, ‘교육 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 11.9% 순
- 성별로 살펴보면,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가 각각 38.8%(남성), 40.1%(여성)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가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0~34세 경우 타 연령에 비해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35.2%)가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고졸 이하 경우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1〉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표 2-2-1〉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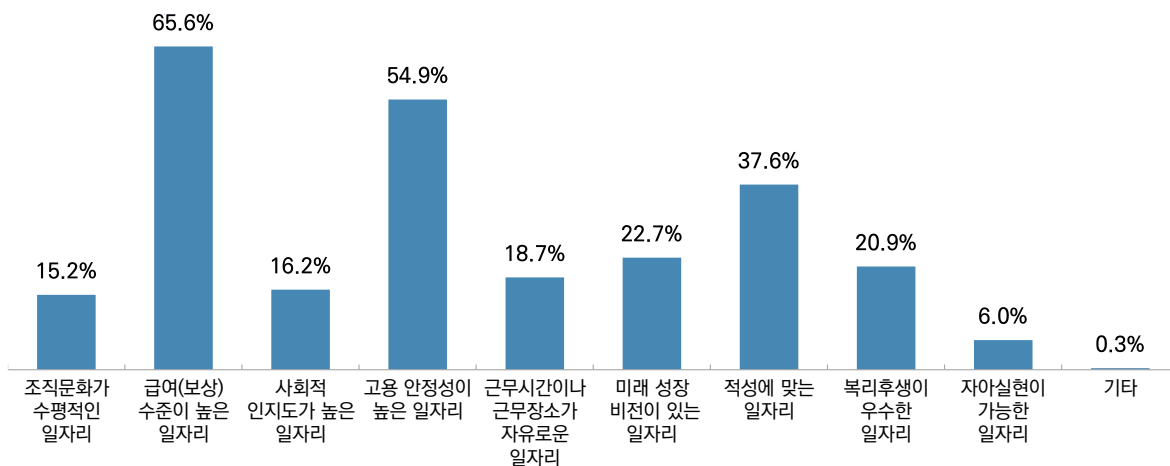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	기타
전체	계	(3000)	7.2	29.2	39.4	11.9	12.0	0.2
거주지	동부산권	(872)	7.6	28.8	39.1	14.1	9.9	0.5
	서부산권	(787)	6.4	29.9	37.3	12.6	13.7	0.1
	중부산권	(932)	7.1	29.2	41.3	8.9	13.5	0.1
	원도심	(409)	8.0	28.7	39.9	13.1	10.0	0.2
취업여부	취업자	(1461)	4.9	36.3	36.7	9.8	12.1	0.3
	미취업자	(1539)	9.4	22.5	42.0	14.0	12.0	0.2
성별	남성	(1548)	7.8	31.0	38.8	11.3	10.9	0.3
	여성	(1452)	6.5	27.3	40.1	12.7	13.3	0.1
연령	18~24세	(1142)	9.0	20.9	43.0	15.7	11.0	0.3
	25~29세	(987)	5.4	33.4	37.5	10.2	13.2	0.2
	30~34세	(871)	6.9	35.2	36.8	9.1	11.9	0.1
가혼인상태	미혼	(2659)	7.1	28.7	39.4	12.3	12.3	0.2
	기혼	(332)	8.0	34.0	39.4	9.3	9.0	0.3
	이혼·사별	(10)	10.2	9.2	43.2	0.0	37.4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7.6	31.3	44.7	8.3	7.5	0.6
	자녀 없음	(2835)	7.2	29.1	39.1	12.2	12.3	0.2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7.6	28.7	40.3	12.6	10.6	0.2
	부모 미동거	(1103)	6.5	30.0	37.9	10.9	14.4	0.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8.0	39.8	33.9	6.9	10.9	0.5
	대학 재학	(1192)	9.4	20.6	43.0	16.2	10.5	0.4
	대학 졸업	(1539)	5.5	34.9	37.2	9.0	13.3	0.1
	대학원 졸업	(101)	6.2	24.8	40.4	15.8	12.8	0.0

7) 본 조사에서의 사례 수는 가중치(소수점 첫째자리 혹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가 반영된 결과로, 세부 응답 사례수의 합계가 전체 응답 사례수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2)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65.6%는 ‘높은 급여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높은 고용안정성’ 54.9%, ‘적성’ 37.6%, ‘우수한 복리후생’ 20.9% 순으로 응답하였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높은 급여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높은 고용안정성’, ‘적성’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높은 급여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학원 졸업의 경우 ‘자아실현’이 11.3%로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와 미취업자 각각 67.2%, 64.1%로 ‘높은 급여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취업자의 경우 ‘높은 고용안정성’이 60.5%로 미취업자에 비해 11%p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2〉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표 2-2-2〉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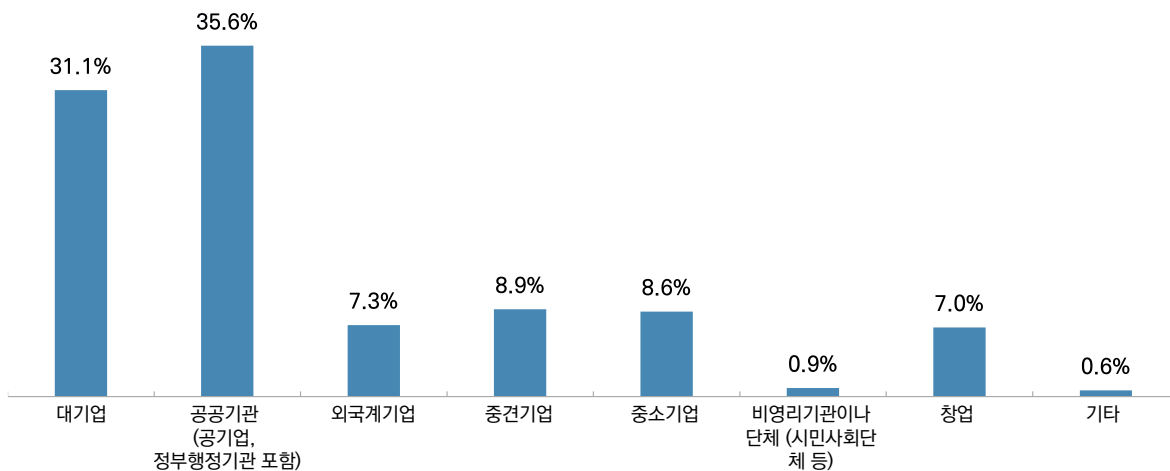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수평적 조직문화	높은 급여수준	사회적 인지도	높은 고용안정성	자유로운 근무시간,장소	미래 성장비전	적성	우수한 복리후생	자아실현 가능	기타
전체	계	(3000)	15.2	65.6	16.2	54.9	18.7	22.7	37.6	20.9	6.0	0.3
거주지	동부산권	(872)	15.0	65.1	16.8	52.9	20.5	21.8	37.9	20.1	6.3	0.5
	서부산권	(787)	14.8	65.9	15.1	56.1	18.2	21.7	36.4	20.9	5.7	0.1
	중부산권	(932)	14.1	65.9	16.8	55.9	16.8	24.2	38.1	20.2	7.2	0.3
	원도심	(409)	18.8	65.3	15.7	54.3	20.2	23.3	37.7	24.6	3.5	0.0
취업여부	취업자	(1461)	14.4	67.2	16.1	60.5	16.6	24.7	35.8	23.1	5.3	0.5
	미취업자	(1539)	16.0	64.1	16.3	49.5	20.8	20.8	39.2	18.8	6.7	0.1
성별	남성	(1548)	14.9	62.4	17.5	56.3	18.3	24.2	35.0	18.0	6.2	0.4
	여성	(1452)	15.5	69.0	14.9	53.3	19.1	21.1	40.2	24.0	5.9	0.2
연령	18~24세	(1142)	16.4	64.8	15.5	47.5	20.8	21.1	39.6	18.2	6.1	0.1
	25~29세	(987)	15.6	65.4	16.9	58.0	17.6	25.1	37.3	20.1	5.7	0.6
	30~34세	(871)	13.1	66.9	16.3	61.0	17.3	22.2	35.1	25.4	6.2	0.2
혼인상태	미혼	(2659)	15.5	65.8	16.3	53.9	18.7	22.8	37.6	20.4	6.2	0.3
	기혼	(332)	12.4	64.6	15.4	62.8	18.7	21.3	37.1	25.7	4.2	0.2
	이혼·사별	(10)	30.5	49.9	20.3	63.5	9.2	40.6	40.0	9.2	10.2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11.5	63.8	18.9	62.7	25.5	20.8	34.1	25.4	3.0	0.0
	자녀 없음	(2835)	15.4	65.7	16.1	54.4	18.3	22.8	37.8	20.7	6.2	0.3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16.3	65.6	16.1	53.8	19.3	23.0	38.0	19.7	5.8	0.2
	부모 미동거	(1103)	13.2	65.5	16.5	56.7	17.7	22.2	36.8	23.1	6.3	0.5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12.4	70.4	13.9	55.6	15.6	19.1	41.7	20.4	5.2	0.5
	대학 재학	(1192)	16.9	64.5	15.7	47.0	21.1	21.2	39.9	18.1	6.3	0.1
	대학 졸업	(1539)	13.7	65.8	16.9	61.3	17.3	24.0	35.1	22.9	5.6	0.5
	대학원 졸업	(101)	21.4	66.9	15.2	48.3	16.8	27.4	40.5	25.1	11.3	0.0

3) 만약 취업, 이직한다면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

- 만약 취업, 이직한다면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35.6%는 ‘공공기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대기업’ 31.1%, ‘중견기업’ 8.9%, ‘중소기업’ 8.6%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33.2%가 ‘대기업’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공공기관’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는 ‘대기업(35.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29세, 30~34세는 각각 37.5%, 40.4%로 공공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39.4%는 ‘공공기관’이라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자 35.0%는 ‘대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3〉 만약 취업, 이직한다면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

〈표 2-2-3〉 만약 취업, 이직한다면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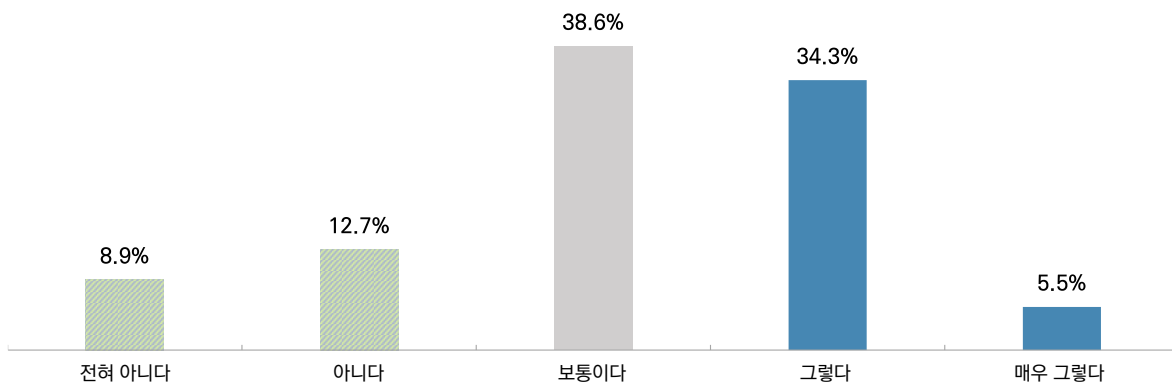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대기업	공공기관(공기업, 정부행정기관 포함)	외국계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시민사회단체 등)	창업	기타
전체	계	(3000)	31.1	35.6	7.3	8.9	8.6	0.9	7.0	0.6
거주지	동부산권	(872)	31.1	35.6	7.5	9.3	9.7	0.5	5.3	0.9
	서부산권	(787)	28.9	36.4	6.1	10.6	7.3	1.1	8.6	1.0
	중부산권	(932)	32.2	34.7	7.7	7.9	9.1	0.7	7.2	0.3
	원도심	(409)	32.8	36.2	7.9	6.7	7.8	1.3	7.2	0.0
취업여부	취업자	(1461)	27.0	39.4	6.3	9.4	9.5	0.7	7.5	0.3
	미취업자	(1539)	35.0	32.0	8.2	8.4	7.8	1.0	6.6	1.0
성별	남성	(1548)	33.2	32.8	6.7	8.4	10.7	0.8	6.8	0.6
	여성	(1452)	28.9	38.6	7.9	9.4	6.5	0.9	7.2	0.6
연령	18~24세	(1142)	35.8	30.4	8.2	8.3	8.6	1.3	6.5	0.9
	25~29세	(987)	26.9	37.5	6.1	10.8	10.4	0.5	7.2	0.6
	30~34세	(871)	29.8	40.4	7.3	7.4	6.7	0.7	7.4	0.3
혼인상태	미혼	(2659)	31.4	34.5	7.3	9.3	9.1	0.9	6.8	0.7
	기혼	(332)	29.2	44.4	7.3	5.1	4.6	0.3	8.8	0.3
	이혼·사별	(10)	22.9	39.1	0.0	10.2	10.2	10.2	7.6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33.6	43.5	6.4	3.6	5.2	1.2	6.5	0.0
	자녀 없음	(2835)	31.0	35.2	7.3	9.2	8.8	0.8	7.0	0.7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31.2	34.9	7.0	9.0	9.6	0.7	6.8	0.7
	부모 미동거	(1103)	30.9	36.9	7.7	8.6	7.0	1.1	7.3	0.4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27.5	24.7	3.2	14.2	20.5	0.6	9.3	0.0
	대학 재학	(1192)	36.8	29.7	8.2	8.0	7.9	1.4	7.0	0.9
	대학 졸업	(1539)	27.4	40.2	7.1	9.1	8.4	0.5	6.8	0.5
	대학원 졸업	(101)	26.5	53.5	5.1	6.2	0.8	1.0	6.8	0.0

4) 중소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할 의사

- 중소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할 의사에 대하여 39.7%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보통’ 38.6%, ‘아니다’ 21.7%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가 각각 39.1%(남성), 40.4%(여성)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보통이다’, ‘아니다’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43.6%는 ‘그렇다’가 높게 나타났으나, 25~29세, 30~34세는 각각 39.3%, 38.0%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37.9%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취업자는 42.1%로 ‘그렇다’가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4〉 중소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할 의사

〈표 2-2-4〉 중소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할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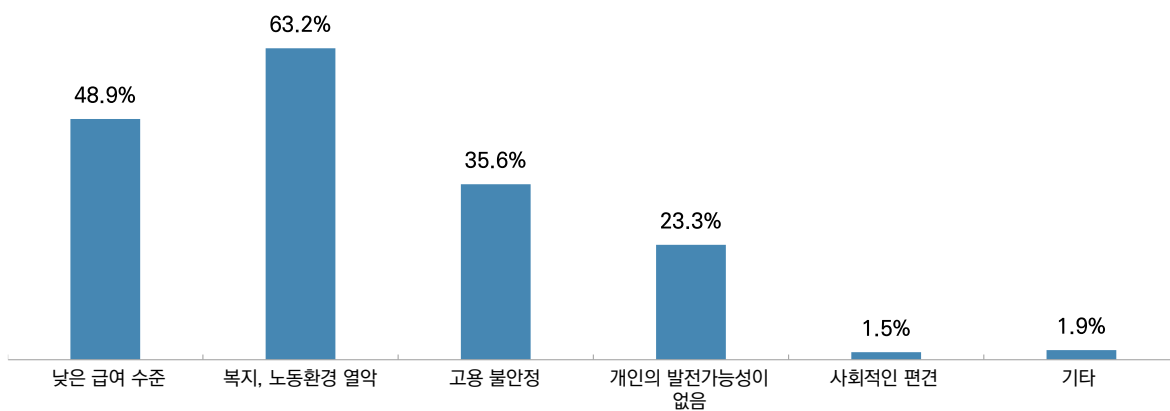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전체	계	(3000)	8.9	12.7	38.6	34.3	5.5	21.7	38.6	39.7
거주지	동부산권	(872)	8.9	11.1	39.4	34.2	6.4	20.0	39.4	40.6
	서부산권	(787)	10.1	13.0	38.0	32.8	6.2	23.1	38.0	39.0
	중부산권	(932)	8.3	12.9	37.8	35.6	5.3	21.3	37.8	40.9
	원도심	(409)	8.1	15.4	39.9	34.1	2.6	23.5	39.9	36.7
취업여부	취업자	(1461)	9.9	14.9	37.9	33.3	4.0	24.8	37.9	37.3
	미취업자	(1539)	8.0	10.7	39.3	35.2	6.9	18.6	39.3	42.1
성별	남성	(1548)	9.9	12.2	38.8	33.9	5.2	22.1	38.8	39.1
	여성	(1452)	7.9	13.3	38.4	34.6	5.8	21.2	38.4	40.4
연령	18~24세	(1142)	7.7	10.4	38.4	36.8	6.8	18.0	38.4	43.6
	25~29세	(987)	9.3	13.0	39.3	33.8	4.7	22.3	39.3	38.5
	30~34세	(871)	10.1	15.6	38.0	31.5	4.7	25.8	38.0	36.2
혼인상태	미혼	(2659)	8.8	12.2	38.9	34.4	5.7	21.0	38.9	40.1
	기혼	(332)	9.8	17.0	37.1	32.4	3.7	26.8	37.1	36.1
	이혼·사별	(10)	19.4	10.2	9.5	60.9	0.0	29.5	9.5	60.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8.4	18.0	36.7	33.5	3.4	26.5	36.7	36.9
	자녀 없음	(2835)	8.9	12.4	38.7	34.3	5.6	21.4	38.7	39.9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9.1	11.2	38.7	35.6	5.3	20.3	38.7	40.9
	부모 미동거	(1103)	8.6	15.4	38.3	31.9	5.7	24.0	38.3	37.7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2.8	5.6	38.7	43.8	9.0	8.4	38.7	52.8
	대학 재학	(1192)	7.6	10.3	38.6	35.8	7.7	17.9	38.6	43.5
	대학 졸업	(1539)	9.9	15.0	39.0	32.7	3.3	24.9	39.0	36.1
	대학원 졸업	(101)	19.2	18.5	32.8	23.6	5.9	37.6	32.8	29.5

4-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63.2%는 ‘복지, 노동환경 열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낮은 급여 수준’ 48.9%, ‘고용 불안정’ 35.6%,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23.3%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59.9%가 ‘복지 노동환경 열악’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67.0%가 ‘복지 노동환경 열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복지 노동환경 열악’이 높게 나타났고, 30~34세의 경우 ‘낮은 급여 수준’이 55.8%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65.3%는 ‘복지 노동환경 열악’이라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자도 60.6%로 ‘복지 노동환경 열악’이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5〉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표 2-2-5〉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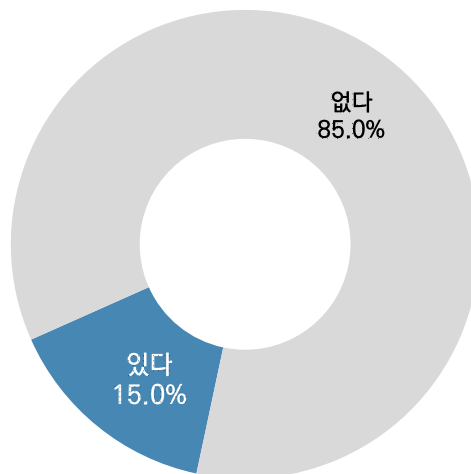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낮은 급여 수준	복지, 노동환경 열악	고용 불안정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사회적인 편견	기타
전체	계	(650)	48.9	63.2	35.6	23.3	1.5	1.9
거주지	동부산권	(174)	47.0	67.1	41.0	16.2	1.8	1.0
	서부산권	(181)	46.8	66.5	32.3	26.8	1.1	2.2
	중부산권	(198)	50.0	57.3	37.9	27.8	1.5	1.5
	원도심	(96)	53.6	62.5	27.6	20.3	1.8	3.9
취업여부	취업자	(363)	51.3	65.3	37.8	20.3	2.4	1.4
	미취업자	(287)	45.8	60.6	32.9	27.1	0.3	2.6
성별	남성	(342)	46.3	59.9	39.9	24.4	1.6	1.7
	여성	(308)	51.6	67.0	31.0	22.1	1.3	2.2
연령	18~24세	(206)	46.8	61.1	31.0	28.0	0.5	1.8
	25~29세	(220)	43.6	59.5	43.4	22.9	2.2	2.6
	30~34세	(224)	55.8	68.9	32.3	19.4	1.7	1.3
혼인상태	미혼	(558)	47.8	62.5	34.3	25.5	1.6	2.1
	기혼	(89)	54.8	66.7	45.3	10.6	1.1	1.1
	이혼·사별	(3)	65.6	100.0	0.0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44)	56.2	76.5	36.9	7.5	0.0	0.0
	자녀 없음	(606)	48.3	62.3	35.5	24.4	1.6	2.1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385)	42.8	62.4	38.7	26.1	1.3	1.0
	부모 미동거	(265)	57.7	64.4	31.2	19.2	1.8	3.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	54.9	45.5	33.0	19.4	13.7	0.0
	대학 재학	(214)	46.0	59.3	33.0	28.3	0.5	1.3
	대학 졸업	(384)	50.2	65.9	37.1	19.6	1.5	2.3
	대학원 졸업	(38)	48.9	65.4	36.4	33.7	2.6	2.6

5) 지난 1년간 직업교육 참여 경험

- 지난 1년간 직업교육 참여 경험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85.0%는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있다’가 15.0%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없다’가 남녀 각각 87.3%,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있다’가 12.7%, 17.4%로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없다’로 응답하였으나 이혼 사별의 경우 ‘있다’가 29.8%로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없다’가 각각 87.0%, 8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있다’가 13.0%, 16.9%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2-2-6〉 지난 1년간 직업교육 참여 경험

〈표 2-2-6〉 지난 1년간 직업교육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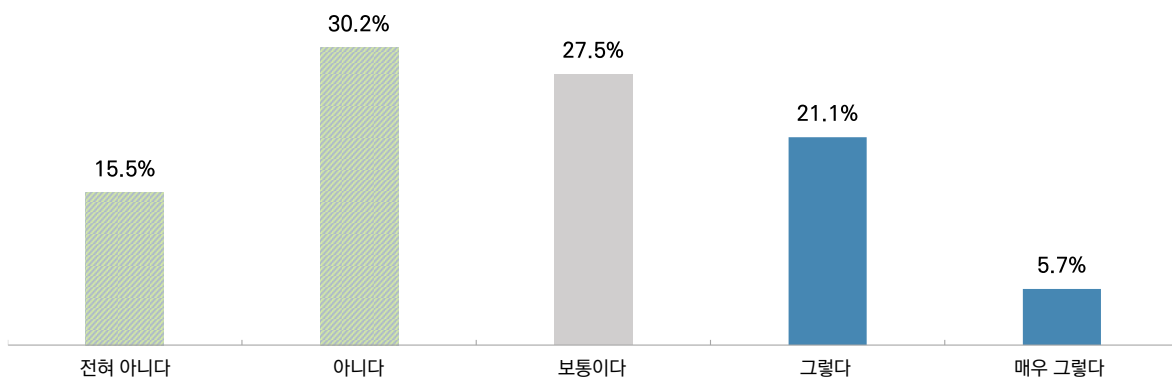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계	(3000)	15.0	85.0
거주지	동부산권	(872)	15.6	84.4
	서부산권	(787)	17.7	82.3
	중부산권	(932)	12.5	87.5
	원도심	(409)	14.1	85.9
취업여부	취업자	(1461)	13.0	87.0
	미취업자	(1539)	16.9	83.1
성별	남성	(1548)	12.7	87.3
	여성	(1452)	17.4	82.6
연령	18~24세	(1142)	16.5	83.5
	25~29세	(987)	14.0	86.0
	30~34세	(871)	14.2	85.8
혼인상태	미혼	(2659)	15.4	84.6
	기혼	(332)	10.9	89.1
	이혼·사별	(10)	29.8	70.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13.3	86.7
	자녀 없음	(2835)	15.1	84.9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15.3	84.7
	부모 미동거	(1103)	14.3	85.7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5.6	94.4
	대학 재학	(1192)	18.2	81.8
	대학 졸업	(1539)	13.0	87.0
	대학원 졸업	(101)	22.9	77.1

6) 향후 6개월 이내 직업교육 참여 의향

- 향후 6개월 이내 직업교육 참여 의향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45.7%는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보통’ 27.5%, ‘그렇다’ 26.8% 순으로 응답하였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아니다’가 높게 나타났으나 서부산권 경우 ‘그렇다’가 30.1%로 다른 거주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44.1%가 ‘아니다’라고 높게 나타났고 미취업자도 ‘아니다’가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아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학생 재학과 대학원 졸업의 경우 ‘그렇다’가 각각 30.8%, 30.3%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2-2-7〉 향후 6개월 이내 직업교육 참여 의향

〈표 2-2-7〉 향후 6개월 이내 직업교육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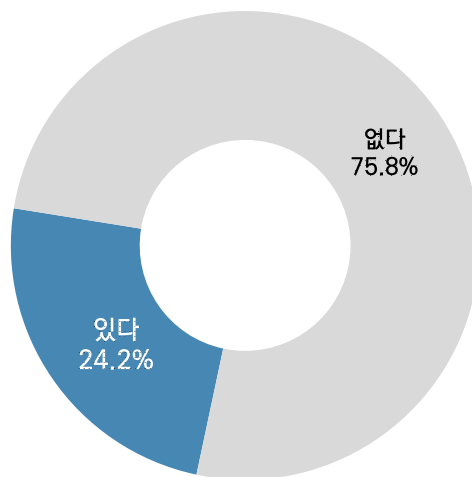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	계	(3000)	15.5	30.2	27.5	21.1	5.7	45.7	27.5	26.8
거주지	동부산권	(872)	15.8	29.4	28.1	21.8	4.8	45.2	28.1	26.7
	서부산권	(787)	13.9	27.7	28.3	23.5	6.6	41.6	28.3	30.1
	중부산권	(932)	17.5	32.0	26.5	18.5	5.5	49.5	26.5	24.1
	원도심	(409)	13.0	32.8	27.2	20.9	6.1	45.8	27.2	27.0
취업여부	취업자	(1461)	17.3	34.1	25.0	18.1	5.6	51.4	25.0	23.6
	미취업자	(1539)	13.7	26.5	30.0	24.0	5.8	40.2	30.0	29.8
성별	남성	(1548)	17.6	31.7	27.5	18.9	4.3	49.3	27.5	23.2
	여성	(1452)	13.2	28.6	27.6	23.5	7.2	41.8	27.6	30.6
연령	18~24세	(1142)	14.0	26.4	29.7	24.0	5.9	40.4	29.7	29.9
	25~29세	(987)	17.6	31.6	26.0	19.5	5.4	49.1	26.0	24.9
	30~34세	(871)	15.0	33.7	26.5	19.2	5.7	48.7	26.5	24.9
혼인상태	미혼	(2659)	15.0	29.6	27.9	21.4	6.0	44.6	27.9	27.5
	기혼	(332)	19.1	34.5	25.1	18.4	3.0	53.5	25.1	21.4
	이혼·사별	(10)	9.5	60.0	10.2	20.3	0.0	69.5	10.2	20.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16.5	32.6	27.0	20.7	3.1	49.2	27.0	23.8
	자녀 없음	(2835)	15.4	30.1	27.6	21.1	5.8	45.5	27.6	27.0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15.7	29.9	27.5	21.5	5.4	45.7	27.5	26.9
	부모 미동거	(1103)	15.1	30.7	27.6	20.5	6.2	45.7	27.6	26.7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13.9	33.5	31.2	16.1	5.3	47.4	31.2	21.4
	대학 재학	(1192)	14.4	25.0	29.8	25.2	5.6	39.4	29.8	30.8
	대학 졸업	(1539)	16.1	34.4	25.5	18.4	5.6	50.5	25.5	24.0
	대학원 졸업	(101)	21.1	22.6	25.9	22.0	8.3	43.8	25.9	30.3

7)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

-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75.8%는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있다’가 24.2%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78.9%가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72.5%가 ‘없다’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없다’가 높게 나타났으나 18~24세 경우 ‘있다’가 36.6%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86.4%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65.7%가 ‘없다’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2-8〉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

〈표 2-2-8〉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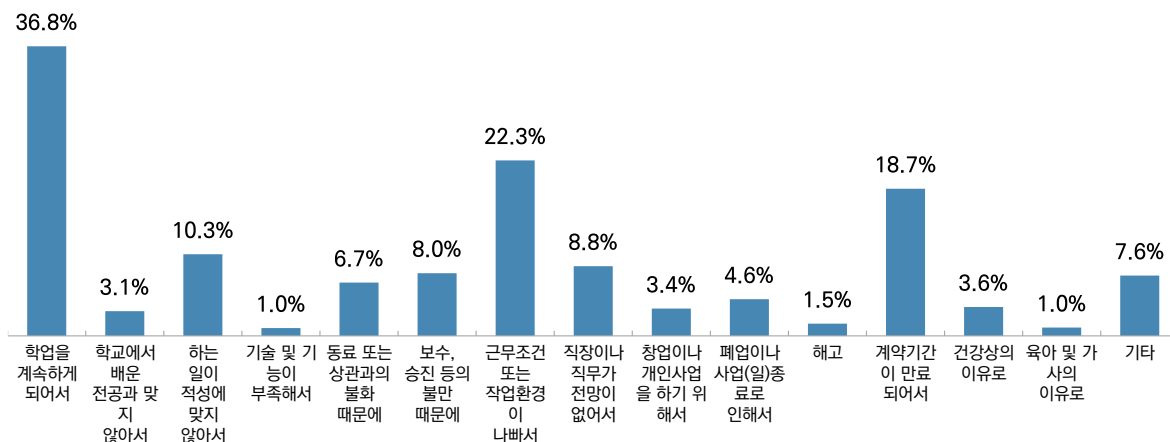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계	(3000)	24.2	75.8
거주지	동부산권	(872)	24.7	75.3
	서부산권	(787)	23.3	76.7
	중부산권	(932)	24.9	75.1
	원도심	(409)	23.5	76.5
취업여부	취업자	(1461)	13.6	86.4
	미취업자	(1539)	34.3	65.7
성별	남성	(1548)	21.1	78.9
	여성	(1452)	27.5	72.5
연령	18~24세	(1142)	36.6	63.4
	25~29세	(987)	18.7	81.3
	30~34세	(871)	14.3	85.7
혼인상태	미혼	(2659)	25.9	74.1
	기혼	(332)	11.2	88.8
	이혼·사별	(10)	22.9	77.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10.1	89.9
	자녀 없음	(2835)	25.1	74.9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24.7	75.3
	부모 미동거	(1103)	23.3	76.7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15.2	84.8
	대학 재학	(1192)	36.4	63.6
	대학 졸업	(1539)	15.7	84.3
	대학원 졸업	(101)	25.5	74.5

7-1)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하여 36.8%는 ‘학업을 계속하게 되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 22.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18.7%,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10.3%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학업을 계속하게 되어서’가 각각 42.2%(남성), 32.3%(여성)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직장이나 직무가 전망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여성 11.7%, 남성 5.4%로 여성이 남성보다 6.3%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52.2%는 ‘학업을 계속하게 되어서’가 높게 나타났고, 25~29세와 30~34세는 각각 21.0%, 29.4%가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로 높게 나타남
 - 취업여부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28.8%가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취업자 49.1%는 ‘학업을 계속하게 되어서’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9〉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표 2-2-9〉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수	학업을 계속하게 되어서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맞지 않아서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기술 및 기능이 부족해서	동료 또는 상관과의 불화 때문에	보수, 승진 등의 불만 때문에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	직장이나 직무가 전망이 없어서
전체	계	(727)	36.8	3.1	10.3	1.0	6.7	8.0	22.3	8.8
거주지	동부산권	(215)	38.5	3.1	11.4	1.0	7.2	7.3	22.5	6.6
	서부산권	(183)	34.9	1.6	7.1	1.1	6.3	6.8	25.5	10.1
	중부산권	(232)	36.2	1.9	11.0	1.3	6.3	9.2	22.1	10.0
	원도심	(96)	37.7	8.8	12.5	0.0	7.8	8.6	15.8	8.6
취업여부	취업자	(199)	4.0	2.5	12.2	0.5	10.1	15.7	28.8	20.0
	미취업자	(528)	49.1	3.4	9.7	1.2	5.5	5.0	19.8	4.7
성별	남성	(327)	42.2	4.0	10.7	0.6	7.2	7.3	22.4	5.4
	여성	(400)	32.3	2.4	10.1	1.3	6.3	8.5	22.2	11.7
연령	18~24세	(418)	52.2	3.5	10.0	1.0	5.7	4.1	20.7	4.8
	25~29세	(185)	19.3	2.7	10.8	1.7	7.9	9.0	21.0	16.5
	30~34세	(124)	10.5	2.4	10.7	0.0	8.3	19.5	29.4	11.1
혼인상태	미혼	(688)	38.3	3.0	10.5	1.0	6.8	7.3	22.0	8.7
	기혼	(37)	10.4	5.4	5.1	0.0	5.7	21.2	25.8	5.4
	이혼·사별	(2)	0.0	0.0	55.6	0.0	0.0	0.0	44.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7)	18.0	6.0	0.0	0.0	6.0	23.1	18.6	6.0
	자녀 없음	(710)	37.2	3.1	10.6	1.0	6.8	7.6	22.3	8.9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69)	41.4	3.2	10.5	0.9	7.3	5.9	23.4	7.4
	부모 미동거	(258)	28.3	3.1	10.1	1.2	5.8	11.8	20.2	11.5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	3.1	0.0	24.0	0.0	18.7	3.9	27.4	11.1
	대학 재학	(435)	54.1	3.6	8.8	1.2	5.5	4.3	21.3	4.0
	대학 졸업	(241)	12.2	2.5	12.0	0.9	7.5	14.5	23.7	16.2
	대학원 졸업	(26)	7.5	3.9	6.8	0.0	8.2	12.1	19.4	18.4

〈표 2-2-10〉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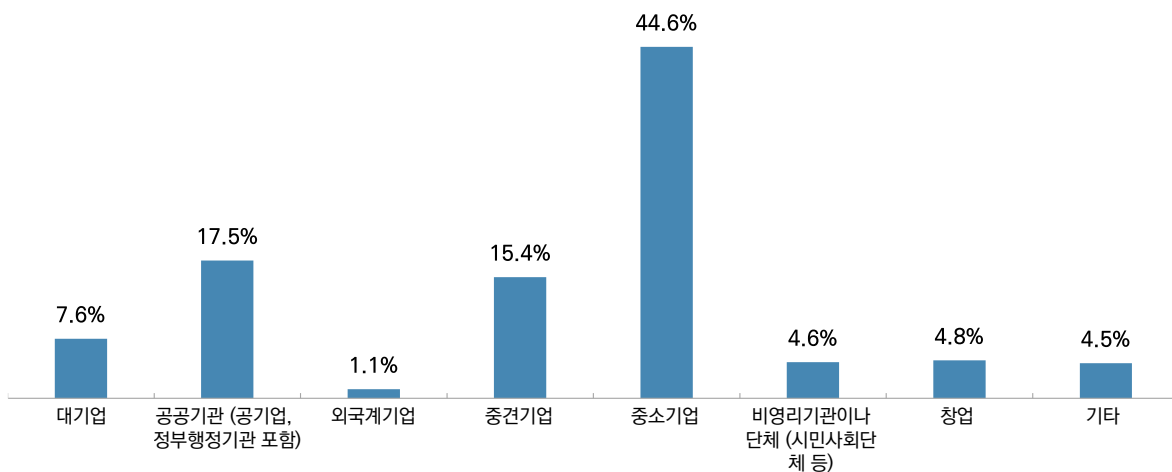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창업이나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폐업이나 사업(일)종 료로 인해서	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육아 및 가사의 이유로	기타
전체	계	(727)	3.4	4.6	1.5	18.7	3.6	1.0	7.6
거주지	동부산권	(215)	1.8	6.9	0.9	14.3	2.6	0.4	9.9
	서부산권	(183)	6.2	5.5	1.2	20.1	2.8	1.1	7.3
	중부산권	(232)	3.8	3.3	2.2	20.8	5.2	1.6	5.7
	원도심	(96)	1.0	1.0	2.1	20.8	3.9	1.0	8.1
취업여부	취업자	(199)	4.8	4.9	2.0	23.3	4.2	2.4	12.3
	미취업자	(528)	2.9	4.5	1.4	16.9	3.5	0.5	5.9
성별	남성	(327)	5.0	5.1	1.5	16.8	2.3	0.6	6.4
	여성	(400)	2.2	4.3	1.5	20.2	4.7	1.4	8.7
연령	18~24세	(418)	1.5	4.5	1.7	16.5	2.6	0.5	5.3
	25~29세	(185)	6.0	5.4	1.6	20.9	4.8	1.6	13.3
	30~34세	(124)	6.3	4.0	0.8	22.5	5.6	2.1	7.3
혼인상태	미혼	(688)	3.5	4.6	1.5	19.1	3.4	0.4	7.5
	기혼	(37)	2.7	5.1	2.4	11.8	8.1	12.2	11.3
	이혼·사별	(2)	0.0	0.0	0.0	0.0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7)	0.0	6.0	0.0	12.0	6.0	22.4	5.6
	자녀 없음	(710)	3.5	4.6	1.6	18.8	3.6	0.5	7.7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69)	2.8	5.4	1.5	17.5	4.1	0.2	7.9
	부모 미동거	(258)	4.6	3.2	1.6	20.9	2.8	2.5	7.2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	11.6	3.9	7.4	8.5	7.2	3.9	11.7
	대학 재학	(435)	1.4	4.3	1.7	16.1	2.7	0.2	5.0
	대학 졸업	(241)	5.7	5.4	0.8	22.3	4.8	1.9	12.4
	대학원 졸업	(26)	8.2	3.9	0.0	38.2	4.9	3.9	3.9

1-1. 공통질문(취업자, 자영업자)

1) 현재 일자리 사업체 형태

- 현재 일자리 사업체 형태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44.6%는 ‘중소기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공공기업’ 17.5%, ‘중견기업’ 15.4%, ‘대기업’ 7.6%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각각 44.6%, 41.3%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공공기관’, ‘중견기업’, 남성의 경우 ‘중견기업’, ‘공공기관’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56.7%, 25~29세의 47.2%, 30~34세의 40.7%가 ‘중소기업’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의 54.5%는 ‘공공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졸업, 대학재학, 고졸이하 각각 44.5%, 38.9%, 60.3%로 ‘중소기업’이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10〉 현재 일자리 사업체 형태

〈표 2-2-11〉 현재 일자리 사업체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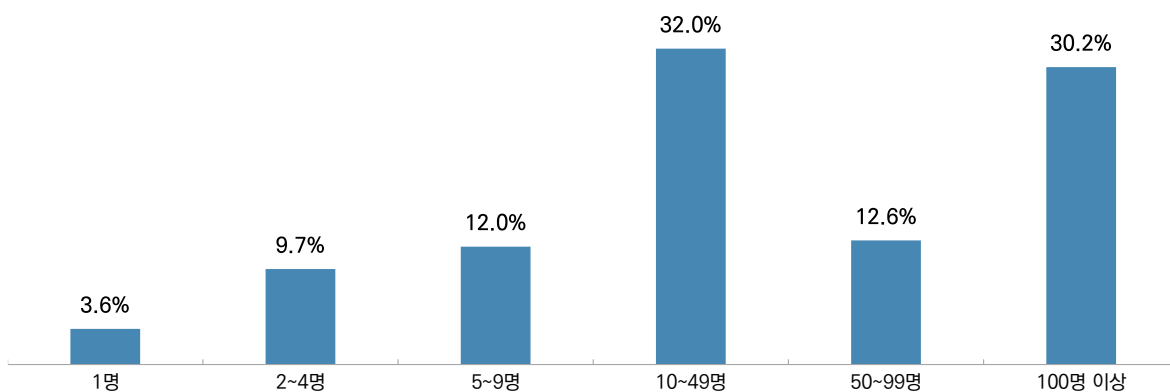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대기업	공공기관(공기업, 정부행정기관 포함)	외국계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시민사회단체 등)	창업	기타
전체	계	(1461)	7.6	17.5	1.1	15.4	44.6	4.6	4.8	4.5
거주지	동부산권	(413)	8.0	19.5	1.2	16.6	41.3	3.4	5.2	4.8
	서부산권	(385)	7.8	18.8	1.0	15.7	44.2	5.6	4.3	2.6
	중부산권	(470)	7.1	16.3	1.4	12.9	49.9	3.0	4.6	4.8
	원도심	(193)	7.3	13.5	0.5	18.3	39.6	8.9	5.4	6.5
취업여부	취업자	(1461)	7.6	17.5	1.1	15.4	44.6	4.6	4.8	4.5
	미취업자	-	-	-	-	-	-	-	-	-
성별	남성	(770)	9.4	16.5	1.2	18.2	44.3	1.7	5.3	3.5
	여성	(692)	5.5	18.6	1.1	12.3	45.0	7.8	4.2	5.5
연령	18~24세	(79)	8.3	10.0	0.0	10.2	56.7	4.9	2.5	7.4
	25~29세	(678)	7.7	17.4	0.9	15.0	47.2	4.7	3.2	4.0
	30~34세	(705)	7.4	18.4	1.5	16.3	40.7	4.5	6.6	4.6
혼인상태	미혼	(1211)	7.6	17.3	0.8	14.4	46.6	4.4	4.4	4.4
	기혼	(244)	7.6	18.0	2.9	20.5	35.2	4.5	6.3	5.1
	이혼·사별	(7)	0.0	27.6	0.0	0.0	25.3	28.9	18.1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5)	6.9	18.5	3.8	17.7	32.0	7.7	8.3	5.0
	자녀 없음	(1357)	7.6	17.4	0.9	15.2	45.6	4.3	4.5	4.4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819)	8.8	17.6	0.9	14.1	47.1	3.2	4.0	4.3
	부모 미동거	(642)	6.0	17.3	1.5	17.0	41.5	6.3	5.8	4.6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3)	7.4	2.6	0.7	15.9	60.3	0.9	6.2	6.0
	대학 재학	(26)	10.7	19.5	0.0	0.0	38.9	11.2	0.0	19.5
	대학 졸업	(1206)	7.8	16.6	1.3	16.3	44.5	4.7	5.0	3.7
	대학원 졸업	(86)	3.5	54.5	0.0	5.6	21.2	6.8	1.2	7.2

2) 현재 일자리 총 종사자 수

- 현재 일자리 총 종사자 수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32.0%는 ‘10~49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100명 이상’ 30.2%, ‘50~99명’ 12.6%, ‘5~9명’ 12.0% 순으로 응답하였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10~49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서부산권 경우 ‘100명 이상’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31.7%가 ‘100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경우 ‘10~49명’이 32.6%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와 25~29세는 각각 35.4%, 34.6%로 ‘10~49명’이 높게 나타났으며 30~34세의 경우 31.0%로 ‘100명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11〉 현재 일자리 총 종사자 수

〈표 2-2-12〉 현재 일자리 총 종사자 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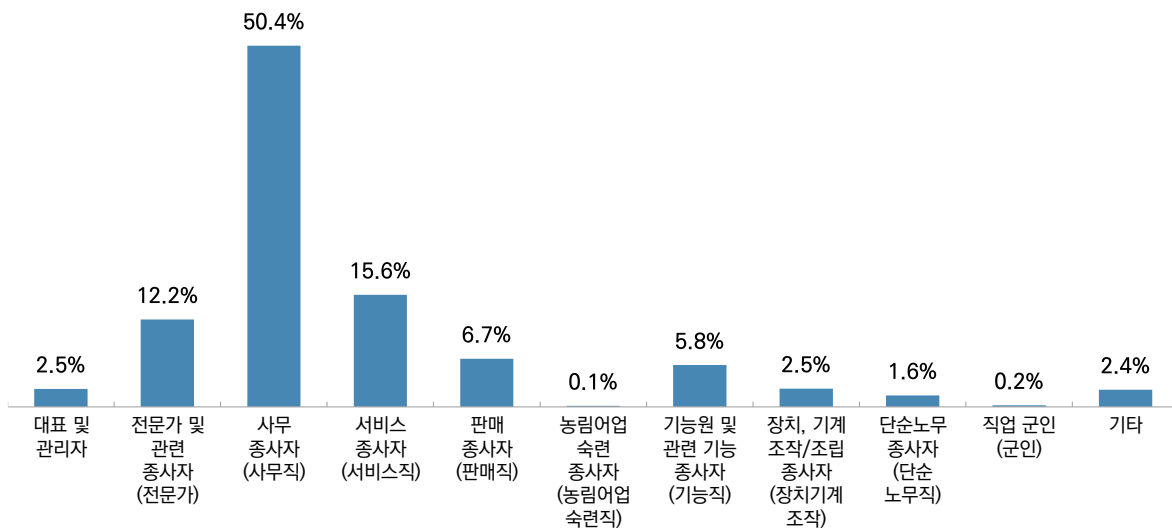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명	2~4명	5~9명	10~49명	50~99명	100명 이상
전체	계	(1461)	3.6	9.7	12.0	32.0	12.6	30.2
거주지	동부산권	(413)	4.2	8.1	9.6	32.1	15.1	30.9
	서부산권	(385)	3.0	9.4	12.3	29.0	14.5	31.9
	중부산권	(470)	3.6	10.8	13.5	32.7	11.0	28.5
	원도심	(193)	3.6	10.9	12.7	36.4	7.3	29.1
취업여부	취업자	(1461)	3.6	9.7	12.0	32.0	12.6	30.2
	미취업자	-	-	-	-	-	-	-
성별	남성	(770)	3.9	8.3	10.3	31.5	14.4	31.7
	여성	(692)	3.3	11.2	13.8	32.6	10.6	28.4
연령	18~24세	(79)	2.5	13.5	16.3	35.4	13.7	18.5
	25~29세	(678)	1.9	8.6	12.8	34.6	11.4	30.6
	30~34세	(705)	5.3	10.2	10.7	29.1	13.5	31.0
혼인상태	미혼	(1211)	3.0	9.8	12.5	32.9	12.0	29.8
	기혼	(244)	6.0	8.5	9.6	27.9	15.5	32.4
	이혼·사별	(7)	18.1	25.3	0.0	28.9	14.5	13.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5)	6.4	11.3	8.8	26.2	13.9	33.4
	자녀 없음	(1357)	3.4	9.5	12.2	32.5	12.5	29.9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819)	3.3	9.0	10.7	34.0	13.2	29.8
	부모 미동거	(642)	4.0	10.5	13.6	29.5	11.7	30.6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3)	7.0	14.4	17.1	34.4	9.5	17.7
	대학 재학	(26)	3.9	15.1	15.6	46.3	7.3	11.7
	대학 졸업	(1206)	3.4	9.2	11.5	31.5	12.7	31.8
	대학원 졸업	(86)	1.2	7.2	9.4	31.6	17.2	33.3

3) 주된 일자리 직종

○ 주된 일자리 직종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50.4%는 ‘사무 종사자’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서비스 종사자’ 15.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2%, ‘판매종사자’ 6.7%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47.3%가 ‘사무직 종사자’로 응답하였고 여성의 경우 53.8%가 ‘사무직 종사자’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사무직 종사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18~24세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가 25.7%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사무직 종사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고졸이하의 경우 24.5%로 ‘서비스 종사자’가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12〉 주된 일자리 직종

〈표 2-2-13〉 주된 일자리 직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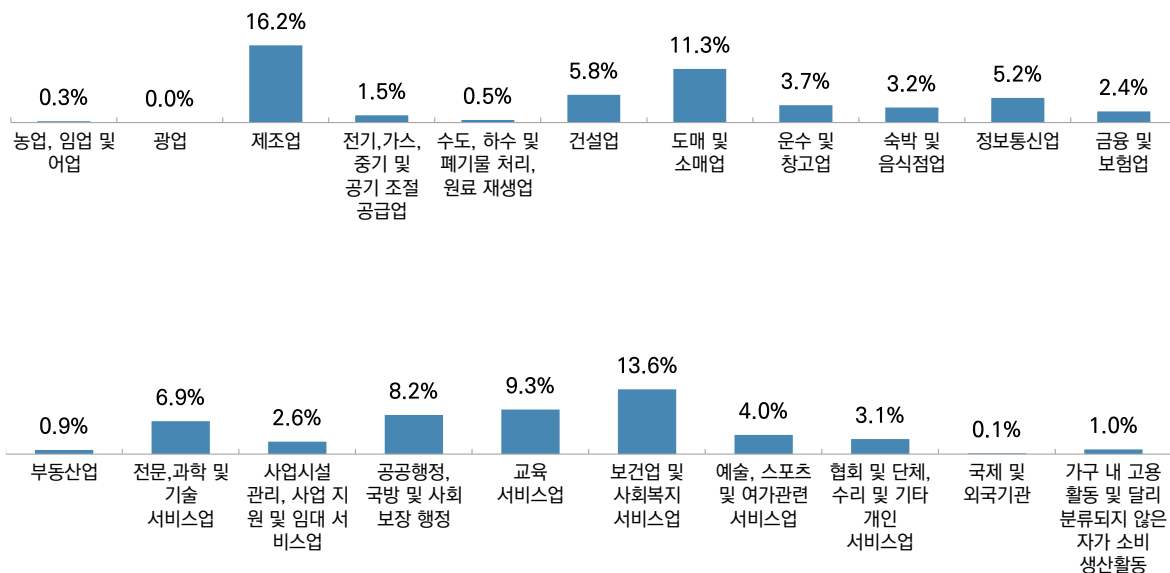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대표 및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사무직)	서비스 종사자(서비스 직)	판매 종사자(판매직)	농림어 업 숙련 종사자(농림어 업숙련 직)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기능 종사자(기능직))	장치, 기계 조작/조 립 종사자(조사자(장치기 계조작))	단순노 무 종사자(단순노 무직)	직업 (군인(군 인))	기타
전체	계	(1461)	2.5	12.2	50.4	15.6	6.7	0.1	5.8	2.5	1.6	0.2	2.4
거주지	동부산권	(413)	1.9	11.3	53.7	14.5	5.6	0.2	4.8	2.1	2.1	0.7	3.2
	서부산권	(385)	2.2	13.9	49.1	14.4	7.3	0.3	6.6	3.1	1.6	0.0	1.6
	중부산권	(470)	3.7	10.4	49.2	15.8	8.1	0.0	6.3	2.5	1.6	0.0	2.4
	원도심	(193)	1.6	15.0	48.6	20.1	4.7	0.0	5.2	2.3	0.5	0.0	2.1
취업여부	취업자	(1461)	2.5	12.2	50.4	15.6	6.7	0.1	5.8	2.5	1.6	0.2	2.4
	미취업자	-	-	-	-	-	-	-	-	-	-	-	-
성별	남성	(770)	3.0	8.8	47.3	14.2	8.0	0.1	9.7	4.6	2.4	0.4	1.5
	여성	(692)	1.9	16.0	53.8	17.2	5.3	0.1	1.5	0.2	0.7	0.0	3.3
연령	18~24세	(79)	0.0	10.2	36.7	25.7	7.8	0.0	9.7	1.3	2.4	1.3	5.0
	25~29세	(678)	2.0	12.0	51.7	15.8	5.7	0.0	5.3	3.7	1.9	0.3	1.6
	30~34세	(705)	3.2	12.6	50.6	14.3	7.6	0.3	5.9	1.6	1.2	0.0	2.8
혼인상태	미혼	(1211)	2.3	11.9	49.9	16.5	6.5	0.0	5.9	2.5	1.9	0.2	2.3
	기혼	(244)	2.7	13.7	53.0	11.5	7.4	0.8	5.5	2.5	0.0	0.0	2.9
	이혼·사별	(7)	31.3	14.5	28.9	0.0	10.9	0.0	0.0	14.5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5)	3.6	12.9	53.4	11.0	6.7	1.8	6.9	1.9	0.0	0.0	1.9
	자녀 없음	(1357)	2.4	12.1	50.1	16.0	6.7	0.0	5.7	2.6	1.7	0.2	2.4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819)	2.4	11.7	49.9	15.5	5.9	0.0	7.4	3.2	2.5	0.3	1.4
	부모 미동거	(642)	2.6	12.8	51.0	15.8	7.8	0.3	3.8	1.7	0.5	0.1	3.7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3)	3.5	2.2	17.5	24.5	19.8	0.0	12.0	8.2	6.9	0.6	4.7
	대학 재학	(26)	3.4	22.5	31.6	22.5	0.0	0.0	8.8	0.0	3.4	3.9	3.9
	대학 졸업	(1206)	2.4	11.5	55.2	14.9	5.8	0.2	5.3	2.1	1.0	0.1	1.6
	대학원 졸업	(86)	2.2	35.4	43.2	8.7	0.0	0.0	1.2	0.0	0.0	0.0	9.4

4) 주된 일자리 산업

○ 주된 일자리 산업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16.2%는 ‘제조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6%, ‘도매 및 소매업’ 11.3%, ‘교육 서비스업’ 9.3%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22.5%가 ‘제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제조업’이 높게 나타났으나 18~24세의 경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1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동부산권의 16.5%가 ‘제조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서부산권 ‘제조업(21.5%)’, 중부산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4%)’, 원도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9%)’이 각각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13〉 주된 일자리 산업

〈표 2-2-14〉 주된 일자리 산업

(단위 : %)

구분		사례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체	계	(1461)	0.3	16.2	1.5	0.5	5.8	11.3	3.7	3.2	5.2	2.4	0.9
거주지	동부산권	(413)	0.0	16.5	1.7	0.2	6.6	11.7	2.9	3.2	5.8	2.1	1.3
	서부산권	(385)	0.5	21.5	1.8	0.3	4.2	11.4	4.4	2.4	3.9	1.6	0.3
	중부산권	(470)	0.0	13.2	0.8	0.6	6.3	12.1	3.7	2.9	6.7	2.5	1.1
	원도심	(193)	1.6	12.3	2.3	1.6	6.3	8.3	3.9	5.1	2.7	4.1	0.5
취업여부	취업자	(1461)	0.3	16.2	1.5	0.5	5.8	11.3	3.7	3.2	5.2	2.4	0.9
	미취업자	-	-	-	-	-	-	-	-	-	-	-	-
성별	남성	(770)	0.5	22.5	2.4	0.8	7.3	11.9	4.8	3.1	6.1	2.5	0.8
	여성	(692)	0.1	9.2	0.5	0.3	4.3	10.6	2.4	3.2	4.2	2.2	0.9
연령	18~24세	(79)	0.0	12.5	2.5	0.0	6.1	8.3	1.3	9.8	2.3	2.4	0.0
	25~29세	(678)	0.6	14.7	1.8	0.4	6.2	11.0	3.7	2.1	5.4	2.9	0.7
	30~34세	(705)	0.1	18.0	1.1	0.7	5.5	11.9	3.9	3.4	5.3	1.9	1.1
혼인상태	미혼	(1211)	0.3	16.4	1.8	0.5	5.9	10.9	4.0	3.3	5.1	2.2	0.9
	기혼	(244)	0.4	15.2	0.4	0.8	5.1	13.0	2.1	2.3	5.8	3.3	0.8
	이혼·사별	(7)	0.0	14.5	0.0	0.0	18.1	10.9	0.0	0.0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5)	1.0	12.4	1.0	0.9	5.4	17.9	2.9	1.9	6.4	0.0	0.0
	자녀 없음	(1357)	0.3	16.5	1.6	0.5	5.9	10.8	3.7	3.3	5.1	2.6	0.9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819)	0.5	19.1	2.3	0.2	6.4	10.2	4.7	2.2	5.3	2.5	0.8
	부모 미동거	(642)	0.2	12.6	0.6	0.9	5.2	12.6	2.4	4.4	5.1	2.2	1.0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3)	0.7	22.2	0.0	0.7	6.3	29.5	3.8	6.8	2.8	0.0	0.0
	대학 재학	(26)	0.0	3.4	8.2	0.0	0.0	3.9	0.0	10.7	3.9	3.9	0.0
	대학 졸업	(1206)	0.3	16.3	1.7	0.6	6.2	10.0	3.9	2.8	5.8	2.8	1.1
	대학원 졸업	(86)	0.0	9.2	0.0	0.0	1.2	1.4	1.0	0.0	1.4	0.0	0.0

〈표 2-2-15〉 주된 일자리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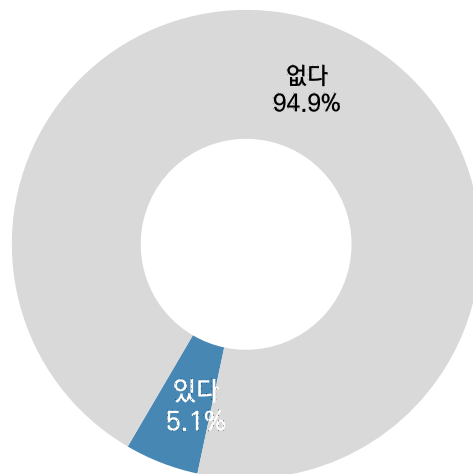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전체	계	(1461)	6.9	2.6	8.2	9.3	13.6	4.0	3.1	0.1	1.0
거주지	동부산권	(413)	5.6	2.9	8.5	12.4	11.0	3.9	2.4	0.2	1.1
	서부산권	(385)	6.0	1.6	9.4	8.2	15.5	3.2	3.2	0.0	0.5
	중부산권	(470)	8.3	3.4	8.4	7.7	13.4	4.6	3.0	0.0	1.3
	원도심	(193)	8.0	2.2	4.9	9.2	15.9	4.5	4.9	0.5	1.0
취업여부	취업자	(1461)	6.9	2.6	8.2	9.3	13.6	4.0	3.1	0.1	1.0
	미취업자	-	-	-	-	-	-	-	-	-	-
성별	남성	(770)	6.6	3.0	8.1	5.6	8.1	2.6	2.2	0.0	1.0
	여성	(692)	7.2	2.2	8.3	13.5	19.8	5.6	4.2	0.3	1.0
연령	18~24세	(79)	5.6	1.9	1.3	9.9	9.5	13.7	11.6	0.0	1.3
	25~29세	(678)	7.3	2.5	8.7	9.2	13.9	4.0	3.6	0.1	1.0
	30~34세	(705)	6.7	2.8	8.6	9.4	13.7	2.9	1.7	0.1	0.9
혼인상태	미혼	(1211)	6.3	2.5	8.1	9.2	13.6	4.5	3.5	0.2	0.8
	기혼	(244)	10.1	3.3	8.6	10.1	13.3	1.7	1.7	0.0	1.9
	이혼·사별	(7)	0.0	0.0	14.5	14.5	27.6	0.0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5)	9.7	1.0	8.5	9.5	16.1	1.9	1.8	0.0	1.9
	자녀 없음	(1357)	6.7	2.8	8.2	9.3	13.4	4.2	3.2	0.1	0.9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819)	5.7	2.6	8.8	7.9	12.7	4.1	3.2	0.0	0.9
	부모 미동거	(642)	8.4	2.7	7.5	11.2	14.8	4.0	3.0	0.3	1.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3)	2.6	1.9	1.3	2.1	5.9	6.5	5.5	0.0	1.3
	대학 재학	(26)	20.5	3.9	3.9	7.8	7.8	10.7	7.3	0.0	3.9
	대학 졸업	(1206)	6.3	2.8	8.7	8.5	14.3	3.8	3.0	0.2	1.0
	대학원 졸업	(86)	18.6	0.9	13.8	33.5	17.7	1.2	0.0	0.0	0.0

5) 주된 일자리 외 직장(일자리) 여부

- 주된 일자리 외 직장(일자리) 여부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94.9%는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있다’가 5.1%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95.7%가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경우 94.0%가 ‘없다’라고 응답하였음
 -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없다’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혼 사별의 경우 ‘있다’가 14.5%로 다른 혼인상해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95.1%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25~29세의 95.5%, 30~34세의 94.3%가 ‘없다’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2-14〉 주된 일자리 외 직장(일자리) 여부

〈표 2-2-16〉 주된 일자리 외 직장(일자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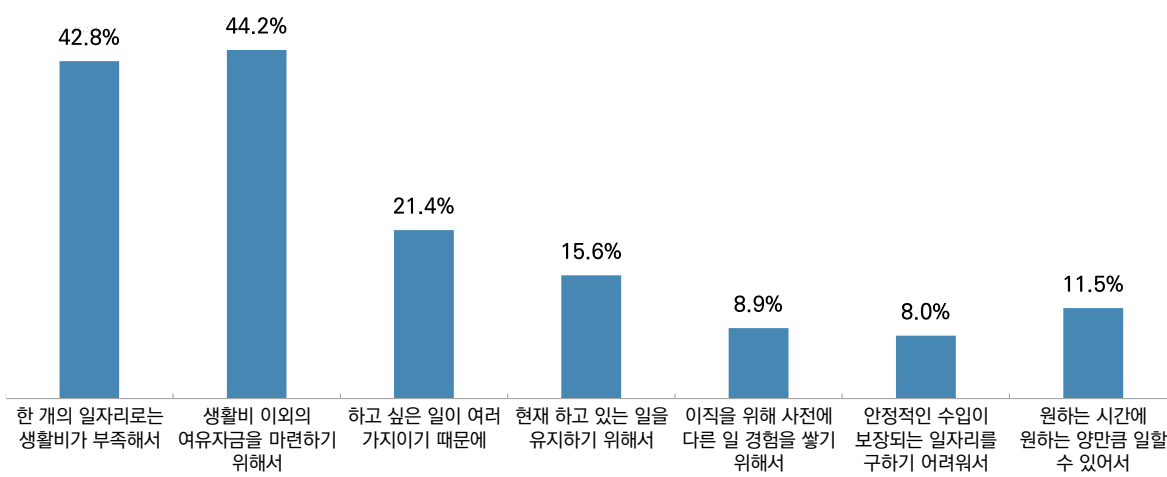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계	(1461)	5.1	94.9
거주지	동부산권	(413)	4.6	95.4
	서부산권	(385)	4.4	95.6
	중부산권	(470)	6.0	94.0
	원도심	(193)	5.4	94.6
취업여부	취업자	(1461)	5.1	94.9
	미취업자	-	-	-
성별	남성	(770)	4.3	95.7
	여성	(692)	6.0	94.0
연령	18~24세	(79)	4.9	95.1
	25~29세	(678)	4.5	95.5
	30~34세	(705)	5.7	94.3
혼인상태	미혼	(1211)	5.3	94.7
	기혼	(244)	3.8	96.2
	이혼·사별	(7)	14.5	85.5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5)	5.7	94.3
	자녀 없음	(1357)	5.1	94.9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819)	4.5	95.5
	부모 미동거	(642)	5.8	94.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3)	5.7	94.3
	대학 재학	(26)	3.9	96.1
	대학 졸업	(1206)	4.0	96.0
	대학원 졸업	(86)	20.4	79.6

5-1) 주된 일자리 외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이유

- 주된 일자리 외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44.2%는 ‘생활비 이외의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한 개의 일자리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42.8%,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21.4%,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15.6%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52.5%가 ‘한 개의 일자리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경우 ‘생활비 이외의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48.2%로 높게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의 46.5%가 한 개의 일자리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하였고 기혼, 이혼 사별의 경우 각각 67.4%, 100%로 생활비 이외의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100%는 ‘한 개의 일자리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높게 나타났고, 25~29세 ‘생활비 이외의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43.6%)’, 30~34세 ‘생활비 이외의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46.5%)’가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15〉 주된 일자리 외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이유

〈표 2-2-17〉 주된 일자리 외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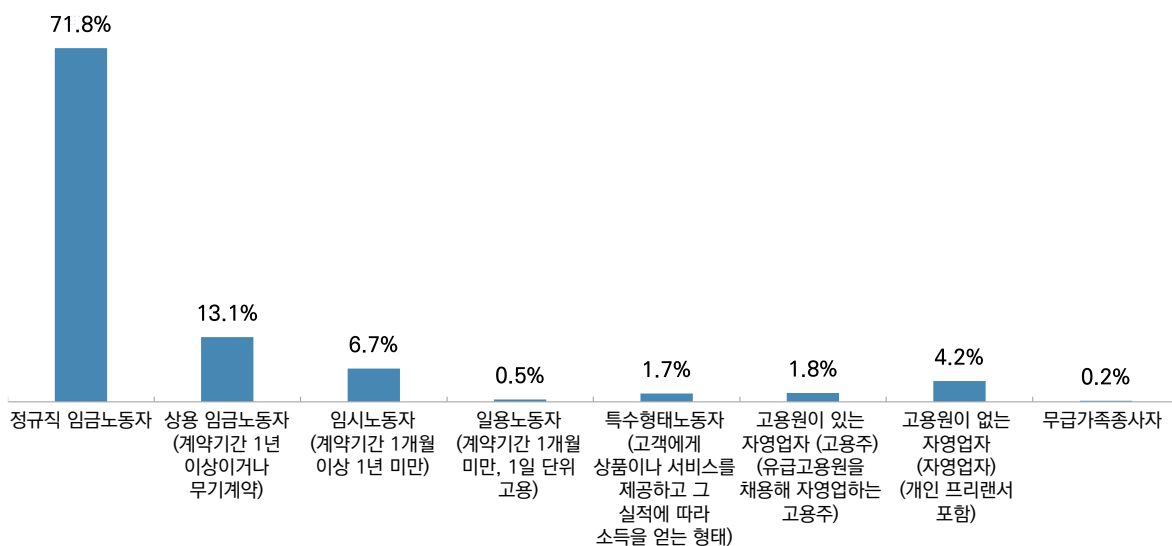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한 개의 일자리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활비 이외의 여유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직을 위해 사전에 다른 일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만큼 일할 수 있어서
전체	계	(75)	42.8	44.2	21.4	15.6	8.9	8.0	11.5
거주지	동부산권	(19)	58.0	49.4	17.4	0.0	14.9	5.2	14.2
	서부산권	(17)	44.7	50.1	17.8	17.1	0.0	7.4	23.7
	중부산권	(28)	40.2	39.5	20.9	28.6	2.9	6.9	3.1
	원도심	(11)	19.0	38.1	35.7	7.1	28.6	16.7	9.5
취업여부	취업자	(75)	42.8	44.2	21.4	15.6	8.9	8.0	11.5
	미취업자	-	-	-	-	-	-	-	-
성별	남성	(33)	52.5	39.3	25.3	17.6	6.1	5.9	9.5
	여성	(42)	35.2	48.2	18.3	14.1	11.2	9.6	13.1
연령	18~24세	(4)	100.0	25.9	0.0	0.0	22.2	25.9	0.0
	25~29세	(31)	34.0	43.6	28.1	11.8	9.8	8.8	18.6
	30~34세	(40)	44.0	46.5	18.3	20.0	7.0	5.6	7.1
혼인상태	미혼	(64)	46.5	40.1	23.2	13.7	10.3	6.1	13.3
	기혼	(9)	21.8	67.4	10.9	31.1	0.0	21.8	0.0
	이혼·사별	(1)	0.0	100.0	0.0	0.0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	16.7	66.7	0.0	33.3	0.0	33.3	0.0
	자녀 없음	(69)	45.1	42.3	23.3	14.1	9.7	5.8	12.5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37)	41.2	50.0	16.6	18.3	8.1	4.7	20.7
	부모 미동거	(37)	44.4	38.5	26.1	13.0	9.8	11.2	2.3
최종학력	고졸 이하	(8)	27.4	12.2	24.3	12.2	24.3	15.2	36.1
	대학 재학	(1)	100.0	0.0	0.0	0.0	0.0	0.0	0.0
	대학 졸업	(48)	42.0	51.3	18.7	15.8	7.7	9.8	7.8
	대학원 졸업	(18)	49.0	42.5	28.4	17.7	5.7	0.0	10.6

6)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71.8%는 ‘정규직 임금노동자’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상용 임금노동자’ 13.1%, ‘임시노동자’ 6.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2% 순으로 응답하였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동부산권의 73.0%가 ‘정규직 임금노동자’라고 응답하였으며 서부산권 73.1% , 중부산권 71.6%, 원도심 67.4%로 모두 ‘정규직 임금노동자’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정규직 임금노동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8~24세의 경우 ‘임시노동자’가 15.7%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73.8%가 ‘정규직 임금노동자’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69.6%가 ‘정규직 임금노동자’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16〉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표 2-2-18〉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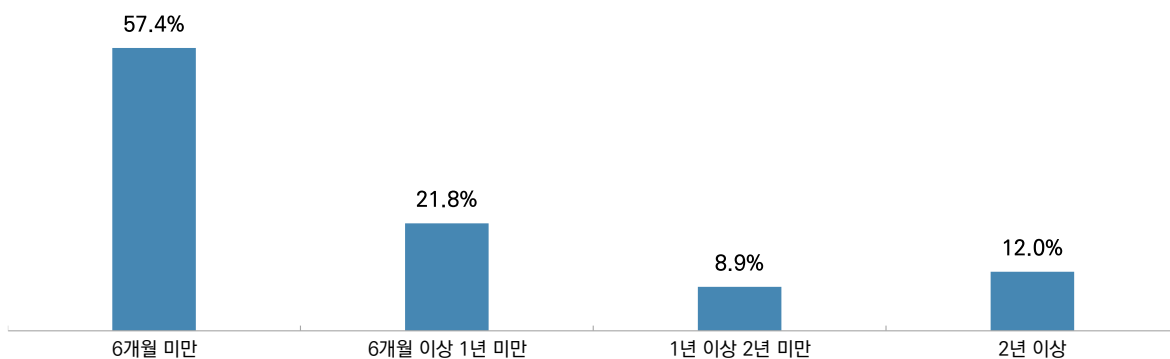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정규직 임금노동 자	상용 임금노동 자 (계약기간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	임시노동 자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노동 자 (계약기간 1개월 미만, 1일 단위 고용)	특수형태 노동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계	(1461)	71.8	13.1	6.7	0.5	1.7	1.8	4.2	0.2
거주지	동부산권	(413)	73.0	10.6	6.8	1.4	2.1	1.2	4.9	0.0
	서부산권	(385)	73.1	13.2	8.5	0.0	0.8	1.5	3.0	0.0
	중부산권	(470)	71.6	13.0	6.0	0.2	1.9	1.9	4.8	0.6
	원도심	(193)	67.4	18.8	4.9	0.0	1.9	3.4	3.6	0.0
취업여부	취업자	(1461)	71.8	13.1	6.7	0.5	1.7	1.8	4.2	0.2
	미취업자	-	-	-	-	-	-	-	-	-
성별	남성	(770)	73.8	12.2	5.5	0.5	1.2	2.7	3.9	0.2
	여성	(692)	69.6	14.2	8.2	0.4	2.2	0.8	4.5	0.1
연령	18~24세	(79)	56.1	18.4	15.7	0.0	4.9	0.0	3.8	1.1
	25~29세	(678)	73.5	13.3	6.9	0.4	1.5	1.6	2.6	0.1
	30~34세	(705)	71.9	12.3	5.6	0.6	1.5	2.2	5.8	0.1
혼인상태	미혼	(1211)	71.0	13.6	7.5	0.5	1.9	1.8	3.6	0.2
	기혼	(244)	76.6	11.3	2.1	0.4	0.8	1.6	6.7	0.4
	이혼·사별	(7)	53.0	0.0	28.9	0.0	0.0	0.0	18.1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5)	75.2	10.8	2.9	0.0	1.0	2.7	6.5	1.0
	자녀 없음	(1357)	71.6	13.3	7.0	0.5	1.7	1.7	4.0	0.1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819)	74.0	11.6	6.9	0.5	2.0	1.3	3.5	0.2
	부모 미동거	(642)	69.1	15.0	6.5	0.5	1.3	2.3	5.1	0.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3)	66.0	17.4	3.6	2.1	2.8	3.3	4.9	0.0
	대학 재학	(26)	45.4	12.7	27.7	0.0	6.8	0.0	7.3	0.0
	대학 졸업	(1206)	74.4	11.8	6.2	0.2	1.2	1.7	4.3	0.2
	대학원 졸업	(86)	53.9	24.1	13.6	1.2	4.9	1.2	1.2	0.0

2. 취업자

1) 현재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활동 한 기간

- 현재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활동 한 기간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57.4%는 ‘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21.8%, ‘2년 이상’ 12.0%, ‘1년 이상 2년 미만’ 8.9%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54.0%가 ‘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61.1%가 ‘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6개월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0~34세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3.0%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혼인상태로 살펴보면, 미혼과 기혼 각각 58.4%, 52.9%가 ‘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이혼 사별의 경우 64.7%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2-17〉 현재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활동 한 기간

〈표 2-2-19〉 현재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활동 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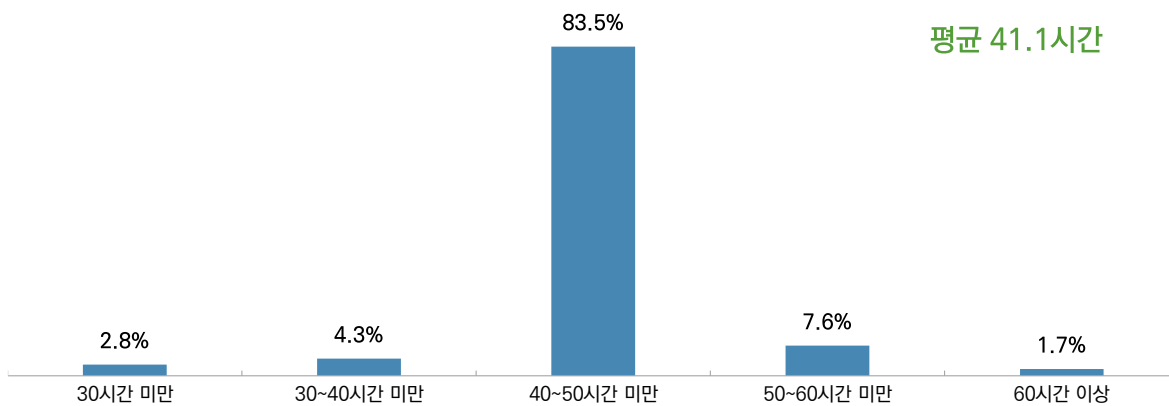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전체	계	(1374)	57.4	21.8	8.9	12.0
거주지	동부산권	(388)	55.8	22.3	10.2	11.7
	서부산권	(368)	55.6	21.2	8.8	14.4
	중부산권	(439)	58.7	22.3	7.6	11.3
	원도심	(180)	61.0	20.8	9.2	9.1
취업여부	취업자	(1374)	57.4	21.8	8.9	12.0
	미취업자	-	-	-	-	-
성별	남성	(719)	54.0	23.2	8.8	14.0
	여성	(655)	61.1	20.3	8.9	9.7
연령	18~24세	(76)	70.3	17.8	2.6	9.2
	25~29세	(650)	59.9	21.1	9.3	9.7
	30~34세	(649)	53.3	23.0	9.1	14.5
혼인상태	미혼	(1145)	58.4	21.3	9.2	11.1
	기혼	(223)	52.9	23.5	7.2	16.3
	이혼·사별	(6)	17.7	64.7	0.0	17.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48.0	28.6	6.5	16.9
	자녀 없음	(1279)	58.1	21.3	9.1	11.6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56.4	22.1	9.8	11.8
	부모 미동거	(594)	58.7	21.4	7.7	12.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56.6	16.2	10.8	16.4
	대학 재학	(24)	66.8	16.3	8.4	8.4
	대학 졸업	(1135)	56.4	23.2	9.0	11.4
	대학원 졸업	(84)	68.1	13.4	4.7	13.7

2) 현재 모든 일자리의 주당 노동 시간

- 현재 모든 일자리의 주당 노동 시간에 대하여 ‘40~50시간’이 8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노동시간은 41.1시간이라고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평균 노동시간은 41.7시간이고 여성의 평균 노동시간은 40.4시간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0.2시간이고 25~29세 41.1시간, 30~34세 41.2시간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의 평균 노동시간은 40.1시간이고 대학졸업 41.0시간, 대학재학 40.1시간, 고졸이하 42.5시간으로 나타남

(단위 : %, 시간)



〈그림 2-2-18〉 현재 모든 일자리의 주당 노동 시간

〈표 2-2-20〉 현재 모든 일자리의 주당 노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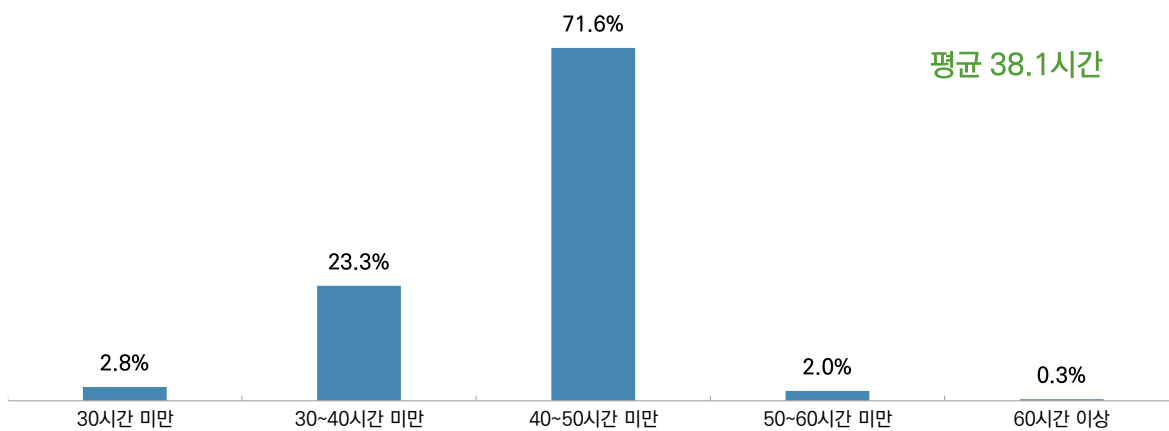
(단위 : %, 시간)

구분		사례수	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50시간 미만	5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평균
전체	계	(1374)	2.8	4.3	83.5	7.6	1.7	41.1
거주지	동부산권	(388)	2.3	3.4	86.2	6.3	1.8	41.1
	서부산권	(368)	3.8	3.9	81.4	8.9	2.0	41.1
	중부산권	(439)	2.2	4.9	83.8	7.7	1.3	41.2
	원도심	(180)	3.5	5.8	81.3	7.2	2.1	40.8
취업여부	취업자	(1374)	2.8	4.3	83.5	7.6	1.7	41.1
	미취업자	-	-	-	-	-	-	-
성별	남성	(719)	2.2	2.1	84.1	9.5	2.1	41.7
	여성	(655)	3.5	6.8	82.9	5.5	1.3	40.4
연령	18~24세	(76)	7.7	6.5	74.6	8.6	2.6	40.2
	25~29세	(650)	2.7	3.9	85.2	6.4	1.8	41.1
	30~34세	(649)	2.4	4.6	82.8	8.6	1.6	41.2
혼인상태	미혼	(1145)	2.8	4.4	83.4	8.0	1.4	41.0
	기혼	(223)	3.0	4.0	84.3	5.0	3.7	41.2
	이혼·사별	(6)	0.0	0.0	82.3	17.7	0.0	43.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2.6	3.0	87.1	3.2	4.1	41.5
	자녀 없음	(1279)	2.8	4.4	83.2	7.9	1.6	41.0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2.8	4.3	83.9	7.6	1.4	40.9
	부모 미동거	(594)	2.9	4.4	82.9	7.5	2.2	41.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1.5	2.5	80.7	12.9	2.4	42.5
	대학 재학	(24)	15.8	7.4	51.1	17.2	8.4	40.1
	대학 졸업	(1135)	2.5	4.2	85.3	6.7	1.4	41.0
	대학원 졸업	(84)	6.3	8.7	73.5	8.2	3.2	40.1

3) 주당 희망 노동 시간

- 주당 희망 노동 시간에 대하여 ‘40~50시간’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 노동시간 평균은 38.1시간이라고 응답하였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동부산권의 주당 희망 노동시간은 38.1시간이며, 서부산권 38.0시간, 중부산권 38.3시간, 원도심 38.1시간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주당 희망 노동시간은 38.1시간이고, 25~29세 38.4시간, 30~34세 37.9시간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주당 희망 노동시간은 38.9시간이며 여성의 경우 37.2시간으로 나타남

(단위 : %, 시간)



〈그림 2-2-19〉 주당 희망 노동 시간

〈표 2-2-21〉 주당 희망 노동 시간

(단위 :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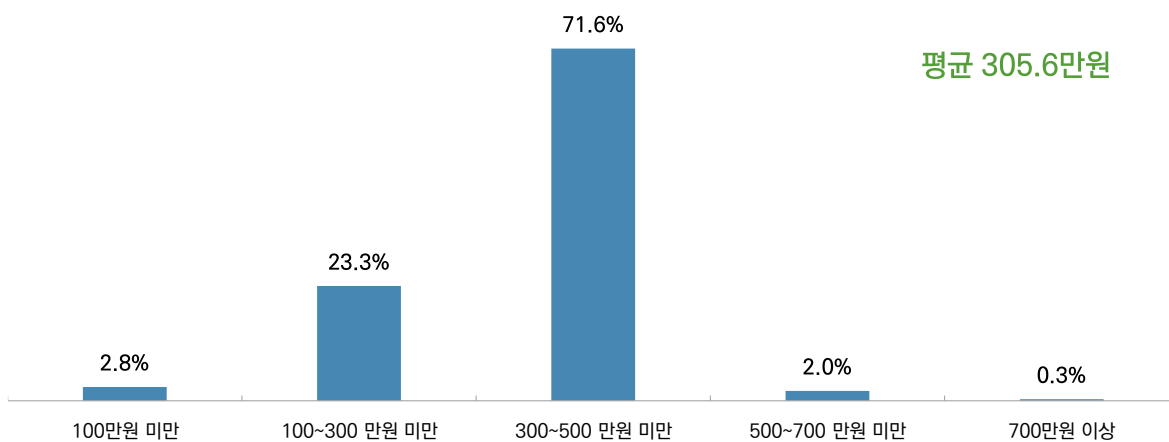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30시간미만	30~40시간미만	40~50시간미만	50~60시간미만	60시간 이상	평균
전체	계	(1374)	2.8	23.3	71.6	2.0	0.3	38.1
거주지	동부산권	(388)	2.5	23.3	72.2	1.5	0.5	38.1
	서부산권	(368)	4.0	22.8	70.1	2.5	0.5	38.0
	중부산권	(439)	2.2	22.7	73.0	2.0	0.0	38.3
	원도심	(180)	2.5	25.3	70.1	1.7	0.4	38.1
취업여부	취업자	(1374)	2.8	23.3	71.6	2.0	0.3	38.1
	미취업자	-	-	-	-	-	-	-
성별	남성	(719)	2.5	14.8	79.4	2.9	0.4	38.9
	여성	(655)	3.2	32.6	63.1	0.9	0.3	37.2
연령	18~24세	(76)	6.3	18.9	70.9	1.3	2.6	38.1
	25~29세	(650)	2.7	19.3	75.8	1.7	0.4	38.4
	30~34세	(649)	2.5	27.7	67.5	2.3	0.0	37.9
혼인상태	미혼	(1145)	2.6	21.9	72.8	2.3	0.3	38.3
	기혼	(223)	3.8	29.3	66.6	0.4	0.0	37.1
	이혼·사별	(6)	0.0	51.4	35.3	0.0	13.3	38.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2.6	27.3	70.1	0.0	0.0	37.6
	자녀 없음	(1279)	2.8	23.0	71.7	2.1	0.4	38.2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3.0	17.0	77.7	2.0	0.3	38.5
	부모 미동거	(594)	2.5	31.5	63.7	1.9	0.5	37.6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2.9	9.6	81.6	5.9	0.0	39.4
	대학 재학	(24)	4.2	19.0	64.2	0.0	12.6	41.0
	대학 졸업	(1135)	2.4	24.1	71.8	1.6	0.1	38.1
	대학원 졸업	(84)	7.4	34.2	56.0	1.2	1.2	36.4

4) 월평균 희망 소득

○ 월평균 희망 소득에 대하여 ‘300~600만 원’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희망소득은 305.6만 원으로 조사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평균 희망소득은 322.0만 원이고 여성의 경우 287.5만 원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평균 희망소득은 279.9만 원이고, 25~29세 는 295.1만 원, 30~34세 319.1만 원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동부산권의 평균 희망소득은 308.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서 부산권 306.8만 원, 중부산권 306.9만 원, 원도심 294.9만 원으로 나타남

(단위 : %, 만원)



〈그림 2-2-20〉 월평균 희망 소득

〈표 2-2-22〉 월평균 희망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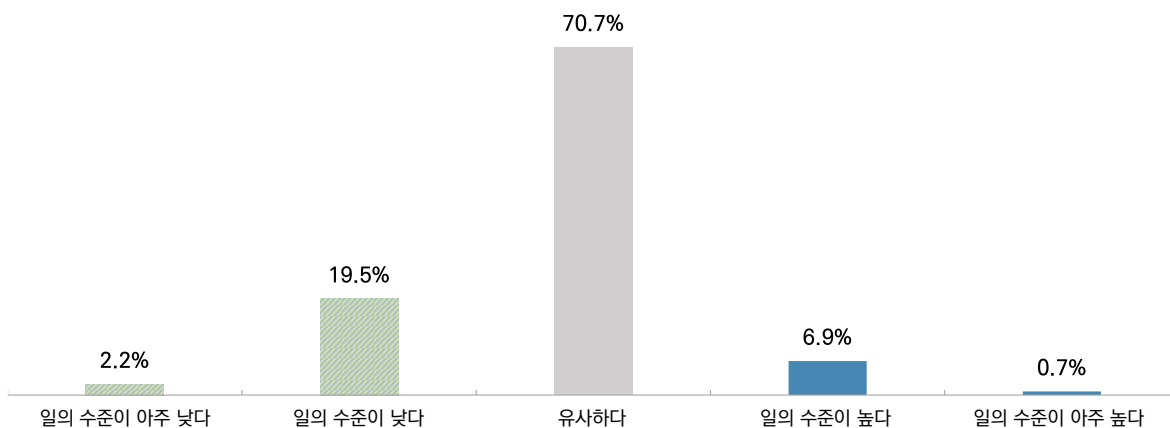
(단위 : %, 만원)

구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300 만원 미만	300~500 만원 미만	500~700 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평균
전체	계	(1374)	2.8	23.3	71.6	2.0	0.3	305.6
거주지	동부산권	(388)	2.5	23.3	72.2	1.5	0.5	308.0
	서부산권	(368)	4.0	22.8	70.1	2.5	0.5	306.8
	중부산권	(439)	2.2	22.7	73.0	2.0	0.0	306.9
	원도심	(180)	2.5	25.3	70.1	1.7	0.4	294.9
취업여부	취업자	(1374)	2.8	23.3	71.6	2.0	0.3	305.6
	미취업자	-	-	-	-	-	-	-
성별	남성	(719)	2.5	14.8	79.4	2.9	0.4	322.0
	여성	(655)	3.2	32.6	63.1	0.9	0.3	287.5
연령	18~24세	(76)	6.3	18.9	70.9	1.3	2.6	279.9
	25~29세	(650)	2.7	19.3	75.8	1.7	0.4	295.1
	30~34세	(649)	2.5	27.7	67.5	2.3	0.0	319.1
혼인상태	미혼	(1145)	2.6	21.9	72.8	2.3	0.3	301.0
	기혼	(223)	3.8	29.3	66.6	0.4	0.0	329.8
	이혼·사별	(6)	0.0	51.4	35.3	0.0	13.3	280.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2.6	27.3	70.1	0.0	0.0	324.9
	자녀 없음	(1279)	2.8	23.0	71.7	2.1	0.4	304.2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3.0	17.0	77.7	2.0	0.3	302.4
	부모 미동거	(594)	2.5	31.5	63.7	1.9	0.5	309.8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2.9	9.6	81.6	5.9	0.0	289.8
	대학 재학	(24)	4.2	19.0	64.2	0.0	12.6	344.0
	대학 졸업	(1135)	2.4	24.1	71.8	1.6	0.1	306.0
	대학원 졸업	(84)	7.4	34.2	56.0	1.2	1.2	313.6

5)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과 학력수준 비교

-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과 학력수준 비교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70.7%는 ‘유사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수준이 낮다’ 21.7%, ‘수준이 높다’ 7.6% 순으로 응답하였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유사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중부산권 경우 ‘수준이 낮다’가 23.4%로 다른 거주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유사하다’가 높게 나타났으나 18~24세의 경우 ‘수준이 낮다’가 29.5%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의 70.4%가 유사하다고 응답하였고 기혼 72.3%, 이혼 사별 64.7%가 ‘유사하다’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2-2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과 학력수준 비교

〈표 2-2-23〉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과 학력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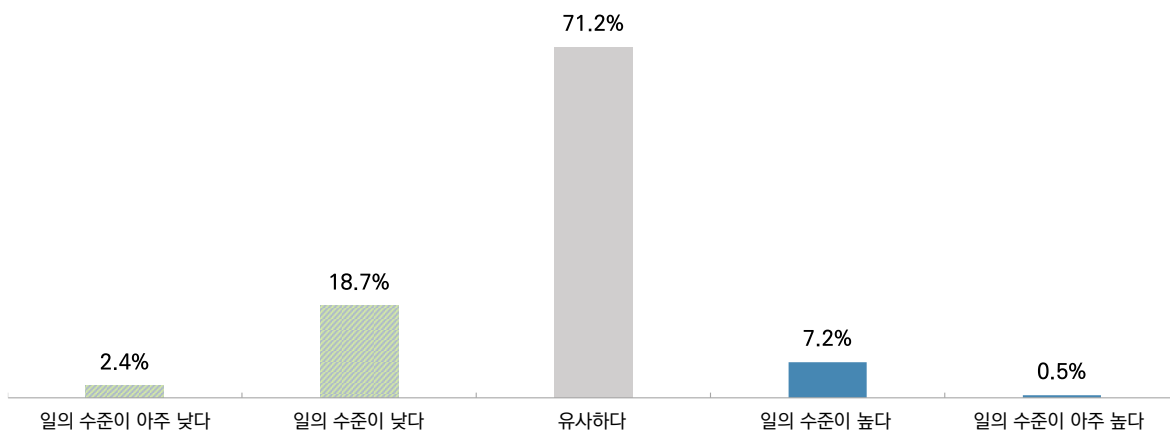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일의 수준이 아주 낮다	일의 수준이 낮다	유사하다	일의 수준이 높다	일의 수준이 아주 높다	종합평가		
								수준이 낮다	유사하다	수준이 높다
전체	계	(1374)	2.2	19.5	70.7	6.9	0.7	21.7	70.7	7.6
거주지	동부산권	(388)	2.3	18.7	72.1	6.7	0.3	21.0	72.1	6.9
	서부산권	(368)	1.2	19.5	70.9	7.7	0.8	20.6	70.9	8.4
	중부산권	(439)	2.8	20.6	69.0	6.8	0.9	23.4	69.0	7.7
	원도심	(180)	2.5	19.1	71.3	6.0	1.1	21.6	71.3	7.1
취업여부	취업자	(1374)	2.2	19.5	70.7	6.9	0.7	21.7	70.7	7.6
	미취업자	-	-	-	-	-	-	-	-	-
성별	남성	(719)	2.3	19.1	71.3	6.7	0.5	21.4	71.3	7.2
	여성	(655)	2.0	20.0	70.0	7.1	0.9	22.0	70.0	8.0
연령	18~24세	(76)	4.0	25.6	65.2	4.0	1.3	29.5	65.2	5.3
	25~29세	(650)	2.8	19.5	69.4	8.1	0.3	22.2	69.4	8.4
	30~34세	(649)	1.4	18.9	72.7	6.0	1.0	20.3	72.7	7.1
혼인상태	미혼	(1145)	2.5	20.2	70.4	6.4	0.5	22.7	70.4	6.9
	기혼	(223)	0.5	15.7	72.3	9.8	1.6	16.2	72.3	11.5
	이혼·사별	(6)	0.0	35.3	64.7	0.0	0.0	35.3	64.7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0.0	14.3	73.4	10.4	1.9	14.3	73.4	12.3
	자녀 없음	(1279)	2.3	19.9	70.5	6.6	0.6	22.3	70.5	7.2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2.3	19.1	72.1	6.2	0.2	21.4	72.1	6.5
	부모 미동거	(594)	2.0	20.1	68.8	7.8	1.3	22.1	68.8	9.1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5.2	15.2	73.0	5.9	0.8	20.4	73.0	6.6
	대학 재학	(24)	8.4	32.2	37.3	22.1	0.0	40.6	37.3	22.1
	대학 졸업	(1135)	1.7	19.6	71.4	6.6	0.7	21.3	71.4	7.3
	대학원 졸업	(84)	2.7	21.3	66.4	8.6	1.0	24.0	66.4	9.6

6)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과 기술수준 비교

-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과 기술수준 비교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71.2%는 ‘유사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수준이 낮다’ 21.1%, ‘수준이 높다’ 7.7%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69.9%가 유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72.7%가 유사하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59.8%, 25~29세 72.6%, 30~34세 71.2%가 ‘유사하다’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유사하다’가 높게 나타났으나 대학재학의 경우 ‘수준이 낮다’가 40.6%로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2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과 기술수준 비교

〈표 2-2-24〉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과 기술수준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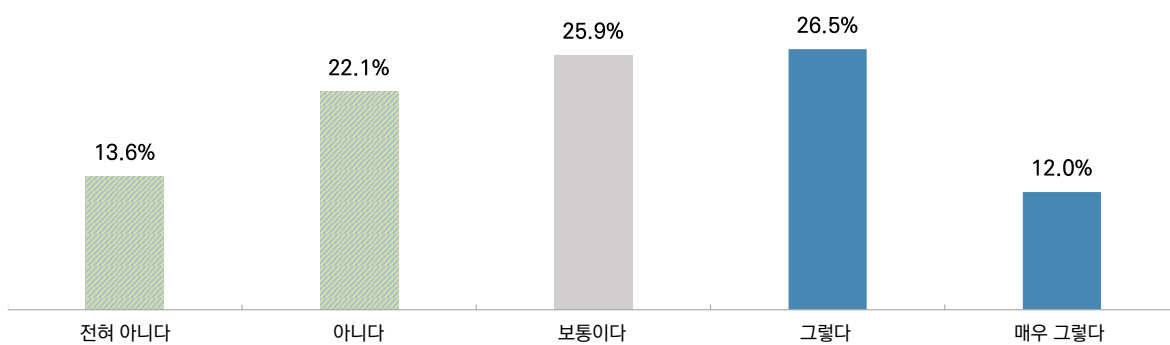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일의 수준이 아주 낮다	일의 수준이 낮다	유사하다	일의 수준이 높다	일의 수준이 아주 높다	종합평가		
								수준이 낮다	유사하다	수준이 높다
전체	계	(1374)	2.4	18.7	71.2	7.2	0.5	21.1	71.2	7.7
거주지	동부산권	(388)	2.6	17.0	72.8	7.4	0.3	19.5	72.8	7.6
	서부산권	(368)	1.6	20.7	69.3	8.1	0.3	22.3	69.3	8.4
	중부산권	(439)	3.1	20.3	69.5	6.5	0.6	23.4	69.5	7.1
	원도심	(180)	1.9	14.1	76.0	6.8	1.1	16.0	76.0	7.9
취업여부	취업자	(1374)	2.4	18.7	71.2	7.2	0.5	21.1	71.2	7.7
	미취업자	-	-	-	-	-	-	-	-	-
성별	남성	(719)	2.6	19.2	69.9	7.8	0.5	21.8	69.9	8.3
	여성	(655)	2.2	18.1	72.7	6.6	0.5	20.2	72.7	7.0
연령	18~24세	(76)	5.3	23.3	59.8	10.3	1.3	28.6	59.8	11.6
	25~29세	(650)	2.8	16.9	72.6	7.4	0.3	19.7	72.6	7.7
	30~34세	(649)	1.7	19.9	71.2	6.7	0.6	21.6	71.2	7.2
혼인상태	미혼	(1145)	2.6	19.0	71.3	6.5	0.5	21.7	71.3	7.0
	기혼	(223)	1.4	16.2	70.9	11.1	0.4	17.6	70.9	11.5
	이혼·사별	(6)	0.0	35.3	64.7	0.0	0.0	35.3	64.7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1.1	18.7	69.1	11.2	0.0	19.8	69.1	11.2
	자녀 없음	(1279)	2.5	18.6	71.4	6.9	0.5	21.2	71.4	7.4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2.4	17.8	72.7	7.0	0.1	20.2	72.7	7.2
	부모 미동거	(594)	2.5	19.8	69.3	7.4	1.0	22.2	69.3	8.4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5.9	13.9	73.4	5.9	0.8	19.9	73.4	6.7
	대학 재학	(24)	12.6	27.9	42.5	16.9	0.0	40.6	42.5	16.9
	대학 졸업	(1135)	1.9	18.6	71.9	7.3	0.4	20.4	71.9	7.7
	대학원 졸업	(84)	1.5	24.3	67.3	5.9	1.0	25.7	67.3	7.0

7)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과 전공 일치 정도

○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과 전공 일치 정도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38.4%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아니다’ 35.7%, ‘보통이다’ 25.9%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36.3%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경우 ‘그렇다’가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37.0%는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25~29세의 39.7%는 ‘그렇다’, 30~34세의 37.5%는 ‘아니다’가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동부산권의 37.7%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서부산권 38.2%는 ‘그렇다’, 중부산권 38.3%는 ‘아니다’, 원도심 46.9%는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23〉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과 전공 일치 정도

〈표 2-2-25〉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과 전공 일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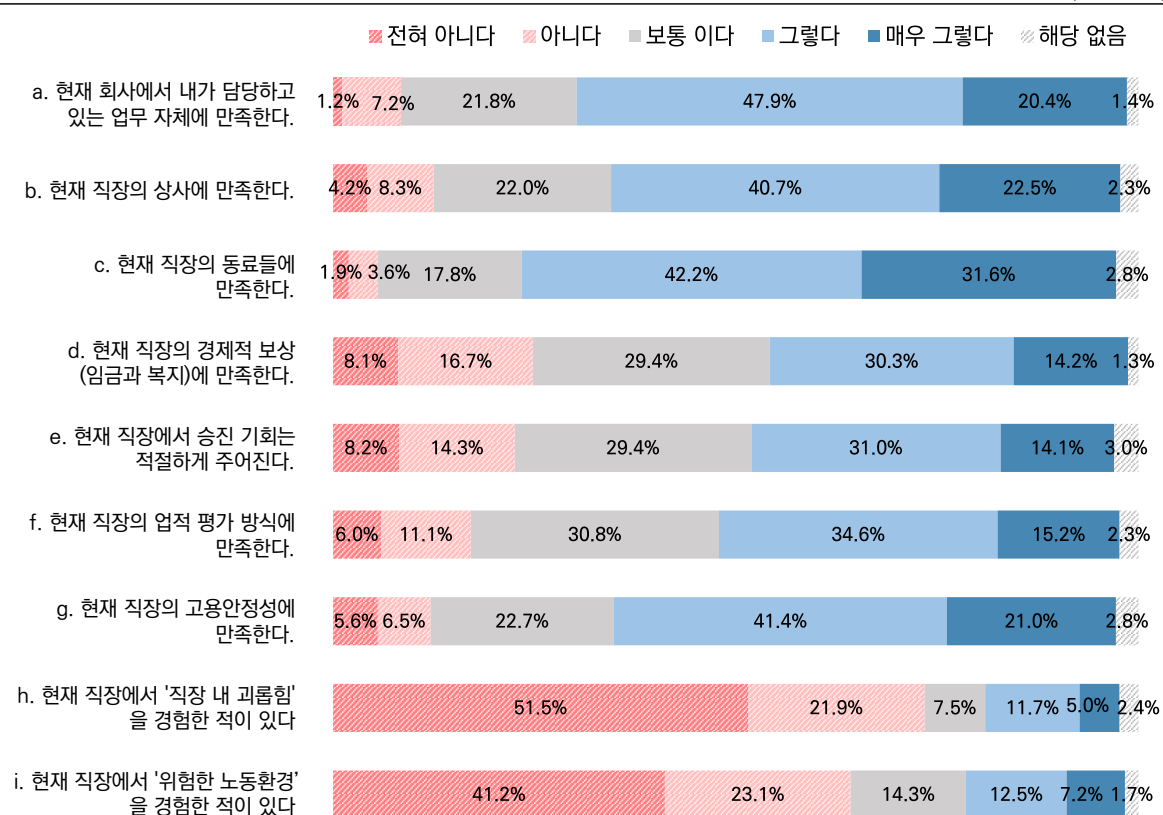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	계	(1374)	13.6	22.1	25.9	26.5	12.0	35.7	25.9	38.4
거주지	동부산권	(388)	14.7	22.9	25.2	26.0	11.1	37.7	25.2	37.1
	서부산권	(368)	11.8	21.6	28.3	24.0	14.2	33.5	28.3	38.2
	중부산권	(439)	14.8	23.5	25.4	25.3	11.0	38.3	25.4	36.3
	원도심	(180)	11.4	18.2	23.4	35.5	11.4	29.7	23.4	46.9
취업여부	취업자	(1374)	13.6	22.1	25.9	26.5	12.0	35.7	25.9	38.4
	미취업자	-	-	-	-	-	-	-	-	-
성별	남성	(719)	12.5	23.9	27.9	28.7	7.0	36.3	27.9	35.7
	여성	(655)	14.7	20.3	23.6	24.0	17.4	35.0	23.6	41.4
연령	18~24세	(76)	11.2	25.7	26.7	28.6	7.8	37.0	26.7	36.3
	25~29세	(650)	11.9	21.8	26.6	26.8	12.8	33.8	26.6	39.7
	30~34세	(649)	15.4	22.1	25.1	25.8	11.6	37.5	25.1	37.4
혼인상태	미혼	(1145)	12.9	21.8	25.7	28.0	11.6	34.7	25.7	39.5
	기혼	(223)	17.2	23.3	26.7	18.9	13.9	40.5	26.7	32.8
	이혼·사별	(6)	0.0	47.0	17.7	17.7	17.7	47.0	17.7	35.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15.3	23.7	22.9	24.3	13.8	39.0	22.9	38.1
	자녀 없음	(1279)	13.4	22.0	26.1	26.6	11.8	35.5	26.1	38.4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10.7	22.0	26.8	29.3	11.2	32.7	26.8	40.5
	부모 미동거	(594)	17.3	22.4	24.7	22.7	13.0	39.6	24.7	35.7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20.3	29.9	36.0	12.2	1.7	50.2	36.0	13.8
	대학 재학	(24)	24.6	20.6	34.8	7.4	12.6	45.2	34.8	20.0
	대학 졸업	(1135)	13.1	22.4	25.1	27.3	12.0	35.5	25.1	39.4
	대학원 졸업	(84)	5.7	7.4	17.6	42.5	26.8	13.1	17.6	69.3

8)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현재 담당업무 만족도는 68.3%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직장상사 만족도 ‘그렇다’(63.2%), 직장동료 만족도 ‘그렇다’(73.8%), 경제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 ‘그렇다’(44.5%), 승진기회 만족도 ‘그렇다’(45.0%), 업적평가 방식에 대한 만족도 ‘그렇다’(49.7%), 고용안정성 만족도 ‘그렇다’(62.3%), 직장내 괴롭힘 경험 ‘아니다’(73.4%), 위험 노동환경 경험 ‘아니다’(64.3%)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24〉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표 2-2-26〉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자체에 만족한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무응답
전체	계	(1374)	1.2	7.2	21.8	47.9	20.4	1.4	8.5	21.8	68.3	1.4
거주지	동부산권	(388)	1.0	8.6	20.0	49.4	19.0	1.9	9.6	20.0	68.4	1.9
	서부산권	(368)	0.8	7.0	21.8	44.4	24.9	1.1	7.8	21.8	69.3	1.1
	중부산권	(439)	1.5	5.7	23.2	49.4	18.2	1.9	7.2	23.2	67.6	1.9
	원도심	(180)	1.8	8.6	22.0	47.9	19.6	0.0	10.4	22.0	67.5	0.0
취업여부	취업자	(1374)	1.2	7.2	21.8	47.9	20.4	1.4	8.5	21.8	68.3	1.4
	미취업자	-	-	-	-	-	-	-	-	-	-	-
성별	남성	(719)	0.5	6.6	18.8	50.8	21.5	1.9	7.1	18.8	72.2	1.9
	여성	(655)	2.0	8.0	25.0	44.8	19.2	1.0	10.0	25.0	64.0	1.0
연령	18~24세	(76)	1.3	6.3	26.6	52.9	11.8	1.1	7.6	26.6	64.7	1.1
	25~29세	(650)	0.9	5.6	22.2	49.3	21.0	1.0	6.5	22.2	70.3	1.0
	30~34세	(649)	1.5	9.0	20.8	45.9	20.8	2.0	10.5	20.8	66.7	2.0
혼인상태	미혼	(1145)	1.3	7.3	22.3	47.2	20.3	1.6	8.6	22.3	67.5	1.6
	기혼	(223)	0.9	7.0	18.8	51.2	21.1	0.9	7.9	18.8	72.4	0.9
	이혼·사별	(6)	0.0	0.0	35.3	51.4	13.3	0.0	0.0	35.3	64.7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0.0	7.5	20.2	48.9	22.4	1.1	7.5	20.2	71.3	1.1
	자녀 없음	(1279)	1.3	7.2	21.9	47.8	20.2	1.5	8.5	21.9	68.1	1.5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0.8	6.7	20.2	49.2	21.4	1.7	7.6	20.2	70.6	1.7
	부모 미동거	(594)	1.8	7.9	23.8	46.2	19.1	1.2	9.7	23.8	65.3	1.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2.0	5.4	27.2	47.5	17.0	0.8	7.5	27.2	64.5	0.8
	대학 재학	(24)	4.2	9.5	29.0	41.5	15.8	0.0	13.7	29.0	57.3	0.0
	대학 졸업	(1135)	1.2	6.8	21.4	48.7	20.2	1.7	8.0	21.4	69.0	1.7
	대학원 졸업	(84)	0.0	15.1	16.6	39.2	29.0	0.0	15.1	16.6	68.2	0.0

〈표 2-2-27〉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 현재 직장의 상사에 만족한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무응답
전체	계	(1374)	4.2	8.3	22.0	40.7	22.5	2.3	12.5	22.0	63.2	2.3
거주지	동부산권	(388)	3.1	8.4	23.5	43.4	19.4	2.1	11.6	23.5	62.8	2.1
	서부산권	(368)	4.5	6.4	19.9	39.7	26.3	3.3	10.9	19.9	65.9	3.3
	중부산권	(439)	4.8	9.3	22.1	38.0	23.5	2.3	14.2	22.1	61.4	2.3
	원도심	(180)	4.6	9.1	23.0	43.9	18.9	0.6	13.6	23.0	62.8	0.6
취업여부	취업자	(1374)	4.2	8.3	22.0	40.7	22.5	2.3	12.5	22.0	63.2	2.3
	미취업자	-	-	-	-	-	-	-	-	-	-	-
성별	남성	(719)	2.1	7.7	22.4	42.7	22.4	2.7	9.8	22.4	65.0	2.7
	여성	(655)	6.6	8.9	21.6	38.6	22.6	1.8	15.4	21.6	61.2	1.8
연령	18~24세	(76)	5.0	12.3	16.6	43.2	19.1	3.8	17.3	16.6	62.3	3.8
	25~29세	(650)	3.0	8.3	22.7	40.7	23.2	2.1	11.3	22.7	63.9	2.1
	30~34세	(649)	5.4	7.8	22.0	40.4	22.2	2.3	13.1	22.0	62.6	2.3
혼인상태	미혼	(1145)	3.8	8.3	22.3	39.3	23.8	2.4	12.1	22.3	63.2	2.4
	기혼	(223)	5.5	8.2	21.0	48.4	15.1	1.8	13.8	21.0	63.5	1.8
	이혼·사별	(6)	35.3	0.0	0.0	17.7	47.0	0.0	35.3	0.0	64.7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6.2	7.6	22.9	44.2	17.1	2.1	13.8	22.9	61.2	2.1
	자녀 없음	(1279)	4.1	8.3	22.0	40.5	22.9	2.3	12.4	22.0	63.4	2.3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3.3	6.7	22.2	40.2	24.8	2.7	10.0	22.2	65.0	2.7
	부모 미동거	(594)	5.5	10.3	21.7	41.4	19.4	1.7	15.7	21.7	60.8	1.7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3.6	7.2	26.8	39.5	22.0	0.8	10.8	26.8	61.6	0.8
	대학 재학	(24)	8.4	13.7	45.2	21.1	11.6	0.0	22.1	45.2	32.7	0.0
	대학 졸업	(1135)	3.9	8.2	21.4	41.8	22.4	2.4	12.1	21.4	64.1	2.4
	대학원 졸업	(84)	8.9	9.3	16.3	34.4	27.6	3.6	18.2	16.3	62.0	3.6

〈표 2-2-28〉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 현재 직장의 동료에 만족한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무응답
전체	계	(1374)	1.9	3.6	17.8	42.2	31.6	2.8	5.6	17.8	73.8	2.8
거주지	동부산권	(388)	2.9	3.1	18.6	41.2	31.3	2.9	6.0	18.6	72.5	2.9
	서부산권	(368)	1.1	4.1	14.3	41.8	35.5	3.2	5.3	14.3	77.2	3.2
	중부산권	(439)	1.6	3.1	19.6	42.2	30.5	3.0	4.7	19.6	72.7	3.0
	원도심	(180)	2.5	4.9	19.1	45.5	26.9	1.1	7.4	19.1	72.4	1.1
취업여부	취업자	(1374)	1.9	3.6	17.8	42.2	31.6	2.8	5.6	17.8	73.8	2.8
	미취업자	-	-	-	-	-	-	-	-	-	-	-
성별	남성	(719)	1.8	2.3	17.5	44.1	31.4	3.0	4.1	17.5	75.4	3.0
	여성	(655)	2.1	5.1	18.1	40.2	31.9	2.6	7.2	18.1	72.1	2.6
연령	18~24세	(76)	1.3	2.6	22.8	36.8	34.0	2.5	4.0	22.8	70.8	2.5
	25~29세	(650)	1.9	3.8	17.8	41.1	32.0	3.3	5.7	17.8	73.1	3.3
	30~34세	(649)	2.1	3.5	17.2	43.9	31.0	2.3	5.6	17.2	74.9	2.3
혼인상태	미혼	(1145)	1.6	3.6	18.6	41.4	32.0	2.8	5.2	18.6	73.4	2.8
	기혼	(223)	3.6	3.6	13.4	47.0	29.9	2.6	7.2	13.4	76.8	2.6
	이혼·사별	(6)	0.0	17.7	35.3	17.7	29.3	0.0	17.7	35.3	47.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5.1	5.3	13.5	47.6	24.3	4.2	10.4	13.5	71.9	4.2
	자녀 없음	(1279)	1.7	3.5	18.1	41.8	32.2	2.7	5.2	18.1	74.0	2.7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1.4	3.4	17.6	41.9	33.1	2.7	4.8	17.6	75.0	2.7
	부모 미동거	(594)	2.7	3.9	18.1	42.6	29.7	3.0	6.6	18.1	72.3	3.0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3.7	5.2	12.0	47.5	27.9	3.7	8.9	12.0	75.4	3.7
	대학 재학	(24)	8.4	4.2	33.2	42.5	11.6	0.0	12.6	33.2	54.1	0.0
	대학 졸업	(1135)	1.6	3.4	18.2	41.8	32.3	2.7	5.0	18.2	74.0	2.7
	대학원 졸업	(84)	2.2	3.6	16.7	39.9	34.4	3.2	5.8	16.7	74.3	3.2

〈표 2-2-29〉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 현재 경제적 보상에 만족한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무응답
전체	계	(1374)	8.1	16.7	29.4	30.3	14.2	1.3	24.8	29.4	44.5	1.3
거주지	동부산권	(388)	6.8	16.5	29.3	34.8	11.3	1.2	23.3	29.3	46.1	1.2
	서부산권	(368)	8.6	16.2	27.2	28.1	18.3	1.7	24.8	27.2	46.4	1.7
	중부산권	(439)	8.4	18.1	30.5	27.3	14.1	1.7	26.5	30.5	41.3	1.7
	원도심	(180)	8.9	15.0	31.3	32.3	12.4	0.0	24.0	31.3	44.7	0.0
취업여부	취업자	(1374)	8.1	16.7	29.4	30.3	14.2	1.3	24.8	29.4	44.5	1.3
	미취업자	-	-	-	-	-	-	-	-	-	-	-
성별	남성	(719)	6.2	15.0	30.7	30.6	15.9	1.6	21.2	30.7	46.5	1.6
	여성	(655)	10.1	18.7	27.9	29.9	12.3	1.0	28.8	27.9	42.2	1.0
연령	18~24세	(76)	10.2	15.3	29.0	28.8	16.7	0.0	25.5	29.0	45.5	0.0
	25~29세	(650)	5.7	16.9	28.5	32.0	15.8	1.1	22.6	28.5	47.8	1.1
	30~34세	(649)	10.2	16.8	30.3	28.8	12.3	1.7	27.0	30.3	41.0	1.7
혼인상태	미혼	(1145)	8.1	16.7	29.6	29.5	14.8	1.3	24.8	29.6	44.2	1.3
	기혼	(223)	7.7	16.7	27.9	35.3	11.0	1.3	24.4	27.9	46.4	1.3
	이혼·사별	(6)	17.7	16.1	48.6	0.0	17.7	0.0	33.7	48.6	17.7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7.2	19.3	22.7	38.2	11.5	1.1	26.5	22.7	49.7	1.1
	자녀 없음	(1279)	8.1	16.5	29.9	29.7	14.4	1.3	24.7	29.9	44.1	1.3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6.6	16.0	28.8	29.9	17.1	1.6	22.6	28.8	47.0	1.6
	부모 미동거	(594)	10.0	17.7	30.1	30.9	10.4	1.0	27.7	30.1	41.2	1.0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5.7	15.8	35.2	30.9	11.6	0.8	21.5	35.2	42.5	0.8
	대학 재학	(24)	16.9	15.8	20.6	34.1	12.6	0.0	32.7	20.6	46.8	0.0
	대학 졸업	(1135)	7.8	16.5	29.6	30.8	14.0	1.4	24.3	29.6	44.7	1.4
	대학원 졸업	(84)	13.4	21.5	20.8	21.9	21.4	1.0	34.9	20.8	43.3	1.0

〈표 2-2-30〉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 현재 승진기회에 만족한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무응답
전체	계	(1374)	8.2	14.3	29.4	31.0	14.1	3.0	22.5	29.4	45.0	3.0
거주지	동부산권	(388)	7.0	14.4	30.9	31.2	15.0	1.5	21.4	30.9	46.2	1.5
	서부산권	(368)	7.6	17.0	25.8	31.2	14.9	3.5	24.6	25.8	46.1	3.5
	중부산권	(439)	8.6	11.4	30.8	31.4	13.2	4.7	19.9	30.8	44.5	4.7
	원도심	(180)	11.1	16.2	29.9	28.8	12.8	1.1	27.3	29.9	41.6	1.1
취업여부	취업자	(1374)	8.2	14.3	29.4	31.0	14.1	3.0	22.5	29.4	45.0	3.0
	미취업자	-	-	-	-	-	-	-	-	-	-	-
성별	남성	(719)	6.3	12.0	28.0	34.8	16.1	2.9	18.3	28.0	50.8	2.9
	여성	(655)	10.3	16.9	30.9	26.8	11.9	3.2	27.2	30.9	38.7	3.2
연령	18~24세	(76)	7.7	10.1	35.5	31.0	10.6	5.0	17.9	35.5	41.6	5.0
	25~29세	(650)	6.7	14.2	31.7	29.5	15.1	3.0	20.8	31.7	44.5	3.0
	30~34세	(649)	9.8	15.0	26.4	32.4	13.5	2.9	24.8	26.4	46.0	2.9
혼인상태	미혼	(1145)	8.4	14.2	30.1	30.0	14.2	3.0	22.6	30.1	44.3	3.0
	기혼	(223)	7.1	15.0	25.9	35.6	13.7	2.7	22.1	25.9	49.3	2.7
	이혼·사별	(6)	17.7	13.3	17.7	33.7	0.0	17.7	30.9	17.7	33.7	17.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6.3	17.1	25.7	26.7	20.1	4.2	23.4	25.7	46.7	4.2
	자녀 없음	(1279)	8.4	14.1	29.7	31.3	13.6	2.9	22.5	29.7	44.9	2.9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6.9	13.2	29.7	32.0	16.0	2.2	20.1	29.7	48.0	2.2
	부모 미동거	(594)	9.9	15.8	28.9	29.6	11.6	4.1	25.8	28.9	41.2	4.1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14.0	9.5	32.6	31.2	10.4	2.3	23.5	32.6	41.6	2.3
	대학 재학	(24)	4.2	16.9	43.1	11.6	20.0	4.2	21.1	43.1	31.6	4.2
	대학 졸업	(1135)	6.8	14.7	29.3	32.1	14.5	2.6	21.5	29.3	46.6	2.6
	대학원 졸업	(84)	19.3	16.3	21.6	20.7	13.0	9.1	35.6	21.6	33.7	9.1

〈표 2-2-31〉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 현재 업적평가 방식에 만족한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무응답
전체	계	(1374)	6.0	11.1	30.8	34.6	15.2	2.3	17.1	30.8	49.7	2.3
거주지	동부산권	(388)	6.1	10.4	32.4	38.2	11.7	1.2	16.5	32.4	49.9	1.2
	서부산권	(368)	4.9	12.7	28.9	30.6	20.8	2.0	17.6	28.9	51.5	2.0
	중부산권	(439)	6.8	9.4	30.0	36.5	13.2	4.1	16.2	30.0	49.7	4.1
	원도심	(180)	5.8	13.6	33.4	29.9	16.0	1.1	19.5	33.4	46.0	1.1
취업여부	취업자	(1374)	6.0	11.1	30.8	34.6	15.2	2.3	17.1	30.8	49.7	2.3
	미취업자	-	-	-	-	-	-	-	-	-	-	-
성별	남성	(719)	4.7	8.2	31.1	36.2	17.9	1.9	13.0	31.1	54.1	1.9
	여성	(655)	7.3	14.3	30.6	32.8	12.1	2.9	21.6	30.6	44.9	2.9
연령	18~24세	(76)	4.0	7.5	35.3	33.0	16.5	3.7	11.5	35.3	49.5	3.7
	25~29세	(650)	4.3	10.8	31.9	35.4	15.5	2.1	15.1	31.9	50.9	2.1
	30~34세	(649)	7.9	11.8	29.3	33.9	14.7	2.5	19.7	29.3	48.6	2.5
혼인상태	미혼	(1145)	5.6	10.6	31.7	33.8	15.6	2.6	16.3	31.7	49.4	2.6
	기혼	(223)	7.0	13.8	26.4	39.2	12.7	1.0	20.7	26.4	51.9	1.0
	이혼·사별	(6)	35.3	0.0	30.9	16.1	17.7	0.0	35.3	30.9	33.7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5.3	17.3	21.9	43.1	12.5	0.0	22.6	21.9	55.6	0.0
	자녀 없음	(1279)	6.0	10.7	31.5	33.9	15.4	2.5	16.7	31.5	49.3	2.5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5.0	8.7	29.7	37.0	17.4	2.1	13.7	29.7	54.5	2.1
	부모 미동거	(594)	7.3	14.3	32.3	31.3	12.2	2.6	21.6	32.3	43.5	2.6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5.6	11.4	31.4	34.9	15.2	1.6	17.0	31.4	50.0	1.6
	대학 재학	(24)	7.4	8.4	38.5	24.2	17.2	4.2	15.8	38.5	41.5	4.2
	대학 졸업	(1135)	5.9	10.5	30.8	35.8	14.6	2.4	16.4	30.8	50.4	2.4
	대학원 졸업	(84)	7.5	19.8	28.6	20.2	21.8	2.1	27.4	28.6	41.9	2.1

〈표 2-2-32〉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 현재 고용안정성에 만족한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무응답
전체	계	(1374)	5.6	6.5	22.7	41.4	21.0	2.8	12.1	22.7	62.3	2.8
거주지	동부산권	(388)	4.8	5.8	21.3	42.6	22.0	3.6	10.6	21.3	64.6	3.6
	서부산권	(368)	5.4	8.6	22.5	36.6	24.1	2.9	13.9	22.5	60.7	2.9
	중부산권	(439)	6.3	5.3	23.8	42.3	20.1	2.2	11.6	23.8	62.4	2.2
	원도심	(180)	5.7	7.0	24.0	46.2	14.3	2.8	12.7	24.0	60.6	2.8
취업여부	취업자	(1374)	5.6	6.5	22.7	41.4	21.0	2.8	12.1	22.7	62.3	2.8
	미취업자	-	-	-	-	-	-	-	-	-	-	-
성별	남성	(719)	4.5	6.3	22.3	41.7	22.5	2.7	10.8	22.3	64.2	2.7
	여성	(655)	6.7	6.8	23.3	41.0	19.3	2.9	13.5	23.3	60.3	2.9
연령	18~24세	(76)	3.8	9.2	28.9	37.9	16.5	3.7	13.0	28.9	54.4	3.7
	25~29세	(650)	4.6	6.4	22.9	43.6	19.6	2.9	10.9	22.9	63.2	2.9
	30~34세	(649)	6.7	6.4	21.9	39.6	22.8	2.6	13.2	21.9	62.4	2.6
혼인상태	미혼	(1145)	5.5	6.4	24.0	40.9	20.3	2.9	11.9	24.0	61.2	2.9
	기혼	(223)	5.0	7.4	16.7	44.3	24.3	2.3	12.4	16.7	68.7	2.3
	이혼·사별	(6)	35.3	0.0	17.7	30.9	16.1	0.0	35.3	17.7	47.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6.3	7.5	13.4	39.5	32.4	1.0	13.8	13.4	71.8	1.0
	자녀 없음	(1279)	5.5	6.5	23.4	41.5	20.1	3.0	12.0	23.4	61.6	3.0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5.2	5.3	23.7	41.7	21.0	3.2	10.4	23.7	62.7	3.2
	부모 미동거	(594)	6.1	8.2	21.5	40.9	20.9	2.4	14.3	21.5	61.8	2.4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8.1	6.1	32.3	34.2	18.5	0.8	14.1	32.3	52.8	0.8
	대학 재학	(24)	4.2	17.9	27.9	29.9	15.8	4.2	22.1	27.9	45.7	4.2
	대학 졸업	(1135)	4.6	6.0	22.0	43.4	20.8	3.1	10.6	22.0	64.3	3.1
	대학원 졸업	(84)	14.6	11.7	16.0	27.9	27.7	2.1	26.3	16.0	55.6	2.1

〈표 2-2-33〉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 현재 '직장내 괴롭힘' 경험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무응답
전체	계	(1374)	51.5	21.9	7.5	11.7	5.0	2.4	73.4	7.5	16.7	2.4
거주지	동부산권	(388)	53.0	22.2	7.3	12.6	3.0	1.8	75.3	7.3	15.6	1.8
	서부산권	(368)	45.4	18.3	10.0	14.3	7.3	4.7	63.7	10.0	21.6	4.7
	중부산권	(439)	56.6	22.2	6.4	9.6	4.0	1.2	78.8	6.4	13.6	1.2
	원도심	(180)	48.3	28.0	5.8	9.5	6.7	1.7	76.3	5.8	16.2	1.7
취업여부	취업자	(1374)	51.5	21.9	7.5	11.7	5.0	2.4	73.4	7.5	16.7	2.4
	미취업자	-	-	-	-	-	-	-	-	-	-	-
성별	남성	(719)	50.3	23.4	6.8	11.2	5.6	2.8	73.7	6.8	16.7	2.8
	여성	(655)	52.8	20.3	8.4	12.3	4.3	1.9	73.1	8.4	16.6	1.9
연령	18~24세	(76)	41.1	28.4	9.6	11.8	6.4	2.6	69.5	9.6	18.2	2.6
	25~29세	(650)	54.2	19.6	7.2	12.1	4.2	2.7	73.8	7.2	16.3	2.7
	30~34세	(649)	50.0	23.5	7.6	11.3	5.6	2.0	73.5	7.6	16.9	2.0
혼인상태	미혼	(1145)	50.9	21.7	7.9	12.2	5.2	2.1	72.6	7.9	17.5	2.1
	기혼	(223)	54.5	22.7	6.1	9.2	3.7	3.8	77.2	6.1	12.9	3.8
	이혼·사별	(6)	66.3	33.7	0.0	0.0	0.0	0.0	100.0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57.0	24.1	3.2	10.2	4.5	1.1	81.1	3.2	14.6	1.1
	자녀 없음	(1279)	51.1	21.8	7.9	11.8	5.0	2.5	72.9	7.9	16.8	2.5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50.6	21.5	6.8	13.2	5.9	2.0	72.1	6.8	19.1	2.0
	부모 미동거	(594)	52.7	22.4	8.5	9.8	3.7	2.9	75.1	8.5	13.5	2.9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47.7	26.2	6.9	10.1	6.0	3.1	73.9	6.9	16.1	3.1
	대학 재학	(24)	49.0	16.9	8.4	17.2	8.4	0.0	65.9	8.4	25.7	0.0
	대학 졸업	(1135)	51.6	22.3	7.4	12.0	4.9	1.9	73.8	7.4	16.9	1.9
	대학원 졸업	(84)	57.3	12.0	10.6	8.0	3.7	8.4	69.2	10.6	11.7	8.4

〈표 2-2-34〉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 현재 '위험한 노동환경'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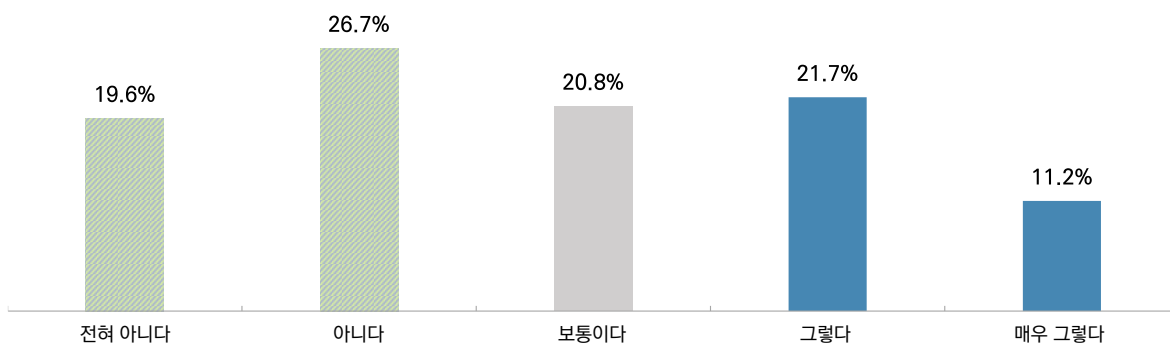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무응답
전체	계	(1374)	41.2	23.1	14.3	12.5	7.2	1.7	64.3	14.3	19.8	1.7
거주지	동부산권	(388)	44.8	21.8	14.6	10.3	7.4	1.0	66.6	14.6	17.7	1.0
	서부산권	(368)	33.5	21.5	15.1	17.6	9.0	3.3	55.0	15.1	26.6	3.3
	중부산권	(439)	45.4	24.7	13.2	10.7	5.3	0.7	70.1	13.2	16.0	0.7
	원도심	(180)	38.9	24.8	14.5	11.6	8.1	2.2	63.6	14.5	19.6	2.2
취업여부	취업자	(1374)	41.2	23.1	14.3	12.5	7.2	1.7	64.3	14.3	19.8	1.7
	미취업자	-	-	-	-	-	-	-	-	-	-	-
성별	남성	(719)	40.6	22.7	14.1	13.5	7.6	1.4	63.4	14.1	21.1	1.4
	여성	(655)	41.8	23.4	14.5	11.5	6.9	2.0	65.2	14.5	18.3	2.0
연령	18~24세	(76)	42.0	23.0	12.9	14.2	6.6	1.3	65.0	12.9	20.8	1.3
	25~29세	(650)	41.5	22.6	15.7	12.7	6.1	1.4	64.0	15.7	18.9	1.4
	30~34세	(649)	40.8	23.6	13.0	12.1	8.4	2.0	64.4	13.0	20.6	2.0
혼인상태	미혼	(1145)	40.4	22.7	15.5	12.8	6.9	1.7	63.1	15.5	19.7	1.7
	기혼	(223)	44.5	25.2	8.1	11.5	8.9	1.8	69.7	8.1	20.4	1.8
	이혼·사별	(6)	66.3	16.1	17.7	0.0	0.0	0.0	82.3	17.7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42.4	24.2	10.4	10.2	11.7	1.1	66.6	10.4	21.9	1.1
	자녀 없음	(1279)	41.1	23.0	14.6	12.7	6.9	1.7	64.1	14.6	19.6	1.7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40.7	22.2	14.9	13.2	7.6	1.4	62.9	14.9	20.8	1.4
	부모 미동거	(594)	41.9	24.2	13.5	11.7	6.7	2.0	66.1	13.5	18.4	2.0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35.9	27.2	15.6	16.0	3.7	1.6	63.1	15.6	19.7	1.6
	대학 재학	(24)	35.3	21.1	26.7	8.4	8.4	0.0	56.4	26.7	16.9	0.0
	대학 졸업	(1135)	41.7	23.3	13.9	12.5	7.0	1.5	65.0	13.9	19.5	1.5
	대학원 졸업	(84)	44.2	13.5	13.8	8.2	15.7	4.6	57.6	13.8	24.0	4.6

9) 이직 또는 창업 의향

- 이직 또는 창업 의향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46.3%는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그렇다’ 32.9%, ‘보통’ 20.8%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52.3%가 ‘아니다’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그렇다’가 40.6%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46.5%가 ‘그렇다’로 높게 나타났고, 25~29세(48.9%), 30~34세(44.8%)는 ‘아니다’가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의 51.0%는 ‘그렇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졸업 48.7%는 ‘아니다’, 대학재학 54.7%는 ‘그렇다’, 고졸이하는 38.7%가 ‘아니다’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25〉 이직 또는 창업 의향

〈표 2-2-35〉 이직 또는 창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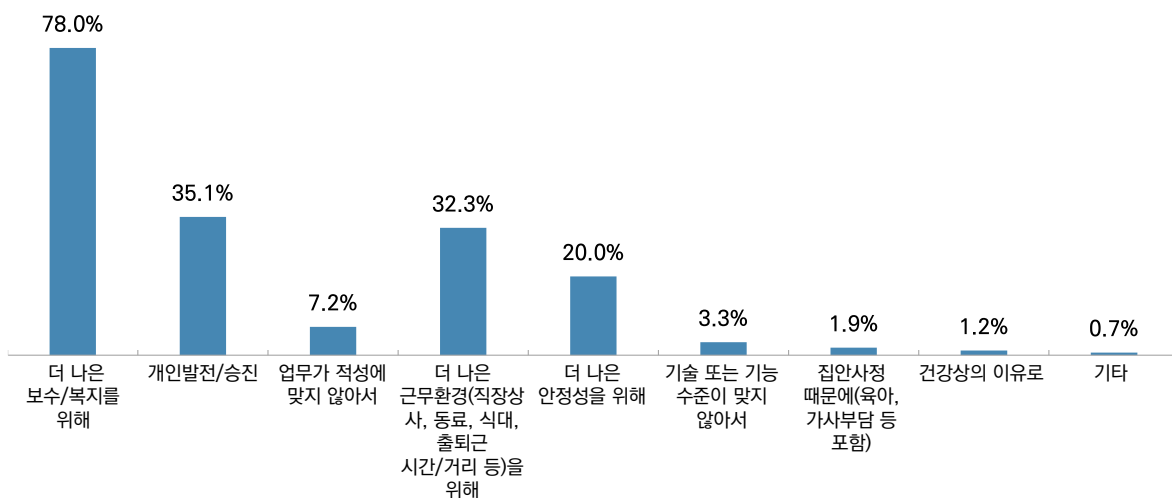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전체	계	(1374)	19.6	26.7	20.8	21.7	11.2	46.3	20.8	32.9
거주지	동부산권	(388)	22.3	27.4	21.5	19.0	9.9	49.7	21.5	28.9
	서부산권	(368)	16.9	26.0	19.7	26.0	11.5	42.8	19.7	37.5
	중부산권	(439)	19.7	27.8	22.0	19.1	11.5	47.4	22.0	30.5
	원도심	(180)	19.1	24.1	18.8	25.3	12.7	43.2	18.8	38.0
취업여부	취업자	(1374)	19.6	26.7	20.8	21.7	11.2	46.3	20.8	32.9
	미취업자	-	-	-	-	-	-	-	-	-
성별	남성	(719)	22.4	29.9	21.8	19.4	6.5	52.3	21.8	25.9
	여성	(655)	16.4	23.2	19.7	24.3	16.3	39.7	19.7	40.6
연령	18~24세	(76)	7.9	28.4	17.2	31.1	15.3	36.4	17.2	46.5
	25~29세	(650)	22.2	26.6	20.4	20.0	10.8	48.9	20.4	30.8
	30~34세	(649)	18.3	26.6	21.7	22.3	11.1	44.8	21.7	33.4
혼인상태	미혼	(1145)	19.4	25.9	20.7	22.0	11.9	45.4	20.7	33.9
	기혼	(223)	20.8	30.3	21.1	20.7	7.0	51.2	21.1	27.8
	이혼·사별	(6)	0.0	35.3	29.3	0.0	35.3	35.3	29.3	35.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21.4	29.5	17.0	26.8	5.3	50.9	17.0	32.1
	자녀 없음	(1279)	19.4	26.5	21.1	21.3	11.6	45.9	21.1	33.0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22.4	27.6	20.6	20.4	9.0	50.0	20.6	29.4
	부모 미동거	(594)	15.9	25.5	21.2	23.4	14.1	41.4	21.2	37.5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14.7	24.0	26.9	24.1	10.3	38.7	26.9	34.4
	대학 재학	(24)	0.0	21.1	24.2	29.9	24.8	21.1	24.2	54.7
	대학 졸업	(1135)	20.5	28.2	20.3	20.3	10.6	48.7	20.3	30.9
	대학원 졸업	(84)	20.1	12.1	16.8	34.4	16.6	32.2	16.8	51.0

9-1) 이직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이유

- 이직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78.0%는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개인발전/승진’ 35.1%,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32.3%,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20.0%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76.1%가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라고 응답하였고 또한 여성의 경우도 79.3%로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가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라고 응답하였으나 18~24세의 경우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13.6%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라고 응답하였으나 고졸 이하의 경우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가 31.8%로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26〉 이직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이유

〈표 2-2-36〉 이직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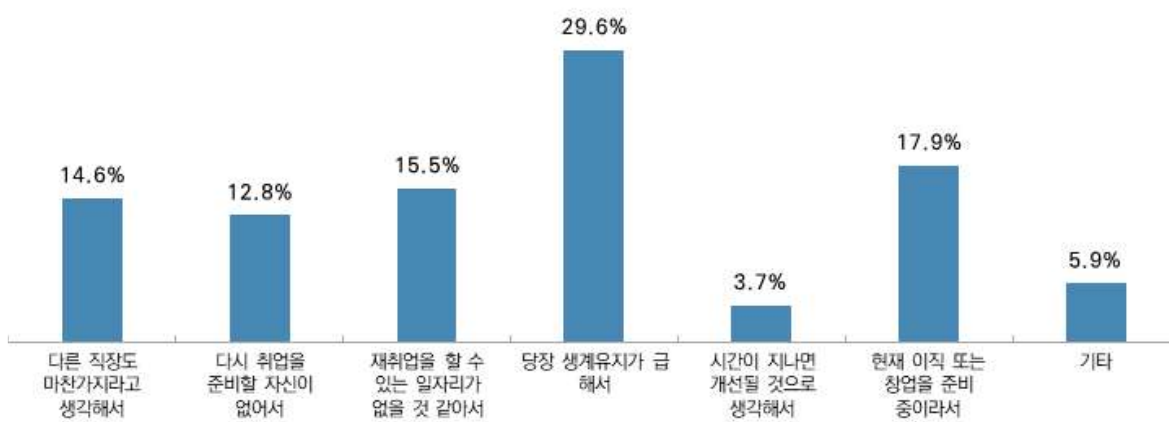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더 나은 보수/복 지를 위해	개인발전 /승진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더 나은 근무환경 을 위해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집안사정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기타
전체	계	(452)	78.0	35.1	7.2	32.3	20.0	3.3	1.9	1.2	0.7
거주지	동부산권	(112)	79.1	36.7	7.0	34.3	20.2	3.6	2.3	0.0	0.9
	서부산권	(138)	73.1	35.1	10.0	33.1	22.9	5.0	1.6	1.6	0.7
	중부산권	(134)	79.8	36.2	4.4	31.0	16.7	2.1	1.5	0.7	0.0
	원도심	(68)	82.4	30.0	7.3	30.0	20.1	1.5	2.6	2.9	1.5
취업여부	취업자	(452)	78.0	35.1	7.2	32.3	20.0	3.3	1.9	1.2	0.7
	미취업자	-	-	-	-	-	-	-	-	-	-
성별	남성	(186)	76.1	36.2	6.0	28.8	21.5	4.2	0.6	0.0	0.5
	여성	(266)	79.3	34.3	8.0	34.7	18.9	2.6	2.8	2.0	0.8
연령	18~24세	(35)	75.2	24.2	13.6	35.2	19.3	2.8	0.0	2.8	0.0
	25~29세	(200)	77.5	35.4	8.4	33.2	17.4	4.4	1.0	1.0	1.0
	30~34세	(217)	78.8	36.5	5.0	31.0	22.4	2.3	3.0	1.0	0.5
혼인상태	미혼	(388)	77.1	34.7	7.7	32.8	20.3	3.8	0.8	0.8	0.8
	기혼	(62)	84.1	38.3	4.4	30.0	16.7	0.0	8.7	3.6	0.0
	이혼·사별	(2)	50.0	0.0	0.0	0.0	50.0	0.0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0)	73.4	39.0	2.8	26.1	23.0	0.0	9.3	4.1	0.0
	자녀 없음	(422)	78.3	34.8	7.5	32.7	19.7	3.5	1.3	0.9	0.7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229)	74.8	33.0	10.4	32.9	23.2	5.5	0.5	1.0	0.9
	부모 미동거	(223)	81.3	37.2	3.9	31.7	16.6	0.9	3.3	1.3	0.4
최종학력	고졸 이하	(45)	65.7	40.5	2.2	34.9	31.8	6.4	0.0	0.0	0.0
	대학 재학	(13)	84.6	38.6	7.7	31.8	5.8	0.0	0.0	9.6	0.0
	대학 졸업	(351)	78.9	31.9	8.4	33.4	18.9	2.2	2.4	0.9	0.9
	대학원 졸업	(43)	81.4	54.3	2.3	20.2	20.8	9.3	0.0	2.3	0.0

9-2) 이직 또는 창업을 희망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

- 이직 또는 창업을 희망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29.6%는 ‘당장 생계유지가 급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현재 이직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이라서’ 17.9%,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5.5%,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14.6%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당장 생계유지가 급해서’가 각각 25.9%,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18.3%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경우 17.8%가 ‘현재 이직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이라서’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33.9%), 25~29세(26.6%), 30~34세(31.6%)가 ‘당장 생계유지가 급해서’라고 응답하였음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당장 생계유지가 급해서’가 높게 나타났으나 고졸 이하의 경우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가 25.3%로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27〉 이직 또는 창업을 희망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

〈표 2-2-37〉 이직 또는 창업을 희망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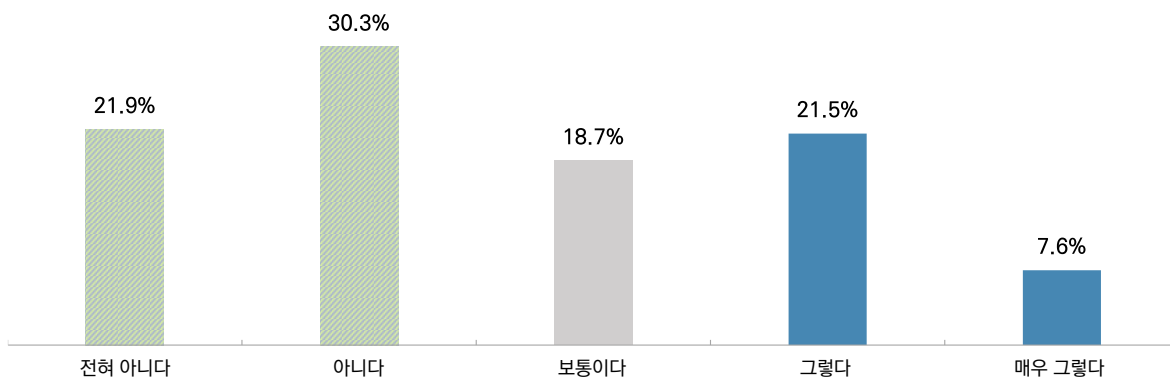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다시 취업을 준비할 자신이 없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당장 생계유지가 급해서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해서	현재 이직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이라서	기타
전체	계	(452)	14.6	12.8	15.5	29.6	3.7	17.9	5.9
거주지	동부산권	(112)	18.2	13.2	16.5	31.7	0.0	16.1	4.3
	서부산권	(138)	14.5	13.7	16.1	27.8	4.3	19.9	3.6
	중부산권	(134)	13.2	11.8	15.0	30.0	2.0	18.6	9.4
	원도심	(68)	11.4	12.5	13.9	28.9	11.7	15.4	6.2
취업여부	취업자	(452)	14.6	12.8	15.5	29.6	3.7	17.9	5.9
	미취업자	-	-	-	-	-	-	-	-
성별	남성	(186)	15.3	12.3	18.3	25.9	6.4	18.1	3.7
	여성	(266)	14.0	13.2	13.6	32.1	1.8	17.8	7.5
연령	18~24세	(35)	16.5	5.7	8.5	33.9	8.5	14.6	12.3
	25~29세	(200)	12.9	16.9	14.7	26.6	1.9	19.2	7.8
	30~34세	(217)	15.7	10.2	17.5	31.6	4.5	17.2	3.2
혼인상태	미혼	(388)	15.0	12.9	16.6	28.0	3.5	18.1	5.9
	기혼	(62)	12.5	12.8	9.4	40.5	4.8	13.7	6.2
	이혼·사별	(2)	0.0	0.0	0.0	0.0	0.0	10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0)	5.5	15.8	9.4	37.1	3.3	19.7	9.4
	자녀 없음	(422)	15.2	12.6	16.0	29.0	3.7	17.8	5.7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229)	15.9	14.6	20.2	24.4	4.5	15.7	4.6
	부모 미동거	(223)	13.2	10.9	10.7	34.9	2.9	20.2	7.2
최종학력	고졸 이하	(45)	25.3	8.5	17.8	26.1	11.8	6.0	4.4
	대학 재학	(13)	7.7	7.7	7.7	54.7	0.0	7.7	14.5
	대학 졸업	(351)	13.7	11.8	16.6	28.9	3.0	19.5	6.5
	대학원 졸업	(43)	12.0	27.4	6.6	31.5	2.3	20.2	0.0

10) 미래에 언젠가 창업할 의사

- 미래에 언젠가 창업할 의사에 대하여 취업자의 52.2%는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그렇다' 29.1%, '보통' 18.7%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아니다'가 각각 55.6%(남성), 48.5%(여성)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그렇다', '보통이다'순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과 기혼인 경우 '아니다'가 높게 나온 반면 이혼 사별인 경우 64.7%로 '그렇다'가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와 대학 재학의 경우 '그렇다'가 각각 41.6%, 50.5%로 높게 나온 반면 대학 졸업과 대학원 졸업은 '아니다'가 각각 54.9%, 45.3%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28〉 미래에 언젠가 창업할 의사

〈표 2-2-38〉 미래에 언젠가 창업할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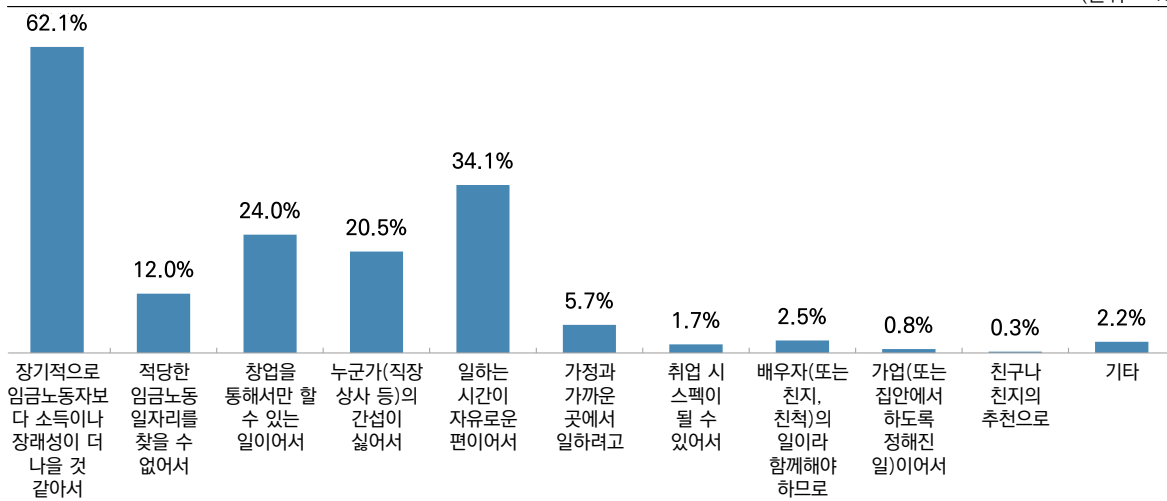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전체	계	(1374)	21.9	30.3	18.7	21.5	7.6	52.2	18.7	29.1
거주지	동부산권	(388)	22.5	31.8	18.5	22.0	5.2	54.3	18.5	27.2
	서부산권	(368)	22.8	25.5	18.6	23.8	9.2	48.3	18.6	33.0
	중부산권	(439)	21.9	33.1	16.3	20.6	8.1	55.0	16.3	28.7
	원도심	(180)	18.8	29.9	25.2	17.8	8.2	48.7	25.2	26.0
취업여부	취업자	(1374)	21.9	30.3	18.7	21.5	7.6	52.2	18.7	29.1
	미취업자	-	-	-	-	-	-	-	-	-
성별	남성	(719)	23.7	31.9	17.8	20.3	6.3	55.6	17.8	26.6
	여성	(655)	20.0	28.5	19.7	22.7	9.0	48.5	19.7	31.8
연령	18~24세	(76)	13.1	32.8	21.0	21.5	11.6	45.9	21.0	33.1
	25~29세	(650)	22.9	32.1	16.7	21.3	7.0	55.0	16.7	28.3
	30~34세	(649)	22.0	28.1	20.5	21.7	7.7	50.1	20.5	29.4
혼인상태	미혼	(1145)	22.0	30.1	19.1	21.1	7.7	52.2	19.1	28.7
	기혼	(223)	21.4	31.3	17.2	23.4	6.6	52.8	17.2	30.0
	이혼·사별	(6)	17.7	17.7	0.0	33.7	30.9	35.3	0.0	64.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5)	22.3	33.0	12.0	27.3	5.4	55.3	12.0	32.7
	자녀 없음	(1279)	21.9	30.1	19.2	21.1	7.8	52.0	19.2	28.8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80)	23.6	31.2	18.8	20.1	6.3	54.8	18.8	26.4
	부모 미동거	(594)	19.6	29.1	18.6	23.3	9.3	48.8	18.6	32.6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1)	12.9	24.5	21.0	28.1	13.5	37.4	21.0	41.6
	대학 재학	(24)	4.2	26.4	19.0	34.1	16.3	30.6	19.0	50.5
	대학 졸업	(1135)	22.9	32.0	18.5	20.0	6.6	54.9	18.5	26.6
	대학원 졸업	(84)	27.5	17.8	17.8	28.1	8.8	45.3	17.8	36.9

10-1)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62.1%는 ‘장기적으로 임금노동자보다 소득이나 장래성이 더 나은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34.1%, ‘창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24.0%, ‘누군가의 간섭이 싫어서’ 20.5%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장기적인 임금노동자보다 소득이나 장래성이 더 나은 것 같아서’가 각각 65.7%(남성), 58.7%(여성)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적당한 임금노동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가 14.7%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80.0%), 25~29세(57.5%), 30~34세(64.0%)가 ‘장기적으로 임금노동자보다 소득이나 장래성이 더 나은 것 같아서’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장기적으로 임금노동자보다 소득이나 장래성이 더 나은 것 같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학원 졸업의 경우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가 9.6%로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29〉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표 2-2-39〉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수	장기적으로 임금노동자보 다 소득이나 장래성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적당한 임금노동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창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누군가(직장 상사 등)의 간섭이 싫어서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
전체	계	(400)	62.1	12.0	24.0	20.5	34.1	5.7
거주지	동부산권	(105)	59.9	12.1	25.4	19.7	39.1	5.8
	서부산권	(122)	62.2	13.7	27.5	22.3	37.0	4.2
	중부산권	(126)	61.7	7.7	21.4	18.5	32.9	6.5
	원도심	(47)	67.4	19.3	18.7	23.5	18.2	7.0
취업여부	취업자	(400)	62.1	12.0	24.0	20.5	34.1	5.7
	미취업자	-	-	-	-	-	-	-
성별	남성	(191)	65.7	14.7	27.5	17.3	32.1	5.3
	여성	(208)	58.7	9.6	20.7	23.5	35.8	6.1
연령	18~24세	(25)	80.0	16.0	20.0	12.0	39.2	4.0
	25~29세	(184)	57.5	10.7	23.3	20.9	36.7	4.5
	30~34세	(191)	64.0	12.8	25.1	21.4	30.9	7.1
혼인상태	미혼	(329)	60.4	12.5	23.7	21.7	34.7	5.4
	기혼	(67)	70.9	8.9	25.4	15.1	32.8	7.2
	이혼·사별	(4)	47.8	27.3	27.3	20.5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1)	68.6	9.7	35.0	2.1	25.3	9.7
	자녀 없음	(369)	61.5	12.2	23.1	22.1	34.8	5.4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206)	58.1	12.5	22.4	21.8	37.5	6.4
	부모 미동거	(194)	66.3	11.5	25.7	19.2	30.4	4.9
최종학력	고졸 이하	(55)	60.7	13.1	27.8	22.9	35.7	0.0
	대학 재학	(12)	74.9	17.5	25.1	16.7	15.7	0.0
	대학 졸업	(302)	61.2	10.7	22.4	21.4	35.7	6.5
	대학원 졸업	(31)	68.2	20.5	31.8	9.6	22.2	9.6

〈표 2-2-40〉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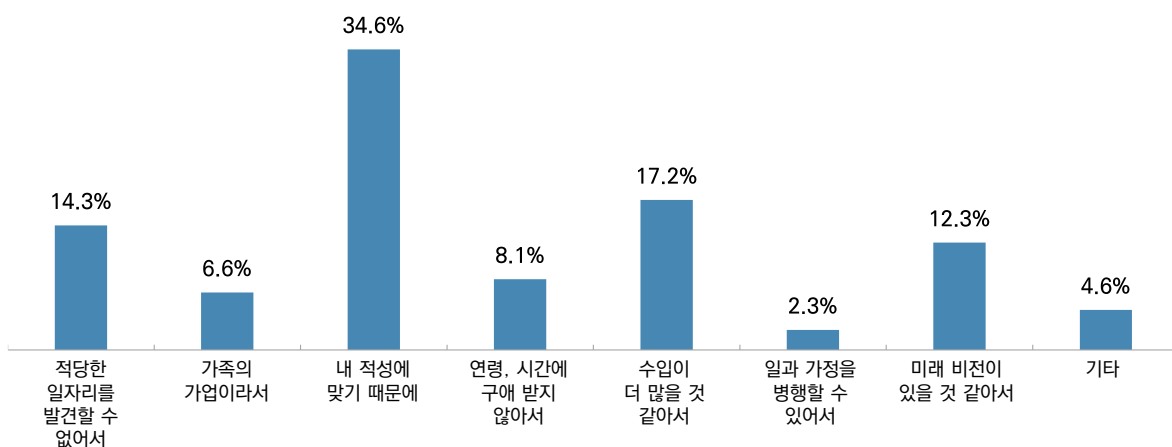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취업 시 스펙이 될 수 있어서	배우자(또는 친지, 친척)의 일이라 함께 해야 하므로	가업(또는 집안에서 하도록 정해진 일)이어서	친구나 친지의 추천으로	기타
전체	계	(400)	1.7	2.5	0.8	0.3	2.2
거주지	동부산권	(105)	0.0	1.9	0.9	0.0	2.8
	서부산권	(122)	2.5	1.6	0.0	0.0	1.6
	중부산권	(126)	2.3	2.4	1.6	0.8	2.3
	원도심	(47)	2.1	6.4	0.0	0.0	2.1
취업여부	취업자	(400)	1.7	2.5	0.8	0.3	2.2
	미취업자	-	-	-	-	-	-
성별	남성	(191)	2.6	2.4	0.5	0.0	1.6
	여성	(208)	1.0	2.6	1.0	0.5	2.8
연령	18~24세	(25)	0.0	4.0	0.0	0.0	0.0
	25~29세	(184)	1.6	1.4	0.5	0.5	2.7
	30~34세	(191)	2.1	3.4	1.0	0.0	2.0
혼인상태	미혼	(329)	2.1	2.4	0.9	0.3	1.8
	기혼	(67)	0.0	3.0	0.0	0.0	3.0
	이혼·사별	(4)	0.0	0.0	0.0	0.0	24.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1)	0.0	3.2	0.0	0.0	6.1
	자녀 없음	(369)	1.9	2.4	0.8	0.3	1.9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206)	2.9	1.8	1.0	0.5	1.9
	부모 미동거	(194)	0.5	3.2	0.5	0.0	2.6
최종학력	고졸 이하	(55)	0.0	6.4	0.0	0.0	0.0
	대학 재학	(12)	0.0	8.4	0.0	0.0	16.7
	대학 졸업	(302)	2.3	1.2	1.0	0.3	2.0
	대학원 졸업	(31)	0.0	5.6	0.0	0.0	3.2

3. 자영업 및 창업

1) 창업(자영업)을 하게 된 주된 동기

- 창업(자영업)을 하게 된 주된 동기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34.6%는 ‘내 적성에 맞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17.2%, ‘적당한 일 자리를 발견 할 수 없어서’ 14.3%, ‘미래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 12.3% 순으로 응답하였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내 적성에 맞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중부산권의 경우 ‘적당한 일자리를 발견 할 수 없어서’가 21.2%로 다른 거주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 45.3%로 ‘내 적성에 맞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으며 30~34세의 경우 또한 31.0%로 ‘내 적성에 맞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내 적성에 맞기 때문에’가 각각 34.7%(남성), 34.4%(여성)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미래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가 18.3%로 남성 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30〉 창업(자영업)을 하게 된 주된 동기

〈표 2-2-41〉 창업(자영업)을 하게 된 주된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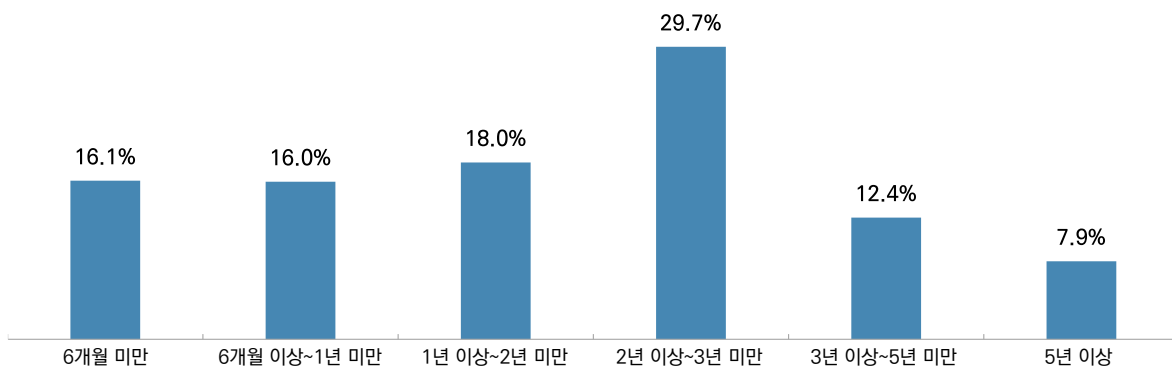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적당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가족의 가업이라 서	내 적성에 맞기 때문에	연령,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서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어서	미래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	기타
전체	계	(87)	14.3	6.6	34.6	8.1	17.2	2.3	12.3	4.6
거주지	동부산권	(25)	11.3	10.9	42.0	12.2	15.5	4.0	4.0	0.0
	서부산권	(17)	11.6	5.8	44.8	5.8	18.1	0.0	13.9	0.0
	중부산권	(31)	21.2	6.4	25.0	3.2	22.3	0.0	18.7	3.2
	원도심	(14)	7.4	0.0	29.6	14.8	7.4	7.4	11.1	22.2
취업여부	취업자	(87)	14.3	6.6	34.6	8.1	17.2	2.3	12.3	4.6
	미취업자	-	-	-	-	-	-	-	-	-
성별	남성	(51)	17.6	8.1	34.7	10.2	15.5	0.0	8.0	5.9
	여성	(37)	9.8	4.6	34.4	5.2	19.6	5.5	18.3	2.7
연령	18~24세	(3)	0.0	0.0	0.0	33.3	0.0	33.3	33.3	0.0
	25~29세	(28)	6.1	7.4	45.3	7.4	21.0	0.0	12.9	0.0
	30~34세	(56)	19.2	6.5	31.0	7.1	16.3	1.8	10.9	7.1
혼인상태	미혼	(66)	14.6	6.2	35.6	9.2	19.8	1.5	12.9	0.0
	기혼	(20)	14.1	8.2	33.3	4.9	9.9	4.9	4.9	19.7
	이혼·사별	(1)	0.0	0.0	0.0	0.0	0.0	0.0	10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	19.2	10.3	39.6	10.3	20.6	0.0	0.0	0.0
	자녀 없음	(78)	13.7	6.1	33.9	7.8	16.8	2.6	13.9	5.2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0)	17.1	10.3	42.0	10.3	10.1	0.0	7.7	2.5
	부모 미동거	(48)	12.0	3.5	28.3	6.3	23.2	4.2	16.2	6.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15.9	17.1	32.9	8.5	8.5	8.5	0.0	8.5
	대학 재학	(2)	0.0	0.0	46.7	0.0	0.0	0.0	53.3	0.0
	대학 졸업	(72)	14.8	5.2	34.1	8.5	19.6	1.4	12.2	4.2
	대학원 졸업	(2)	0.0	0.0	50.0	0.0	0.0	0.0	50.0	0.0

2) 현재 사업체 운영 기간

- 현재 사업체 운영 기간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29.7%는 ‘2년 이상~3년 미만’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1년 이상~2년 미만’ 18.0%, ‘6개월 미만’ 16.1%, ‘6개월 이상~1년 미만’ 16.0% 순으로 응답하였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동부산권의 26.9%가 ‘2년 이상~3년 미만’이라고 나타났으며 서부산권 23.2%는 ‘3년 이상~5년 미만’, 중부산권 37.1%는 ‘2년 이상~3년 미만’, 원도심 40.7%는 ‘2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66.7%는 ‘6개월 미만’이 높게 나타났고, 25~29세 (33.2%), 30~34세(27.7%)는 ‘2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2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1년 이상~2년 미만’이 21.8%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31〉 현재 사업체 운영 기간

〈표 2-2-42〉 현재 사업체 운영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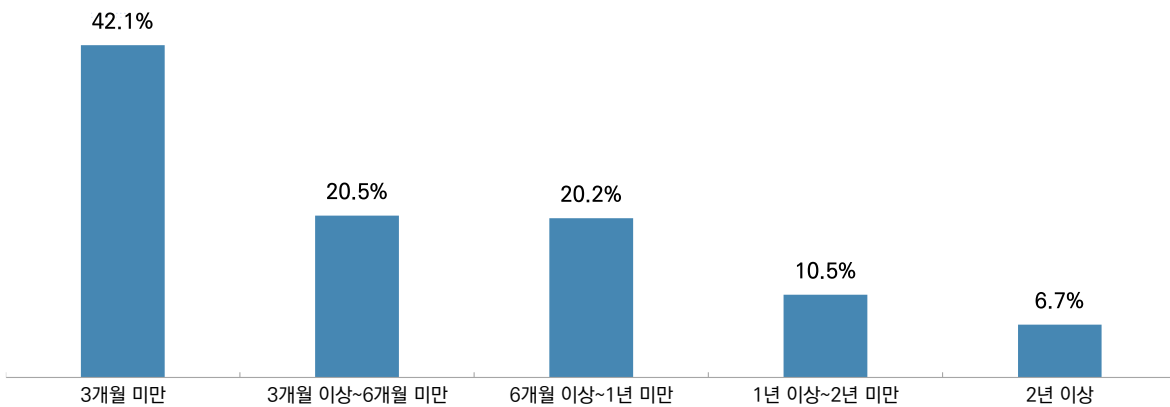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계	(87)	16.1	16.0	18.0	29.7	12.4	7.9
거주지	동부산권	(25)	4.0	20.2	23.0	26.9	11.4	14.5
	서부산권	(17)	18.8	16.7	16.7	11.6	23.2	13.0
	중부산권	(31)	21.7	19.1	12.8	37.1	6.1	3.2
	원도심	(14)	22.2	0.0	22.2	40.7	14.8	0.0
취업여부	취업자	(87)	16.1	16.0	18.0	29.7	12.4	7.9
	미취업자	-	-	-	-	-	-	-
성별	남성	(51)	13.8	16.0	21.8	27.0	13.6	7.9
	여성	(37)	19.3	16.1	12.7	33.4	10.7	8.0
연령	18~24세	(3)	66.7	0.0	0.0	33.3	0.0	0.0
	25~29세	(28)	17.7	28.2	17.7	33.2	3.1	0.0
	30~34세	(56)	12.6	10.7	19.0	27.7	17.7	12.3
혼인상태	미혼	(66)	16.4	18.2	20.8	24.7	13.5	6.5
	기혼	(20)	9.9	9.9	9.9	47.8	9.4	13.2
	이혼·사별	(1)	100.0	0.0	0.0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	0.0	10.3	20.6	38.1	10.3	20.6
	자녀 없음	(78)	18.1	16.7	17.6	28.6	12.6	6.3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0)	10.1	22.2	14.8	34.9	12.9	5.0
	부모 미동거	(48)	21.1	10.8	20.6	25.3	11.9	10.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34.1	15.9	17.1	0.0	24.4	8.5
	대학 재학	(2)	0.0	0.0	0.0	53.3	46.7	0.0
	대학 졸업	(72)	14.0	15.5	17.7	34.7	9.8	8.2
	대학원 졸업	(2)	0.0	50.0	50.0	0.0	0.0	0.0

3) 현재 사업체 준비 기간

- 현재 사업체 준비 기간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42.1%는 ‘3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0.5%, ‘6개월 이상~1년 미만’ 20.2%, ‘1년 이상~2년 미만’ 10.5%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3개월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 경우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32.5%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66.7%), 30~34세(50.7%)는 ‘3개월 미만’이 높게 나타났고, 25~29세 36.4%는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녀유무별로 살펴보면, 자녀 있음을 응답자의 39.8%가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 없음을 응답한 응답자의 42.4%가 ‘3개월 미만’으로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2-32〉 현재 사업체 준비 기간

〈표 2-2-43〉 현재 사업체 준비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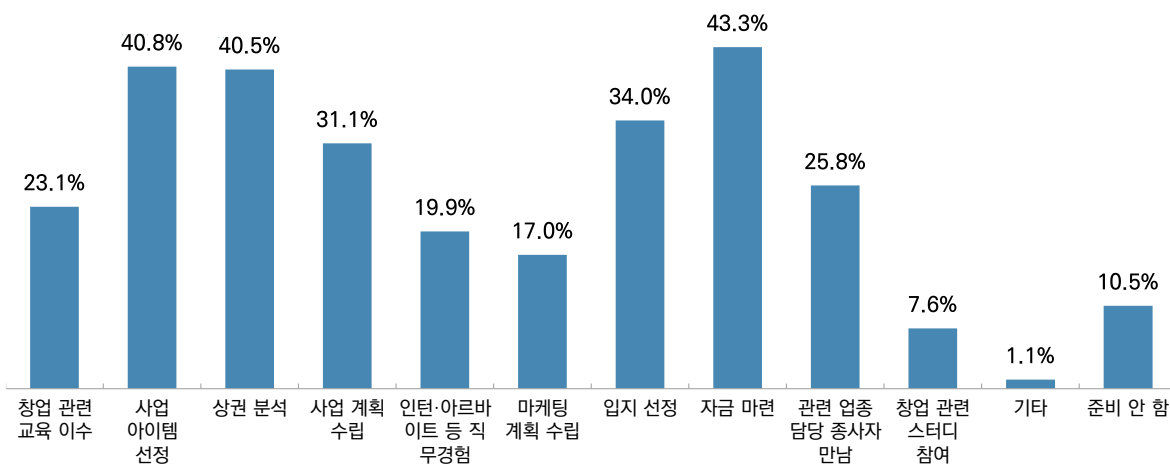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전체	계	(87)	42.1	20.5	20.2	10.5	6.7
거주지	동부산권	(25)	29.7	47.3	11.9	7.4	3.6
	서부산권	(17)	41.3	11.6	16.6	24.7	5.8
	중부산권	(31)	40.4	9.6	37.5	3.2	9.3
	원도심	(14)	70.4	7.4	0.0	14.8	7.4
취업여부	취업자	(87)	42.1	20.5	20.2	10.5	6.7
	미취업자	-	-	-	-	-	-
성별	남성	(51)	42.8	26.3	11.3	9.9	9.7
	여성	(37)	41.2	12.5	32.5	11.3	2.5
연령	18~24세	(3)	66.7	33.3	0.0	0.0	0.0
	25~29세	(28)	22.5	36.4	28.1	6.2	6.8
	30~34세	(56)	50.7	11.9	17.3	13.2	7.0
혼인상태	미혼	(66)	39.6	19.9	20.8	10.9	8.9
	기혼	(20)	46.9	24.0	19.3	9.9	0.0
	이혼·사별	(1)	100.0	0.0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	39.6	39.8	10.3	10.3	0.0
	자녀 없음	(78)	42.4	18.1	21.4	10.5	7.5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0)	32.7	23.0	27.0	10.1	7.1
	부모 미동거	(48)	50.0	18.4	14.5	10.8	6.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51.2	8.5	14.6	0.0	25.6
	대학 재학	(2)	0.0	53.3	0.0	46.7	0.0
	대학 졸업	(72)	41.5	20.8	22.2	11.5	4.0
	대학원 졸업	(2)	50.0	50.0	0.0	0.0	0.0

4) 창업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던 사항

- 창업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던 사항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43.3%는 ‘자금 마련’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사업 아이템 선정’ 40.8%, ‘상권분석’ 40.5%, ‘입지선정’ 34.0%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49.3%가 ‘자금마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사업아이템 선정’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66.7%는 ‘사업아이템 선정’이 높게 나타났고, 25~29세의 48.0%는 ‘자금마련’, 30~34세의 42.8%는 ‘상권분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졸업의 경우 45.5%가 ‘상권분석’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자금마련’ 42.0%, ‘입지선정’ 38.8%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2-2-33〉 창업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던 사항

〈표 2-2-44〉 창업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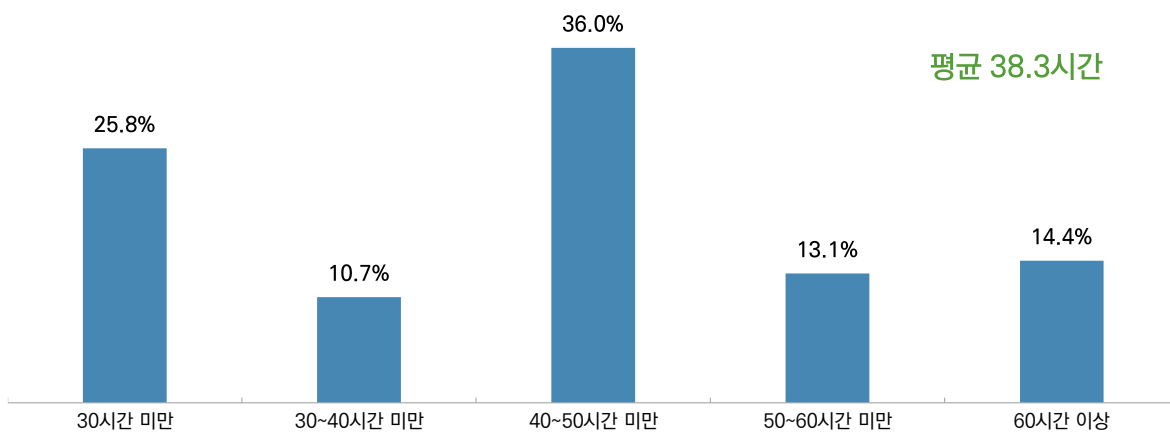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창업 관련 교육 이수	사업 아이템 선정	상권 분석	사업 계획 수립	인턴· 아르바 이트 등 직무경 험	마케팅 계획 수립	입지 선정	자금 마련	관련 업종 담당 종사자 만남	창업 관련 스터디 참여	기타	준비 안 함
전체	계	(87)	23.1	40.8	40.5	31.1	19.9	17.0	34.0	43.3	25.8	7.6	1.1	10.5
거주지	동부산권	(25)	15.2	33.7	45.7	13.3	11.8	11.6	49.7	50.2	19.0	0.0	0.0	4.0
	서부산권	(17)	30.5	45.7	39.0	63.0	34.1	21.7	22.5	45.7	47.1	10.9	0.0	13.0
	중부산권	(31)	28.9	40.7	33.7	28.5	19.4	19.6	28.0	44.0	19.4	15.3	3.2	9.3
	원도심	(14)	14.8	48.1	48.1	29.6	18.5	14.8	33.3	25.9	25.9	0.0	0.0	22.2
취업여부	취업자	(87)	23.1	40.8	40.5	31.1	19.9	17.0	34.0	43.3	25.8	7.6	1.1	10.5
	미취업자	-	-	-	-	-	-	-	-	-	-	-	-	-
성별	남성	(51)	19.7	34.4	42.8	40.8	29.1	17.4	35.3	49.3	27.0	3.9	0.0	13.7
	여성	(37)	27.8	49.8	37.3	17.7	7.2	16.4	32.2	35.0	24.1	12.8	2.7	6.1
연령	18~24세	(3)	33.3	66.7	0.0	0.0	0.0	33.3	0.0	33.3	33.3	0.0	0.0	0.0
	25~29세	(28)	25.2	43.6	40.1	41.8	19.9	28.7	40.9	48.0	29.9	17.3	0.0	0.0
	30~34세	(56)	21.5	38.0	42.8	27.4	21.0	10.2	32.4	41.5	23.3	3.2	1.8	16.4
혼인상태	미혼	(66)	26.4	42.4	42.5	35.7	24.9	19.7	35.5	44.3	32.7	10.1	1.5	4.4
	기혼	(20)	13.6	38.2	36.3	18.1	4.9	9.0	31.4	42.8	4.9	0.0	0.0	24.7
	이혼·사별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	19.2	39.6	48.4	31.0	0.0	18.9	38.1	61.9	0.0	0.0	0.0	10.3
	자녀 없음	(78)	23.6	41.0	39.5	31.1	22.4	16.7	33.5	41.0	29.0	8.6	1.3	10.5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0)	20.7	36.9	37.7	29.5	18.0	15.0	37.9	45.1	25.1	6.9	2.5	9.9
	부모 미동거	(48)	25.0	44.1	42.8	32.4	21.5	18.6	30.8	41.8	26.3	8.3	0.0	11.0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25.6	57.3	23.2	40.2	24.4	25.6	7.3	48.8	32.9	15.9	0.0	8.5
	대학 재학	(2)	46.7	46.7	0.0	46.7	46.7	0.0	0.0	53.3	46.7	0.0	0.0	0.0
	대학 졸업	(72)	22.7	37.7	45.5	28.7	17.7	15.1	38.8	42.0	24.7	6.7	1.4	11.4
	대학원 졸업	(2)	0.0	50.0	0.0	50.0	50.0	50.0	50.0	50.0	0.0	0.0	0.0	0.0

5) 주당 직접 일하는 시간

- 주당 직접 일하는 시간에 대하여 ‘40~50시간미만’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 청년의 주당 평균 시간은 38.3시간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0.4시간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의 경우 35.4시간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는 16.7시간으로 나타났고, 25~29세 38.6시간, 30~34세 39.3시간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동부산권의 주당 평균시간은 40.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서부산권 34.9시간, 중부산권 40.2시간, 원도심 34.2시간으로 나타남

(단위 : %, 시간)



〈그림 2-2-34〉 주당 직접 일하는 시간

〈표 2-2-45〉 주당 직접 일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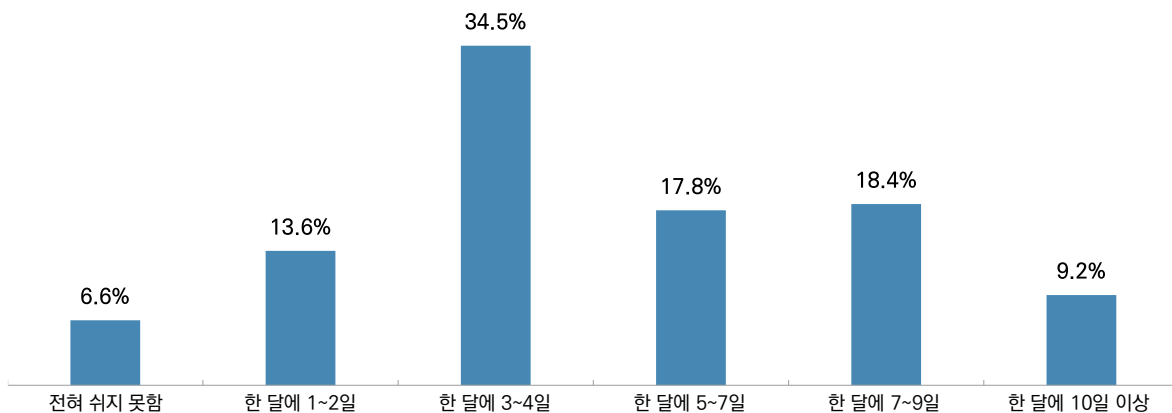
(단위 : %, 시간)

구분		사례수	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50시간 미만	5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평균
전체	계	(87)	25.8	10.7	36.0	13.1	14.4	38.3
거주지	동부산권	(25)	11.3	16.2	57.9	4.0	10.6	40.4
	서부산권	(17)	46.3	7.2	17.4	11.6	17.5	34.9
	중부산권	(31)	18.0	12.8	31.4	22.0	15.7	40.2
	원도심	(14)	44.4	0.0	29.6	11.1	14.8	34.2
취업여부	취업자	(87)	25.8	10.7	36.0	13.1	14.4	38.3
	미취업자	-	-	-	-	-	-	-
성별	남성	(51)	21.4	10.2	38.9	11.8	17.6	40.4
	여성	(37)	31.8	11.4	32.0	14.8	10.0	35.4
연령	18~24세	(3)	100.0	0.0	0.0	0.0	0.0	16.7
	25~29세	(28)	20.3	14.5	42.2	15.9	7.1	38.6
	30~34세	(56)	24.5	9.4	34.9	12.3	18.9	39.3
혼인상태	미혼	(66)	26.4	11.1	32.9	14.4	15.1	38.3
	기혼	(20)	19.0	9.9	48.5	9.4	13.2	39.4
	이혼·사별	(1)	100.0	0.0	0.0	0.0	0.0	16.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	8.8	0.0	60.2	10.3	20.6	46.9
	자녀 없음	(78)	27.9	12.0	33.0	13.4	13.7	37.2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0)	22.3	8.0	42.2	14.7	12.8	40.4
	부모 미동거	(48)	28.6	13.0	30.9	11.7	15.8	36.5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24.4	8.5	25.6	15.9	25.6	38.7
	대학 재학	(2)	53.3	0.0	46.7	0.0	0.0	29.3
	대학 졸업	(72)	26.0	11.6	37.1	11.9	13.4	38.1
	대학원 졸업	(2)	0.0	0.0	50.0	50.0	0.0	49.5

6) 한 달 평균 쉬는 날

- 한달 평균 쉬는 날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34.5%는 ‘한달에 3~4일’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한달에 7~9일’ 18.4%, ‘한달에 5~7일’ 17.8%, ‘한달에 1~2일’ 13.6%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36.8%가 ‘한달에 3~4일’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 또한 31.3%로 ‘한달에 3~4일’이 높게 나타남
 - 부모동거 여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한달에 3~4일’이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 미동거의 경우 ‘한달에 7~9일’이 23.0%로 부모동거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한달에 3~4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서부산권의 경우 ‘한달에 1~2일’이 30.5%로 다른 거주지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35〉 한 달 평균 쉬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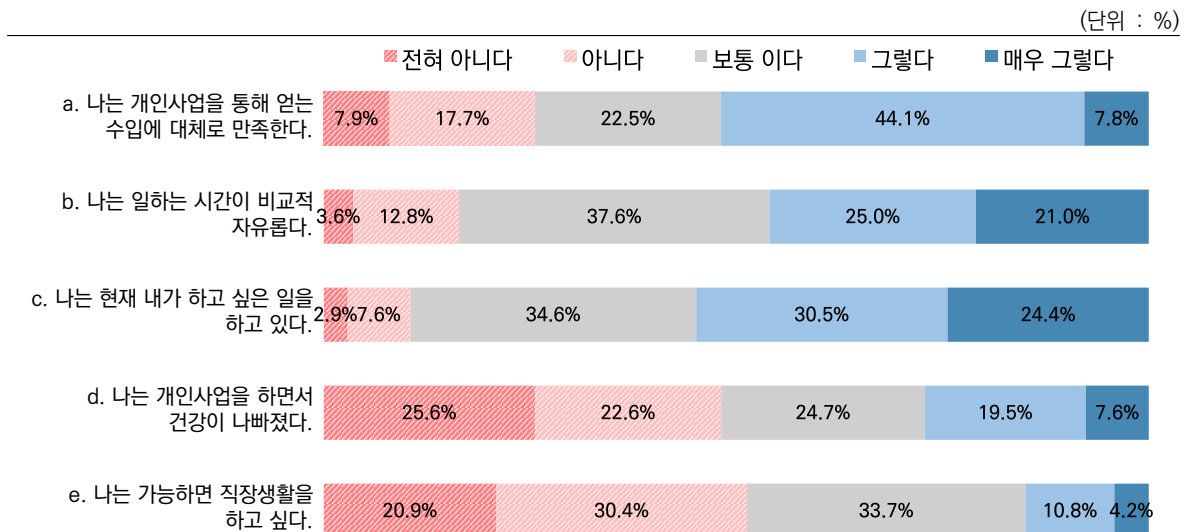
〈표 2-2-46〉 한달 평균 쉬는 날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쉬지 못함	한 달에 1~2일	한 달에 3~4일	한 달에 5~7일	한 달에 7~9일	한 달에 10일 이상
전체	계	(87)	6.6	13.6	34.5	17.8	18.4	9.2
거주지	동부산권	(25)	0.0	7.6	50.0	18.6	15.9	7.9
	서부산권	(17)	0.0	30.5	34.0	10.9	13.0	11.6
	중부산권	(31)	15.2	8.7	22.8	28.5	15.3	9.6
	원도심	(14)	7.4	14.8	33.3	0.0	37.0	7.4
취업여부	취업자	(87)	6.6	13.6	34.5	17.8	18.4	9.2
	미취업자	-	-	-	-	-	-	-
성별	남성	(51)	7.6	10.1	36.8	19.7	16.0	9.9
	여성	(37)	5.2	18.5	31.3	15.1	21.8	8.2
연령	18~24세	(3)	0.0	33.3	0.0	0.0	33.3	33.3
	25~29세	(28)	3.5	19.5	34.0	25.2	10.7	7.1
	30~34세	(56)	8.5	9.6	36.5	15.0	21.5	8.9
혼인상태	미혼	(66)	7.4	16.6	33.8	18.2	13.4	10.6
	기혼	(20)	4.5	4.9	38.7	17.4	29.6	4.9
	이혼·사별	(1)	0.0	0.0	0.0	0.0	10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	0.0	10.3	49.9	29.5	10.3	0.0
	자녀 없음	(78)	7.4	14.0	32.6	16.3	19.4	10.3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0)	9.7	12.1	37.5	20.4	12.8	7.6
	부모 미동거	(48)	4.0	14.9	32.0	15.5	23.0	10.5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8.5	15.9	41.5	25.6	0.0	8.5
	대학 재학	(2)	0.0	0.0	46.7	0.0	53.3	0.0
	대학 졸업	(72)	6.6	14.0	31.2	17.4	21.0	9.8
	대학원 졸업	(2)	0.0	0.0	100.0	0.0	0.0	0.0

7)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견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개인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에 51.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일하는 시간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렇다(46.0%)’,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인지에는 ‘그렇다(54.9%)’, 현재 하고 있는 일로 건강악화에 대해선 ‘아니다(48.2%)’, 나는 가능하면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는 응답에 ‘아니다(51.3%)’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2-36〉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견

〈표 2-2-47〉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견 - 개인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체로 만족한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전체	계	(87)	7.9	17.7	22.5	44.1	7.8	25.7	22.5	51.9
거주지	동부산권	(25)	0.0	21.6	11.3	59.9	7.1	21.6	11.3	67.0
	서부산권	(17)	5.8	36.9	11.6	28.3	17.5	42.7	11.6	45.8
	중부산권	(31)	18.9	11.7	40.7	22.3	6.4	30.6	40.7	28.7
	원도심	(14)	0.0	0.0	14.8	85.2	0.0	0.0	14.8	85.2
취업여부	취업자	(87)	7.9	17.7	22.5	44.1	7.8	25.7	22.5	51.9
	미취업자	-	-	-	-	-	-	-	-	-
성별	남성	(51)	7.7	11.3	23.4	49.7	7.9	19.0	23.4	57.6
	여성	(37)	8.2	26.6	21.2	36.3	7.7	34.8	21.2	44.0
연령	18~24세	(3)	0.0	0.0	0.0	66.7	33.3	0.0	0.0	100.0
	25~29세	(28)	10.6	23.6	21.0	44.8	0.0	34.2	21.0	44.8
	30~34세	(56)	7.0	15.7	24.4	42.5	10.4	22.7	24.4	52.9
혼인상태	미혼	(66)	9.0	17.6	24.1	39.0	10.4	26.6	24.1	49.3
	기혼	(20)	4.9	13.2	18.6	63.3	0.0	18.1	18.6	63.3
	이혼·사별	(1)	0.0	100.0	0.0	0.0	0.0	10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	0.0	0.0	19.2	80.8	0.0	0.0	19.2	80.8
	자녀 없음	(78)	8.9	19.9	22.9	39.5	8.8	28.9	22.9	48.3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0)	4.8	19.6	24.8	38.3	12.4	24.4	24.8	50.8
	부모 미동거	(48)	10.5	16.2	20.5	48.9	3.9	26.7	20.5	52.8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17.1	23.2	25.6	17.1	17.1	40.2	25.6	34.1
	대학 재학	(2)	0.0	46.7	0.0	0.0	53.3	46.7	0.0	53.3
	대학 졸업	(72)	6.9	16.6	21.8	49.5	5.3	23.4	21.8	54.8
	대학원 졸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50.0

〈표 2-2-48〉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견 - 나는 일하는 시간이 비교적 자유롭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전체	계	(87)	3.6	12.8	37.6	25.0	21.0	16.4	37.6	46.0
거주지	동부산권	(25)	0.0	6.6	31.2	38.7	23.5	6.6	31.2	62.2
	서부산권	(17)	6.6	22.4	16.7	11.6	42.8	29.0	16.7	54.3
	중부산권	(31)	6.4	14.9	37.0	29.0	12.8	21.2	37.0	41.7
	원도심	(14)	0.0	7.4	77.8	7.4	7.4	7.4	77.8	14.8
취업여부	취업자	(87)	3.6	12.8	37.6	25.0	21.0	16.4	37.6	46.0
	미취업자	-	-	-	-	-	-	-	-	-
성별	남성	(51)	6.2	11.5	41.3	21.5	19.5	17.7	41.3	41.0
	여성	(37)	0.0	14.5	32.6	29.9	23.0	14.5	32.6	52.9
연령	18~24세	(3)	0.0	0.0	33.3	33.3	33.3	0.0	33.3	66.7
	25~29세	(28)	3.5	17.2	32.7	32.0	14.5	20.8	32.7	46.5
	30~34세	(56)	3.8	11.3	40.3	21.0	23.5	15.1	40.3	44.6
혼인상태	미혼	(66)	4.8	16.0	36.6	22.6	20.1	20.8	36.6	42.6
	기혼	(20)	0.0	3.3	43.3	34.5	18.9	3.3	43.3	53.5
	이혼·사별	(1)	0.0	0.0	0.0	0.0	100.0	0.0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	0.0	0.0	39.8	31.0	29.2	0.0	39.8	60.2
	자녀 없음	(78)	4.0	14.4	37.4	24.3	19.9	18.5	37.4	44.2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0)	2.9	17.6	36.7	22.2	20.6	20.5	36.7	42.8
	부모 미동거	(48)	4.2	8.8	38.4	27.4	21.3	13.0	38.4	48.6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17.1	7.3	50.0	17.1	8.5	24.4	50.0	25.6
	대학 재학	(2)	0.0	0.0	0.0	46.7	53.3	0.0	0.0	100.0
	대학 졸업	(72)	1.6	14.4	36.2	25.1	22.7	16.0	36.2	47.8
	대학원 졸업	(2)	0.0	0.0	50.0	50.0	0.0	0.0	50.0	50.0

〈표 2-2-49〉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견 - 하고 싶은 일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전체	계	(87)	2.9	7.6	34.6	30.5	24.4	10.5	34.6	54.9
거주지	동부산권	(25)	6.6	4.0	38.5	31.2	19.7	10.6	38.5	50.9
	서부산권	(17)	0.0	0.0	30.4	27.4	42.1	0.0	30.4	69.6
	중부산권	(31)	2.7	8.5	28.0	35.1	25.7	11.2	28.0	60.8
	원도심	(14)	0.0	22.2	48.1	22.2	7.4	22.2	48.1	29.6
취업여부	취업자	(87)	2.9	7.6	34.6	30.5	24.4	10.5	34.6	54.9
	미취업자	-	-	-	-	-	-	-	-	-
성별	남성	(51)	2.0	11.5	31.3	35.2	19.9	13.5	31.3	55.2
	여성	(37)	4.2	2.2	39.2	23.9	30.6	6.3	39.2	54.4
연령	18~24세	(3)	0.0	0.0	33.3	0.0	66.7	0.0	33.3	66.7
	25~29세	(28)	3.0	6.9	39.2	28.5	22.4	9.9	39.2	50.9
	30~34세	(56)	3.0	8.4	32.4	33.1	23.2	11.4	32.4	56.2
혼인상태	미혼	(66)	2.8	5.6	33.9	28.7	29.0	8.4	33.9	57.7
	기혼	(20)	3.3	14.8	39.0	37.9	4.9	18.1	39.0	42.9
	이혼·사별	(1)	0.0	0.0	0.0	0.0	100.0	0.0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	0.0	0.0	41.3	58.7	0.0	0.0	41.3	58.7
	자녀 없음	(78)	3.3	8.6	33.8	26.9	27.4	11.8	33.8	54.4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0)	0.0	7.2	27.1	32.9	32.8	7.2	27.1	65.7
	부모 미동거	(48)	5.3	8.0	40.9	28.5	17.4	13.3	40.9	45.8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0.0	0.0	50.0	32.9	17.1	0.0	50.0	50.0
	대학 재학	(2)	0.0	0.0	46.7	0.0	53.3	0.0	46.7	53.3
	대학 졸업	(72)	3.5	9.3	32.8	28.9	25.5	12.8	32.8	54.4
	대학원 졸업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표 2-2-50〉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견 - 건강 악화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전체	계	(87)	25.6	22.6	24.7	19.5	7.6	48.2	24.7	27.2
거주지	동부산권	(25)	20.2	46.3	11.0	15.1	7.4	66.5	11.0	22.5
	서부산권	(17)	24.6	18.8	17.4	22.5	16.7	43.5	17.4	39.1
	중부산권	(31)	25.5	12.1	47.1	9.1	6.1	37.6	47.1	15.2
	원도심	(14)	37.0	7.4	7.4	48.1	0.0	44.4	7.4	48.1
취업여부	취업자	(87)	25.6	22.6	24.7	19.5	7.6	48.2	24.7	27.2
	미취업자	-	-	-	-	-	-	-	-	-
성별	남성	(51)	33.7	12.0	23.4	19.7	11.2	45.7	23.4	30.9
	여성	(37)	14.3	37.3	26.5	19.2	2.7	51.6	26.5	21.9
연령	18~24세	(3)	66.7	0.0	0.0	33.3	0.0	66.7	0.0	33.3
	25~29세	(28)	22.2	21.3	38.4	15.0	3.1	43.5	38.4	18.1
	30~34세	(56)	25.1	24.5	19.1	21.0	10.3	49.6	19.1	31.4
혼인상태	미혼	(66)	23.2	19.8	25.5	21.3	10.1	43.0	25.5	31.5
	기혼	(20)	28.8	32.9	23.5	14.8	0.0	61.7	23.5	14.8
	이혼·사별	(1)	100.0	0.0	0.0	0.0	0.0	10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	29.2	20.6	19.2	31.0	0.0	49.9	19.2	31.0
	자녀 없음	(78)	25.1	22.8	25.4	18.1	8.6	48.0	25.4	26.7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0)	25.8	20.4	27.1	19.0	7.7	46.2	27.1	26.7
	부모 미동거	(48)	25.4	24.4	22.6	20.0	7.6	49.8	22.6	27.5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25.6	8.5	17.1	24.4	24.4	34.1	17.1	48.8
	대학 재학	(2)	53.3	0.0	0.0	0.0	46.7	53.3	0.0	46.7
	대학 졸업	(72)	25.6	24.7	25.8	19.8	4.1	50.3	25.8	23.9
	대학원 졸업	(2)	0.0	50.0	50.0	0.0	0.0	50.0	50.0	0.0

〈표 2-2-51〉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견 - 직장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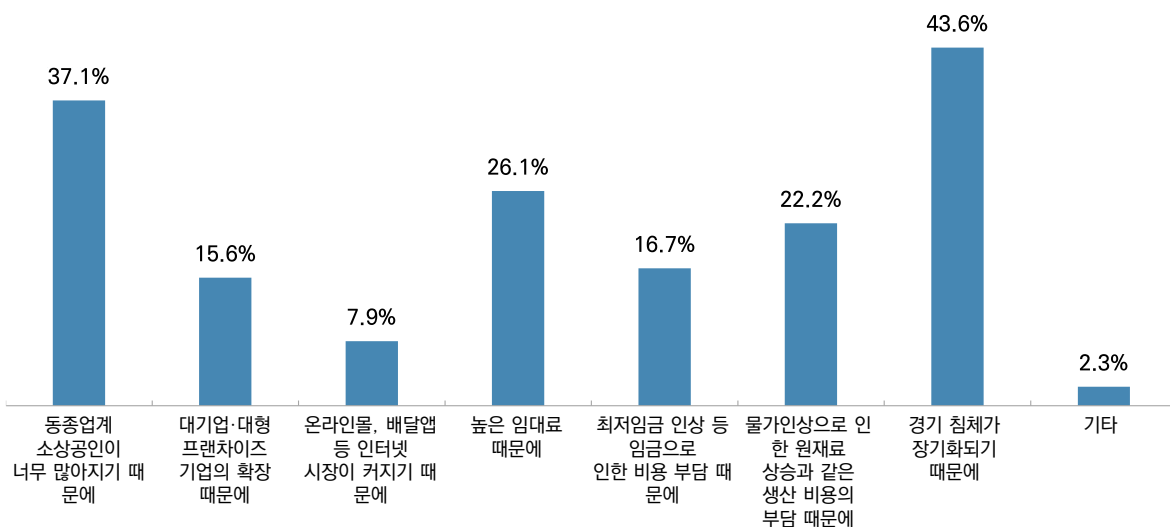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전체	계	(87)	20.9	30.4	33.7	10.8	4.2	51.3	33.7	14.9
거주지	동부산권	(25)	28.5	23.8	30.3	10.2	7.1	52.3	30.3	17.4
	서부산권	(17)	6.6	30.4	40.5	22.5	0.0	37.1	40.5	22.5
	중부산권	(31)	25.3	37.6	28.2	3.0	5.9	62.9	28.2	8.9
	원도심	(14)	14.8	25.9	44.4	14.8	0.0	40.7	44.4	14.8
취업여부	취업자	(87)	20.9	30.4	33.7	10.8	4.2	51.3	33.7	14.9
	미취업자	-	-	-	-	-	-	-	-	-
성별	남성	(51)	28.1	19.7	38.5	11.7	2.0	47.8	38.5	13.7
	여성	(37)	10.9	45.2	27.1	9.4	7.3	56.2	27.1	16.7
연령	18~24세	(3)	33.3	33.3	0.0	33.3	0.0	66.7	0.0	33.3
	25~29세	(28)	22.5	44.3	20.5	9.7	3.0	66.8	20.5	12.7
	30~34세	(56)	19.4	23.3	42.2	10.1	5.0	42.7	42.2	15.1
혼인상태	미혼	(66)	24.9	30.9	28.4	11.7	4.0	55.8	28.4	15.8
	기혼	(20)	9.0	24.7	53.1	8.2	4.9	33.7	53.1	13.2
	이혼·사별	(1)	0.0	100.0	0.0	0.0	0.0	10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	18.9	31.0	39.8	10.3	0.0	49.9	39.8	10.3
	자녀 없음	(78)	21.1	30.3	33.0	10.8	4.7	51.5	33.0	15.5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0)	28.7	29.9	22.5	14.4	4.5	58.6	22.5	18.9
	부모 미동거	(48)	14.4	30.9	43.2	7.7	3.9	45.2	43.2	11.6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25.6	15.9	32.9	17.1	8.5	41.5	32.9	25.6
	대학 재학	(2)	53.3	0.0	46.7	0.0	0.0	53.3	46.7	0.0
	대학 졸업	(72)	18.5	34.4	33.1	10.3	3.7	52.9	33.1	14.0
	대학원 졸업	(2)	50.0	0.0	50.0	0.0	0.0	50.0	50.0	0.0

8)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

-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43.6%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동종업계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37.1%, ‘높은 임대료 때문에’ 26.1%, ‘물가인상으로 인한 원재료 상승과 같은 생산 비용의 부담 때문에’ 22.2% 순으로 응답하였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원도심의 경우 ‘동종업계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의 100%는 ‘동종업계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졸업(43.7%), 고졸이하(50%)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기 때문에’라고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기 때문’이 각각 41.1%(남성), 47.1%(여성)로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으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에’가 21.6%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37〉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

〈표 2-2-52〉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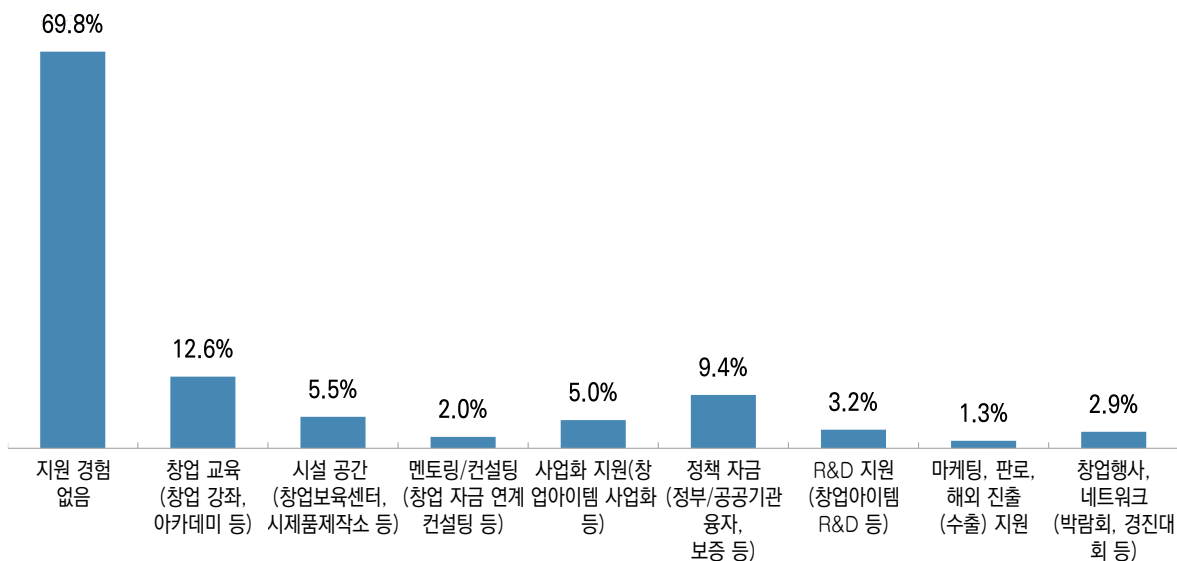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동종업계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대기업·대 형 프랜차이즈 기업의 확장 때문에	온라인몰, 배달앱 등 인터넷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으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에	물가인상 으로 인한 생산 비용의 부담 때문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 기 때문에	기타
전체	계	(87)	37.1	15.6	7.9	26.1	16.7	22.2	43.6	2.3
거주지	동부산권	(25)	42.7	19.1	7.9	27.1	4.0	22.5	45.0	0.0
	서부산권	(17)	30.4	5.8	5.8	35.5	17.5	34.1	46.3	0.0
	중부산권	(31)	28.4	21.6	12.3	25.1	19.4	15.4	50.2	6.4
	원도심	(14)	55.6	7.4	0.0	14.8	33.3	22.2	22.2	0.0
취업여부	취업자	(87)	37.1	15.6	7.9	26.1	16.7	22.2	43.6	2.3
	미취업자	-	-	-	-	-	-	-	-	-
성별	남성	(51)	35.5	15.7	9.9	27.5	21.6	23.3	41.1	0.0
	여성	(37)	39.4	15.5	5.1	24.2	10.0	20.7	47.1	5.5
연령	18~24세	(3)	33.3	0.0	0.0	33.3	0.0	33.3	0.0	33.3
	25~29세	(28)	34.0	21.4	6.6	30.8	23.3	17.7	45.2	0.0
	30~34세	(56)	39.0	13.5	8.9	23.4	14.3	23.8	45.1	1.8
혼인상태	미혼	(66)	39.3	16.4	8.9	27.3	20.7	21.0	42.8	3.0
	기혼	(20)	32.6	14.0	4.9	24.0	4.9	27.5	42.8	0.0
	이혼·사별	(1)	0.0	0.0	0.0	0.0	0.0	0.0	10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	38.1	18.9	10.3	29.5	10.3	31.0	20.6	0.0
	자녀 없음	(78)	37.0	15.2	7.5	25.7	17.5	21.1	46.4	2.6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0)	33.1	17.0	10.1	27.2	12.8	22.8	44.5	5.0
	부모 미동거	(48)	40.5	14.4	6.0	25.2	20.0	21.7	42.8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17.1	32.9	0.0	15.9	25.6	32.9	50.0	0.0
	대학 재학	(2)	0.0	0.0	0.0	46.7	0.0	0.0	46.7	53.3
	대학 졸업	(72)	39.6	13.6	9.6	26.6	16.2	21.6	43.7	1.4
	대학원 졸업	(2)	100.0	0.0	0.0	50.0	0.0	0.0	0.0	0.0

9)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면서 지원받은 정책

-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면서 지원받은 정책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69.8%는 ‘지원경험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창업교육’ 12.6%, ‘정책자금’ 9.4%, ‘시설 공간’ 5.5%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지원경험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창업교육’이 19.2%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100%로 ‘지원경험 없음’이 높게 나타났고, 25~29세(46.5%), 30~34세(80.0%)도 ‘지원경험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지원경험 없음’이 높게 나타났으나 서부산권의 경우 ‘정책자금’이 27.4%로 다른 거주지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38〉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면서 지원받은 정책

〈표 2-2-53〉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면서 지원받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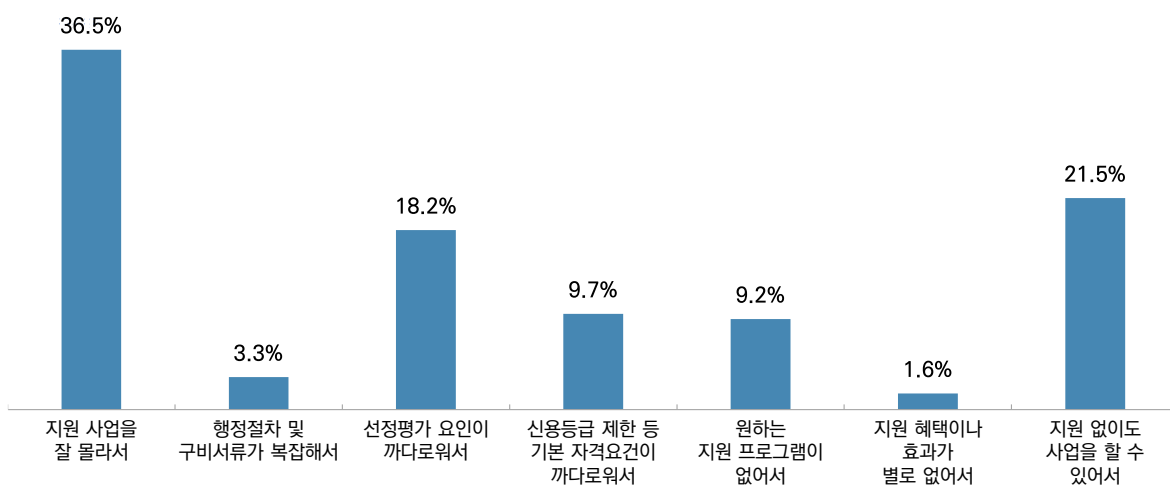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지원 경험 없음	창업 교육(창 업 강좌, 아카데미 등)	시설 공간(창 업보육센 터, 시제품제 작소 등)	멘토링/ 컨설팅(창업 자금 연계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창 업아이템 사업화 등)	정책 자금(정 부/공공 기관 융자, 보증 등)	R&D 지원(창 업아이템 R&D 등)	마케팅, 판로, 해외 진출(수 출) 지원	창업행사 , 네트워크 (박람회, 경진대회 등)
전체	계	(87)	69.8	12.6	5.5	2.0	5.0	9.4	3.2	1.3	2.9
거주지	동부산권	(25)	83.0	4.0	3.5	0.0	3.3	6.3	3.3	0.0	0.0
	서부산권	(17)	55.9	5.1	11.6	10.1	0.0	27.4	5.8	0.0	0.0
	중부산권	(31)	71.5	19.6	3.0	0.0	0.0	5.9	0.0	3.6	3.2
	원도심	(14)	59.3	22.2	7.4	0.0	25.9	0.0	7.4	0.0	11.1
취업여부	취업자	(87)	69.8	12.6	5.5	2.0	5.0	9.4	3.2	1.3	2.9
	미취업자	-	-	-	-	-	-	-	-	-	-
성별	남성	(51)	75.6	7.9	9.5	1.7	3.6	7.4	3.6	0.0	0.0
	여성	(37)	61.9	19.2	0.0	2.4	6.8	12.1	2.7	3.1	6.8
연령	18~24세	(3)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25~29세	(28)	46.5	21.3	17.0	3.1	8.9	9.8	7.1	4.0	8.9
	30~34세	(56)	80.0	8.9	0.0	1.6	3.3	9.6	1.5	0.0	0.0
혼인상태	미혼	(66)	65.3	15.2	7.3	2.7	5.3	9.9	3.0	1.7	3.8
	기혼	(20)	82.7	4.9	0.0	0.0	4.1	8.2	4.1	0.0	0.0
	이혼·사별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	81.1	0.0	0.0	0.0	8.6	10.3	8.6	0.0	0.0
	자녀 없음	(78)	68.4	14.2	6.2	2.3	4.5	9.2	2.6	1.5	3.2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0)	65.4	14.8	7.4	2.2	2.5	9.9	5.0	0.0	2.5
	부모 미동거	(48)	73.5	10.8	3.9	1.8	7.0	8.9	1.8	2.4	3.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75.6	8.5	0.0	0.0	0.0	15.9	0.0	0.0	0.0
	대학 재학	(2)	53.3	0.0	46.7	0.0	0.0	0.0	0.0	0.0	0.0
	대학 졸업	(72)	68.5	14.0	5.5	2.4	6.0	8.8	4.0	1.6	3.5
	대학원 졸업	(2)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9-1) 창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

- 창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36.5%는 ‘지원 사업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지원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어서’ 21.5%, ‘선정평가 요인이 까다로워서’ 18.2%, ‘신용등급제한 등 기본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9.7%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지원 사업을 잘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신용등급 제한 등 기본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가 15.4%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66.7%는 ‘지원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어서’가 높게 나타났고, 25~29세(37.0%), 30~34세(38.8%)는 ‘지원 사업을 잘 몰라서’가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동부산권의 29.5%는 ‘선정평가가 까다로워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거주지의 경우 ‘지원 사업을 잘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39〉 창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

〈표 2-2-54〉 창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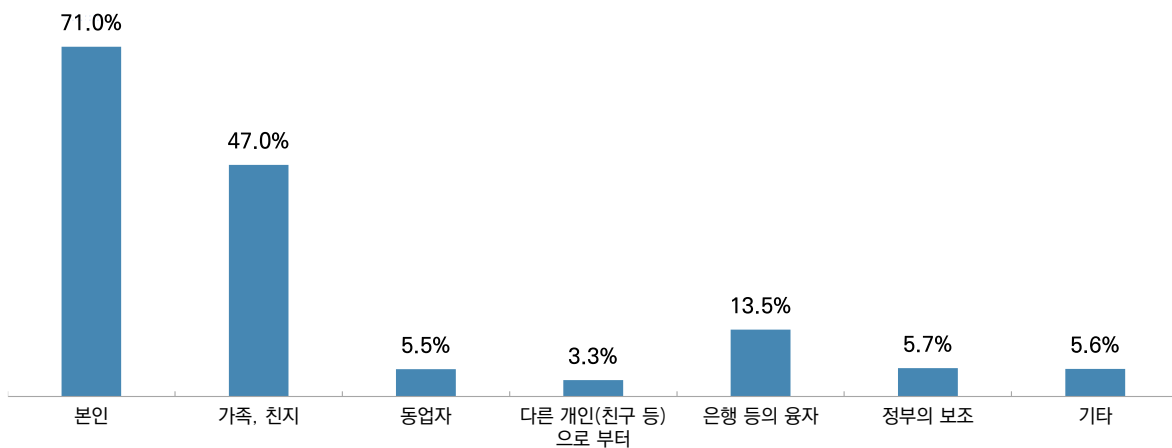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지원 사업을 잘 몰라서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가 복잡해서	선정평가 요인이 까다로워서	신용등급 제한 등 기본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원 혜택이나 효과가 별로 없어서	지원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전체	계	(61)	36.5	3.3	18.2	9.7	9.2	1.6	21.5
거주지	동부산권	(21)	28.0	0.0	29.5	14.3	13.4	0.0	14.7
	서부산권	(10)	58.5	0.0	0.0	20.7	0.0	0.0	20.7
	중부산권	(22)	43.6	4.5	13.0	4.1	12.5	4.5	17.8
	원도심	(8)	12.5	12.5	25.0	0.0	0.0	0.0	50.0
취업여부	취업자	(61)	36.5	3.3	18.2	9.7	9.2	1.6	21.5
	미취업자	-	-	-	-	-	-	-	-
성별	남성	(38)	31.7	5.2	21.1	15.4	5.2	2.6	18.7
	여성	(23)	44.7	0.0	13.3	0.0	15.9	0.0	26.1
연령	18~24세	(3)	0.0	0.0	33.3	0.0	0.0	0.0	66.7
	25~29세	(13)	37.0	0.0	16.6	15.2	0.0	0.0	31.1
	30~34세	(45)	38.8	4.5	17.7	8.7	12.5	2.2	15.6
혼인상태	미혼	(43)	35.5	4.7	21.2	9.1	8.4	2.3	18.8
	기혼	(17)	34.4	0.0	11.9	11.9	11.9	0.0	29.8
	이혼·사별	(1)	100.0	0.0	0.0	0.0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8)	36.4	0.0	12.7	25.5	12.7	0.0	12.7
	자녀 없음	(53)	36.5	3.8	19.0	7.4	8.7	1.9	22.7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26)	38.5	0.0	23.5	7.4	10.8	0.0	19.9
	부모 미동거	(35)	35.1	5.7	14.3	11.4	8.0	2.9	22.6
최종학력	고졸 이하	(9)	77.4	0.0	0.0	0.0	0.0	0.0	22.6
	대학 재학	(1)	0.0	0.0	0.0	0.0	0.0	0.0	100.0
	대학 졸업	(49)	31.4	4.1	20.6	12.1	11.4	0.0	20.5
	대학원 졸업	(2)	0.0	0.0	50.0	0.0	0.0	50.0	0.0

10) 창업 시 초기 자본 조달 방법

○ 창업 시 초기 자본 조달 방법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71.0%는 ‘본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가족, 친지’ 47.0%, ‘은행 등의 융자’ 13.5%, ‘정부의 보조’ 5.7%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본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가족, 친지’가 50.9%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두 본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 친지 순으로 비슷한 응답 형태를 보임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본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고졸이하의 경우 ‘은행 등 융자’가 31.7%로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40〉 창업 시 초기 자본 조달 방법

〈표 2-2-55〉 창업 시 초기 자본 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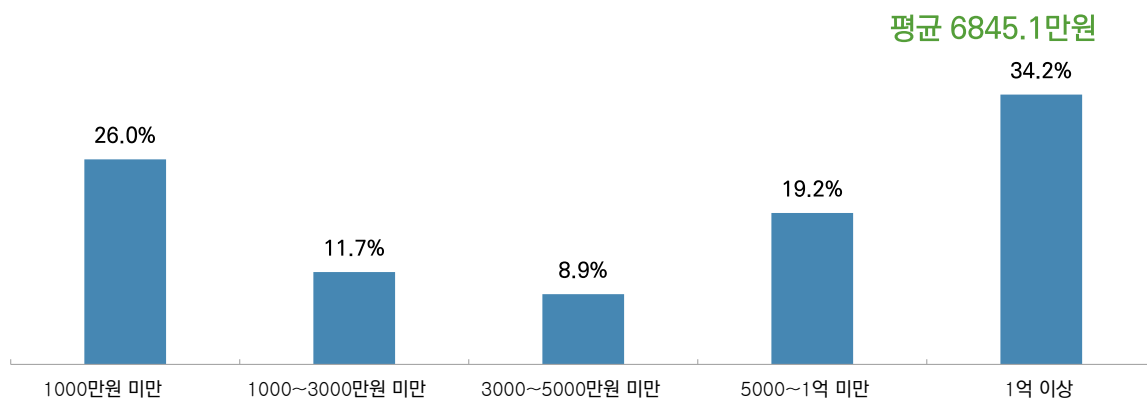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본인	가족, 친지	동업자	다른 개인(친구 등)으로 부터	은행 등의 융자	정부의 보조	기타
전체	계	(87)	71.0	47.0	5.5	3.3	13.5	5.7	5.6
거주지	동부산권	(25)	72.0	57.4	0.0	0.0	2.6	0.0	3.5
	서부산권	(17)	76.8	41.2	16.7	5.1	15.8	17.4	0.0
	중부산권	(31)	78.3	31.7	3.0	6.4	15.7	6.4	3.2
	원도심	(14)	44.4	70.4	7.4	0.0	25.9	0.0	22.2
취업여부	취업자	(87)	71.0	47.0	5.5	3.3	13.5	5.7	5.6
	미취업자	-	-	-	-	-	-	-	-
성별	남성	(51)	62.6	50.9	9.5	5.7	15.1	5.9	9.6
	여성	(37)	82.6	41.6	0.0	0.0	11.4	5.5	0.0
연령	18~24세	(3)	66.7	66.7	0.0	0.0	0.0	0.0	0.0
	25~29세	(28)	56.2	41.4	10.4	3.5	12.4	10.6	3.1
	30~34세	(56)	78.6	48.7	3.3	3.3	14.8	3.6	7.1
혼인상태	미혼	(66)	67.6	47.9	7.3	4.4	17.0	6.1	2.8
	기혼	(20)	80.3	46.9	0.0	0.0	3.3	4.9	14.8
	이혼·사별	(1)	100.0	0.0	0.0	0.0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	89.7	91.2	0.0	0.0	0.0	10.3	0.0
	자녀 없음	(78)	68.6	41.5	6.2	3.7	15.2	5.2	6.3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0)	67.3	45.1	7.4	0.0	12.0	10.1	0.0
	부모 미동거	(48)	74.0	48.6	3.9	6.0	14.8	2.1	10.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67.1	41.5	0.0	8.5	31.7	8.5	8.5
	대학 재학	(2)	53.3	0.0	0.0	0.0	0.0	0.0	46.7
	대학 졸업	(72)	71.3	49.0	6.7	2.6	11.3	5.6	4.2
	대학원 졸업	(2)	100.0	50.0	0.0	0.0	0.0	0.0	0.0

11) 창업 시 초기 자본금액

- 창업 시 초기 자본금액에 대하여 ‘1억 이상’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자본금액은 6,845.1만 원으로 조사됨
- 성별로 살펴보면, 평균 자본금액은 남성의 경우 평균 7,590.8만 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5,811.7만 원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평균 자본금액은 18~24세의 경우 5,566.7만 원으로 나타났고, 25~29세 5,561.8만 원, 30~34세 7,559.1만 원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평균 자본금액은 동부산권의 경우 6,593.7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서부산권 8,954.6만 원, 중부산권 4,760.5만 원, 원도심 9,459.3만 원으로 나타남

(단위 : %, 만원)



〈그림 2-2-41〉 창업 시 초기 자본 금액

〈표 2-2-56〉 창업 시 초기 자본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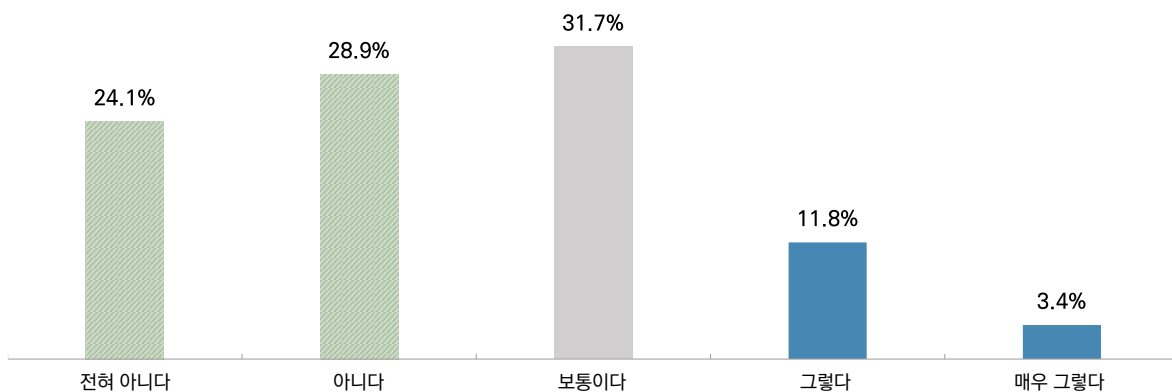
(단위 : %, 만원)

구분		사례수	1천만원 미만	1~3천만원 미만	3~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 미만	1억 이상	평균
전체	계	(87)	26.0	11.7	8.9	19.2	34.2	6845.1
거주지	동부산권	(25)	23.3	7.9	4.0	31.2	33.6	6593.7
	서부산권	(17)	16.7	18.8	17.5	11.6	35.4	8954.6
	중부산권	(31)	34.8	12.6	8.9	18.9	24.9	4760.5
	원도심	(14)	22.2	7.4	7.4	7.4	55.6	9459.3
취업여부	취업자	(87)	26.0	11.7	8.9	19.2	34.2	6845.1
	미취업자	-						-
성별	남성	(51)	27.7	9.9	9.7	13.7	39.1	7590.8
	여성	(37)	23.5	14.2	7.8	26.9	27.5	5811.7
연령	18~24세	(3)	33.3	0.0	0.0	33.3	33.3	5566.7
	25~29세	(28)	31.0	14.7	10.1	10.6	33.6	5561.8
	30~34세	(56)	23.0	10.8	8.8	22.8	34.6	7559.1
혼인상태	미혼	(66)	23.9	15.5	10.3	18.1	32.1	6890.6
	기혼	(20)	34.1	0.0	4.9	24.0	37.0	6410.0
	이혼·사별	(1)	0.0	0.0	0.0	0.0	100.0	115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	10.3	0.0	0.0	29.5	60.2	8869.8
	자녀 없음	(78)	27.9	13.1	10.0	17.9	31.0	6592.3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0)	25.1	10.1	7.7	22.5	34.7	6352.7
	부모 미동거	(48)	26.7	13.0	9.9	16.5	33.8	7256.0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34.1	0.0	8.5	8.5	48.8	11956.1
	대학 재학	(2)	100.0	0.0	0.0	0.0	0.0	466.7
	대학 졸업	(72)	23.4	14.2	8.1	22.0	32.3	6047.2
	대학원 졸업	(2)	0.0	0.0	50.0	0.0	50.0	11500.0

12) 업종 전환이나 취업 의향

- 업종 전환이나 취업 의향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53.0%는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보통’ 31.7%, ‘그렇다’ 15.3%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아니다’가 각각 55.4%,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보통이다’, ‘그렇다’순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나 미혼의 경우 ‘그렇다’가 17.7% 다른 기혼, 이혼, 사별보다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아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동부산권의 경우 ‘그렇다’가 21.6%로 다른 거주지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42〉 업종 전환이나 취업 의향

〈표 2-2-57〉 업종 전환이나 취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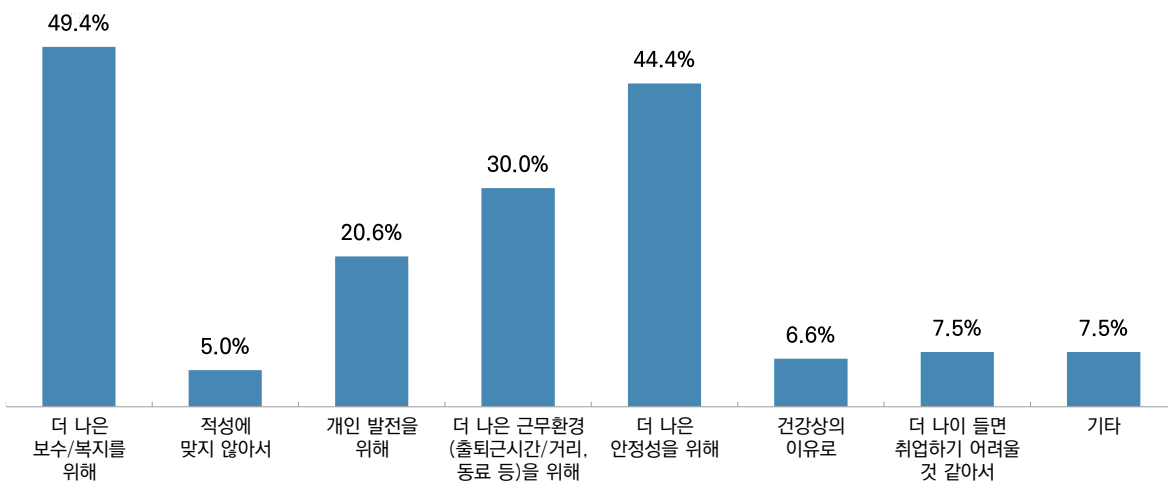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전체	계	(87)	24.1	28.9	31.7	11.8	3.4	53.0	31.7	15.3
거주지	동부산권	(25)	27.7	42.7	7.9	13.7	7.9	70.4	7.9	21.6
	서부산권	(17)	24.0	23.8	35.5	16.7	0.0	47.8	35.5	16.7
	중부산권	(31)	22.1	18.7	46.5	9.6	3.2	40.8	46.5	12.8
	원도심	(14)	22.2	33.3	37.0	7.4	0.0	55.6	37.0	7.4
취업여부	취업자	(87)	24.1	28.9	31.7	11.8	3.4	53.0	31.7	15.3
	미취업자	-	-	-	-	-	-	-	-	-
성별	남성	(51)	32.0	23.4	31.0	9.6	3.9	55.4	31.0	13.6
	여성	(37)	13.1	36.6	32.7	14.9	2.7	49.7	32.7	17.6
연령	18~24세	(3)	66.7	0.0	0.0	33.3	0.0	66.7	0.0	33.3
	25~29세	(28)	22.5	29.3	24.6	23.6	0.0	51.8	24.6	23.6
	30~34세	(56)	22.6	30.2	37.0	4.8	5.3	52.9	37.0	10.1
혼인상태	미혼	(66)	27.7	21.5	33.1	14.7	3.0	49.2	33.1	17.7
	기혼	(20)	14.0	48.6	29.2	3.3	4.9	62.6	29.2	8.2
	이혼·사별	(1)	0.0	100.0	0.0	0.0	0.0	10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	29.2	70.8	0.0	0.0	0.0	100.0	0.0	0.0
	자녀 없음	(78)	23.5	23.7	35.7	13.3	3.9	47.1	35.7	17.2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0)	30.8	15.1	37.0	14.6	2.5	45.9	37.0	17.1
	부모 미동거	(48)	18.6	40.4	27.3	9.5	4.2	59.0	27.3	13.7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34.1	15.9	32.9	8.5	8.5	50.0	32.9	17.1
	대학 재학	(2)	53.3	0.0	0.0	46.7	0.0	53.3	0.0	46.7
	대학 졸업	(72)	19.6	32.6	33.2	11.8	2.8	52.2	33.2	14.6
	대학원 졸업	(2)	100.0	0.0	0.0	0.0	0.0	100.0	0.0	0.0

12-1) 업종 전환이나 취업을 생각한 이유

- 업종 전환이나 취업을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49.4%는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44.4%, ‘더 나은 근무환경’ 30.0%, ‘개인발전을 위해’ 20.6% 순으로 응답하였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동부산권의 47.3%는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가 높게 나타났으며 서부산권 69.6% , 중부산권 50%가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라고 응답하였으며 원도심의 경우 100% ‘더 나은 근무환경’과 ‘더 나은 안정성’이라고 응답하였음
 - 부모동거 여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가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동거의 경우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가 57.7%로 부모와 미동거하는 응답자보다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43.6%가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라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43〉 업종 전환이나 취업을 생각한 이유

〈표 2-2-58〉 업종 전환이나 취업을 생각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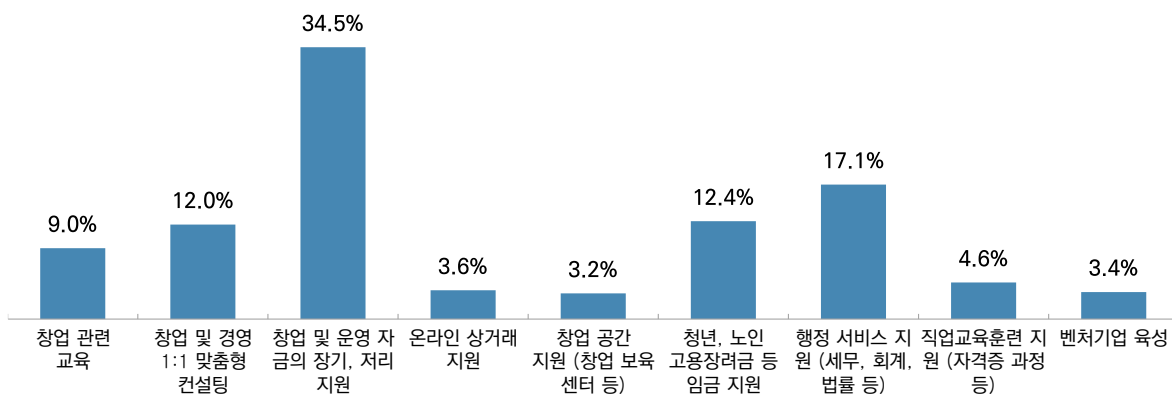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더 나은 보수/복지 를 위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개인 발전을 위해	더 나은 근무환경(출퇴근시 간/거리, 동료 등)을 위해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건강상의 이유로	더 나이 들면 취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기타
전체	계	(13)	49.4	5.0	20.6	30.0	44.4	6.6	7.5	7.5
거주지	동부산권	(5)	47.3	12.2	34.4	36.6	35.1	0.0	0.0	0.0
	서부산권	(3)	69.6	0.0	30.4	0.0	34.8	30.4	0.0	0.0
	중부산권	(4)	50.0	0.0	0.0	25.0	50.0	0.0	25.0	25.0
	원도심	(1)	0.0	0.0	0.0	100.0	100.0	0.0	0.0	0.0
취업여부	취업자	(13)	49.4	5.0	20.6	30.0	44.4	6.6	7.5	7.5
	미취업자	-	-	-	-	-	-	-	-	-
성별	남성	(7)	43.6	0.0	27.3	43.6	43.6	0.0	14.5	0.0
	여성	(6)	55.5	10.3	13.5	15.5	45.2	13.5	0.0	15.5
연령	18~24세	(1)	0.0	0.0	0.0	100.0	100.0	0.0	0.0	0.0
	25~29세	(7)	58.8	0.0	26.3	30.0	43.8	13.1	0.0	0.0
	30~34세	(6)	47.1	11.8	17.6	17.6	35.3	0.0	17.6	17.6
혼인상태	미혼	(12)	50.7	0.0	23.6	34.3	42.1	7.5	0.0	8.6
	기혼	(2)	40.0	40.0	0.0	0.0	60.0	0.0	60.0	0.0
	이혼·사별	-	-	-	-	-	-	-	-	-
자녀 유무	자녀 있음	-	-	-	-	-	-	-	-	-
	자녀 없음	(13)	49.4	5.0	20.6	30.0	44.4	6.6	7.5	7.5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	57.7	0.0	12.9	14.7	57.7	12.9	0.0	14.7
	부모 미동거	(7)	40.8	10.2	28.7	45.9	30.6	0.0	15.3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	100.0	0.0	0.0	50.0	0.0	0.0	0.0	0.0
	대학 재학	(1)	0.0	0.0	100.0	0.0	0.0	0.0	0.0	0.0
	대학 졸업	(10)	43.8	6.4	17.9	28.7	56.6	8.4	9.6	9.6
	대학원 졸업	-	-	-	-	-	-	-	-	-

13)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34.5%는 ‘창업 및 운영자금의 장기지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행정 서비스’ 17.1%, ‘청년, 노인 고용 장려’ 12.4%, ‘창업 및 경영 1:1맞춤형 컨설팅’ 12.0%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35.3%가 ‘창업 및 운영 자금의 장기 지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여성도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창업 및 운영자금의 장기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0~34세의 경우 ‘창업관련 교육’이 10.4%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자녀 유무별로 살펴보면, 자녀 있음을 응답한 응답자의 41.3%가 ‘창업 및 운영자금의 장기 지원’이라고 응답했으며 또한 자녀 없음을 응답한 응답자도 마찬가지로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단위 : %)



〈그림 2-2-44〉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표 2-2-59〉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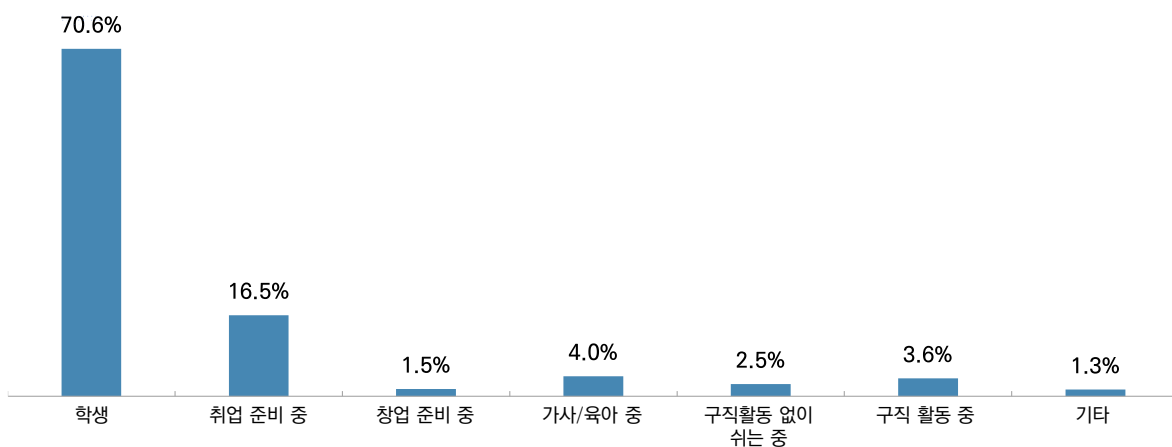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창업 관련 교육	창업 및 경영 1:1 맞춤형 컨설팅	창업 및 운영 자금의 장기, 저리 지원	온라인 상거래 지원	창업 공간 지원 (창업 보육센터 등)	청년, 노인고용 장려금 등 임금 지원	행정 서비스 지원 (세무, 회계, 법률 등)	직업교육 훈련 지원 (자격증 과정 등)	벤처기업 육성
전체	계	(87)	9.0	12.0	34.5	3.6	3.2	12.4	17.1	4.6	3.4
거주지	동부산권	(25)	11.3	4.0	49.0	0.0	3.3	12.3	7.6	8.6	4.0
	서부산권	(17)	0.0	16.6	34.9	7.2	5.8	18.8	5.8	10.9	0.0
	중부산권	(31)	12.8	21.2	34.4	3.0	0.0	3.2	19.1	0.0	6.4
	원도심	(14)	7.4	0.0	7.4	7.4	7.4	25.9	44.4	0.0	0.0
취업여부	취업자	(87)	9.0	12.0	34.5	3.6	3.2	12.4	17.1	4.6	3.4
	미취업자	-	-	-	-	-	-	-	-	-	-
성별	남성	(51)	9.9	9.4	35.3	3.8	3.6	14.0	17.7	2.3	3.9
	여성	(37)	7.8	15.6	33.4	3.4	2.7	10.2	16.2	7.9	2.7
연령	18~24세	(3)	0.0	33.3	33.3	0.0	0.0	0.0	33.3	0.0	0.0
	25~29세	(28)	7.1	10.6	41.6	6.9	7.1	12.7	6.8	7.2	0.0
	30~34세	(56)	10.4	11.6	31.0	2.2	1.5	12.9	21.4	3.6	5.3
혼인상태	미혼	(66)	7.6	11.5	37.2	4.8	3.0	13.1	15.1	4.6	3.0
	기혼	(20)	14.1	14.4	28.0	0.0	4.1	4.9	24.7	4.9	4.9
	이혼·사별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	19.2	10.3	41.3	0.0	8.6	10.3	10.3	0.0	0.0
	자녀 없음	(78)	7.7	12.2	33.7	4.1	2.6	12.7	17.9	5.2	3.9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0)	5.0	9.9	39.8	2.3	5.0	10.3	19.9	7.7	0.0
	부모 미동거	(48)	12.3	13.8	30.1	4.7	1.8	14.2	14.7	2.1	6.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34.1	15.9	24.4	0.0	0.0	8.5	8.5	0.0	8.5
	대학 재학	(2)	0.0	53.3	46.7	0.0	0.0	0.0	0.0	0.0	0.0
	대학 졸업	(72)	5.4	10.6	36.8	4.4	4.0	12.3	19.4	5.6	1.4
	대학원 졸업	(2)	0.0	0.0	0.0	0.0	0.0	50.0	0.0	0.0	50.0

4. 미취업자

1) 현재 경제활동 상태

- 현재 경제활동 상태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70.6%는 ‘학생’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취업준비중’ 16.5%, ‘가사/육아중’ 4.0%, ‘구직활동중’ 3.6%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가사/육아중’이 7.4%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91.3%는 ‘학생’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5~29세의 44.9%가 ‘취업준비중’, 30~34세의 36.2%가 ‘취업준비중’이라고 응답하였음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의 41.0%는 ‘취업준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졸업 50.5% ‘취업준비중’, 대학재학 89.4% ‘학생’, 고졸이하 57.4% ‘취업준비중’이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2-45〉 현재 경제활동 상태

〈표 2-2-60〉 현재 경제활동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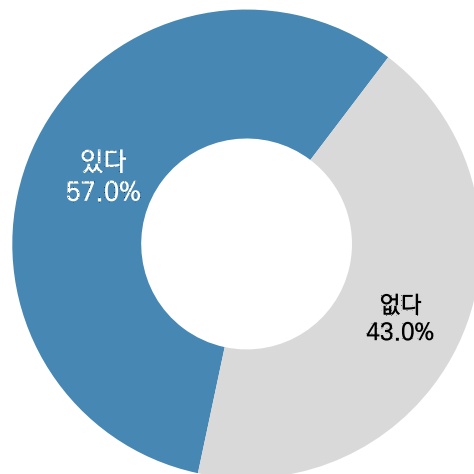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학생	취업 준비 중	창업 준비 중	가사/육아 중	구직활동 없이 쉬는 중	구직 활동 중	기타
전체	계	(1539)	70.6	16.5	1.5	4.0	2.5	3.6	1.3
거주지	동부산권	(459)	73.0	15.1	0.9	4.0	3.8	1.9	1.3
	서부산권	(402)	70.2	16.4	1.8	6.0	1.0	3.2	1.5
	중부산권	(462)	70.2	17.8	1.9	2.9	2.5	3.7	1.1
	원도심	(216)	67.5	16.9	0.9	3.0	2.3	7.8	1.6
취업여부	취업자	-	-	-	-	-	-	-	-
	미취업자	(1539)	70.6	16.5	1.5	4.0	2.5	3.6	1.3
성별	남성	(778)	76.8	14.6	1.6	0.8	2.2	3.2	0.9
	여성	(760)	64.3	18.4	1.3	7.4	2.8	4.1	1.8
연령	18~24세	(1063)	91.3	5.1	0.3	0.1	0.8	1.4	0.9
	25~29세	(309)	33.0	44.9	3.6	4.2	5.8	6.3	2.2
	30~34세	(166)	8.3	36.2	4.9	28.9	6.8	12.6	2.3
혼인상태	미혼	(1448)	74.8	16.5	1.4	0.1	2.4	3.5	1.3
	기혼	(88)	4.8	14.8	2.3	69.4	3.3	4.3	1.1
	이혼·사별	(3)	0.0	66.0	0.0	0.0	0.0	34.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0)	5.4	11.4	0.0	81.8	0.0	1.3	0.0
	자녀 없음	(1478)	73.3	16.7	1.5	0.9	2.6	3.7	1.4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077)	75.8	16.3	1.2	0.3	2.2	2.9	1.3
	부모 미동거	(461)	58.4	16.9	2.0	12.8	3.2	5.2	1.5
최종학력	고졸 이하	(25)	30.5	57.4	0.0	0.0	4.0	4.0	4.0
	대학 재학	(1167)	89.4	5.6	0.4	1.1	1.2	1.6	0.7
	대학 졸업	(332)	9.7	50.5	5.2	14.7	6.6	10.1	3.1
	대학원 졸업	(15)	25.3	41.0	0.0	6.7	6.7	13.5	6.7

2) 지난 1년 이내 구직 경험

- 지난 1년 이내 구직 경험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57.0%는 ‘있음’라고 응답하였으며, ‘없음’을 응답한 응답자는 43.0%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56.4%가 ‘있음’을 응답하였고 여성의 경우 57.6%가 ‘있음’을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있음’이 높게 나타났으나 30~34세의 경우 ‘없음’이 52.4%로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있음’이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원도심의 경우 ‘있음’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46〉 지난 1년 이내 구직 경험

〈표 2-2-61〉 지난 1년 이내 구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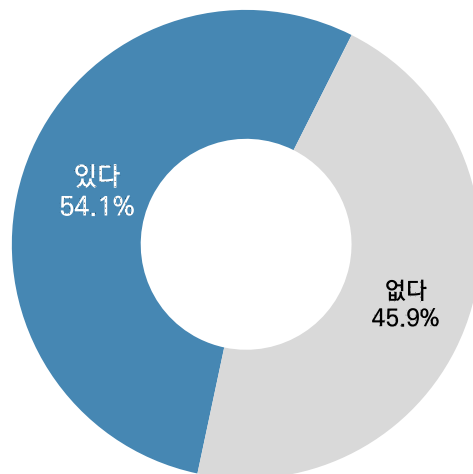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계	(1539)	57.0	43.0
거주지	동부산권	(459)	56.9	43.1
	서부산권	(402)	54.3	45.7
	중부산권	(462)	58.0	42.0
	원도심	(216)	60.2	39.8
취업여부	취업자	-	-	-
	미취업자	(1539)	57.0	43.0
성별	남성	(778)	56.4	43.6
	여성	(760)	57.6	42.4
연령	18~24세	(1063)	57.8	42.2
	25~29세	(309)	59.3	40.7
	30~34세	(166)	47.6	52.4
혼인상태	미혼	(1448)	58.9	41.1
	기혼	(88)	26.4	73.6
	이혼·사별	(3)	68.1	31.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0)	21.8	78.2
	자녀 없음	(1478)	58.5	41.5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077)	57.4	42.6
	부모 미동거	(461)	56.1	43.9
최종학력	고졸 이하	(25)	59.9	40.1
	대학 재학	(1167)	56.2	43.8
	대학 졸업	(332)	58.8	41.2
	대학원 졸업	(15)	79.8	20.2

2-1) 지난 4주 이내 구직 경험

- 지난 4주 이내 구직 경험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54.1%는 ‘있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없음’을 응답한 응답자가 45.9%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있음’을 응답한 응답자가 각각 50.7%, 57.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없음’을 응답한 응답자가 49.3%, 42.3%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없음’을 응답한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18~24세의 경우 ‘있음’을 응답한 응답자가 51.4%로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있음’을 응답한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대학원졸업의 경우 8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47〉 지난 4주 이내 구직 경험

〈표 2-2-62〉 지난 4주 이내 구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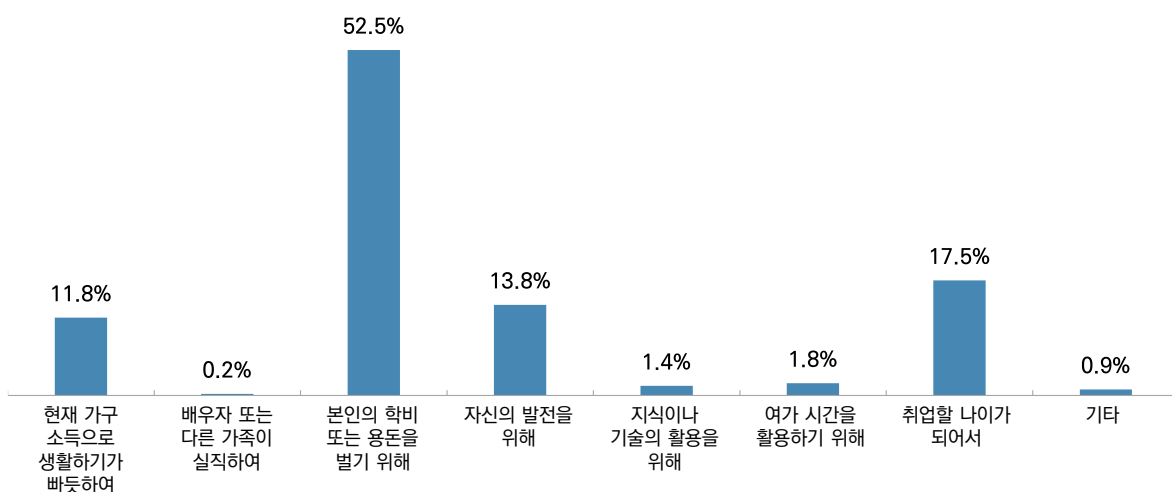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계	(877)	54.1	45.9
거주지	동부산권	(261)	51.6	48.4
	서부산권	(218)	53.2	46.8
	중부산권	(268)	55.3	44.7
	원도심	(130)	58.5	41.5
취업여부	취업자	-	-	-
	미취업자	(877)	54.1	45.9
성별	남성	(439)	50.7	49.3
	여성	(438)	57.7	42.3
연령	18~24세	(615)	48.6	51.4
	25~29세	(183)	66.6	33.4
	30~34세	(79)	68.5	31.5
혼인상태	미혼	(852)	53.9	46.1
	기혼	(23)	61.0	39.0
	이혼·사별	(2)	10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	46.1	53.9
	자녀 없음	(864)	54.3	45.7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618)	55.2	44.8
	부모 미동거	(259)	51.5	48.5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	67.4	32.6
	대학 재학	(655)	48.4	51.6
	대학 졸업	(195)	70.5	29.5
	대학원 졸업	(12)	85.2	14.8

3)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유

-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52.5%는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취업할 나이가 되어서’ 17.5%, ‘자신의 발전을 위해’ 13.8%, ‘현재 가구소득으로 생활하기 빠듯하여’ 11.8%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가 각각 52.9%,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73.0%는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가 높게 나타났고, 25~29세 38.1% ‘취업할 나이가 되어서’, 30~34세 30.1% ‘현재 가구 소득으로 생활하기 빠듯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원도심의 경우 ‘취업할 나이가 되어서’가 21.4%로 다른 거주지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48〉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유

〈표 2-2-63〉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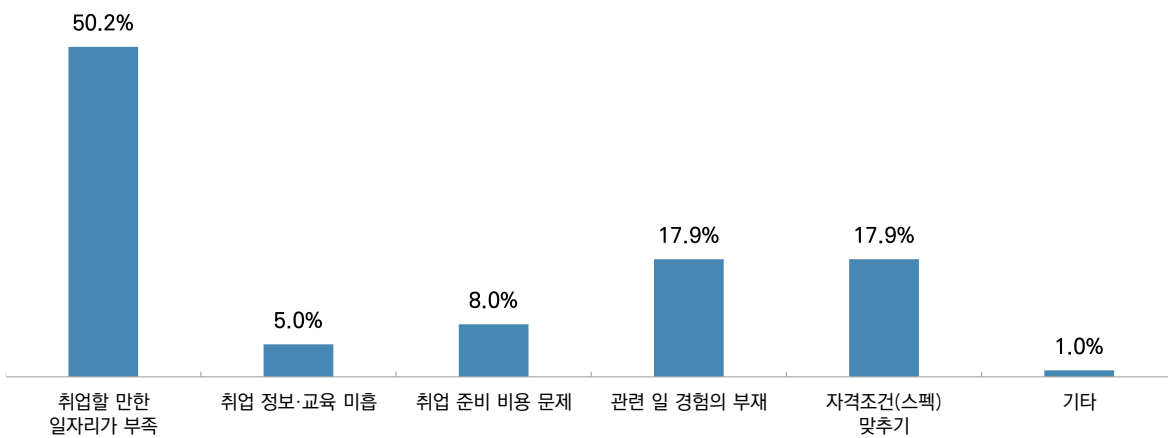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현재 가구 소득으로 생활하기 가 바듯하여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실직하여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을 위해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취업할 나이가 되어서	기타
전체	계	(475)	11.8	0.2	52.5	13.8	1.4	1.8	17.5	0.9
거주지	동부산권	(135)	11.4	0.0	51.2	12.8	2.3	2.4	18.4	1.5
	서부산권	(116)	13.4	0.0	57.1	13.2	1.6	0.9	13.8	0.0
	중부산권	(148)	10.4	0.7	50.5	16.2	1.3	1.9	17.5	1.5
	원도심	(76)	12.8	0.0	52.0	11.5	0.0	2.3	21.4	0.0
취업여부	취업자	-	-	-	-	-	-	-	-	-
	미취업자	(475)	11.8	0.2	52.5	13.8	1.4	1.8	17.5	0.9
성별	남성	(222)	12.8	0.4	52.9	13.7	2.1	2.1	15.0	1.0
	여성	(253)	11.0	0.0	52.3	13.9	0.8	1.6	19.7	0.8
연령	18~24세	(299)	6.8	0.3	73.0	7.4	1.0	2.4	8.9	0.3
	25~29세	(122)	15.9	0.0	16.9	23.2	2.5	1.4	38.1	1.8
	30~34세	(54)	30.1	0.0	20.0	27.8	1.6	0.0	18.7	1.8
혼인상태	미혼	(459)	11.1	0.0	53.9	13.6	1.5	1.9	17.5	0.5
	기혼	(14)	35.9	7.1	14.1	22.6	0.0	0.0	6.2	14.1
	이혼·사별	(2)	0.0	0.0	0.0	0.0	0.0	0.0	10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	35.9	0.0	16.6	0.0	0.0	0.0	31.0	16.6
	자녀 없음	(469)	11.5	0.2	53.0	14.0	1.5	1.9	17.3	0.7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342)	7.4	0.0	56.6	13.1	1.2	2.6	18.3	0.9
	부모 미동거	(133)	23.1	0.7	42.1	15.5	2.1	0.0	15.5	0.9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	21.9	0.0	19.9	10.0	0.0	0.0	48.2	0.0
	대학 재학	(317)	8.2	0.3	70.7	8.5	0.9	2.0	8.8	0.6
	대학 졸업	(137)	19.6	0.0	14.0	27.2	2.2	1.9	33.5	1.6
	대학원 졸업	(10)	9.9	0.0	39.6	0.0	9.9	0.0	40.5	0.0

3-1) 구직/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겪는 어려움

- 구직/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50.2%는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관련 일 경험 부재’ 17.9%, ‘자격조건’ 17.9%, ‘취업준비 비용문제’ 8.0% 순으로 응답하였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취업할만한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관련 일 경험의 부재’, ‘자격조건’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5~29세의 경우 ‘취업준비 비용문제’가 15.1%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취업할만한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각각 52.6%,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남성의 경우 ‘관련 일 경험의 부재’ 17.6%, 여성의 경우 ‘자격조건’ 20.1%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2-2-49〉 구직/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겪는 어려움

〈표 2-2-64〉 구직/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겪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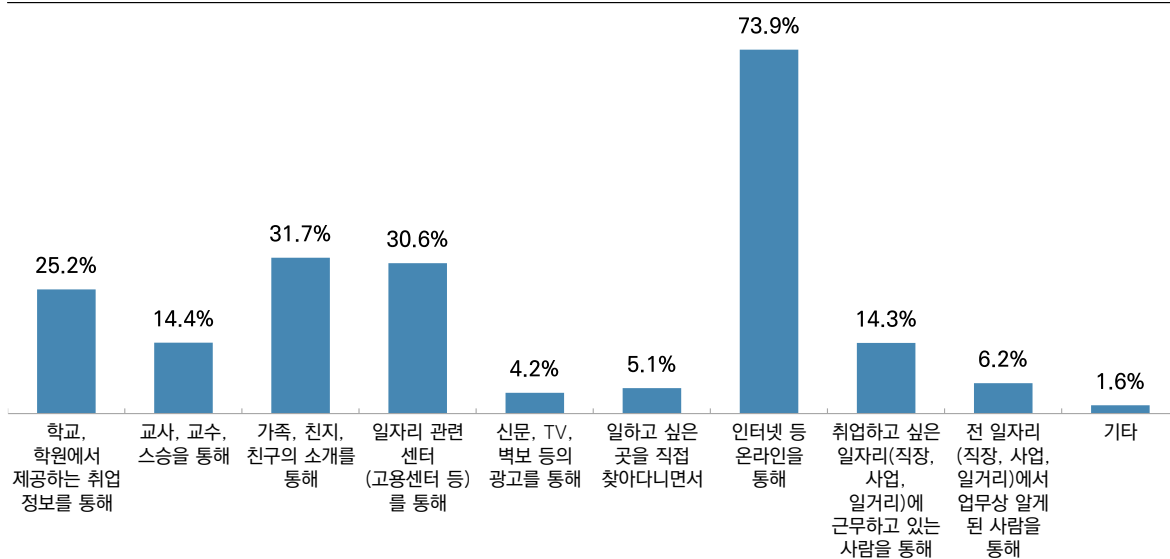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	취업 정보·교육 미흡	취업 준비 비용 문제	관련 일 경험의 부재	자격조건(스 펙) 맞추기	기타
전체	계	(475)	50.2	5.0	8.0	17.9	17.9	1.0
거주지	동부산권	(135)	48.8	4.3	10.5	16.2	19.3	0.8
	서부산권	(116)	52.3	5.4	4.4	20.6	16.4	0.9
	중부산권	(148)	53.1	6.3	6.9	16.3	16.9	0.6
	원도심	(76)	44.1	2.6	11.2	20.1	19.7	2.3
취업여부	취업자	-	-	-	-	-	-	-
	미취업자	(475)	50.2	5.0	8.0	17.9	17.9	1.0
성별	남성	(222)	52.6	6.7	6.3	17.6	15.4	1.3
	여성	(253)	48.1	3.4	9.5	18.1	20.1	0.7
연령	18~24세	(299)	47.8	6.2	4.8	19.2	20.3	1.6
	25~29세	(122)	52.2	4.0	15.1	14.1	14.6	0.0
	30~34세	(54)	59.2	0.0	9.7	19.3	11.9	0.0
혼인상태	미혼	(459)	50.2	4.9	8.1	17.7	18.1	1.0
	기혼	(14)	57.6	7.1	7.9	14.1	13.2	0.0
	이혼·사별	(2)	0.0	0.0	0.0	10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	35.9	0.0	0.0	33.1	31.0	0.0
	자녀 없음	(469)	50.4	5.0	8.1	17.7	17.7	1.0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342)	47.9	5.5	8.5	19.1	18.5	0.6
	부모 미동거	(133)	56.3	3.6	6.8	14.9	16.4	2.1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	19.9	10.0	20.3	19.9	29.9	0.0
	대학 재학	(317)	47.6	6.1	5.2	19.6	20.0	1.5
	대학 졸업	(137)	58.6	2.2	12.8	15.1	11.3	0.0
	대학원 졸업	(10)	49.5	0.0	19.8	0.0	30.6	0.0

3-2)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방법

-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방법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73.9%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가족, 친지, 친구의 소개를 통해’31.7%, ‘일자리 관련 센터를 통해’30.6%, ‘학교, 학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정보를 통해’ 25.2% 순으로 응답하였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원도심의 경우 8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0~34세의 경우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가 12.1%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해’가 각각 64.7%, 8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가족, 친지, 친구의 소개를 통해가 38.9%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50〉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방법

〈표 2-2-65〉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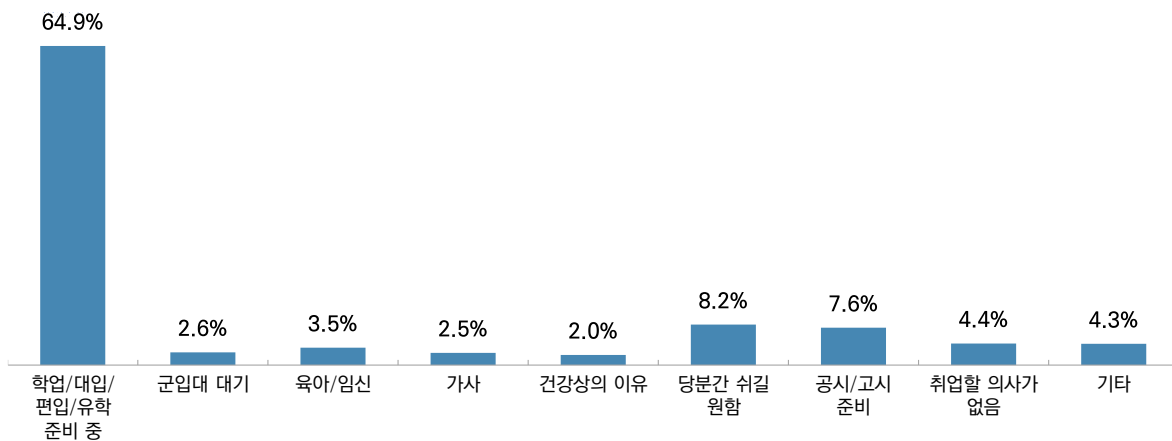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학교, 학원 제공 취업 정보를 통해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가족, 친지, 친구의 소개를 통해	일자리 관련 센터를 통해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전 일자리에 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기타
전체	계	(475)	25.2	14.4	31.7	30.6	4.2	5.1	73.9	14.3	6.2	1.6
거주지	동부산권	(135)	27.6	15.2	33.2	36.0	4.5	5.8	68.3	13.1	5.3	1.5
	서부산권	(116)	24.0	14.7	31.2	28.6	8.1	3.4	75.6	17.1	4.6	3.3
	중부산권	(148)	27.5	15.4	33.2	23.9	3.0	5.9	73.2	12.2	7.4	1.4
	원도심	(76)	18.4	10.5	26.6	36.8	0.0	5.3	82.9	16.4	7.9	0.0
취업여부	취업자	-	-	-	-	-	-	-	-	-	-	-
	미취업자	(475)	25.2	14.4	31.7	30.6	4.2	5.1	73.9	14.3	6.2	1.6
성별	남성	(222)	29.8	17.7	38.9	27.0	5.3	8.3	64.7	17.1	7.9	1.7
	여성	(253)	21.3	11.5	25.3	33.7	3.2	2.3	82.1	11.9	4.7	1.6
연령	18~24세	(299)	27.2	16.6	37.4	22.9	3.2	5.6	67.9	13.4	4.2	1.6
	25~29세	(122)	24.4	12.6	22.3	43.5	6.8	5.5	81.4	16.0	8.5	2.5
	30~34세	(54)	16.5	6.0	21.0	43.5	3.7	1.8	90.3	15.7	12.1	0.0
혼인상태	미혼	(459)	25.7	14.5	31.9	30.1	4.4	5.3	73.5	14.6	5.7	1.7
	기혼	(14)	14.1	14.1	29.4	36.8	0.0	0.0	85.0	7.1	14.1	0.0
	이혼·사별	(2)	0.0	0.0	0.0	100.0	0.0	0.0	100.0	0.0	5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	14.5	0.0	16.6	49.7	0.0	0.0	100.0	16.6	33.1	0.0
	자녀 없음	(469)	25.4	14.6	31.9	30.3	4.3	5.2	73.6	14.3	5.8	1.7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342)	27.2	13.2	33.8	28.3	5.3	6.3	74.2	13.8	4.9	1.4
	부모 미동거	(133)	20.2	17.4	26.1	36.3	1.5	2.1	73.4	15.5	9.6	2.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	29.9	0.0	29.9	48.2	0.0	10.0	80.1	0.0	10.0	0.0
	대학 재학	(317)	26.8	16.7	36.6	24.6	5.0	5.8	68.8	13.6	4.5	1.8
	대학 졸업	(137)	22.4	9.7	21.3	43.0	3.1	3.5	83.5	16.6	10.2	1.5
	대학원 졸업	(10)	9.9	19.8	19.8	29.7	0.0	0.0	100.0	19.8	0.0	0.0

4)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64.9%는 ‘학업/대입/편입/유학 준비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당분간 쉬길 원함’ 8.2%, ‘공시/고시 준비’ 7.6%, ‘취업할 의사가 없음’ 4.4%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69.4%가 ‘학업/대입/편입 등 준비중’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여성의 경우도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학업/대입/편입/유학 준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5~29세의 경우 ‘공시/고시 준비’가 25.7%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 졸업의 29.6%는 ‘공시/고시 준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재학 77.3% ‘학업/대입/편입 등 준비중’, 고졸이하 20.6% ‘당분간 쉬길 원함’이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2-51〉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표 2-2-66〉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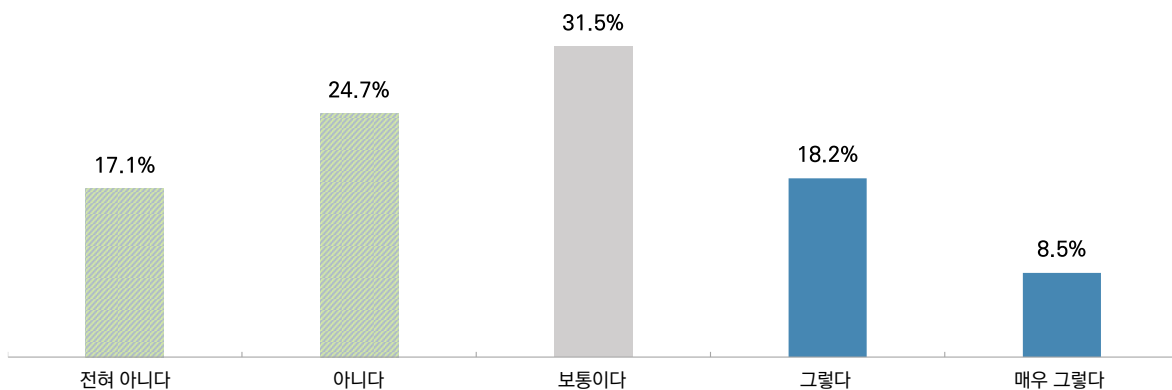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학업/대 입/편입/ 유학 준비 중	군입대 대기	육아/임 신	가사	건강상의 이유	당분간 쉬길 원함	공시/고 시 준비	취업할 의사가 없음	기타
전체	계	(1063)	64.9	2.6	3.5	2.5	2.0	8.2	7.6	4.4	4.3
거주지	동부산권	(324)	64.4	2.9	2.7	2.7	1.5	7.3	10.0	4.9	3.6
	서부산권	(286)	65.3	2.7	4.5	3.8	3.6	8.0	4.9	2.1	5.1
	중부산권	(314)	63.3	2.9	3.7	1.5	1.5	9.9	8.5	4.6	4.1
	원도심	(140)	68.8	1.1	3.2	1.4	1.4	7.0	5.4	7.3	4.5
	원도심 외	(140)	68.8	1.1	3.2	1.4	1.4	7.0	5.4	7.3	4.5
취업여부	취업자	-	-	-	-	-	-	-	-	-	-
	미취업자	(1063)	64.9	2.6	3.5	2.5	2.0	8.2	7.6	4.4	4.3
성별	남성	(556)	69.4	4.8	0.8	0.7	1.1	7.0	8.2	4.3	3.7
	여성	(508)	59.9	0.2	6.6	4.4	3.1	9.5	7.0	4.5	4.9
연령	18~24세	(764)	77.7	3.3	0.1	0.3	1.4	7.1	1.9	4.7	3.5
	25~29세	(187)	45.9	1.2	3.2	3.7	1.5	10.3	25.7	3.2	5.4
	30~34세	(112)	9.3	0.0	27.3	15.3	7.1	12.3	16.2	4.4	8.2
혼인상태	미혼	(989)	69.6	2.8	0.3	0.3	1.8	8.3	8.1	4.3	4.5
	기혼	(74)	2.7	0.0	46.5	31.8	5.4	5.4	1.4	5.3	1.5
	이혼·사별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54)	0.0	0.0	62.1	22.9	1.8	5.5	1.8	3.7	2.0
	자녀 없음	(1009)	68.4	2.7	0.4	1.4	2.1	8.3	7.9	4.4	4.4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36)	70.5	2.7	0.4	0.3	2.0	7.6	7.8	4.2	4.3
	부모 미동거	(328)	52.2	2.2	10.5	7.3	2.1	9.5	7.1	4.8	4.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	13.5	11.2	0.0	6.2	6.7	20.6	13.5	0.0	28.3
	대학 재학	(849)	77.3	2.9	1.2	0.5	1.3	6.9	2.4	4.2	3.3
	대학 졸업	(195)	16.2	0.5	13.7	11.0	4.5	13.1	29.6	5.1	6.3
	대학원 졸업	(5)	0.0	0.0	21.1	0.0	21.1	0.0	15.8	21.1	21.1

5) 미래에 언젠가 창업할 의사

- 미래에 언젠가 창업할 의사에 대하여 미취업자의 41.8%는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보통’ 31.5%, ‘그렇다’ 26.7%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아니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아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0~34세의 경우 ‘그렇다’가 32.6%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아니다’가 각각 42.5%, 40.4%, 42.2%, 41.8%로 높게 나타났으나 서부산권의 경우 ‘그렇다’가 31.5%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52〉 미래에 언젠가 창업할 의사

〈표 2-2-67〉 미래에 언젠가 창업할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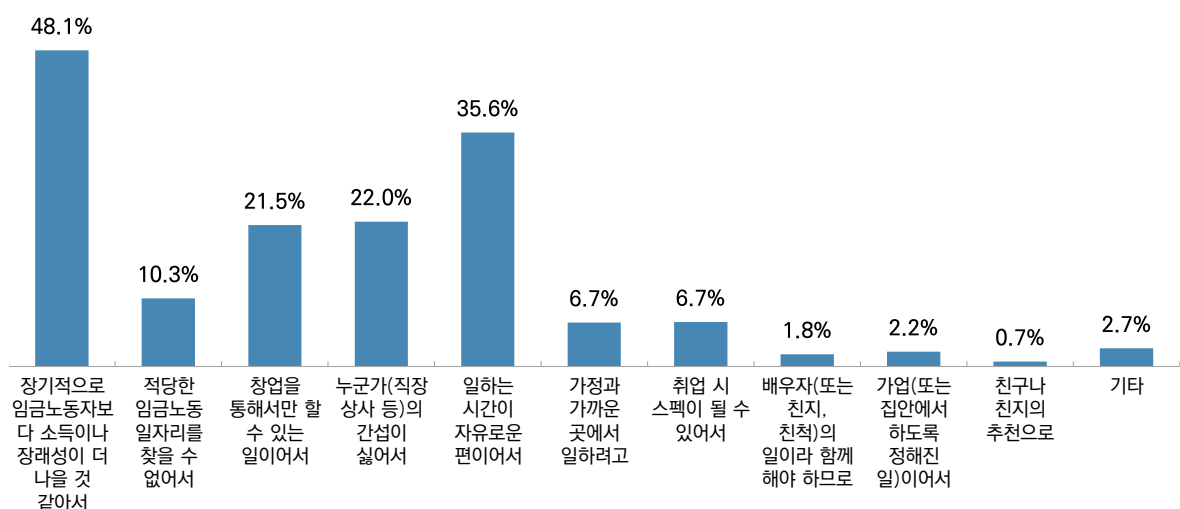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평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전체	계	(1539)	17.1	24.7	31.5	18.2	8.5	41.8	31.5	26.7
거주지	동부산권	(459)	18.0	24.5	33.7	15.7	8.1	42.5	33.7	23.8
	서부산권	(402)	14.9	25.5	28.1	21.8	9.7	40.4	28.1	31.5
	중부산권	(462)	17.7	24.5	33.7	15.5	8.5	42.2	33.7	24.1
	원도심	(216)	17.8	24.0	28.6	22.2	7.4	41.8	28.6	29.6
취업여부	취업자	-	-	-	-	-	-	-	-	-
	미취업자	(1539)	17.1	24.7	31.5	18.2	8.5	41.8	31.5	26.7
성별	남성	(778)	15.0	24.5	33.8	16.6	10.1	39.5	33.8	26.7
	여성	(760)	19.1	25.0	29.2	19.8	6.9	44.1	29.2	26.7
연령	18~24세	(1063)	15.3	25.6	33.3	17.6	8.3	40.8	33.3	25.9
	25~29세	(309)	22.0	25.1	26.4	17.1	9.4	47.1	26.4	26.5
	30~34세	(166)	19.3	18.6	29.5	23.7	8.9	37.9	29.5	32.6
혼인상태	미혼	(1448)	16.5	25.2	31.8	17.9	8.6	41.7	31.8	26.5
	기혼	(88)	27.1	17.9	25.7	21.1	8.2	45.0	25.7	29.3
	이혼·사별	(3)	0.0	0.0	66.0	34.0	0.0	0.0	66.0	34.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0)	22.3	18.5	27.4	23.0	8.7	40.8	27.4	31.8
	자녀 없음	(1478)	16.8	25.0	31.7	18.0	8.5	41.8	31.7	26.5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077)	16.3	25.8	32.0	17.9	7.9	42.1	32.0	25.9
	부모 미동거	(461)	18.8	22.1	30.5	18.7	10.0	40.9	30.5	28.6
최종학력	고졸 이하	(25)	20.1	37.1	26.8	16.0	0.0	57.2	26.8	16.0
	대학 재학	(1167)	14.8	25.4	33.0	18.4	8.5	40.2	33.0	26.9
	대학 졸업	(332)	25.7	21.4	25.9	17.8	9.2	47.1	25.9	27.0
	대학원 졸업	(15)	0.0	20.8	53.9	13.5	11.8	20.8	53.9	25.3

5-1)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48.1%는 ‘소득과 장래성이 나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35.6%, ‘누군가의 간섭이 싫어서’ 22.0%, ‘창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21.5%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소득이나 장래성이 더 나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가 43.2%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43.9%, 25~29세 57.2%, 30~34세 55.6%로 ‘소득이나 장래성이 더 나을 것 같아서’가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소득이나 장래성이 더 나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으며 대학 졸업의 경우 48.7%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라고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53〉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표 2-2-68〉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수	장기적으로 임금노동자보 다 소득이나 장래성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적당한 임금노동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창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누군가(직장 상사 등)의 간섭이 싫어서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
전체	계	(411)	48.1	10.3	21.5	22.0	35.6	6.7
거주지	동부산권	(109)	46.6	4.4	28.5	17.5	27.7	10.2
	서부산권	(127)	44.1	16.3	17.2	21.4	40.6	5.7
	중부산권	(111)	48.9	9.3	22.0	24.9	37.4	5.4
	원도심	(64)	57.0	10.5	17.2	26.2	35.9	4.7
취업여부	취업자	-	-	-	-	-	-	-
	미취업자	(411)	48.1	10.3	21.5	22.0	35.6	6.7
성별	남성	(208)	51.1	8.3	25.8	19.7	28.1	8.3
	여성	(203)	45.0	12.4	17.1	24.4	43.2	5.0
연령	18~24세	(275)	43.9	7.9	24.0	24.5	32.1	6.6
	25~29세	(82)	57.2	11.2	17.3	21.0	43.1	6.1
	30~34세	(54)	55.6	21.7	15.1	11.1	41.7	7.8
혼인상태	미혼	(384)	47.9	10.6	22.4	23.1	34.5	5.8
	기혼	(26)	48.1	6.8	9.0	7.7	52.6	20.3
	이혼·사별	(1)	100.0	0.0	0.0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9)	61.1	10.5	12.2	5.2	45.8	17.0
	자녀 없음	(392)	47.4	10.3	21.9	22.9	35.1	6.2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279)	45.3	9.7	22.4	23.4	36.9	6.3
	부모 미동거	(132)	54.0	11.8	19.7	19.3	32.8	7.5
최종학력	고졸 이하	(4)	72.0	0.0	0.0	53.2	28.0	0.0
	대학 재학	(313)	46.7	8.8	23.3	22.1	32.0	6.8
	대학 졸업	(90)	52.9	14.2	15.9	21.2	48.7	7.0
	대학원 졸업	(4)	20.0	53.3	26.7	0.0	26.7	0.0

〈표 2-2-69〉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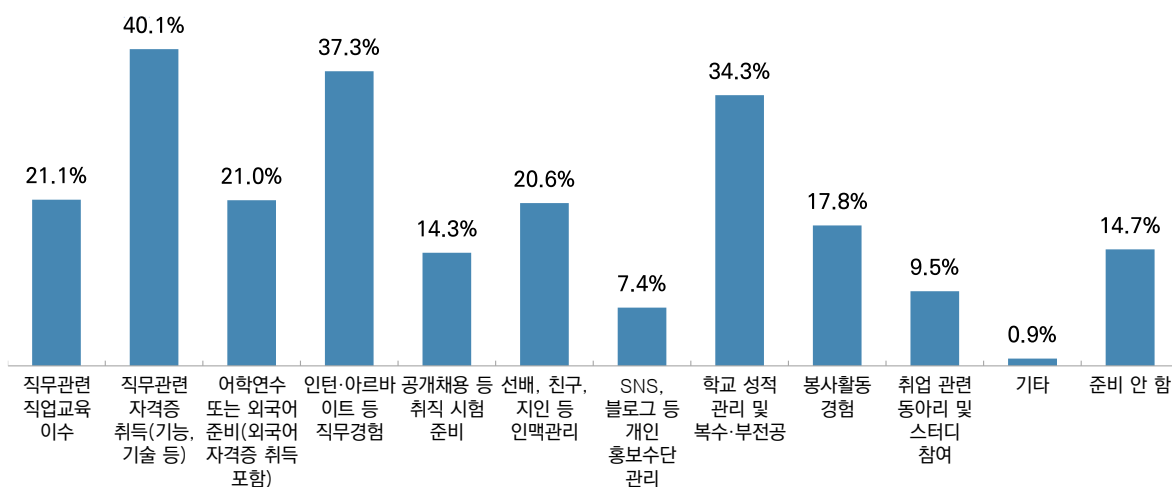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취업 시 스펙이 될 수 있어서	배우자(또는 친지, 친척)의 일이라 함께 해야 하므로	가업(또는 집안에서 하도록 정해진 일)이어서	친구나 친지의 추천으로	기타
전체	계	(411)	6.7	1.8	2.2	0.7	2.7
거주지	동부산권	(109)	8.5	3.6	0.9	1.8	2.8
	서부산권	(127)	9.0	1.4	0.8	0.0	3.4
	중부산권	(111)	5.7	0.7	4.6	0.0	2.7
	원도심	(64)	1.2	1.6	3.1	1.6	1.6
취업여부	취업자	-	-	-	-	-	-
	미취업자	(411)	6.7	1.8	2.2	0.7	2.7
성별	남성	(208)	7.7	2.8	3.4	0.5	2.6
	여성	(203)	5.8	0.9	1.0	0.9	2.9
연령	18~24세	(275)	8.2	2.8	1.1	0.0	1.8
	25~29세	(82)	6.3	0.0	5.2	1.2	6.4
	30~34세	(54)	0.0	0.0	3.7	3.7	2.1
혼인상태	미혼	(384)	7.2	2.0	1.9	0.6	2.4
	기혼	(26)	0.0	0.0	3.9	3.3	7.9
	이혼·사별	(1)	0.0	0.0	10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9)	0.0	0.0	5.2	4.5	0.0
	자녀 없음	(392)	7.1	1.9	2.1	0.5	2.9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279)	8.3	2.7	1.5	0.0	1.4
	부모 미동거	(132)	3.4	0.0	3.7	2.3	5.5
최종학력	고졸 이하	(4)	0.0	0.0	0.0	0.0	0.0
	대학 재학	(313)	8.5	2.4	2.0	0.0	2.3
	대학 졸업	(90)	1.2	0.0	3.3	3.3	4.5
	대학원 졸업	(4)	0.0	0.0	0.0	0.0	0.0

6) 취업을 위해 준비했거나 하고 있는 사항

- 취업을 위해 준비했거나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40.1%는 직무관련 자격증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37.3%, ‘학교성적 관리 및 복수전공’ 34.3%, ‘직무관련 직업교육 이수’ 21.1%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36.3%가 ‘직무관련 자격증’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경우 44.0%가 ‘직무관련 자격증’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38.6%는 ‘학교 성적관리’가 높게 나타났고, 25~29세, 30~34세는 ‘직무관련 자격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직무관련 자격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학재학의 경우 ‘학교 성적관리’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2-54〉 취업을 위해 준비했거나 하고 있는 사항

〈표 2-2-70〉 취업을 위해 준비했거나 하고 있는 사항

(단위 : %)

구분		사례수	직무관련 직업교육 이수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기능, 기술 등)	어학연수 또는 외국어 준비(외국어 자격증 취득 포함)	인턴·아르바 이트 등 직무경험	공개채용 등 취직 시험 준비	선배, 친구, 지인 등 인맥관리
전체	계	(1539)	21.1	40.1	21.0	37.3	14.3	20.6
거주지	동부산권	(459)	20.1	39.9	24.2	36.6	13.3	19.0
	서부산권	(402)	21.8	39.4	15.7	37.9	15.0	22.9
	중부산권	(462)	20.0	40.9	21.8	39.8	15.3	21.8
	원도심	(216)	23.8	40.4	22.2	32.8	13.0	17.4
취업여부	취업자	-	-	-	-	-	-	-
	미취업자	(1539)	21.1	40.1	21.0	37.3	14.3	20.6
성별	남성	(778)	20.4	36.3	19.7	33.6	15.7	23.0
	여성	(760)	21.8	44.0	22.3	41.2	12.9	18.2
연령	18~24세	(1063)	18.0	36.2	18.7	37.2	7.8	21.2
	25~29세	(309)	29.1	49.5	28.1	40.7	30.9	19.3
	30~34세	(166)	25.9	47.6	22.1	31.6	25.0	19.1
혼인상태	미혼	(1448)	20.7	40.1	21.9	38.0	14.6	21.1
	기혼	(88)	25.4	39.2	6.1	25.5	8.5	11.5
	이혼·사별	(3)	68.1	68.1	34.0	68.1	34.0	34.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0)	30.2	45.6	8.7	27.7	14.2	8.3
	자녀 없음	(1478)	20.7	39.9	21.5	37.7	14.3	21.1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077)	19.9	39.0	22.1	37.9	14.2	19.7
	부모 미동거	(461)	23.7	42.7	18.4	35.9	14.6	22.6
최종학력	고졸 이하	(25)	30.7	63.9	41.8	36.3	24.9	8.0
	대학 재학	(1167)	19.3	37.1	19.2	37.0	9.1	21.1
	대학 졸업	(332)	25.7	46.6	24.4	37.4	31.2	19.2
	대학원 졸업	(15)	41.0	93.3	46.1	66.3	32.0	38.7

〈표 2-2-71〉 취업을 위해 준비했거나 하고 있는 사항

(단위 : %)

구분		사례수	SNS, 블로그 등 개인 홍보수단 관리	학교 성적 관리 및 복수·부전공	봉사활동 경험	취업 관련 동아리 및 스터디 참여	기타	준비 안 함
전체	계	(1539)	7.4	34.3	17.8	9.5	0.9	14.7
거주지	동부산권	(459)	7.7	35.7	15.8	9.8	0.6	14.2
	서부산권	(402)	7.7	34.7	16.8	8.6	1.3	14.4
	중부산권	(462)	7.6	33.2	19.6	9.4	0.9	14.1
	원도심	(216)	5.7	33.0	20.0	10.5	0.9	18.1
취업여부	취업자	-	-	-	-	-	-	-
	미취업자	(1539)	7.4	34.3	17.8	9.5	0.9	14.7
성별	남성	(778)	6.3	31.9	13.5	8.5	1.2	16.4
	여성	(760)	8.5	36.7	22.2	10.5	0.6	13.0
연령	18~24세	(1063)	6.4	38.6	19.7	8.9	0.6	15.2
	25~29세	(309)	9.7	29.3	13.8	11.1	0.3	10.4
	30~34세	(166)	9.0	15.7	12.9	10.2	3.7	20.2
혼인상태	미혼	(1448)	7.4	35.7	18.3	9.8	1.0	13.4
	기혼	(88)	7.6	12.3	9.4	4.7	0.0	36.9
	이혼·사별	(3)	0.0	0.0	34.0	0.0	0.0	31.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0)	6.3	9.8	13.7	5.2	0.0	34.7
	자녀 없음	(1478)	7.4	35.3	18.0	9.6	0.9	13.9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077)	7.0	36.4	18.6	9.5	0.9	13.9
	부모 미동거	(461)	8.2	29.4	15.9	9.4	1.0	16.7
최종학력	고졸 이하	(25)	3.7	25.5	9.4	13.4	8.8	12.3
	대학 재학	(1167)	6.6	38.1	19.0	8.7	0.6	14.1
	대학 졸업	(332)	10.2	20.8	13.4	10.7	1.4	17.7
	대학원 졸업	(15)	14.1	52.8	38.7	32.0	0.0	0.0

제3절 경제활동(소득, 자산, 부채, 생활비)

1. (개인) 경제활동

1) 월평균 소득

- 월평균 소득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평균소득은 노동소득 143.2만 원, 사업소득 16.1만 원, 사적 이전소득 11.4만 원, 재산소득 6.8만 원 순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277만원, 미취업자는 57만원으로 나타남
 - 재산소득은 남성이 18.9만 원으로 여성보다 5.8만 원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노동소득에서 18~24세는 44.7만 원으로 나타났고, 25~29세 196.2만 원, 30~34세는 212.4만 원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동소득에서 중부산권 156.2만 원, 서부산권 141.7만 원, 동부산권 135.4만 원, 원도심 133.3만 원 순으로 나타남

(단위 : 만원)



〈그림 2-3-1〉 월 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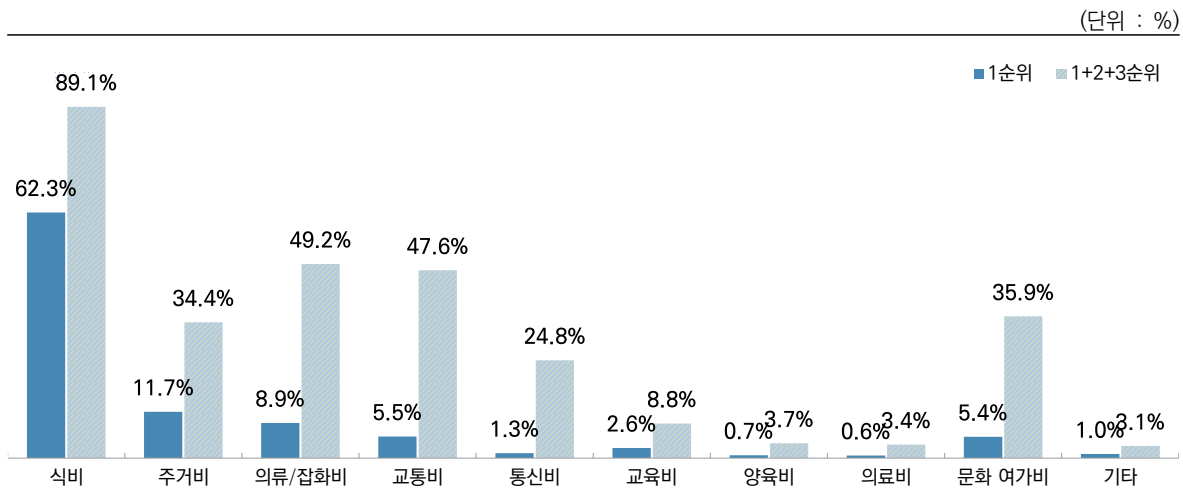
〈표 2-3-1〉 월 평균 소득

(단위 : 만원)

구분		노동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계
전체	계	143.2	16.1	6.8	11.4	177.5
거주지	동부산권	135.4	15.6	4.4	10.0	165.4
	서부산권	141.7	15.1	9.5	12.2	178.5
	중부산권	156.2	17.3	8.2	12.5	194.2
	원도심	133.3	16.4	3.4	10.3	163.4
취업여부	취업자	233.9	29.4	10.8	3.1	277.2
	미취업자	57.1	3.5	3.0	19.2	82.8
성별	남성	147.2	18.9	6.7	12.3	185.1
	여성	138.9	13.1	6.9	10.4	169.3
연령	18~24세	44.7	5.6	4.9	20.1	75.3
	25~29세	196.2	13.9	4.4	7.3	221.8
	30~34세	212.4	32.4	12.0	4.7	261.5
혼인상태	미혼	134.2	13.9	5.1	12.3	165.5
	기혼	215.0	32.8	15.0	4.7	267.5
	이혼·사별	152.3	47.0	203.1	0.0	402.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93.7	36.6	40.3	5.3	275.9
	자녀 없음	140.3	14.9	4.9	11.8	171.9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24.5	11.4	6.3	12.4	154.6
	부모 미동거	175.4	24.1	7.6	9.6	216.7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8	33.7	20.1	5.6	278.2
	대학 재학	44.8	5.0	5.1	21.2	76.1
	대학 졸업	206.4	21.6	6.6	4.8	239.4
	대학원 졸업	216.3	34.4	7.8	5.7	264.2

2) 생활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높은 항목

- 생활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62.3%는 ‘식비’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주거비’ 11.7%, ‘의류/잡화비’ 8.9%, ‘교통비’ 5.5%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62.0%가 ‘식비’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62.6%가 ‘식비’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67.3%가 ‘식비’라고 응답하였고, 25~29세 61.5% ‘식비’, 30~34세 56.6% ‘식비’라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57.3%는 ‘식비’라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67.0%는 ‘식비’라고 응답하였음



〈그림 2-3-2〉 생활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높은 항목

〈표 2-3-2〉 생활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높은 항목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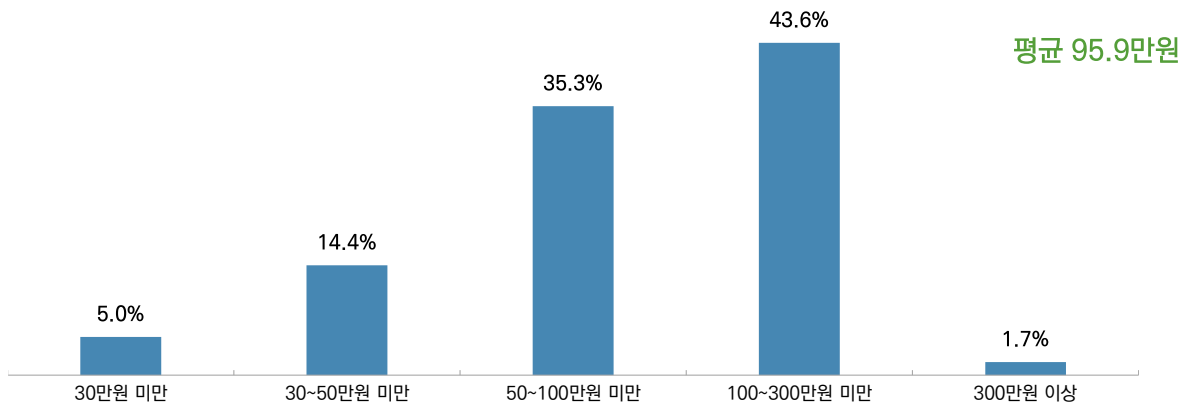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식비	주거비	의류/잡 화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	문화 여가비	기타
전체	계	(3000)	62.3	11.7	8.9	5.5	1.3	2.6	0.7	0.6	5.4	1.0
거주지	동부산권	(872)	63.3	8.1	9.8	6.2	0.8	2.6	0.5	0.5	6.7	1.3
	서부산권	(787)	59.7	11.8	9.3	6.0	2.0	2.5	1.5	1.2	5.2	1.0
	중부산권	(932)	61.5	15.1	8.3	5.2	1.0	2.5	0.6	0.3	4.5	0.8
	원도심	(409)	66.8	11.6	7.5	3.5	1.3	2.7	0.0	0.7	4.9	0.9
취업여부	취업자	(1461)	57.3	16.8	10.2	5.8	1.3	1.0	0.8	0.4	5.2	1.2
	미취업자	(1539)	67.0	6.9	7.6	5.2	1.2	4.1	0.6	0.9	5.6	0.9
성별	남성	(1548)	62.0	10.8	7.7	7.2	1.4	2.4	0.5	0.4	6.5	1.0
	여성	(1452)	62.6	12.8	10.1	3.6	1.1	2.7	0.9	0.9	4.2	1.0
연령	18~24세	(1142)	67.3	5.8	8.6	5.6	1.2	3.5	0.1	0.4	6.6	0.8
	25~29세	(987)	61.5	13.1	10.0	5.2	1.7	2.2	0.2	0.7	4.4	1.0
	30~34세	(871)	56.6	18.1	8.0	5.7	0.8	1.7	2.2	0.8	4.9	1.3
혼인상태	미혼	(2659)	61.9	10.9	9.6	5.7	1.4	2.8	0.1	0.7	6.0	1.0
	기혼	(332)	65.9	18.3	3.5	4.3	0.0	0.3	6.0	0.6	0.3	0.9
	이혼·사별	(10)	42.2	27.3	10.2	0.0	0.0	10.2	0.0	0.0	10.2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59.1	21.1	3.6	1.2	0.0	1.2	12.0	0.0	0.6	1.2
	자녀 없음	(2835)	62.5	11.2	9.2	5.7	1.3	2.6	0.1	0.7	5.7	1.0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62.1	4.6	12.2	7.1	1.7	3.2	0.2	0.7	7.1	1.1
	부모 미동거	(1103)	62.6	24.0	3.2	2.7	0.5	1.4	1.6	0.6	2.5	0.9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62.3	17.3	8.4	3.6	1.8	1.1	0.6	0.0	4.8	0.0
	대학 재학	(1192)	68.2	6.0	7.8	5.5	1.1	3.6	0.3	0.3	6.4	0.8
	대학 졸업	(1539)	58.4	15.1	9.8	5.8	1.4	1.7	0.9	1.0	4.6	1.3
	대학원 졸업	(101)	52.4	19.4	9.6	4.0	0.0	4.9	3.0	0.0	6.8	0.0

3) 월평균 지출

- 월평균 지출에 대하여 ‘100~300만 원’ 43.6%, ‘50~100만 원 미만’ 35.3%, ‘30~50만 원’ 14.4%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평균 금액은 95.9만 원으로 조사 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42.8%가 ‘100~3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44.4%가 ‘100~3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43.6%가 ‘50~1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25~29세의 57.1%가 ‘100~300만 원 미만’, 30~34세의 60.9%가 ‘100~3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66.8%는 ‘100~3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43.0%는 ‘50~1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만원)



〈그림 2-3-3〉 월평균 지출

〈표 2-3-3〉 월평균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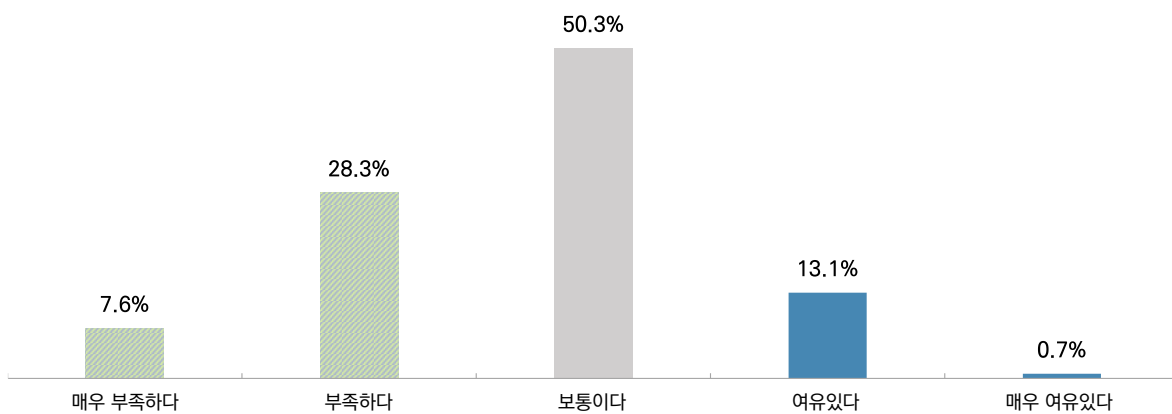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30미만	30~50미만	50~100미만	100~300 미만	300이상	평균
전체	계	(3000)	5.0	14.4	35.3	43.6	1.7	95.9
거주지	동부산권	(872)	6.3	16.3	36.9	38.9	1.7	92.0
	서부산권	(787)	5.1	14.3	36.5	43.0	1.2	93.7
	중부산권	(932)	3.8	12.0	34.8	47.6	1.8	100.4
	원도심	(409)	5.1	16.3	30.6	45.4	2.6	98.3
취업여부	취업자	(1461)	0.7	3.0	27.2	66.8	2.3	123.6
	미취업자	(1539)	9.2	25.3	43.0	21.4	1.1	69.6
성별	남성	(1548)	5.8	14.6	35.1	42.8	1.7	96.2
	여성	(1452)	4.2	14.2	35.5	44.4	1.7	95.5
연령	18~24세	(1142)	9.9	27.3	43.6	18.6	0.7	65.0
	25~29세	(987)	2.5	7.4	32.5	57.1	0.5	104.4
	30~34세	(871)	1.6	5.5	27.6	60.9	4.4	126.8
혼인상태	미혼	(2659)	5.5	15.7	37.4	40.8	0.6	88.1
	기혼	(332)	1.3	4.6	19.4	64.7	10.0	156.6
	이혼·사별	(10)	0.0	0.0	12.7	77.1	10.2	167.5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2.7	7.9	17.8	59.2	12.4	158.8
	자녀 없음	(2835)	5.2	14.8	36.3	42.7	1.1	92.2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7.0	18.3	40.0	34.1	0.6	81.1
	부모 미동거	(1103)	1.7	7.8	27.2	59.8	3.6	121.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3.0	4.8	25.2	62.9	4.1	127.3
	대학 재학	(1192)	9.9	27.4	43.3	18.4	1.1	66.3
	대학 졸업	(1539)	1.7	6.0	30.9	59.5	1.9	113.5
	대학원 졸업	(101)	3.1	4.9	24.5	65.6	1.8	125.0

4) 한 달 생활비 수준

- 한 달 생활비 수준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50.3%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부족하다’ 35.9%, ‘여유 있다’ 13.8%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51.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48.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8~24세 경우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동부산권 51.2%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서부산권의 47.5%가 ‘보통’, 중부산권의 50.7%가 ‘보통’, 원도심의 53.1%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3-4〉 한 달 생활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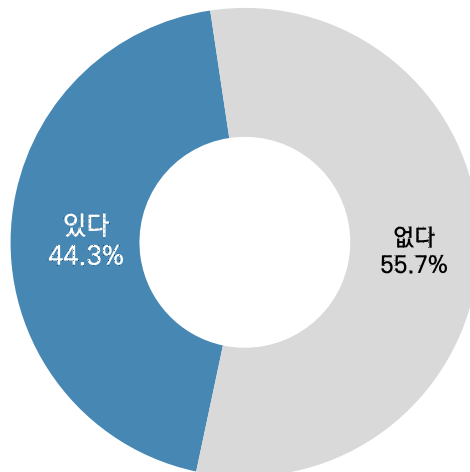
〈표 2-3-4〉 한 달 생활비 수준

구분		사례수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여유있다	매우 여유있다	(단위 : %) 종합평가		
								부족하다	보통	여유있다
전체	계	(3000)	7.6	28.3	50.3	13.1	0.7	35.9	50.3	13.8
거주지	동부산권	(872)	6.9	27.8	51.2	13.4	0.7	34.7	51.2	14.1
	서부산권	(787)	8.4	29.1	47.5	14.3	0.7	37.5	47.5	15.0
	중부산권	(932)	6.3	28.9	50.7	13.5	0.7	35.2	50.7	14.2
	원도심	(409)	10.8	26.3	53.1	9.2	0.6	37.1	53.1	9.8
취업여부	취업자	(1461)	7.1	26.0	51.3	15.3	0.3	33.1	51.3	15.6
	미취업자	(1539)	8.2	30.4	49.4	10.9	1.1	38.6	49.4	12.0
성별	남성	(1548)	6.0	25.9	51.8	15.4	0.9	31.9	51.8	16.3
	여성	(1452)	9.4	30.8	48.8	10.5	0.5	40.2	48.8	11.0
연령	18~24세	(1142)	6.5	27.8	51.5	12.8	1.5	34.2	51.5	14.3
	25~29세	(987)	7.2	29.6	49.0	13.9	0.3	36.8	49.0	14.2
	30~34세	(871)	9.6	27.5	50.4	12.4	0.1	37.1	50.4	12.5
혼인상태	미혼	(2659)	7.3	29.0	49.4	13.5	0.8	36.4	49.4	14.3
	기혼	(332)	9.0	22.4	58.5	9.8	0.3	31.4	58.5	10.1
	이혼·사별	(10)	49.2	20.3	30.5	0.0	0.0	69.5	30.5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12.7	24.6	58.7	4.0	0.0	37.3	58.7	4.0
	자녀 없음	(2835)	7.3	28.5	49.8	13.6	0.7	35.8	49.8	14.3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6.6	26.8	51.0	14.8	0.9	33.3	51.0	15.7
	부모 미동거	(1103)	9.5	30.9	49.1	10.1	0.4	40.4	49.1	10.5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11.6	27.3	49.4	11.7	0.0	38.9	49.4	11.7
	대학 재학	(1192)	7.1	28.8	49.8	12.9	1.4	35.9	49.8	14.4
	대학 졸업	(1539)	7.5	27.5	51.9	12.9	0.3	34.9	51.9	13.1
	대학원 졸업	(101)	9.8	36.0	34.2	20.0	0.0	45.9	34.2	20.0

5) 지난 1년간 생활비 부족 경험

- 지난 1년간 생활비 부족 경험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55.7%는 ‘없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있음’ 44.3%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59.5%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51.6%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52.2%가 ‘있음’이라고 응답하였고, 25~29세의 59.8%는 ‘없음’, 30~34세의 61.3%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65.9%는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54.1%는 ‘있음’이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3-5〉 지난 1년간 생활비 부족 경험

〈표 2-3-5〉 지난 1년간 생활비 부족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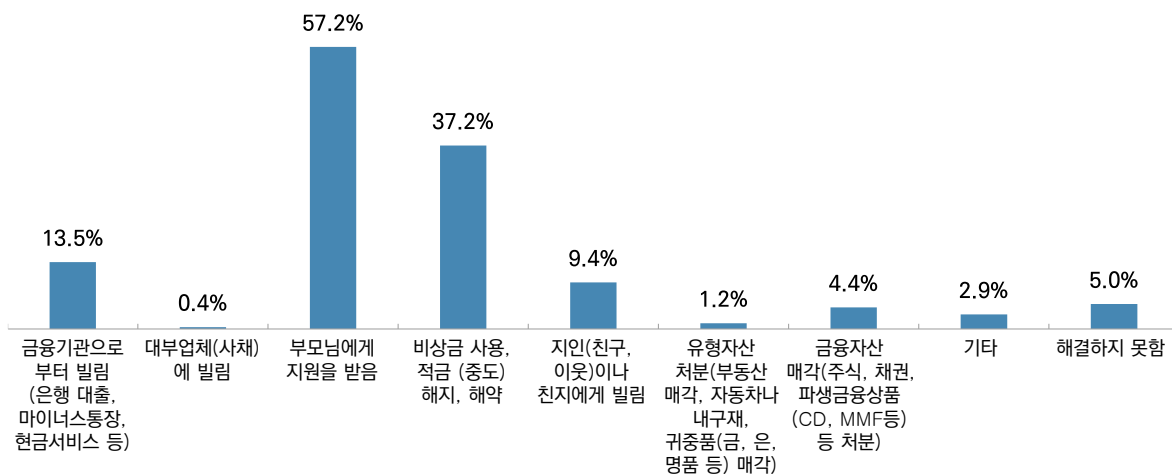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계	(3000)	44.3	55.7
거주지	동부산권	(872)	41.3	58.7
	서부산권	(787)	45.6	54.4
	중부산권	(932)	43.6	56.4
	원도심	(409)	49.9	50.1
취업여부	취업자	(1461)	34.1	65.9
	미취업자	(1539)	54.1	45.9
성별	남성	(1548)	40.5	59.5
	여성	(1452)	48.4	51.6
연령	18~24세	(1142)	52.2	47.8
	25~29세	(987)	40.2	59.8
	30~34세	(871)	38.7	61.3
혼인상태	미혼	(2659)	45.8	54.2
	기혼	(332)	32.3	67.7
	이혼·사별	(10)	49.2	50.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37.1	62.9
	자녀 없음	(2835)	44.8	55.2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41.8	58.2
	부모 미동거	(1103)	48.7	51.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36.3	63.7
	대학 재학	(1192)	53.8	46.2
	대학 졸업	(1539)	37.5	62.5
	대학원 졸업	(101)	50.2	49.8

5-1) 지난 1년간 생활비 부족 시 해결 방식

- 지난 1년간 생활비 부족 시 해결 방식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57.2%는 ‘부모님에게 지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비상금사용’ 37.2%,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 13.5%, ‘지인이나 친지에게 빌림’ 9.4%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비상금 사용에서 남성의 26.8%가 응답하였고, 여성의 46.6%가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74.9%가 ‘부모님의 지원’이라고 응답하였고, 25~29세의 53.6%가 ‘부모님의 지원’, 30~34세의 54.9%가 ‘비상금 사용’이라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53.2%는 ‘비상금 사용’이라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71.7%는 ‘부모님 지원’이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3-6〉 지난 1년간 생활비 부족 시 해결 방식

〈표 2-3-6〉 지난 1년간 생활비 부족 시 해결 방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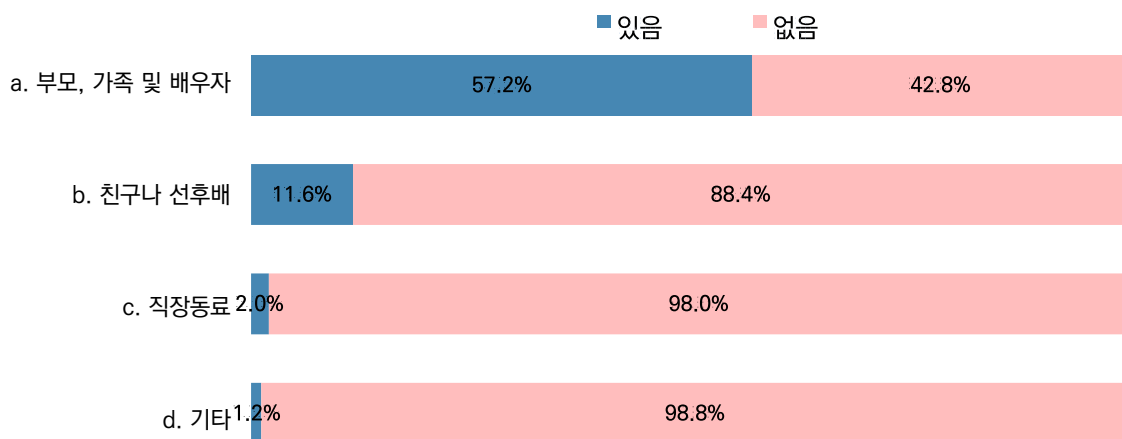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금융기관 으로부터 빌림	대부업체 (사채)에 빌림	부모님에 게 지원을 받음	비상금 사용, 적금 (중도)해 지, 해약	지인이나 친지에게 빌림	유형자산 처분	금융자산 매각)	기타	해결하지 못함
전체	계	(1330)	13.5	0.4	57.2	37.2	9.4	1.2	4.4	2.9	5.0
거주지	동부산권	(360)	11.2	0.3	58.6	38.3	9.2	1.4	4.0	3.5	5.2
	서부산권	(359)	13.6	0.3	56.4	40.8	10.2	1.3	3.9	3.0	4.1
	중부산권	(407)	15.0	0.2	55.9	36.4	7.8	1.0	5.5	2.7	5.8
	원도심	(204)	14.6	1.0	58.8	30.6	11.8	0.9	3.7	2.2	4.9
취업여부	취업자	(498)	22.9	0.2	33.1	53.2	8.5	2.0	6.9	2.1	5.1
	미취업자	(832)	8.0	0.5	71.7	27.7	9.9	0.7	2.8	3.4	5.0
성별	남성	(628)	16.0	0.5	59.0	26.8	10.0	0.6	5.6	3.2	7.4
	여성	(702)	11.4	0.3	55.6	46.6	8.9	1.6	3.2	2.7	2.9
연령	18~24세	(596)	5.6	0.5	74.9	24.4	11.2	0.5	1.6	3.3	5.3
	25~29세	(397)	16.1	0.3	53.6	41.5	8.7	0.8	5.3	3.4	4.8
	30~34세	(337)	24.6	0.3	30.2	54.9	7.1	2.8	8.1	1.8	4.8
혼인상태	미혼	(1218)	12.0	0.4	60.0	35.5	9.9	1.0	4.2	3.1	5.2
	기혼	(107)	29.3	0.0	25.7	56.9	3.7	3.2	6.2	0.9	2.8
	이혼·사별	(5)	41.3	0.0	39.4	41.3	0.0	0.0	0.0	0.0	19.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1)	25.3	0.0	25.2	58.1	3.3	1.6	4.3	1.6	5.3
	자녀 없음	(1269)	13.0	0.4	58.7	36.2	9.7	1.1	4.4	3.0	5.0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93)	8.8	0.3	63.5	33.5	9.5	1.0	4.0	3.0	5.6
	부모 미동거	(537)	20.5	0.6	47.9	42.7	9.3	1.4	4.9	2.8	4.2
최종학력	고졸 이하	(61)	34.9	0.0	38.4	35.7	11.3	0.0	3.5	0.0	7.8
	대학 재학	(641)	6.6	0.6	74.1	24.3	11.8	0.4	2.6	2.9	5.3
	대학 졸업	(577)	18.6	0.2	42.5	49.7	6.9	2.2	6.4	3.2	4.3
	대학원 졸업	(51)	17.6	0.0	33.7	60.9	5.9	0.0	3.9	3.9	5.9

6)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은 경험

○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 부모, 가족 및 배우자의 경우 ‘있음’ 57.2%, ‘없음’ 42.8%로 나타났으며, 친구나 선후배 ‘없음’ 88.4% ‘있음’ 11.6%, 직장동료 ‘없음’ 98.0%, ‘있음’ 2.0%, 기타 ‘없음’ 98.8% ‘있음’ 1.2%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부모, 가족 및 배우자의 경우 남성의 55.5%가 ‘있음’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59.0%가 ‘있음’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친구나 선후배의 경우 18~24세의 82.9%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25~29세의 90.7%가 ‘없음’, 30~34세의 92.9%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부모,가족 및 배우자의 경우 취업자의 61.2%는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74.6%는 ‘있음’이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3-7〉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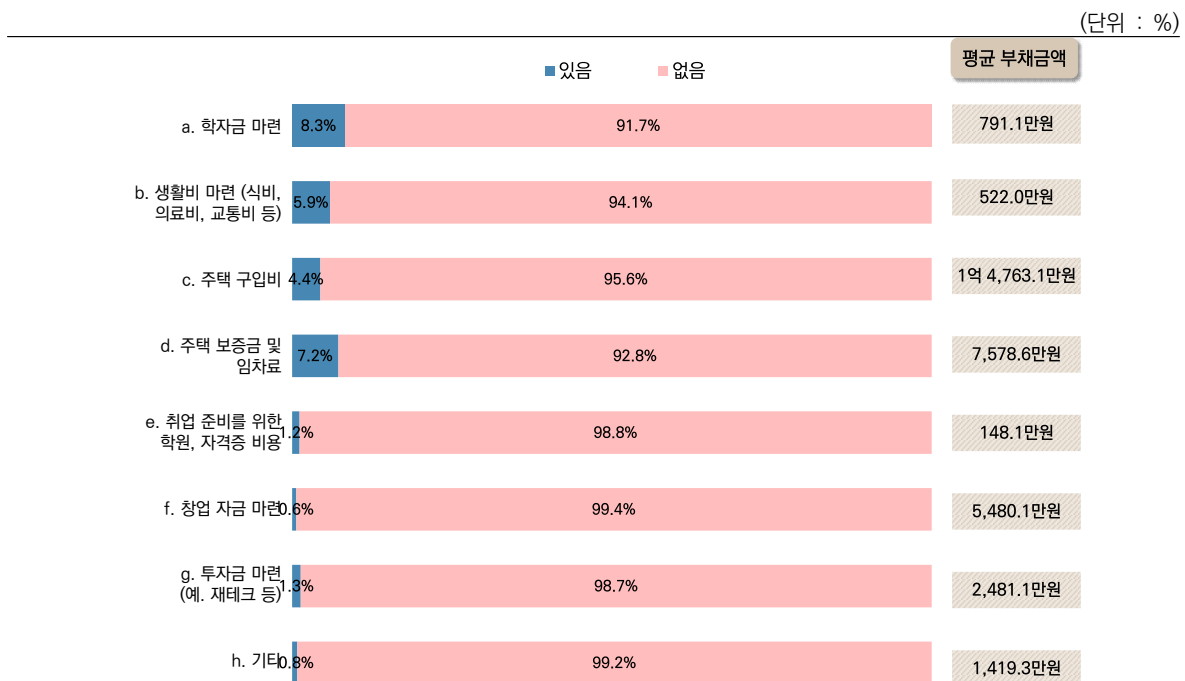
〈표 2-3-7〉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은 경험

(단위 : %)

구분		사례수	부모, 가족 및 배우자		친구나 선후배		직장동료		기타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계	(3000)	57.2	42.8	11.6	88.4	2.0	98.0	1.2	98.8
거주지	동부산권	(872)	58.1	41.9	11.1	88.9	1.5	98.5	1.0	99.0
	서부산권	(787)	58.4	41.6	13.2	86.8	2.6	97.4	0.8	99.2
	중부산권	(932)	55.5	44.5	11.3	88.7	2.2	97.8	1.9	98.1
	원도심	(409)	56.6	43.4	10.5	89.5	1.7	98.3	0.5	99.5
취업여부	취업자	(1461)	38.8	61.2	7.6	92.4	2.2	97.8	1.4	98.6
	미취업자	(1539)	74.6	25.4	15.4	84.6	1.9	98.1	1.0	99.0
성별	남성	(1548)	55.5	44.5	13.0	87.0	2.4	97.6	1.1	98.9
	여성	(1452)	59.0	41.0	10.2	89.8	1.7	98.3	1.2	98.8
연령	18~24세	(1142)	75.9	24.1	17.1	82.9	2.1	97.9	1.0	99.0
	25~29세	(987)	50.6	49.4	9.3	90.7	2.2	97.8	1.2	98.8
	30~34세	(871)	40.1	59.9	7.1	92.9	1.7	98.3	1.3	98.7
혼인상태	미혼	(2659)	59.0	41.0	12.2	87.8	1.9	98.1	1.0	99.0
	기혼	(332)	41.6	58.4	6.5	93.5	2.7	97.3	2.2	97.8
	이혼·사별	(10)	79.7	20.3	10.2	89.8	0.0	100.0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37.5	62.5	5.5	94.5	2.6	97.4	2.0	98.0
	자녀 없음	(2835)	58.3	41.7	12.0	88.0	2.0	98.0	1.1	98.9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59.1	40.9	11.3	88.7	2.0	98.0	1.1	98.9
	부모 미동거	(1103)	53.9	46.1	12.1	87.9	2.1	97.9	1.3	98.7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38.9	61.1	12.8	87.2	3.6	96.4	3.4	96.6
	대학 재학	(1192)	76.3	23.7	18.2	81.8	2.4	97.6	1.2	98.8
	대학 졸업	(1539)	44.9	55.1	6.5	93.5	1.4	98.6	0.8	99.2
	대학원 졸업	(101)	49.0	51.0	9.5	90.5	3.3	96.7	2.2	97.8

7) 항목별 부채 유무 및 금액

- 항목별 부채 유무에 대하여 학자금 마련의 경우 ‘없음’ 91.7%로 높았으며 생활비 마련 ‘없음’ 94.1%, 주택 구입비 ‘없음’ 95.6%, 주택 보증금 및 임차료 ‘없음’ 92.8%,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 자격증 비용 ‘없음’ 98.8%, 창업자금 마련 ‘없음’ 99.4%, 투자금 마련 ‘없음’ 98.7%로 나타남
- 항목별 부채 금액은 ‘주택 구입비’ 1억 4,763.1만 원, ‘주택 보증금 및 임차료’ 7,578.6만 원, ‘창업 자금마련’ 5,480.1만 원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학자금마련 부채금액의 경우 남성은 753.9만 원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은 834.1만 원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생활비마련 부채금액의 경우 18~24세는 305.7만 원이라고 응답하였고, 25~29세 566.6만 원 , 30~34세 790.3만 원이라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학자금 마련 부채금액의 경우 취업자는 968.7만 원이라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자는 648.7만 원이라고 응답하였음



〈그림 2-3-8〉 항목별 부채 유무 및 금액

〈표 2-3-8〉 항목별 부채 유무

(단위 : %)

구분		사례수	학자금 마련		생활비 마련		주택 구입비		주택 보증금 및 임차료	
			부채 있음	부채 없음	부채 있음	부채 없음	부채 있음	부채 없음	부채 있음	부채 없음
전체	계	(3000)	8.3	91.7	5.9	94.1	4.4	95.6	7.2	92.8
거주지	동부산권	(872)	8.6	91.4	5.2	94.8	5.3	94.7	4.0	96.0
	서부산권	(787)	9.6	90.4	5.8	94.2	4.5	95.5	7.3	92.7
	중부산권	(932)	6.2	93.8	6.2	93.8	4.4	95.6	9.4	90.6
	원도심	(409)	10.1	89.9	6.8	93.2	2.4	97.6	9.0	91.0
취업여부	취업자	(1461)	7.6	92.4	4.9	95.1	7.0	93.0	11.2	88.8
	미취업자	(1539)	9.0	91.0	6.9	93.1	1.9	98.1	3.5	96.5
성별	남성	(1548)	8.7	91.3	5.6	94.4	4.4	95.6	5.2	94.8
	여성	(1452)	8.0	92.0	6.3	93.7	4.4	95.6	9.4	90.6
연령	18~24세	(1142)	6.8	93.2	5.8	94.2	0.2	99.8	2.1	97.9
	25~29세	(987)	11.1	88.9	7.0	93.0	2.6	97.4	8.3	91.7
	30~34세	(871)	7.2	92.8	4.9	95.1	12.0	88.0	12.8	87.2
혼인상태	미혼	(2659)	8.8	91.2	6.2	93.8	1.9	98.1	6.4	93.6
	기혼	(332)	5.1	94.9	2.9	97.1	24.0	76.0	14.4	85.6
	이혼·사별	(10)	0.0	100.0	40.0	60.0	20.3	79.7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3.6	96.4	2.4	97.6	32.8	67.2	11.1	88.9
	자녀 없음	(2835)	8.6	91.4	6.1	93.9	2.8	97.2	7.0	93.0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8.0	92.0	4.7	95.3	1.3	98.7	1.1	98.9
	부모 미동거	(1103)	8.9	91.1	8.1	91.9	9.8	90.2	17.7	82.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3.6	96.4	9.1	90.9	5.9	94.1	9.2	90.8
	대학 재학	(1192)	9.0	91.0	6.9	93.1	1.2	98.8	2.8	97.2
	대학 졸업	(1539)	7.9	92.1	4.9	95.1	6.4	93.6	10.0	90.0
	대학원 졸업	(101)	15.6	84.4	4.0	96.0	9.9	90.1	13.8	86.2

〈표 2-3-9〉 항목별 부채 유무

(단위 : %)

구분		사례수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 자격증 비용		창업 자금 마련		투자금 마련		기타	
			부채 있음	부채 없음	부채 있음	부채 없음	부채 있음	부채 없음	부채 있음	부채 없음
전체	계	(3000)	1.2	98.8	0.6	99.4	1.3	98.7	0.8	99.2
거주지	동부산권	(872)	0.8	99.2	0.5	99.5	0.9	99.1	0.8	99.2
	서부산권	(787)	1.6	98.4	0.9	99.1	1.9	98.1	0.9	99.1
	중부산권	(932)	1.0	99.0	0.8	99.2	1.5	98.5	0.5	99.5
	원도심	(409)	1.5	98.5	0.2	99.8	0.7	99.3	1.2	98.8
취업여부	취업자	(1461)	0.9	99.1	1.2	98.8	2.1	97.9	1.2	98.8
	미취업자	(1539)	1.4	98.6	0.1	99.9	0.6	99.4	0.4	99.6
성별	남성	(1548)	1.3	98.7	0.7	99.3	1.5	98.5	0.8	99.2
	여성	(1452)	1.0	99.0	0.5	99.5	1.1	98.9	0.8	99.2
연령	18~24세	(1142)	0.5	99.5	0.0	100.0	0.2	99.8	0.4	99.6
	25~29세	(987)	1.6	98.4	0.8	99.2	1.1	98.9	0.9	99.1
	30~34세	(871)	1.5	98.5	1.3	98.7	3.1	96.9	1.1	98.9
혼인상태	미혼	(2659)	1.2	98.8	0.6	99.4	1.1	98.9	0.7	99.3
	기혼	(332)	1.2	98.8	0.6	99.4	3.4	96.6	1.2	98.8
	이혼·사별	(10)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0.0	100.0	0.0	100.0	1.8	98.2	0.6	99.4
	자녀 없음	(2835)	1.2	98.8	0.7	99.3	1.3	98.7	0.8	99.2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1.3	98.7	0.3	99.7	0.9	99.1	0.6	99.4
	부모 미동거	(1103)	1.0	99.0	1.2	98.8	2.1	97.9	1.1	98.9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2.6	97.4	1.7	98.3	2.2	97.8	2.5	97.5
	대학 재학	(1192)	0.8	99.2	0.0	100.0	0.5	99.5	0.4	99.6
	대학 졸업	(1539)	1.2	98.8	1.0	99.0	1.7	98.3	0.8	99.2
	대학원 졸업	(101)	2.3	97.7	1.0	99.0	4.0	96.0	3.0	97.0

〈표 2-3-10〉 항목별 부채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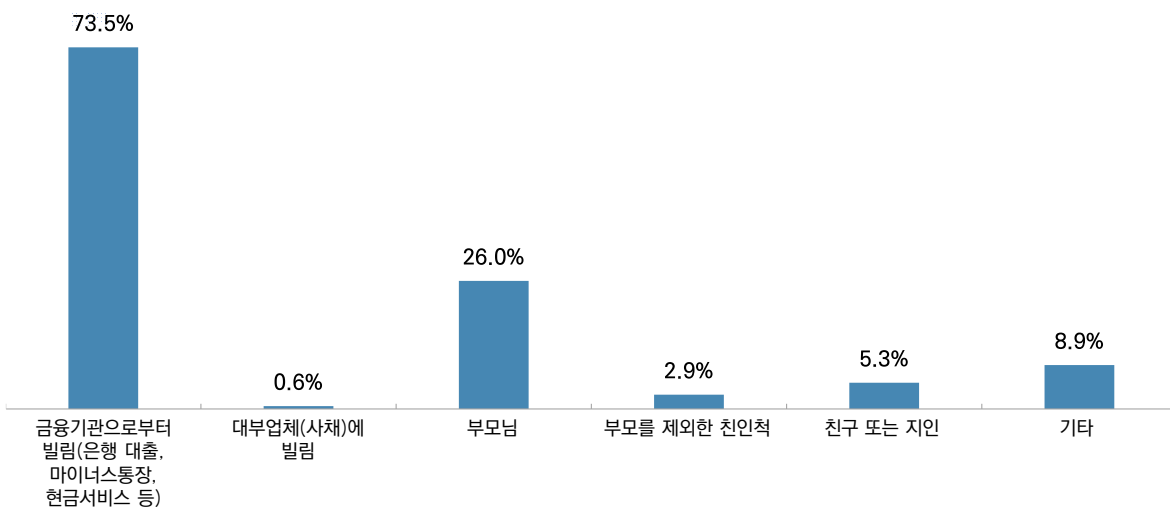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학자금 마련	생활비 마련	주택 구입비	주택 보증금 및 임차료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 자격증 비용	창업 자금 마련	투자금 마련	기타
전체	계	(250)	791.1	522.0	14763.1	7578.6	148.1	5480.1	2481.1	1419.3
거주지	동부산권	(75)	711.3	618.2	17050.4	7724.6	33.0	2951.1	1382.7	466.1
	서부산권	(76)	785.1	495.2	13104.0	7809.2	156.6	5973.7	1272.6	1766.5
	중부산권	(58)	698.7	469.3	14725.2	7596.2	120.1	4398.0	4663.6	1712.0
	원도심	(41)	1077.0	518.6	10180.0	7040.9	304.2	20000.0	1016.7	2115.8
취업여부	취업자	(111)	968.7	707.3	14349.4	7317.0	204.2	5507.2	3104.1	1815.9
	미취업자	(139)	648.7	397.0	16203.2	8381.9	116.5	5250.0	605.6	195.3
성별	남성	(134)	753.9	496.0	13813.5	7423.1	183.3	6064.3	3411.9	1695.8
	여성	(116)	834.1	546.5	15763.0	7671.5	102.8	4658.8	1170.8	1130.8
연령	18~24세	(78)	441.0	305.7	25500.0	5660.3	132.9	-	535.3	1230.0
	25~29세	(110)	847.3	566.6	8179.0	7350.2	59.8	3599.7	973.0	1354.9
	30~34세	(62)	1127.0	790.3	16190.3	8161.6	265.5	6844.2	3272.1	1580.9
혼인상태	미혼	(233)	811.2	474.9	12424.0	6514.7	110.0	5754.2	1399.7	1402.9
	기혼	(17)	516.5	1014.3	16250.6	11342.1	444.7	3000.0	5203.2	1500.0
	이혼·사별	-	-	1271.4	15000.0	-	-	-	-	-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	670.7	725.0	15168.0	12968.2	-	-	10433.3	2000.0
	자녀 없음	(244)	794.0	517.3	14483.8	7084.1	148.1	5480.1	1837.7	1393.6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52)	743.1	396.2	11637.7	10282.0	104.7	5071.7	1671.3	1098.1
	부모 미동거	(98)	865.2	646.0	15467.7	7278.1	244.0	5679.8	3089.5	1714.4
최종학력	고졸 이하	(6)	580.0	748.1	13649.4	7372.6	101.6	14750.0	1662.7	2948.5
	대학 재학	(107)	558.6	289.2	16127.8	8959.8	80.1	-	712.5	294.7
	대학 졸업	(121)	950.9	742.0	14272.7	7331.9	199.9	3760.4	3104.9	1273.6
	대학원 졸업	(16)	1222.9	300.0	18697.2	7219.5	100.0	5000.0	1715.0	1666.7

7-1) 부채 조달 방법

- 부채 조달 방법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73.5%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부모님’ 26.0%, 친구 또는 지인 5.3%, ‘친인척’ 2.9%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75.6%가 ‘금융기관’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71.6%가 ‘금융기관’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54.9%, 25~29세 69.4% , 30~34세 86.6% 가 ‘금융기관’이라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부모님의 경우 취업자의 19.9%가 응답하는 반면 미취업자의 34.8%가 ‘부모님’이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3-9〉 부채 조달 방법

〈표 2-3-11〉 부채 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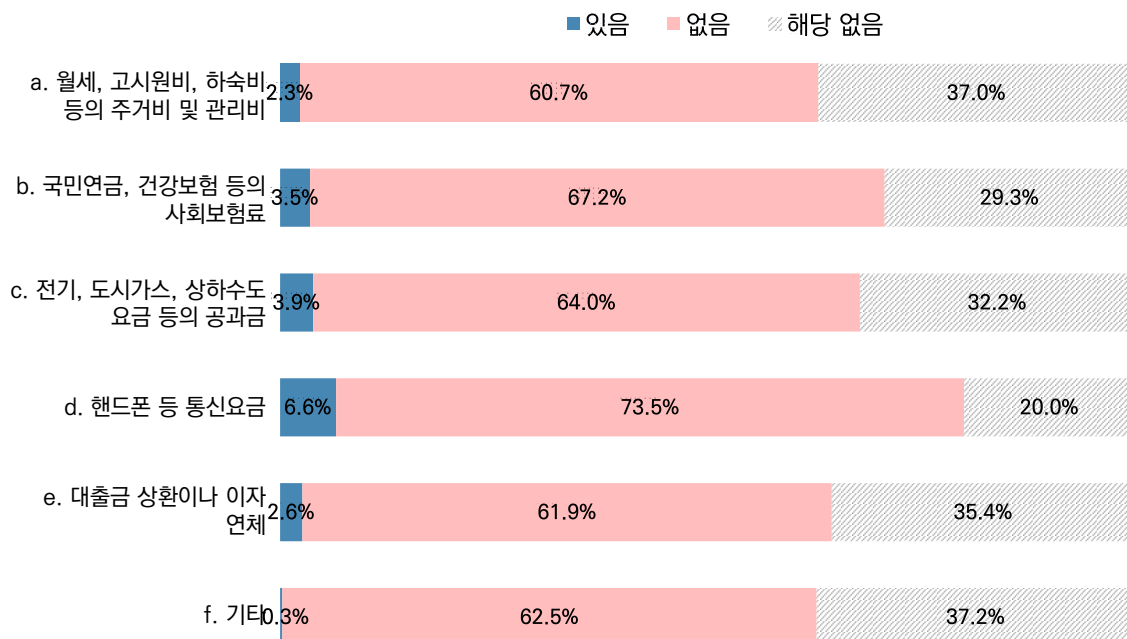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림(은행 대출, 마이뉴스통장 , 현금서비스 등)	대부업체(사 채)에 빌림	부모님	부모를 제외한 친인척	친구 또는 지인	기타
전체	계	(685)	73.5	0.6	26.0	2.9	5.3	8.9
거주지	동부산권	(179)	68.7	0.0	27.2	4.9	6.8	11.7
	서부산권	(197)	69.7	0.5	29.1	3.7	4.0	9.2
	중부산권	(205)	79.3	0.4	23.1	1.0	6.2	6.9
	원도심	(105)	77.5	1.9	23.9	1.7	3.3	7.4
취업여부	취업자	(406)	83.5	0.2	19.9	2.0	4.8	6.3
	미취업자	(279)	58.9	1.0	34.8	4.1	6.1	12.6
성별	남성	(328)	75.6	0.9	25.6	2.6	6.9	8.7
	여성	(356)	71.6	0.3	26.4	3.2	3.8	9.1
연령	18~24세	(150)	54.9	1.2	36.3	4.7	9.9	13.9
	25~29세	(247)	69.4	0.0	27.8	2.0	5.3	10.8
	30~34세	(288)	86.6	0.7	19.1	2.7	3.0	4.6
혼인상태	미혼	(546)	67.8	0.5	27.6	3.5	6.1	10.6
	기혼	(135)	95.7	0.0	19.5	0.7	2.1	2.2
	이혼·사별	(4)	100.0	25.4	25.4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7)	97.3	1.5	14.6	0.0	1.5	0.0
	자녀 없음	(618)	70.9	0.5	27.2	3.2	5.7	9.8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276)	56.0	0.7	36.0	5.0	7.7	13.3
	부모 미동거	(409)	85.3	0.4	19.3	1.4	3.7	5.9
최종학력	고졸 이하	(41)	89.5	0.0	8.1	3.2	10.5	4.8
	대학 재학	(197)	57.2	0.9	35.4	4.2	9.5	12.8
	대학 졸업	(405)	79.3	0.5	23.5	2.5	2.8	7.6
	대학원 졸업	(42)	78.3	0.0	24.0	0.0	4.8	6.6

8) 지난 1년간 항목별 연체 경험

- 지난 1년간 항목별 연체 경험에 대하여 핸드폰 등 통신요금 6.6%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전기 도시가스 등의 공과금’ 3.9%,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3.5%, ‘대출금 상환이나 이자연체’ 2.6% 순으로 ‘있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경우 남성의 3.2%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3.9%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사회 보험료의 경우 30~34세 4.9%가 ‘있다’이라고 응답하였고, 25~29세 4.7%, 18~24세의 1.5%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사회 보험료의 경우 취업자의 4.3%는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2.8%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3-10〉 지난 1년간 항목별 연체 경험

〈표 2-3-12〉 지난 1년간 항목별 연체 경험

(단위 : %)

구분		사례수	월세, 고시원비, 하숙비 등 주거비 및 관리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전체	계	(3000)	2.3	60.7	37.0	3.5	67.2	29.3	3.9	64.0	32.2
거주지	동부산권	(872)	1.8	58.9	39.3	2.4	66.1	31.5	2.8	62.3	34.9
	서부산권	(787)	2.1	62.7	35.2	4.4	67.8	27.8	3.0	66.7	30.3
	중부산권	(932)	3.2	60.8	36.0	3.7	68.4	27.9	5.7	63.3	31.0
	원도심	(409)	1.8	60.2	38.0	3.9	65.7	30.4	3.8	63.9	32.3
취업여부	취업자	(1461)	2.7	68.0	29.3	4.3	79.5	16.2	3.8	74.2	22.0
	미취업자	(1539)	1.9	53.7	44.4	2.8	55.5	41.6	4.0	54.2	41.8
성별	남성	(1548)	2.5	60.5	37.1	3.2	67.1	29.7	3.8	63.9	32.3
	여성	(1452)	2.1	60.9	37.0	3.9	67.4	28.8	3.9	64.0	32.0
연령	18~24세	(1142)	1.5	49.6	48.9	1.5	51.5	47.0	4.0	49.1	46.9
	25~29세	(987)	3.0	66.1	30.9	4.7	74.9	20.4	4.2	70.8	25.0
	30~34세	(871)	2.6	69.0	28.4	4.9	79.1	16.0	3.4	75.7	20.8
혼인상태	미혼	(2659)	2.4	59.1	38.5	3.5	64.7	31.8	3.9	61.1	35.1
	기혼	(332)	1.4	72.6	25.9	3.5	86.9	9.5	4.2	86.3	9.5
	이혼·사별	(10)	0.0	89.8	10.2	10.2	89.8	0.0	0.0	89.8	10.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1.8	70.7	27.5	6.0	86.2	7.9	4.2	87.3	8.5
	자녀 없음	(2835)	2.3	60.1	37.6	3.4	66.1	30.5	3.9	62.6	33.5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1.1	51.9	47.0	2.6	60.8	36.6	1.7	55.9	42.4
	부모 미동거	(1103)	4.4	75.7	20.0	5.1	78.2	16.6	7.7	77.8	14.6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5.9	70.4	23.7	9.4	75.0	15.5	10.0	74.0	16.1
	대학 재학	(1192)	2.1	49.9	48.1	2.3	51.4	46.3	4.1	49.6	46.3
	대학 졸업	(1539)	2.1	66.9	31.0	3.8	77.7	18.5	2.9	73.3	23.8
	대학원 졸업	(101)	1.9	76.5	21.6	3.3	81.0	15.7	6.1	74.3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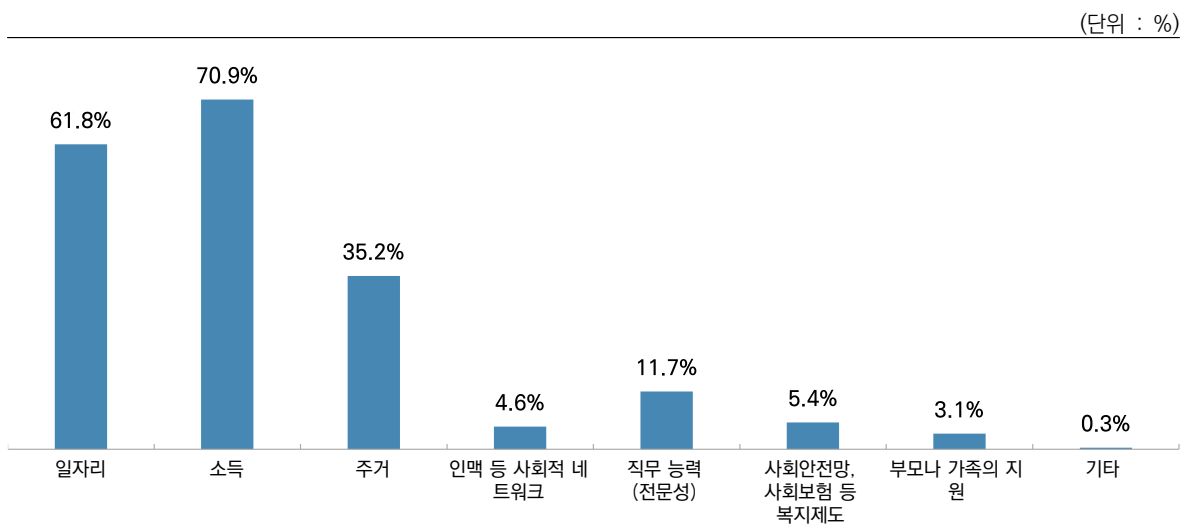
〈표 2-3-13〉 지난 1년간 항목별 연체 경험

(단위 : %)

구분		사례수	핸드폰 등 통신요금			대출금 상환이나 이자 연체			기타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전체	계	(3000)	6.6	73.5	20.0	2.6	61.9	35.4	0.3	62.5	37.2
거주지	동부산권	(872)	6.8	71.6	21.6	1.7	60.4	37.9	0.0	59.7	40.3
	서부산권	(787)	7.8	71.6	20.6	3.1	65.0	31.9	0.6	64.6	34.8
	중부산권	(932)	6.1	76.0	17.9	3.1	59.5	37.3	0.3	62.1	37.6
	원도심	(409)	4.8	75.1	20.1	2.6	64.7	32.6	0.0	65.5	34.5
취업여부	취업자	(1461)	6.5	82.2	11.3	2.9	70.1	27.0	0.3	71.0	28.6
	미취업자	(1539)	6.7	65.2	28.2	2.3	54.2	43.5	0.2	54.4	45.4
성별	남성	(1548)	6.3	73.6	20.0	2.4	62.0	35.6	0.1	63.0	37.0
	여성	(1452)	6.8	73.3	19.9	2.8	61.9	35.3	0.5	62.1	37.5
연령	18~24세	(1142)	6.0	61.2	32.8	1.3	50.1	48.6	0.2	50.5	49.4
	25~29세	(987)	7.9	79.4	12.7	2.6	68.3	29.0	0.2	70.2	29.6
	30~34세	(871)	5.8	82.8	11.4	4.3	70.2	25.4	0.4	69.7	29.8
혼인상태	미혼	(2659)	6.8	71.8	21.4	2.5	59.9	37.7	0.3	60.4	39.3
	기혼	(332)	5.1	86.6	8.3	4.0	77.6	18.4	0.3	79.1	20.6
	이혼·사별	(10)	0.0	89.8	10.2	0.0	89.8	10.2	0.0	79.7	20.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6.1	86.7	7.3	7.4	77.5	15.1	0.5	77.8	21.7
	자녀 없음	(2835)	6.6	72.7	20.7	2.3	61.0	36.6	0.2	61.6	38.1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6.7	69.6	23.8	1.9	56.4	41.7	0.3	56.2	43.6
	부모 미동거	(1103)	6.4	80.2	13.4	3.9	71.4	24.7	0.3	73.5	26.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14.1	75.9	10.1	6.6	67.8	25.6	0.6	67.8	31.6
	대학 재학	(1192)	6.4	61.0	32.6	1.9	50.5	47.5	0.3	50.4	49.2
	대학 졸업	(1539)	5.5	82.6	11.9	2.4	69.4	28.2	0.2	70.7	29.1
	대학원 졸업	(101)	11.1	77.9	11.0	6.9	73.4	19.8	0.0	71.8	28.2

9)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

-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70.9%는 ‘소득’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일자리’ 61.8%, ‘주거’ 35.2%, ‘직무능력’ 11.7%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일자리의 경우 남성의 64.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58.7%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거의 경우 30~34세 43.4%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5~29세 36.8%, 18~24세의 27.4%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주거의 경우 취업자의 37.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30.3%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2-3-11〉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

〈표 2-3-14〉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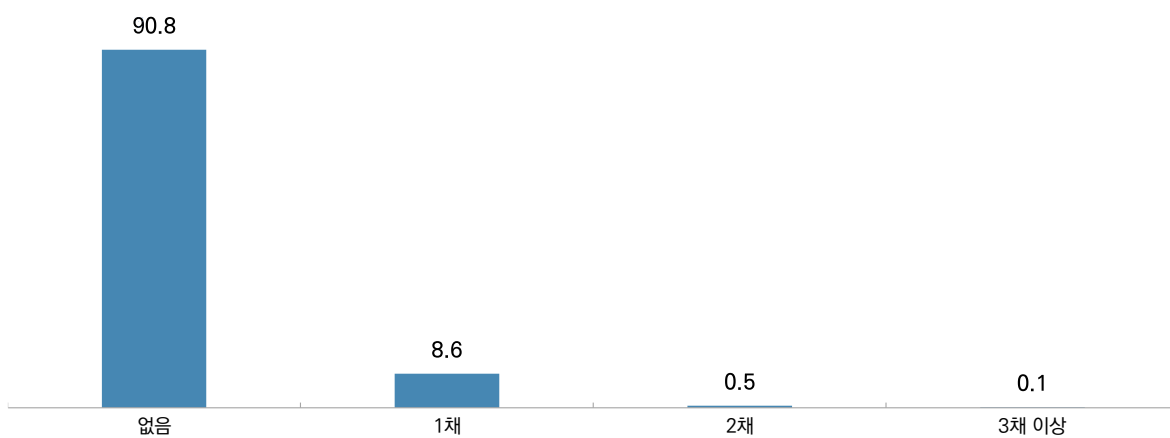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일자리	소득	주거	인맥 등 사회적 네트워크	직무 능력(전문 성)	사회안전 망, 사회보험 등 복지제도	부모나 가족의 지원	기타
전체	계	(3000)	61.8	70.9	35.2	4.6	11.7	5.4	3.1	0.3
거주지	동부산권	(872)	63.9	72.9	32.9	5.8	10.5	4.7	3.4	0.6
	서부산권	(787)	62.1	68.3	34.5	5.0	13.6	7.0	2.3	0.1
	중부산권	(932)	58.9	71.3	39.7	3.9	12.0	4.3	2.9	0.2
	원도심	(409)	63.8	70.9	30.9	2.5	10.0	6.6	4.5	0.2
취업여부	취업자	(1461)	60.8	74.1	40.5	4.1	9.8	4.8	1.2	0.1
	미취업자	(1539)	62.9	67.9	30.1	5.0	13.5	6.0	5.0	0.4
성별	남성	(1548)	64.8	70.5	31.4	6.4	12.4	4.6	2.1	0.4
	여성	(1452)	58.7	71.4	39.2	2.6	11.0	6.3	4.2	0.2
연령	18~24세	(1142)	62.9	67.7	27.4	5.4	13.9	5.7	5.4	0.5
	25~29세	(987)	65.7	71.7	36.8	4.2	10.4	4.2	2.1	0.1
	30~34세	(871)	56.1	74.4	43.4	3.9	10.3	6.4	1.3	0.2
혼인상태	미혼	(2659)	62.9	70.5	33.2	4.8	12.2	5.3	3.4	0.3
	기혼	(332)	54.0	74.5	50.0	2.4	7.6	6.3	0.9	0.0
	이혼·사별	(10)	50.8	69.5	67.0	12.7	0.0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50.9	75.7	53.3	3.6	4.4	8.5	1.2	0.0
	자녀 없음	(2835)	62.5	70.7	34.1	4.6	12.1	5.2	3.2	0.3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65.4	69.4	30.6	5.2	13.4	5.6	3.6	0.4
	부모 미동거	(1103)	55.7	73.5	43.1	3.5	8.7	5.0	2.4	0.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64.2	83.0	36.9	2.4	10.0	1.1	0.0	0.0
	대학 재학	(1192)	62.3	67.2	27.4	6.1	14.1	5.8	5.4	0.4
	대학 졸업	(1539)	61.2	72.9	40.4	3.7	10.4	5.1	1.7	0.2
	대학원 졸업	(101)	61.1	65.7	44.5	3.8	6.7	11.9	3.1	1.0

10) 소유 주택 수

- 소유 주택 수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90.8%는 ‘없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1채’ 8.6%, ‘2채’ 0.5%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1채의 경우 남성의 8.9%가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8.3%가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1채의 경우 동부산권의 9.9%가 소유하고 응답하였고, 중부 산권 8.7%, 서부산권 8.0%, 원도심 6.8%가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1채의 경우 취업자의 11.8%는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5.9%가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3-12〉 소유 주택 수

〈표 2-3-15〉 소유 주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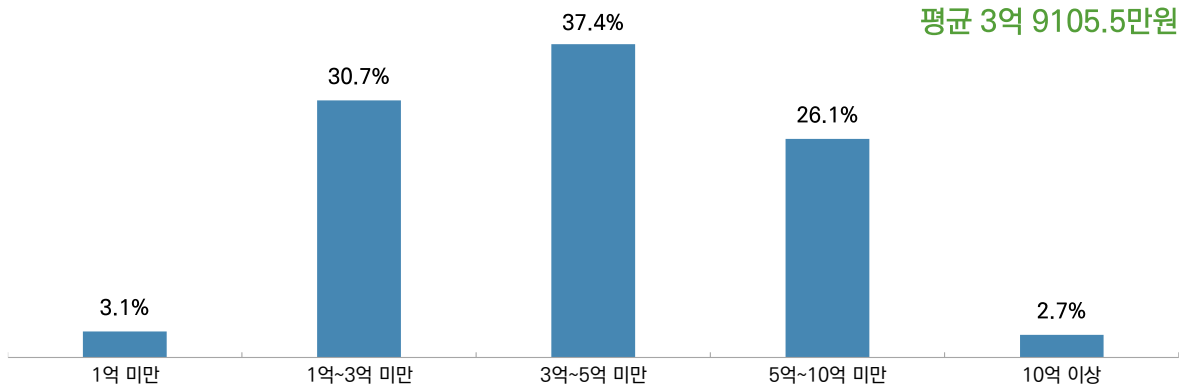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없음	1채	2채	3채 이상
전체	계	(3000)	90.8	8.6	0.5	0.1
거주지	동부산권	(872)	89.8	9.9	0.3	0.0
	서부산권	(787)	91.0	8.0	0.8	0.1
	중부산권	(932)	90.7	8.7	0.4	0.2
	원도심	(409)	92.7	6.8	0.2	0.2
취업여부	취업자	(1956)	89.2	10.0	0.6	0.1
	미취업자	(1044)	93.7	5.9	0.3	0.1
성별	남성	(1461)	87.5	11.8	0.5	0.1
	여성	(1539)	93.9	5.5	0.5	0.1
연령	18~24세	(1142)	96.3	2.9	0.6	0.2
	25~29세	(987)	94.3	5.6	0.1	0.0
	30~34세	(871)	79.6	19.5	0.7	0.2
혼인상태	미혼	(2659)	95.0	4.5	0.4	0.1
	기혼	(332)	58.2	40.3	1.2	0.3
	이혼·사별	(10)	56.8	43.2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41.6	56.0	1.8	0.6
	자녀 없음	(2835)	93.7	5.8	0.4	0.1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95.5	4.0	0.4	0.1
	부모 미동거	(1103)	82.7	16.6	0.6	0.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91.0	8.4	0.6	0.0
	대학 재학	(1192)	95.0	4.4	0.5	0.2
	대학 졸업	(1539)	87.9	11.6	0.4	0.1
	대학원 졸업	(101)	85.3	13.7	1.0	0.0

10-1) 소유 주택 가격

- 소유 주택 가격에 대하여 ‘3억~5억 미만’ 37.4%, ‘1억~3억 미만’ 30.7%, ‘5억~10억 미만’ 26.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평균 금액은 3억 9,105.5만 원으로 조사 됨
- 성별로 살펴보면, 1억 미만의 경우 남성의 5.1%가 응답하였고, 여성의 0.8%가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억~3억 미만의 경우 18~24세의 23.7%가 응답하였고, 25~29세 46.7% , 30~34세 27.3% 이라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1억~3억 미만의 경우 취업자의 33.4%가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25.6%가 응답하였음

(단위 : 만원)



〈그림 2-3-13〉 소유 주택 가격

〈표 2-3-16〉 소유 주택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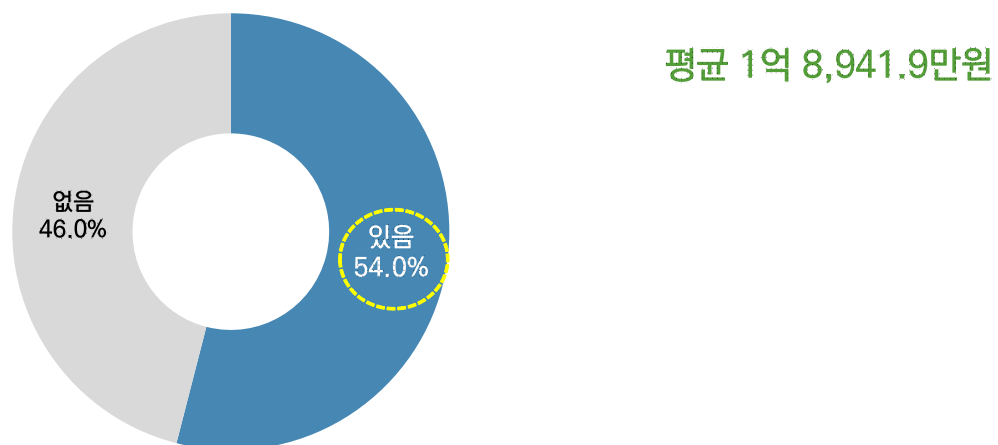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1억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 이상	평균
전체	계	(276)	3.1	30.7	37.4	26.1	2.7	39105.5
거주지	동부산권	(89)	0.0	25.9	43.0	29.9	1.1	41846.0
	서부산권	(71)	4.1	28.7	38.3	26.1	2.8	37169.5
	중부산권	(86)	3.3	32.1	32.9	27.7	4.1	41596.0
	원도심	(30)	9.2	45.8	31.7	10.0	3.3	28334.2
취업여부	취업자	(182)	2.7	33.4	38.7	23.1	2.1	37131.2
	미취업자	(94)	3.8	25.6	34.7	31.9	3.9	42948.3
성별	남성	(147)	5.1	29.6	40.1	22.6	2.6	37757.9
	여성	(129)	0.8	32.1	34.3	30.0	2.9	40642.8
연령	18~24세	(42)	4.4	23.7	30.2	32.8	8.8	47447.8
	25~29세	(56)	1.8	46.7	29.7	18.5	3.3	33317.3
	30~34세	(178)	3.2	27.3	41.5	26.9	1.1	38981.5
혼인상태	미혼	(133)	4.9	42.9	25.8	22.2	4.2	35550.4
	기혼	(139)	0.7	18.4	49.6	29.8	1.4	42920.4
	이혼·사별	(4)	23.5	52.9	0.0	23.5	0.0	25941.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6)	1.0	19.1	51.2	26.5	2.1	41528.8
	자녀 없음	(180)	4.1	37.0	30.0	25.8	3.1	37807.1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85)	2.3	40.6	29.2	21.3	6.5	39492.1
	부모 미동거	(191)	3.4	26.3	41.1	28.2	1.0	38932.5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	0.0	27.5	39.6	33.0	0.0	37538.5
	대학 재학	(60)	4.7	21.7	33.5	33.9	6.2	45569.5
	대학 졸업	(186)	2.6	33.6	39.7	22.5	1.5	36315.8
	대학원 졸업	(15)	5.1	34.0	21.4	32.8	6.7	49778.0

10-2) 소유 주택 구입 시 대출 여부 및 금액

- 소유 주택 구입 시 대출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54.0%는 '있음'라고 응답하였으며, '없음'이 46.0%이며 대출금액은 1,8941.9만 원으로 조사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54.3%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63.5%가 '있음'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92.8%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25~29세 59.7% '없음', 30~34세 69.3% '있음'이라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62.1%는 '있음'이라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61.8%는 '없음'이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3-14〉 소유 주택 구입 시 대출 여부 및 금액

〈표 2-3-17〉 소유 주택 구입 시 대출 여부 및 금액

(단위 : %, 만원)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대출금액
전체	계	(276)	54.0	46.0	18941.9
거주지	동부산권	(89)	57.9	42.1	20934.3
	서부산권	(71)	54.1	45.9	18436.1
	중부산권	(86)	51.5	48.5	19364.6
	원도심	(30)	49.2	50.8	12003.4
취업여부	취업자	(182)	62.1	37.9	18585.0
	미취업자	(94)	38.2	61.8	20070.1
성별	남성	(147)	45.7	54.3	19314.7
	여성	(129)	63.5	36.5	18635.8
연령	18~24세	(42)	7.2	92.8	23666.7
	25~29세	(56)	40.3	59.7	13729.0
	30~34세	(178)	69.3	30.7	19787.4
혼인상태	미혼	(133)	36.7	63.3	15049.7
	기혼	(139)	70.8	29.2	20948.6
	이혼·사별	(4)	47.1	52.9	155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6)	71.3	28.7	19215.0
	자녀 없음	(180)	44.7	55.3	18708.4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85)	36.2	63.8	17685.7
	부모 미동거	(191)	62.0	38.0	19269.9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	72.5	27.5	23000.0
	대학 재학	(60)	27.7	72.3	22003.0
	대학 졸업	(186)	59.8	40.2	17805.4
	대학원 졸업	(15)	67.8	32.2	22083.0

11) 올해 부동산 및 현금 증여(혹은 상속) 받은 경험 및 금액

- 올해 부동산 및 현금 증여(혹은 상속) 받은 경험 및 금액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98.9%는 ‘없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있음’ 1.1%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증여금액의 경우 남성이 15,214.2만 원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이 10,129.2만 원 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0.9%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25~29세 0.8% , 30~34세 1.7%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증여금액의 경우 취업자는 14,558.8만 원이라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자는 11,030.7만 원이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3-15〉 올해 부동산 및 현금 증여(혹은 상속) 받은 경험 및 금액

〈표 2-3-18〉 올해 부동산 및 현금 증여(혹은 상속) 받은 경험 및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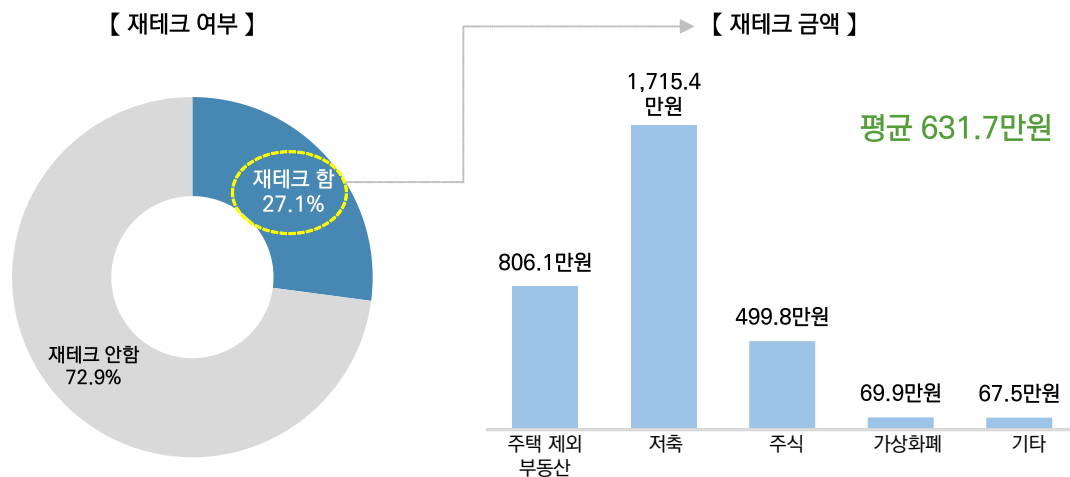
(단위 : %, 만원)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증여금액
전체	계	(3000)	1.1	98.9	12837.7
거주지	동부산권	(872)	1.4	98.6	13127.4
	서부산권	(787)	1.0	99.0	10622.4
	중부산권	(932)	1.0	99.0	10963.3
	원도심	(409)	1.0	99.0	20500.0
취업여부	취업자	(1461)	1.2	98.8	14558.8
	미취업자	(1539)	1.0	99.0	11030.7
성별	남성	(1548)	1.1	98.9	15214.2
	여성	(1452)	1.1	98.9	10129.2
연령	18~24세	(1142)	0.9	99.1	12333.3
	25~29세	(987)	0.8	99.2	10629.6
	30~34세	(871)	1.7	98.3	14367.4
혼인상태	미혼	(2659)	1.0	99.0	13218.6
	기혼	(332)	1.8	98.2	11095.5
	이혼·사별	(10)	0.0	100.0	-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1.8	98.2	11875.0
	자녀 없음	(2835)	1.1	98.9	12931.4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1.0	99.0	10952.3
	부모 미동거	(1103)	1.4	98.6	1511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0.6	99.4	5000.0
	대학 재학	(1192)	1.1	98.9	11340.0
	대학 졸업	(1539)	1.2	98.8	13298.2
	대학원 졸업	(101)	1.1	98.9	30000.0

12) 재테크 여부 및 재테크를 위해 투자한 자산 금액

- 재테크 여부 및 재테크를 위해 투자한 자산 금액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72.9%는 ‘재테크를 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7.1%가 재테크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투자금액중 주식의 경우 남성은 612.6만 원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은 385.9만 원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투자금액중 가상화폐의 경우 18~24세는 15.3만 원이라고 응답하였고, 25~29세 83.4만 원, 30~34세 79.0만 원이라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투자금액 중 저축의 경우 취업자는 1,966.1만 원이라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자는 989.1만 원이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3-16〉 재테크 여부 및 재테크를 위해 투자한 자산 금액

〈표 2-3-19〉 재테크 여부 및 재테크를 위해 투자한 자산 금액

(단위 :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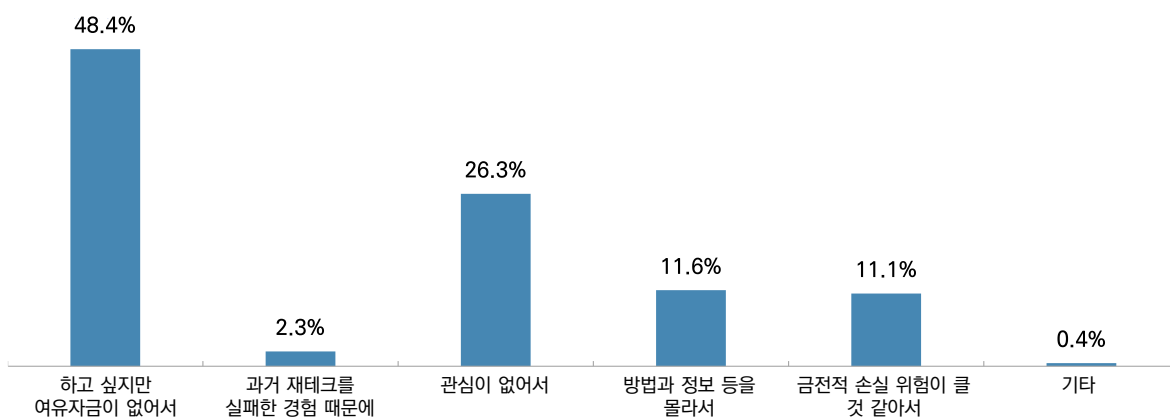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재테크 하지 않음	재테크 함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저축	주식	가상화폐	기타
전체	계	(3000)	72.9	27.1	806.1	1715.4	499.8	69.9	67.5
거주지	동부산권	(872)	72.1	27.9	749.4	1483.8	472.4	66.4	61.8
	서부산권	(787)	74.2	25.8	780.3	2072.4	604.7	69.1	92.3
	중부산권	(932)	73.0	27.0	1188.2	1695.6	451.3	32.2	62.6
	원도심	(409)	71.9	28.1	133.3	1618.6	479.0	161.5	46.3
취업여부	취업자	(1461)	58.6	41.4	684.2	1966.1	519.1	84.6	85.5
	미취업자	(1539)	86.4	13.6	1159.5	989.1	444.0	27.4	15.3
성별	남성	(1548)	73.6	26.4	915.9	1609.0	612.6	75.5	65.2
	여성	(1452)	72.2	27.8	695.2	1823.0	385.9	64.2	69.8
연령	18~24세	(1142)	88.0	12.0	209.8	1049.3	274.7	15.3	7.5
	25~29세	(987)	69.2	30.8	518.7	1663.1	441.0	83.4	82.2
	30~34세	(871)	57.3	42.7	1260.4	2003.4	630.8	79.0	77.5
혼인상태	미혼	(2659)	74.3	25.7	422.9	1745.9	477.6	75.7	58.4
	기혼	(332)	61.6	38.4	2880.1	1575.5	614.2	40.1	117.7
	이혼·사별	(10)	70.5	29.5	0.0	687.5	703.1	3.1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62.2	37.8	4545.5	1276.3	621.9	57.0	8.2
	자녀 없음	(2835)	73.5	26.5	496.0	1751.9	489.7	71.0	72.4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74.5	25.5	605.2	1812.3	423.9	53.3	45.1
	부모 미동거	(1103)	70.2	29.8	1101.2	1573.3	611.4	94.2	100.4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65.2	34.8	0.0	1855.8	250.7	69.3	199.4
	대학 재학	(1192)	88.3	11.7	1156.6	945.7	448.9	26.0	12.1
	대학 졸업	(1539)	63.0	37.0	620.3	1899.9	547.5	78.6	63.2
	대학원 졸업	(101)	55.0	45.0	3099.9	1575.9	378.6	95.7	120.9

12-1) 재테크 하지 않는 이유

○ 재테크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48.4%는 ‘여유자금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관심이 없어서’ 26.3%, ‘방법과 정보를 몰라서’ 11.6%, ‘금전적 손실 위험이 클 것 같아서’ 11.1%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방법과 정보를 몰라서의 경우 남성의 8.8%가 응답하였고, 여성의 14.6%가 방법과 정보를 몰라서 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관심이 없어서의 경우 18~24세의 32.8%가 응답하였고, 25~29세 22.8% , 30~34세 17.8% 이라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여유자금이 없어서의 경우 취업자의 52.4%가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45.7%는 이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3-17〉 재테크 하지 않는 이유

〈표 2-3-20〉 재테크 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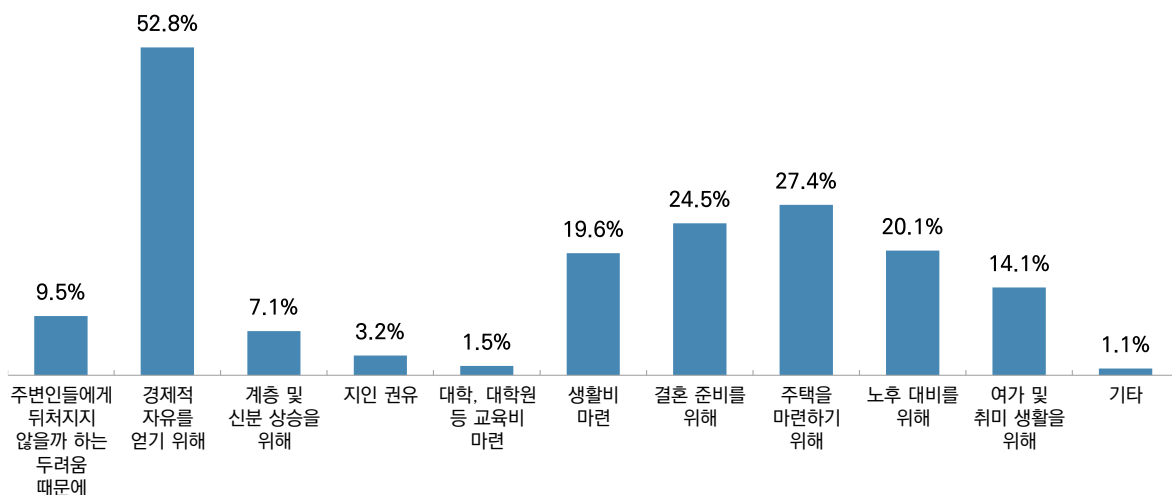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하고 싶지만 여유자금 없어서	과거 재테크를 실패한 경험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방법과 정보 등을 몰라서	금전적 손실 위험이 클 것 같아서	기타
전체	계	(2187)	48.4	2.3	26.3	11.6	11.1	0.4
거주지	동부산권	(629)	49.8	1.9	26.0	13.4	8.6	0.3
	서부산권	(584)	45.4	3.0	27.9	11.2	11.8	0.7
	중부산권	(680)	48.2	1.9	26.8	9.5	13.2	0.4
	원도심	(294)	51.3	2.6	22.4	12.9	10.4	0.3
취업여부	취업자	(857)	52.4	3.5	22.0	8.9	12.8	0.3
	미취업자	(1330)	45.7	1.5	29.0	13.3	10.0	0.5
성별	남성	(1139)	51.5	2.3	26.3	8.8	10.5	0.5
	여성	(1048)	44.9	2.2	26.2	14.6	11.7	0.4
연령	18~24세	(1005)	40.7	1.1	32.8	15.1	9.9	0.4
	25~29세	(683)	52.5	2.6	22.8	9.7	11.9	0.6
	30~34세	(499)	58.1	4.2	17.8	7.1	12.4	0.4
혼인상태	미혼	(1976)	47.5	2.0	27.4	11.7	11.0	0.4
	기혼	(204)	56.2	4.8	15.2	10.7	12.6	0.5
	이혼·사별	(7)	71.2	0.0	28.8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3)	57.7	6.8	15.6	8.7	10.3	0.9
	자녀 없음	(2084)	47.9	2.0	26.8	11.7	11.1	0.4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413)	46.7	1.6	28.7	12.0	10.6	0.6
	부모 미동거	(774)	51.4	3.5	21.9	10.9	12.1	0.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9)	58.8	5.2	25.4	6.3	3.4	0.9
	대학 재학	(1053)	41.7	1.7	32.3	13.8	10.2	0.4
	대학 졸업	(969)	55.0	2.5	20.0	9.5	12.6	0.5
	대학원 졸업	(56)	39.0	3.5	25.0	15.6	16.9	0.0

12-2) 재테크 하는 목적

- 재테크 하는 목적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52.8%는 ‘경제적 자유’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주택마련’ 27.4%, ‘결혼준비’ 24.5%, ‘노후대비’ 20.1%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결혼준비의 경우 남성의 31.2%가 응답하였고, 여성의 17.7%가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결혼준비의 경우 18~24세의 10.9%가 응답하였고, 25~29세 32.8% , 30~34세 22.7% 이라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생활비 마련의 경우 취업자의 18.3%가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23.6%가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3-18〉 재테크 하는 목적

〈표 2-3-21〉 재테크 하는 목적

(단위 : %)

구분		사례수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계층 및 신분 상승을 위해	지인 권유	대학, 대학원 등 교육비 마련	생활비 마련	결혼 준비를 위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 대비를 위해	여가 및 취미 생활을 위해	기타
전체	계	(813)	9.5	52.8	7.1	3.2	1.5	19.6	24.5	27.4	20.1	14.1	1.1
거주지	동부산권	(243)	9.2	53.6	6.8	2.4	2.5	19.8	26.2	26.9	18.2	16.3	1.6
	서부산권	(203)	11.9	49.0	7.7	4.6	1.5	17.6	22.5	32.9	18.8	16.3	1.5
	중부산권	(252)	8.2	49.8	5.8	3.4	1.1	22.3	26.5	26.0	21.4	12.6	0.7
	원도심	(115)	9.2	64.5	9.6	1.7	0.0	17.2	19.8	21.8	23.1	8.9	0.0
취업여부	취업자	(604)	9.6	51.9	6.2	2.0	1.0	18.3	30.9	30.9	21.9	11.9	0.3
	미취업자	(209)	9.3	55.5	9.6	6.4	2.8	23.6	5.7	17.3	14.6	20.6	3.3
성별	남성	(409)	8.2	51.7	7.4	3.5	2.2	19.5	31.2	30.3	14.6	11.7	1.2
	여성	(404)	10.8	53.9	6.9	2.8	0.8	19.8	17.7	24.5	25.5	16.6	1.0
연령	18~24세	(137)	5.1	54.9	9.2	8.1	3.5	18.4	10.9	17.0	14.4	26.2	4.2
	25~29세	(304)	10.0	51.1	7.6	3.0	1.1	17.3	32.8	28.0	18.1	13.0	0.7
	30~34세	(372)	10.7	53.4	6.0	1.5	1.1	22.1	22.7	30.8	23.7	10.6	0.3
혼인상태	미혼	(683)	9.9	51.5	7.1	3.1	1.6	18.9	29.1	24.8	18.8	14.6	1.3
	기혼	(127)	7.8	58.6	7.6	3.4	0.8	23.4	0.0	41.9	27.3	11.9	0.0
	이혼·사별	(3)	0.0	100.0	0.0	0.0	0.0	34.4	0.0	0.0	0.0	0.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	4.6	67.7	7.5	7.0	1.6	28.4	0.0	25.3	26.5	10.2	0.0
	자녀 없음	(751)	9.9	51.6	7.1	2.8	1.5	18.9	26.5	27.6	19.5	14.4	1.2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84)	10.4	48.7	6.4	3.5	1.9	18.1	31.3	25.2	18.4	15.6	1.7
	부모 미동거	(329)	8.3	58.8	8.2	2.6	0.8	21.9	14.4	30.6	22.5	12.0	0.2
최종학력	고졸 이하	(59)	12.2	60.7	1.6	1.5	0.0	27.3	25.4	24.8	26.4	8.6	1.7
	대학 재학	(139)	5.0	57.5	10.6	7.4	3.4	20.2	5.7	16.7	12.1	23.6	4.2
	대학 졸업	(570)	9.7	51.6	6.7	2.2	1.1	18.7	29.7	30.7	20.4	12.3	0.4
	대학원 졸업	(46)	17.6	43.0	8.8	4.9	2.2	20.2	15.3	21.9	31.6	14.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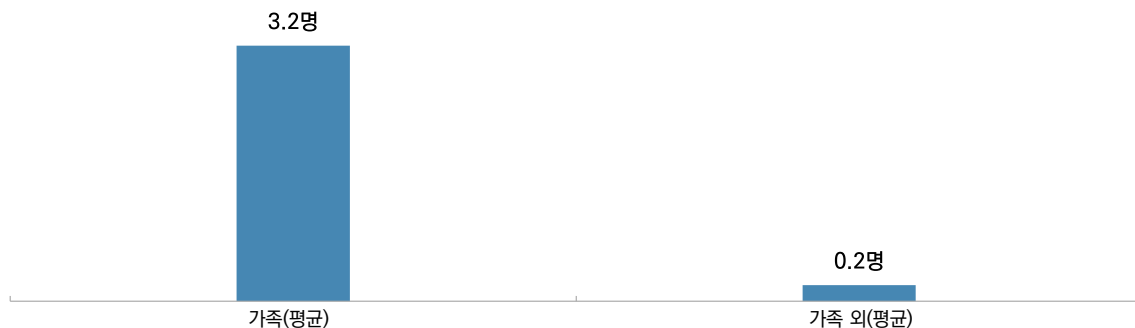
2. (가구) 경제활동

1) 가구원 수

○ 가구원 수에 대하여 가족평균 3.2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외 평균 0.2명이라고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가족의 경우 남성은 3.2명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은 3.1명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족의 경우 18~24세은 3.7명이라고 응답하였고, 25~29세 3.0명, 30~34세 2.7명이라고 응답하였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가족의 경우 동부산권은 3.3명이라고 응답하였고, 서부산권 3.2명, 중부산권 3.1명, 원도심 3.1명이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명)



〈그림 2-3-19〉 가구원 수

〈표 2-3-22〉 가구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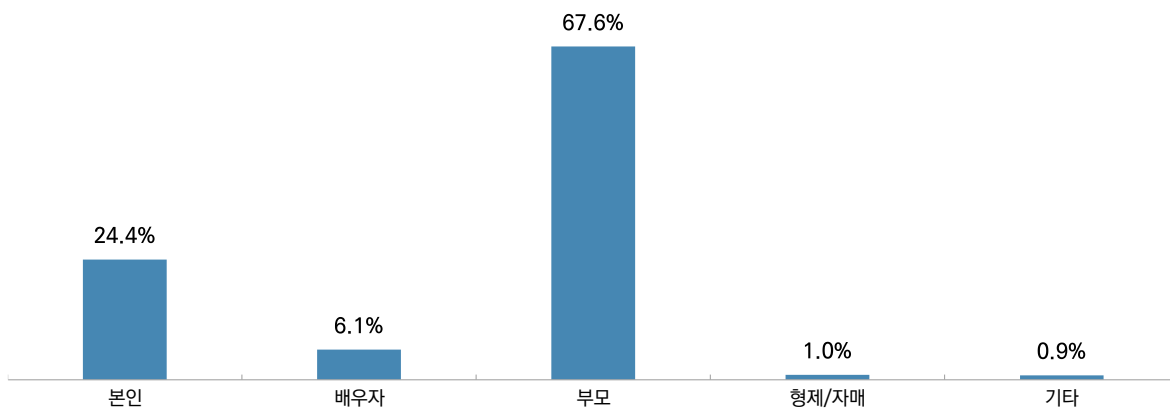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가족	가족 외
전체	계	3.2	0.2
거주지	동부산권	3.3	0.1
	서부산권	3.2	0.1
	중부산권	3.1	0.2
	원도심	3.1	0.2
취업여부	취업자	2.8	0.1
	미취업자	3.5	0.2
성별	남성	3.2	0.1
	여성	3.1	0.2
연령	18~24세	3.7	0.2
	25~29세	3.0	0.1
	30~34세	2.7	0.2
혼인상태	미혼	3.2	0.1
	기혼	2.6	0.2
	이혼·사별	2.2	0.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4	0.2
	자녀 없음	3.2	0.1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3.7	0.1
	부모 미동거	2.3	0.2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	0.2
	대학 재학	3.7	0.2
	대학 졸업	2.9	0.1
	대학원 졸업	2.7	0.1

1-4) 가구원 중 주 생계부양자

- 가구원 중 주 생계부양자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67.6%는 ‘부모’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본인’ 24.4%, ‘배우자’ 6.1%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경우 남성의 1.7%가 응답하였고, 여성의 10.9%가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경우 18~24세의 91.2%가 응답하였고, 25~29세 63.9% , 30~34세 39.9%라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본인의 경우 취업자의 40.2%가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9.3%가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3-20〉 가구원 중 주 생계부양자

〈표 2-3-23〉 가구원 중 주 생계부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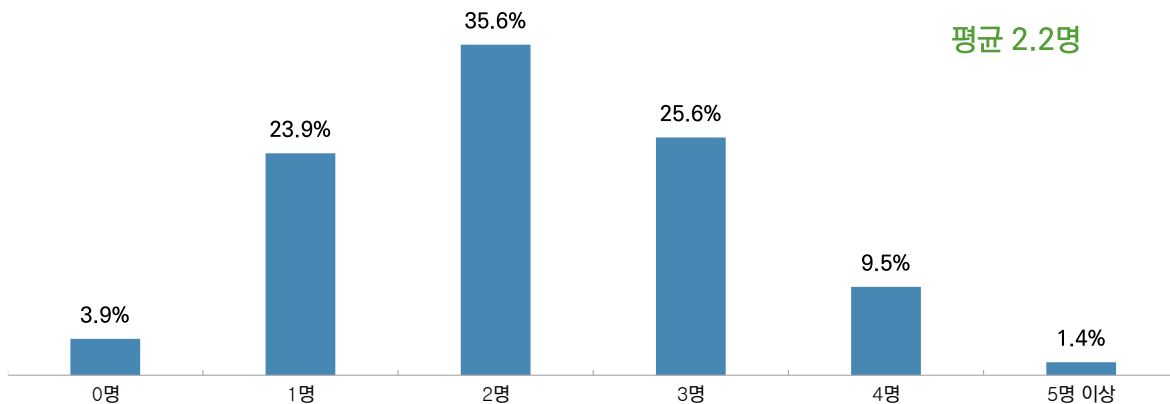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기타
전체	계	(3000)	24.4	6.1	67.6	1.0	0.9
거주지	동부산권	(872)	19.7	7.0	71.9	1.0	0.4
	서부산권	(787)	23.9	6.4	66.6	1.4	1.7
	중부산권	(932)	29.6	5.4	63.1	0.8	1.1
	원도심	(409)	23.2	5.6	70.5	0.7	0.0
취업여부	취업자	(1461)	40.2	7.3	50.5	0.8	1.2
	미취업자	(1539)	9.3	5.0	83.8	1.2	0.7
성별	남성	(1548)	25.7	1.7	70.7	1.0	1.0
	여성	(1452)	23.0	10.9	64.2	1.1	0.8
연령	18~24세	(1142)	6.2	1.1	91.2	1.1	0.5
	25~29세	(987)	29.4	4.4	63.9	1.3	0.9
	30~34세	(871)	40.8	17.2	39.9	0.6	1.5
혼인상태	미혼	(2659)	22.2	0.0	75.9	1.1	0.8
	기혼	(341)	41.0	54.0	3.1	0.3	1.7
	이혼·사별	(165)	36.6	60.0	2.8	0.0	0.6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835)	23.6	3.0	71.3	1.1	0.9
	자녀 없음	(1897)	7.2	0.4	91.2	0.6	0.6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103)	53.9	16.0	26.9	1.7	1.5
	부모 미동거	(168)	41.2	6.3	49.3	0.6	2.6
최종학력	고졸 이하	(1192)	7.1	1.8	89.3	1.3	0.5
	대학 재학	(1539)	34.9	9.1	54.1	0.9	1.0
	대학 졸업	(101)	38.7	12.6	46.8	0.0	2.0
	대학원 졸업	(101)	38.7	12.6	46.8	0.0	2.0

2) 올해 근로소득이 있었던 가족 구성원 수

- 올해 근로소득이 있었던 가족 구성원 수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35.6%는 ‘2명’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3명’ 25.6%, ‘1명’ 23.9%, ‘4명’ 9.5% 순으로 응답하였고 평균 2.2명으로 조사됨
- 성별로 살펴보면, 2명의 경우 남성의 38.5%가 응답하였고, 여성의 32.6%가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명의 경우 18~24세의 15.4%가 응답하였고, 25~29세 23.7% , 30~34세 35.3%가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1명의 경우 취업자의 27.3%가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20.7%가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3-21〉 올해 근로소득이 있었던 가족 구성원 수

〈표 2-3-24〉 올해 근로소득이 있었던 가족 구성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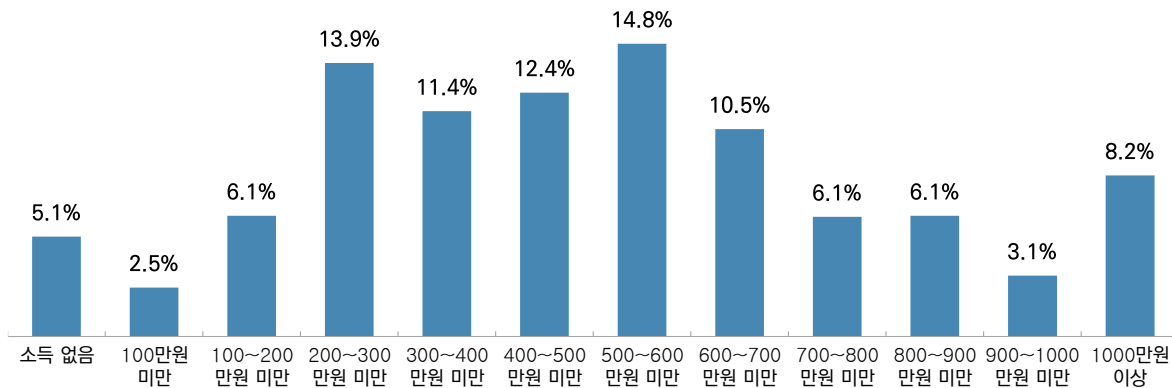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평균
전체	계	(3000)	3.9	23.9	35.6	25.6	9.5	1.4	2.2
거주지	동부산권	(872)	3.7	22.3	35.3	26.5	10.6	1.6	2.2
	서부산권	(787)	3.2	24.2	35.9	25.1	10.2	1.4	2.2
	중부산권	(932)	4.1	25.4	35.5	24.6	9.0	1.4	2.1
	원도심	(409)	5.5	23.4	36.2	27.0	7.3	0.7	2.1
취업여부	취업자	(1461)	4.1	27.3	33.0	25.2	9.2	1.1	2.1
	미취업자	(1539)	3.8	20.7	38.1	26.0	9.8	1.6	2.2
성별	남성	(1548)	4.1	21.3	38.5	26.2	8.8	1.1	2.2
	여성	(1452)	3.7	26.7	32.6	24.9	10.3	1.7	2.2
연령	18~24세	(1142)	2.0	15.4	38.8	30.3	11.1	2.4	2.4
	25~29세	(987)	4.9	23.7	31.6	28.7	10.4	0.8	2.2
	30~34세	(871)	5.4	35.3	36.1	15.9	6.6	0.7	1.9
혼인상태	미혼	(2659)	4.0	21.8	33.4	28.5	10.7	1.5	2.2
	기혼	(332)	2.9	40.2	53.4	2.9	0.3	0.3	1.6
	이혼·사별	(10)	19.4	40.6	40.0	0.0	0.0	0.0	1.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4.7	43.4	47.5	3.8	0.6	0.0	1.5
	자녀 없음	(2835)	3.9	22.8	35.0	26.9	10.1	1.5	2.2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1.0	9.6	39.8	35.1	12.9	1.6	2.5
	부모 미동거	(1103)	8.9	48.5	28.5	9.3	3.8	0.9	1.5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6.7	27.0	34.2	22.7	6.5	2.9	2.0
	대학 재학	(1192)	2.8	16.4	39.5	28.1	11.0	2.2	2.4
	대학 졸업	(1539)	4.6	28.7	32.9	24.6	8.7	0.5	2.1
	대학원 졸업	(101)	3.0	35.3	34.4	15.2	10.1	2.0	2.0

3) 가구 총 소득

- 가구 총 소득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14.8%는 ‘500~6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200~300만 원 미만’ 13.9%, ‘400~500만 원 미만’ 12.4%, ‘300~400만 원 미만’ 11.4%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16.4%가 ‘500~6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15.5%가 ‘200~3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0~300만 원의 경우 18~24세의 8.5%가 응답하였고, 25~29세 16.3% , 30~34세 18.2%가 응답하였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동부산권의 16.3%가 ‘500~6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서부산권의 14.9%가 ‘400~500만 원 미만’, 중부산권의 15.2%가 ‘200~300만 원 미만’, 원도심의 13.0%가 ‘400~5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3-22〉 가구 총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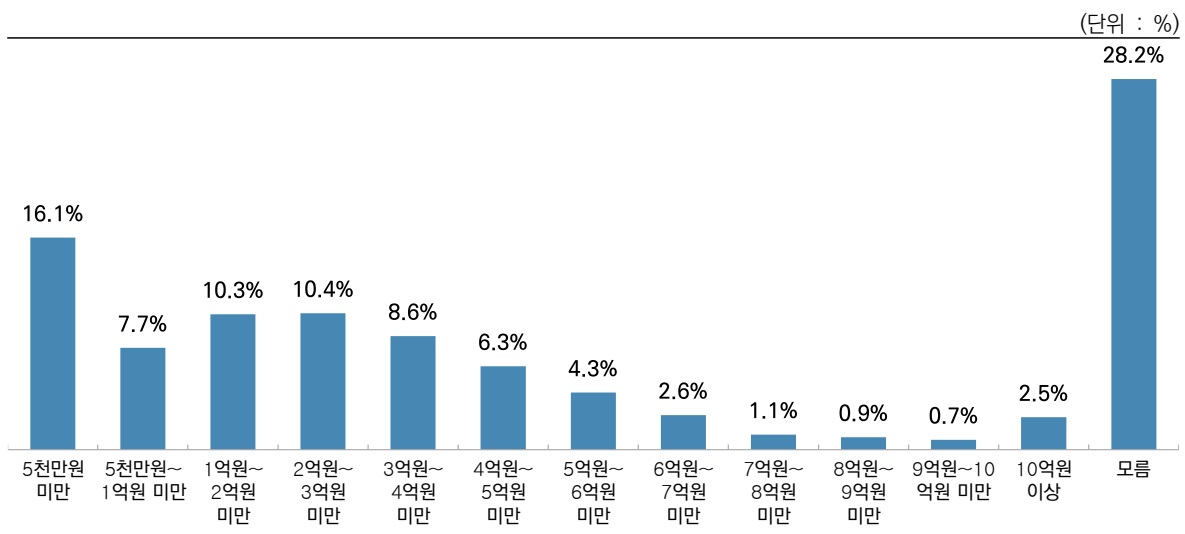
〈표 2-3-25〉 가구 총 소득

구분		사례수	소득 없음	50 만원	150 만원	250 만원	350 만원	450 만원	550 만원	650 만원	750 만원	850 만원	950 만원	1000 만원	평균 (만원)
전체		(3000)	5.1	2.5	6.1	13.9	11.4	12.4	14.8	10.5	6.1	6.1	3.1	8.2	498.6
거주지	동부산권	(872)	4.3	1.4	5.5	12.4	12.2	11.7	16.3	11.0	7.1	7.3	2.8	8.0	518.1
	서부산권	(787)	4.5	1.9	5.8	13.5	11.4	14.9	14.8	9.3	6.3	6.6	3.4	7.5	503.1
	중부산권	(932)	5.2	4.3	6.3	15.2	10.4	10.6	15.1	10.9	5.8	4.6	3.2	8.4	484.9
	원도심	(409)	7.3	1.7	7.5	14.6	12.0	13.0	11.2	10.8	4.0	6.0	2.9	9.0	479.3
취업여부	취업자	(1461)	1.4	0.7	6.7	18.9	9.5	10.5	16.2	10.9	5.8	7.4	2.5	9.3	521.8
	미취업자	(1539)	8.5	4.2	5.5	9.0	13.2	14.1	13.5	10.1	6.3	4.9	3.6	7.1	476.5
성별	남성	(1548)	6.0	2.2	4.6	12.3	11.3	13.1	16.4	10.7	5.6	6.2	3.0	8.6	505.7
	여성	(1452)	4.0	2.7	7.7	15.5	11.5	11.5	13.2	10.3	6.5	6.1	3.2	7.7	490.9
연령	18~24세	(1142)	8.2	4.2	4.9	8.5	11.3	14.0	13.8	9.8	7.4	5.9	4.1	7.9	496.5
	25~29세	(987)	3.9	1.5	6.7	16.3	8.8	10.7	14.7	12.1	6.1	6.6	3.5	9.0	515.5
	30~34세	(871)	2.2	1.3	7.0	18.2	14.5	12.1	16.4	9.6	4.2	5.8	1.3	7.5	482.2
혼인상태	미혼	(2659)	5.5	2.7	6.5	14.3	10.4	11.6	13.5	10.3	6.3	6.6	3.4	8.9	501.2
	기혼	(332)	1.5	0.8	2.1	10.4	19.6	18.6	25.5	12.5	4.0	2.4	0.3	2.4	480.0
	이혼·사별	(10)	0.0	0.0	39.7	20.3	0.0	0.0	10.2	0.0	10.2	9.5	0.0	10.2	424.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1.8	1.1	2.4	9.8	23.5	16.1	24.1	10.2	5.3	1.5	0.0	4.2	476.8
	자녀 없음	(2835)	5.2	2.6	6.3	14.1	10.7	12.1	14.3	10.5	6.1	6.4	3.3	8.4	499.8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4.3	1.7	3.1	8.1	10.3	13.9	16.3	12.6	7.8	8.3	4.0	9.7	559.9
	부모 미동거	(1103)	6.4	3.9	11.3	23.8	13.3	9.7	12.3	6.9	3.1	2.4	1.4	5.5	393.1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6.7	1.2	7.0	20.1	10.2	9.3	17.2	12.8	2.8	6.3	0.6	5.9	455.6
	대학 재학	(1192)	8.5	4.1	5.2	8.1	12.1	14.3	13.7	10.0	6.8	4.9	4.1	8.2	490.9
	대학 졸업	(1539)	2.4	1.5	6.7	17.1	11.2	11.6	15.4	11.1	5.8	6.6	2.7	8.0	506.4
	대학원 졸업	(101)	2.0	0.0	7.5	22.2	8.7	5.9	14.7	4.0	7.6	12.4	1.0	14.0	542.3

4) 가구 총 자산

○ 가구 총 자산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16.1%는 ‘5천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2~3억 미만’ 10.4%, ‘1~2억 미만’ 10.3%, ‘3~4억 미만’ 8.6%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14.9%가 ‘5천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17.5%가 ‘5천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2억 미만의 경우 18~24세의 6.4%가 응답하였고, 25~29세 11.9% , 30~34세 13.7%가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20.2%는 ‘5천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미 취업자의 42.3%는 ‘모름’이라고 응답하였음



〈그림 2-3-23〉 가구 총 자산

〈표 2-3-26〉 가구 총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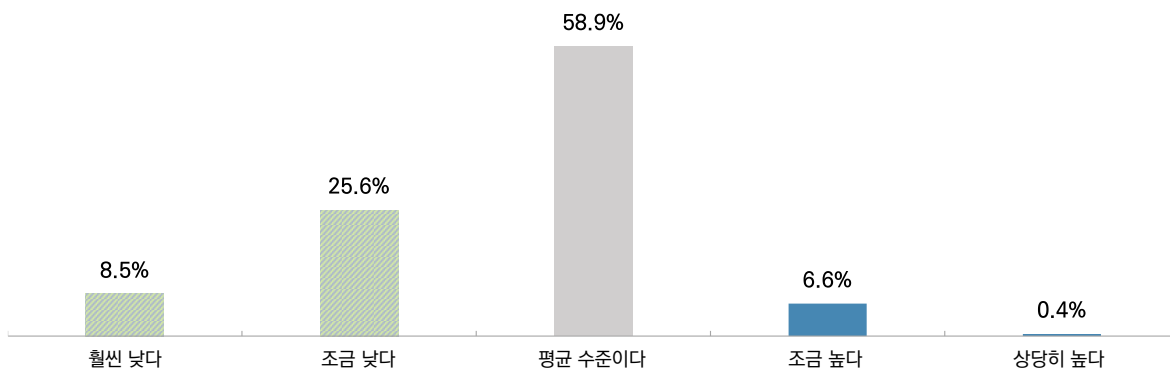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 억원 미만	1억원 ~2억 원 미만	2억원 ~3억 원 미만	3억원 ~4억 원 미만	4억원 ~5억 원 미만	5억원 ~6억 원 미만	6억원 ~7억 원 미만	7억원 ~8억 원 미만	8억원 ~9억 원 미만	9억원 ~10 억원 미만	10억 원 이상	모름	평균 (억원)
전체	계	(3000)	16.1	7.7	10.3	10.4	8.6	6.3	4.3	2.6	1.1	0.9	0.7	2.5	28.2	4.2
거주지	동부산권	(872)	13.4	6.2	7.9	11.0	9.2	6.0	5.9	2.5	1.6	1.1	1.5	3.3	30.4	5.2
	서부산권	(787)	15.7	7.8	11.9	11.2	8.6	6.7	4.2	1.8	1.3	0.6	0.4	2.1	27.6	3.8
	중부산권	(932)	17.6	8.6	10.8	9.0	9.0	7.1	3.1	3.0	0.7	1.3	0.5	2.3	27.0	4.0
	원도심	(409)	19.6	8.9	11.2	10.6	6.7	4.6	4.0	3.4	0.9	0.5	0.5	1.7	27.4	3.3
취업여부	취업자	(1461)	20.2	9.7	12.4	13.5	10.8	7.8	5.3	2.9	1.2	0.9	0.5	1.5	13.4	3.5
	미취업자	(1539)	12.3	5.9	8.3	7.4	6.6	5.0	3.4	2.3	1.1	1.0	1.0	3.4	42.3	4.8
성별	남성	(1548)	14.9	7.2	9.9	10.2	9.6	6.9	4.9	3.2	1.2	1.2	0.5	3.1	27.3	4.9
	여성	(1452)	17.5	8.4	10.7	10.5	7.6	5.7	3.8	2.0	1.1	0.7	1.0	1.8	29.1	3.4
연령	18~24세	(1142)	10.4	5.4	6.4	7.5	5.7	4.0	2.8	2.5	0.8	0.8	1.0	3.9	48.7	5.1
	25~29세	(987)	20.2	7.1	11.9	12.2	9.1	7.3	5.1	2.4	1.2	1.5	0.4	2.3	19.3	4.2
	30~34세	(871)	19.0	11.5	13.7	12.2	12.0	8.3	5.4	3.0	1.4	0.5	0.8	0.8	11.4	3.0
혼인상태	미혼	(2659)	16.6	7.4	9.0	9.7	7.9	5.9	4.5	2.6	1.1	0.9	0.7	2.7	31.1	4.3
	기혼	(332)	12.3	10.6	20.5	16.3	14.3	9.9	3.3	2.9	1.9	0.9	0.9	0.9	5.4	3.4
	이혼·사별	(10)	27.0	0.0	32.4	0.0	10.2	10.2	0.0	10.2	0.0	0.0	0.0	0.0	10.2	2.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8.7	7.3	21.2	16.0	17.5	15.3	4.8	3.8	1.9	1.8	0.0	0.6	1.1	3.5
	자녀 없음	(2835)	16.6	7.8	9.7	10.0	8.1	5.8	4.3	2.6	1.1	0.9	0.8	2.6	29.8	4.2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6.8	5.3	9.1	11.9	10.2	7.8	5.6	3.2	1.4	1.2	0.9	3.1	33.6	5.1
	부모 미동거	(1103)	32.1	11.8	12.5	7.7	6.0	3.9	2.2	1.7	0.7	0.5	0.4	1.4	19.0	2.7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32.1	11.1	14.1	6.5	7.6	6.1	1.2	1.2	0.0	0.6	0.0	1.2	18.3	2.4
	대학 재학	(1192)	10.3	5.6	6.6	6.5	5.9	4.5	3.2	2.3	0.9	1.0	1.0	4.1	48.1	5.4
	대학 졸업	(1539)	18.6	8.8	12.6	13.7	10.9	7.7	5.2	3.2	1.4	0.9	0.7	1.3	15.2	3.5
	대학원 졸업	(101)	21.9	11.3	13.0	11.4	8.1	9.1	9.9	1.0	2.3	2.0	0.0	2.1	7.9	4.4

5) 주관적 가구 소득수준

- 주관적 가구 소득수준에 대하여 58.9%는 ‘평균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조금 낮다’ 25.6%, ‘훨씬 낮다’ 8.5%, ‘조금 높다’ 6.6%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59.7%가 ‘평균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58.0%가 ‘평균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낮다의 경우 18~24세의 26.3%가 응답하였고, 25~29세 37.5% , 30~34세 40.6%가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높다의 경우 취업자의 4.2%가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9.7%가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3-24〉 주관적 가구 소득수준

〈표 2-3-27〉 주관적 가구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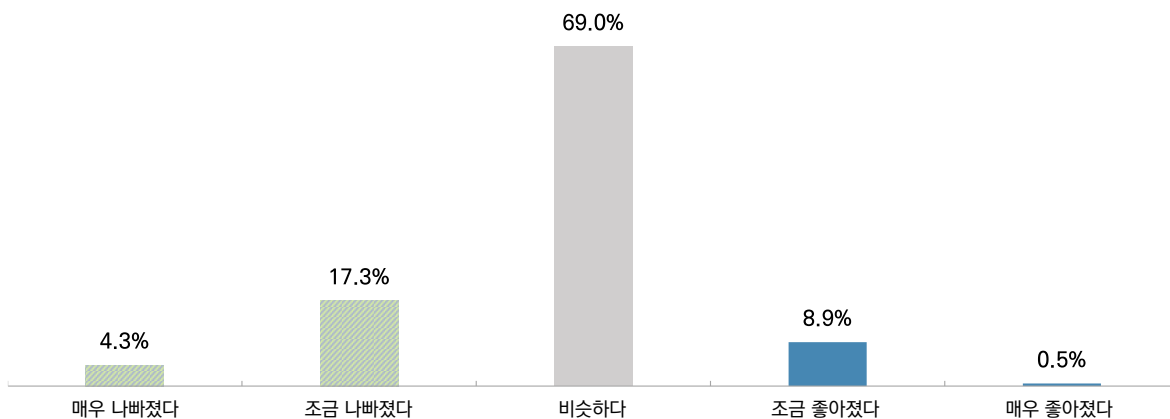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훨씬 낮다	조금 낮다	평균 수준이다	조금 높다	상당히 높다	종합평가		
								낮다	평균	높다
전체	계	(3000)	8.5	25.6	58.9	6.6	0.4	34.1	58.9	7.0
거주지	동부산권	(872)	7.4	22.5	62.9	6.7	0.5	29.9	62.9	7.2
	서부산권	(787)	8.6	28.6	56.2	6.3	0.2	37.2	56.2	6.5
	중부산권	(932)	8.8	25.5	57.9	7.2	0.5	34.3	57.9	7.8
	원도심	(409)	10.1	26.7	57.5	5.3	0.5	36.7	57.5	5.7
취업여부	취업자	(1461)	8.2	29.4	58.2	3.9	0.3	37.6	58.2	4.2
	미취업자	(1539)	8.8	22.0	59.5	9.1	0.6	30.9	59.5	9.7
성별	남성	(1548)	7.6	24.0	59.7	8.0	0.7	31.6	59.7	8.7
	여성	(1452)	9.5	27.3	58.0	5.1	0.1	36.8	58.0	5.2
연령	18~24세	(1142)	5.9	20.4	62.5	10.5	0.7	26.3	62.5	11.2
	25~29세	(987)	9.5	28.0	57.1	4.9	0.5	37.5	57.1	5.4
	30~34세	(871)	11.0	29.7	56.1	3.3	0.0	40.6	56.1	3.3
혼인상태	미혼	(2659)	9.0	25.3	58.3	6.9	0.5	34.3	58.3	7.4
	기혼	(332)	5.3	27.6	64.2	2.9	0.0	32.8	64.2	2.9
	이혼·사별	(10)	0.0	37.2	33.0	29.8	0.0	37.2	33.0	29.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4.7	27.1	63.4	4.8	0.0	31.8	63.4	4.8
	자녀 없음	(2835)	8.7	25.5	58.6	6.7	0.5	34.3	58.6	7.1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5.6	22.5	64.5	7.0	0.4	28.1	64.5	7.4
	부모 미동거	(1103)	13.5	30.9	49.3	5.9	0.4	44.4	49.3	6.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13.0	35.5	48.7	2.2	0.6	48.5	48.7	2.8
	대학 재학	(1192)	6.6	20.9	61.1	10.8	0.7	27.5	61.1	11.4
	대학 졸업	(1539)	9.5	27.7	58.6	4.1	0.2	37.2	58.6	4.3
	대학원 졸업	(101)	9.6	32.7	54.8	2.0	0.9	42.3	54.8	2.9

6) 전년 대비 가구 소득 상태

- 전년 대비 가구 소득 상태에 대하여 부산 청년의 69.0%는 ‘비슷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조금 나빠졌다’ 17.3%, ‘조금 좋아졌다’ 8.9%, ‘매우 나빠졌다’ 4.3%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71.3%가 ‘비슷하다’라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66.6%가 ‘비슷하다’라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의 68.8%가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25~29세 71.9% , 30~34세 66.0%가 ‘비슷하다’고 응답하였음
 -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나빠짐의 경우 취업자의 19.7%가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23.4%가 응답하였음

(단위 : %)



〈그림 2-3-25〉 전년 대비 가구 소득 상태

〈표 2-3-28〉 전년 대비 가구 소득 상태

(단위 : %)

구분		사례수	매우 나빠졌다	조금 나빠졌다	비슷하다	조금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종합평가		
								나빠짐	비슷	좋아짐
전체	계	(3000)	4.3	17.3	69.0	8.9	0.5	21.6	69.0	9.4
거주지	동부산권	(872)	3.7	14.4	72.9	8.5	0.4	18.1	72.9	9.0
	서부산권	(787)	4.6	18.9	66.6	9.3	0.7	23.5	66.6	9.9
	중부산권	(932)	4.6	17.1	69.4	8.5	0.4	21.7	69.4	8.9
	원도심	(409)	4.2	21.0	64.4	9.9	0.5	25.2	64.4	10.4
취업여부	취업자	(1461)	3.5	16.2	72.0	8.0	0.2	19.7	72.0	8.2
	미취업자	(1539)	5.0	18.4	66.1	9.8	0.8	23.4	66.1	10.5
성별	남성	(1548)	4.2	14.9	71.3	8.8	0.8	19.1	71.3	9.6
	여성	(1452)	4.3	19.9	66.6	9.0	0.1	24.3	66.6	9.1
연령	18~24세	(1142)	3.1	15.2	68.8	12.0	0.9	18.3	68.8	12.9
	25~29세	(987)	3.2	17.7	71.9	6.7	0.4	21.0	71.9	7.1
	30~34세	(871)	7.0	19.6	66.0	7.4	0.0	26.6	66.0	7.4
혼인상태	미혼	(2659)	4.1	17.6	68.8	9.0	0.5	21.7	68.8	9.5
	기혼	(332)	5.4	15.4	71.0	7.9	0.3	20.8	71.0	8.2
	이혼·사별	(10)	0.0	19.4	60.3	20.3	0.0	19.4	60.3	20.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5)	6.7	16.9	67.2	9.3	0.0	23.6	67.2	9.3
	자녀 없음	(2835)	4.1	17.4	69.1	8.9	0.5	21.5	69.1	9.4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97)	3.0	15.6	71.4	9.5	0.5	18.6	71.4	10.0
	부모 미동거	(1103)	6.5	20.2	64.9	8.0	0.4	26.7	64.9	8.4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8)	6.7	17.1	69.1	7.1	0.0	23.8	69.1	7.1
	대학 재학	(1192)	3.8	15.8	67.7	11.7	1.0	19.6	67.7	12.7
	대학 졸업	(1539)	4.2	18.6	70.4	6.6	0.2	22.8	70.4	6.8
	대학원 졸업	(101)	7.1	16.4	62.5	14.0	0.0	23.5	62.5	14.0